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中共의 對外政策理論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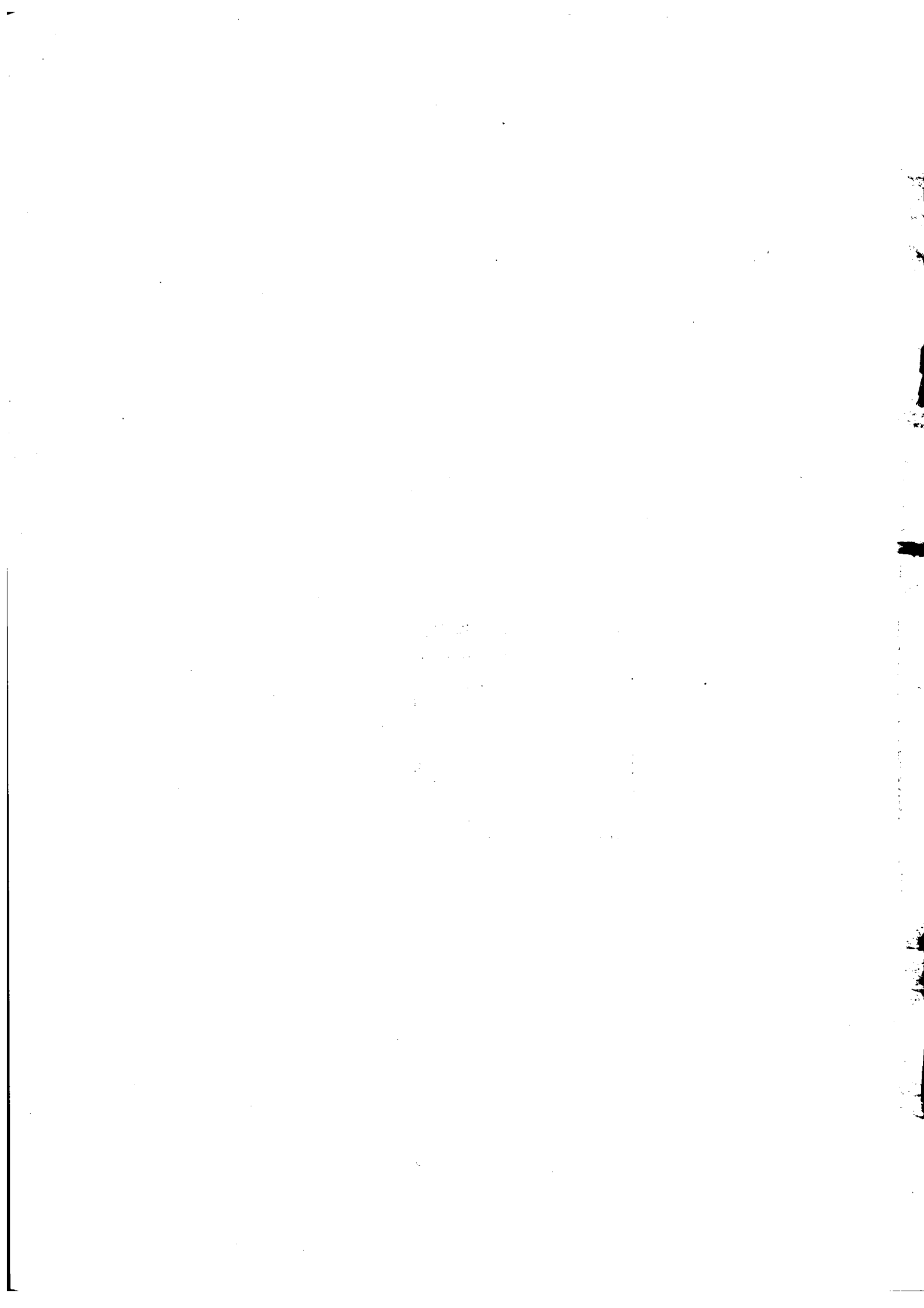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世 鉉 (共產圈 研究官)

刊行責任 趙 建 植 (調査研究室補佐官)

朴 英 鎬 (調査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第一章	序 論	5
第一節	問題意識의 所在	5
第二節	研究範圍 및 方法, 資料	11
第二章	毛沢東의 國際政治思想	16
第一節	毛沢東의 認識論	16
가.	實踐的 理論家로서의 毛沢東	16
나.	認識論	22
다.	矛盾의 概念과 論理構造	31
	- Hegel의 인가? 陰陽論的인가? -	
第二節	毛沢東의 矛盾論	42
	- 友·敵概念과 關聯하여 -	
가.	矛盾의 普遍性和 特殊性	42
나.	主要矛盾, 次要矛盾과 新陳代謝	49
다.	矛盾方面사이의 同一性和 鬭爭性	56
라.	對抗性的 矛盾과 非對抗性的 矛盾	62
	- 敵과 同志의 区分을 中心으로 -	
第三節	毛沢東의 戰爭觀	73
가.	人性論	73

나. 革命的 樂觀主義과 持久戰論	81
다. 革命期 毛沢東의 戰爭觀	89
라. 執權後 毛沢東의 戰爭觀	94
第四節 毛沢東의 國際政治思想의 特性	104
가. 對內的 價値의 國際的 擴散	104
나. 大衆主義	105
다. 平等主義	113
라. 民族主義 : 中華思想의 持續	119
第三章 中共의 對外政策理論 變化過程	128
第一節 中共의 對外政策 基調 및 指針	128
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世界革命理論	128
나. 中國共產主義의 特徵	137
다. 毛沢東 戰略	145
第二節 兩大陣營論	151
가. 兩大陣營論 展開까지의 經過 및 背景	151
나. 中·蘇條約의 締結과 中·蘇의 葛藤	163
다. 「抗美援朝」政策決定過程과 韓國戰介入結果	173
第三節 平和共存論	187
가. 中共의 平和共存論의 起源	187
- 레닌의 平和共存論 -	

나. 平和共存外交 展開의 背景	191
다. 「平和共存五原則」과 中共外交	201
第四節 中間地帶論	213
가. 中間地帶論 抬頭의 國際政治的 背景	213
- 中·蘇의 外交的 競争과 葛藤 -	
나. 中間地帶論의 革命理論的 背景	220
다. 中間地帶論과 對西歐接近試圖	234
- 第 1, 2 中間地帶로의 分化過程 -	
第五節 造反外交論	248
가. 造反外交論 展開過程 및 中共의 對外關係	248
나. 造反外交의 國內政治的 背景	256
다. 造反外交의 思想的 背景	261
第四章 三世界論과 中共의 國際秩序觀	269
第一節 三世界論 展開의 背景	269
가. 社會帝國主義非難과 造反外交의 後遺症 收拾	269
나. 林彪의 肅清과 對美·對日接近	279
다. 矛盾論과 勢力均衡論의 結合	288
第二節 三世界論의 理論的 展開	298
가. 霸權主義·超強國概念의 定立과 主敵의 設定	298
나. 鄧小平의 三世界論	308

다.	알바니아의 三世界論 批判과 中共의 対応	320
第三節	三世界論의 政治經濟學	329
가.	三世界論과 反霸權主義國際統一戰線의 摸索	329
-	그 理論과 實際 -	
나.	三世界論以後 中共外交의 新趨勢	340
-	現代化外交와 勢力均衡追求의 併行 -	
第四節	三世界論과 아시아	353
가.	中共의 아시아政策基調.....	353
나.	中共의 韓半島政策	362
-	三世界論以後 對北韓支援問題를 中心으로 -	
第五章	結 論	374
※	參考文獻	379

第一章 序 論

第一節 問題意識의 所在

1970 年代의 國際秩序는 커다란 變化를 보였고, 그것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東北亞였다.

所謂 「四強體制」라고 불리우고 있는 東北亞의 國際秩序樹立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서는 中共의 對外政策과 그 對外關係類型의 激變現象을 窺見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中共의 對外政策의 激變과 그에 따른 對外關係의 調整 結果로 東北亞에는 中共을 包含하는 四強의 勢力均衡이 形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

勿論 이러한 變化가 中共의 主導下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美·日의 指導者들이 그들의 必要에 의해 中共을 더 以上 國際的으로 孤立시키고 排除하려는 努力을 拋棄한 結果인 것이다.²⁾ 그러나 中共이 狀況變化에 全적으로 受動的인 姿勢만 취한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政策的 需要에 따라 變化해 가는 狀況을 再評價하고 對外政策·戰略을 再樹立하여 國際的 進出을 積極적으로

註 1) 四強體制的 形成過程과 四強間의 相互關係를 中共의 對外政策에 焦點을 맞추어 分析한 研究業績으로는 A. Doak Barnett, China Policy: Old Problems and New Challenge (Washington: Brookings, 1977); idem,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Brookings, 1977) 參照.

2) Ibid.

試圖한 結果로 中共의 國際的 地位와 役割이 強化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政策은 어떠한 背景을 가진 것인가 하는 疑問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어느 國家든지 國際社會에서의 自己生存을 確保하고 나아가서는 自己의 影響力을 強化시키려는 意志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政策的 目標設定은 恆用 一定한 準拠(Frame of reference)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여기서 말하는 中共의 對外政策樹立과 遂行의 背景이란 바로 이러한 準拠를 指稱하는 것으로서, 그 準拠를 國際秩序觀이라고 하기로 한다. 國際秩序觀에 影響을 미치는 因素들은 여러가지로 들 수 있다.³⁾

첫째, 共產國家로서의 中共의 國際秩序觀이 形成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의 要因을 排除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긴 歷史와 더불어 「中華의 榮光」이라는 文化的 傳統 또한 中共의 國際秩序觀 形成에 있어 빠질 수 없는 重要한 因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 帝國主義와 植民主義에 對한 斗争史로서의 中國의 近代史는 中國人들에게 強한 民族主義的 感情을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中共의 國際秩序觀 形成에 있어 民族主義 - 특히 抵抗的인 性格의 民族主義가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註3) 鄭鍾旭, 「中共의 最近 對韓半島 政策」,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78), pp. 16-20. (以下 「韓半島政策」으로 略記): 崔明, 「中共의 外交政策과 그 形成要因」,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1卷, 第2号(1979.9), pp. 2-3. 參照.

넷째, 以上과 같은 因素들이 發展指向的인 性格의 것들이라면, 安保에 對한 考慮는 生存 그 自体에 直結되어 있는 問題로써, 國際秩序를 分析하고 構想하는 데 있어 其實 第一次的인 考慮의 對象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對外的인 發展을 指向하기 前에 安保가 確保되고 난 뒤, 國家의 指導者로써는 國利民福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點에서 對內經濟的 發展水準에 無關하게 對外政策目標가 設定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點에서 對內經濟的인 要因 또한 國際秩序觀 形成에 間接的으로나마 作用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以外에도 對內政治的 權力斗争, 政策決定者들의 性格(personality), 軍事的 力量, 對外的 環境与件등이 對外政策決定의 基準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國際秩序觀 形成의 間接的 因素로 作用할 수 있으나, 대체로 이러한 因素들은 狀況變化에 따라 影響을 받는 從屬 變數的 性格이 더 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中共의 國際秩序觀은 크게 보아 이데올로기, 文化的 傳統, 民族主義的 感情, 安保欲求, 經濟的 發展水準들을 主要變數로 하여 形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國際秩序觀의 形成要因들을 如上하게 規定할 수 있다면 對外政策과 理論의 變化過程은 곧 國際秩序觀의 自己具現過程이라고 定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國際秩序觀이 對外政策理論으로 具現되기 위해서는 一定한 法則이 있을 것이다. 即 對外政策을 樹立하고 決定하는 사람들이

國際政治를 認識하고 分析하며 對策을 세우는 데 있어 使用하는 理論的 틀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變하지 않을 수도 있고 變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社會의 文化의 持續力이란 매우 強하고 집요한 것이어서 한나라의 指導者나 國民들의 思惟方式이 急激하게 變化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國際政治를 認識하고 分析하며 對策을 세우는 데 있어 使用되는 理論的 틀이라는 것도 發展的 變化 또는 辯証法的 止揚 (Aufheben)은 할 수 있을지언정 斷絶된다거나 反轉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Selitz 는 " 既存 知識을 概觀하고 觀察된 事件과 諸關係에 對한 說明을 갖추어야 하며 나아가서 理論속에 內包하고 있는 說明的 諸原則에 基礎하여 아직 觀察되지 않고 있는 事件과 諸關係의 發現을 豫測하는 것⁴⁾이 現代科學에 있어서의 理論研究의 目的이라고 했다. 또한 A. Kaplan 은 " 理論의 價值는 그것이 주는 解答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提起하는 새로운 問題에 있다.⁵⁾ 라고 理論의 機能을 論했다.

Hegel 은 일찌기 「世界精神 (Welt-Geist)」이 「外化 (Äusserung)」하여 自己를 具現시키는 것이 歷史라고 規定하면서,

註4) C. Selitz et al.,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s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9). p.481.

5) Abraham Kaplan, The Conduct of Inquiry (San Francisco : Chandler Publishing Co., 1964), p.320.

「世界精神」의 「外化」過程을 辯證法의 論理에서 說明하려 한바 있다.

本稿에서는 Hegel의 歷史發展 說明의 論理를 援用하여 中共의 國際秩序觀이 對外政策으로 具現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一定한 法則」을 찾아내고 나아가서는 장차 中共의 對外政策을 展望하는데 있어 理論的. 틀을 定立해 보고자 한다.

第二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資料

中共의 國際秩序觀이 對外政策으로 具現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一定한 法則」을 찾으려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本稿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研究範圍를 設定하기로 한다.

첫째 毛沢東의 國際政治思想에 對한 考察을 通해 中共의 對外政策決定의 基本要素의 하나인 이데올로기의 特性을 檢出해 낸다.

아울러 毛沢東自身の 國際秩序觀속에서의 傳統的 要素와 民族主義的 要素를 檢出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試圖는 現在 中共의 政治情勢로 보아 그 効用性에 對한 論難의 余地를 안고 있다. 毛沢東死後 毛沢東의 遺産들이 毛沢東自身の 이름을 빌어 차츰 整理되어가고 있고 그의 相統者들이 거의 肅清되었거나 완전히 失權狀態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1978年 12月の 中共黨11期3中全会에서 占火된 毛沢東에 對한 格下運動은 날로 더해가는 反面, 한때 反毛沢東勢力으로 낙인찍혀 肅清을 당했던 「走資派」들이 復權하여 鄧小平을 頂点으로 現代化外交에 總力을 傾注하고 있음도 事實이다. 그러나 毛沢東格下를 위한 批判論文들이 노골적이고 極烈한 表現까지 써가면서 毛沢東의 失手를 非難하고 있지만, 그 內容을 보면 對內政策에서의 失手와 錯誤를 指摘하는 것들일 뿐, 對外政策에 對한 批判은 거의 없음이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뿐만 아니라 鄧小平을 頂点으로 하는

註6) 第二章, 第一節, 가. “實踐的 理論家로서의 毛沢東”에서 詳論.

復權勢力 또한 毛沢東時代に 그 政治的 活動을 했고 政策樹立에 參與했다는 事實에서 그들에게 毛沢東的 殘滓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毛沢東의 思想과 思惟方式을 發展적으로 受容하여 自己나름의 觀을 세울 수 밖에 없었다고 볼 때에, 毛沢東의 國際 政治思想에 對한 分析과 그것에 根拠하여 中共의 對外政策理論의 展開過程을 考察하는 데는 瑕疵가 없게 된다.

둘째, 政權樹立以後 文化大革命期까지 對外政策의 理論的 展開過程을 考察하기로 한다.

이러한 單元設定은 두가지의 理由를 가지고 있다.

우선, 最近 中共外交의 趨勢를 보면 文化大革命以前과 커다란 差異를 보이고 있다. 中共은 文化大革命以後 反蘇政策을 露骨히 할뿐아니라, 美國, 日本, 西歐와의 同盟追求的 接近을 強化하므로써 軍事的이고 經濟的인 目的을 同時에 達成하려 하고 있다. 한 마디로 中共外交의 性格이 文化大革命以後에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文化大革命以前에는 對蘇抗爭에도 不拘하고 基本的으로 陣營的 思考의 基礎위에서 對內政策을 樹立·執行해왔으나, 文化大革命以後 부터는 陣營的 思考를 脫皮하여 對內外政策을 樹立하고 執行하고 있기 때문에 一但은 文化大革命以前의 對外政策理論의 흐름을 별도로 考察할 必要가 생긴 것이다.

다음, 上記한 바와 같은 規實的 理由도 있지만 理論的으로도 中共의 對外政策理論은 큰 變化를 했다. 現在 中共의 對外政策理論이라 할 수 있는 三世界論은 과거 中共으로서는 想像할 수 없었던

西方的 概念 - 例컨대 勢力均衡 - 까지 導入하여 展開되고 있다는 点에서 文化大革命以前の 對外政策理論들과는 다른 点을 보여주고 있다.

政權樹立以後, 文化大革命期까지의 對外政策理論은 몇개의 段階로 区分해서 보기로 한다. 中共의 對外政策 理論段階를 設定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論難의 余地가 없는 것은 아니다. 原來 歴史的 接近에 있어서의 時期区分 問題는 그 自体가 論者의 史觀을 反映하는 問題이지만, 바로 그러한 理由때문에 時期区分이 論難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本稿에서의 對外政策理論段階区分이 전혀 姿意的인 것은 아니다. 中共研究學者들의 論議를 종합해 보면 政策樹立以後 中共의 對外關係는 대체로 - 물론 期間中에도 起伏이 있었지만 -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段階를 거쳐 現今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即 1) 對蘇依存期 2) 獨自路線 摸索期 3) 中·蘇冷戰期 4) 文革期 5) 中·美·日和解期的 5個 時期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 年代에 있어서는 異論들이 많다.

註 7) Barnett, Uncertain Passage :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 Brookings, 1974), 특히 pp.245-315 : Michael B. Yahuda,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8) : Harold Hinton, China's Turblent Quest : An Analysis of China's Foreign Policy Since 1949, (New York : Mac-Millan, 1972) : 鄭鍾旭, "中共의 外交政策과 韓半島", 「社会科学과 政策研究」, 第1卷, 第2号(1979.9)(以下 "外交政策"으로 略記)参照.

年代에 있어 異論들이 많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理論段階로 나누어서 理論의 生成과 消長過程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理論이란 원래 돌연변이의 出現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理論속에서 胎胎되는 것이어서 理論段階로 区分하는 경우 明確한 時點을 提示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提示하지 않아도 許容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單元에서는 現在 中共의 對外政策理論인 三世界論을 分析하되 過去 對外政策理論과의 關係를 檢出하고자 한다. 即 과거 對外政策理論에서의 因素들의 持續과 變化狀態를 檢証하므로써 中共의 國際秩序觀이 自己 具現態에 對한 最終 點檢을 해보고자 한다.

對外政策理論의 變化過程을 分析하는 데 있어서는 變化의 背景과 理論自体의 主要旨 및 새理論의 政策的 展開에 對한 理解를 위하여 對內外的 狀況과 連繫시켜 分析하고자 한다. 即 連繫理論 (Linkage Theory)을 援用하여 政策理論의 變化와 展開過程을 分析하되, James Rosenau나 Rudolf Rummel이 내세우고 있는 連繫理論보다는 평범한 意味 - 即 對外政策은 對內的 制度나 學件에 依해서 크게 影響 받는다는 - 에서의 連繫理論을 適用하고자 한다.⁸⁾

註 8) James Rosenau나 Rudolf Rummel의 Linkage Theory에 對한 간략한 分析과 評價는 鄭鍾旭, "外交政策", pp. 32-34. 參照.

本研究는 理論에 對한 研究이기 때문에 主로 文獻을 分析하여야 만 하도록 되어 있다. 文獻分析을 基本으로 할 때는 항상 資料의 問題가 따른다. 특히 共產圈問題를 研究하는 데 있어서는 資料의 接近도 問題이지만 資料의 信憑度라는 것이 問題가 된다.

一般的으로 共產國家는 共產主義이데올로기에 對한 信念을 機會있을 때마다 強調하므로써 統治를 正當化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大部分의 文件들이 宣傳性的 文件이기 쉬우며 이러한 立場은 對外關係文件이라고 해서 例外는 아니다. 그러나 共產國家의 問題를 研究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色彩에도 不拘하고 公式的으로 發表된 文件을 一次資料로 삼지 않을 수 없다. 勿論 公式表明한 立場과 그 實踐이 그대로 一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理論과 實際사이의 不斷한 檢證이 必要하다.⁹⁾

註 9) Richard Lowenthal 은 共產國家의 對外政策이 理論과 實際에 있어 差異를 보이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正統性 賦與權能 때문에 共產國家 指導者들은 자기네의 主張과 立場이 共產主義 理論上 正統이며 一貫性を 지니고 있다는 事實을 強調하기 爲하여 理論에 對한 言及을 되풀이 한다. 둘째, 그러나 具體적인 問題에 對한 固定된 政治的 教義는 장차 行動을 拘束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包括적인 理論만 展開하고 核心을 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Richard Lowenthal, "Soviet and Chinese World Views", Donald W. Treadgold(ed.) Soviet and Chinese Commun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7), p. 375.

理論과 實際사이의 不斷한 檢證을 必要로 할만큼 共產國家의 文件이 宣傳적이기는 하지만, 公式文件에서 자주 論及되는 問題마저 宣傳적인 性格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해서 共產國家의 文獻을 分析하므로써도 그 國家의 政策目標와 方向은 感知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立場에 따라 中共의 文獻들을 大擧活用하고자 한다. 資料의 接近이 可能한 限 英文으로 번역된 資料보다는 中國語 原文을 重視하기로 한다. 그 理由는 中國文字가 表意文字이기 때문이다. 卽 中共文字로만 表現할 수 있는 독특한 紐앙스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其他 國際政治的 事件이나 狀況說明에 對한 資料는 既存業績들에서 引用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다. 本稿의 目的自体가 理論의 變化過程을 主로 分析하는 것이기 때문에 瑕疵가 되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註 10) Ibid.

第二章 毛沢東의 國際政治思想

第一節 毛沢東의 認識論

가. 實踐的 理論家로서의 毛沢東

毛沢東은 그의 著作들에서 「人間의 行為는 思想의 表出이고, 思想은 物質的 條件에 依해서 決定된다」는 見解를 數次 披歷하고 있다.¹⁾ 毛沢東의 이러한 因果論的 論理에 따르면 行動이란 곧 主觀이 客觀으로 轉換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中共의 對外活動도 結局은 國際社會에서의 中共의 位置에 對한 中共自身の 觀念의 表出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中共自身이 보는 中共, 바꾸어 말해서 自我觀은 本質과 方法이 体系的으로 結合됨으로써 形成되는 것이다. 一國의 自我觀을 實體라는 側面에서 보면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設定된 價値와 規範이 意識이라는 濾過裝置를 通해 体系化 된 것으로서 國際秩序觀의 土台를 이룬다. 한편 方法論上으로 볼 때 自我觀은 思惟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卽 政策決定者들이 世界의 狀況을 어떻게 規定하고 世界의 意味를 어떻게 評價하며, 자기들로서 取할 수 있는 올바른

註 1) Samuel S. Kim.,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49.

行動路線을 어떻게 確定할 것인가의 基準이 되는 것이다.²⁾

孔子的 正名論이나 「禮出於情」이라는 論理를 이어받아 正確한 行爲는 正確한 思想의 表現이라는 見解가 中共의 主要한 理論的 著作들의 基本論理가 되고 있다. 中共의 對外政策方向을 展望하기 위해서 그 理論的 根底를 이루는 中共의 世界觀 - 또는 宇宙觀으로도 불리는 - 을 分析할 必要는 中國人들의 이러한 思惟方式 때문에 생긴다 하겠다.

大體로 中共의 主要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毛沢東의 役割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특히 對外政策史上 重要한 時期에 있어서의 毛沢東의 役割은 決定的이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大躍進 人民公社등 無理한 經濟政策이 失敗한 뒤 劉少奇에게 實權을 넘기고 第二線에 물러서 있어야 했던 期間(1959-1965) 동안에도 中-蘇理念紛爭등 國際社會에서의 中共의 位置 및 이미지와 關聯된 問題에 對한 作業過程에서의 影響은 매우 컸다고 한다. 勿論 中共人民들이 毛沢東을 恆常 敬愛하여 마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中共人民들에게 있어서 毛沢東은 國際社會에서의 中共의 運命을 左之右之할 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로 認識될 만큼의 카리스마적 權威를 認定받고는 있었으며 權力上層部에 對한 支配力도 絶對적인

註2) Ibid.

것이였다.³⁾

毛沢東死後 中共党 11 期 3 中全会 (1978. 12. 18-22)에서 毛沢東生前의 錯誤가 直·間接적으로 指摘됨으로써 毛沢東 格下運動이 党内에서 일기 시작하여 1979 年 10 月 1 日 中共建国 30 周年記念式에서의 李先念의 報告에서 公式化했다. 大体로 보아 人民公社 大躍進運動以前の 毛沢東의 政策選択은 良好했으나, 1958 年以後 毛沢東의 政策的 決定들 中에는 中共의 發展에 害毒을 끼친 것이 더 많았고, 특히 文化大革命의 展開는 그 害毒에 있어 絶頂을 이루었다는 것이 毛沢東業績 評価의 基本論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對外問題에 關해서는 別다른 攻撃이 없는 것을 보면 毛沢東格下運動이 일고 있다는 그 自体로 보아 毛沢東이 中共對外關係에 미친 影響까지 否認하게 되는 契機는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⁴⁾

註3) 中共政權樹立以後 政策決定過程에서의 毛沢東의 役割에 對해서는 Michael Oksenberg, "Policy Making under Mao, 1949-1968: An Overview", in John M. Linobek(ed.), China: Management of a Revolutionary Socie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1), pp. 79-115. 参照

4) 1979 年 下半期 中共党 中央工作會議에서 鄧小平系로 알려진 王若水(人民日報 副總編輯)가 毛沢東格下閔聯 秘密報告를 했다. 約三萬字로 된 同 報告書는 지금까지의 毛沢東批判內容 中 가장 露骨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對外問題 閔聯 事項은 없다. 王若水の 秘密報告要約文은 「北韓」, 101 号 (1980. 5). pp. 64-78 収録.

毛沢東의 많은 著作들 中에서 가장 理論的인 三部作으로서는 「實踐論」(1937.7), 「矛盾論」(1937.8),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题」(1957.2)를 드는 것이 通說이다.⁵⁾ 勿論 이 세 編의 論文들이 모두 毛沢東自身の 獨創的 作品인가에 對해서는 論亂이 많지만⁶⁾ 毛沢東이 一貫하여 되풀이하는 主張들이 主로 이 세 編의 論文에 収録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임은 分明하다. 中共軍秘密 指令文의 하나인 「工作通訊」에서도 毛沢東의 著作들을 學習할 것을 強調하면서 「實踐論」, 「矛盾論」, 「關於工作方法六十條」(1958.1)를 들고 있다.⁷⁾ 毛沢東도 Edgar Snow와의 인터뷰에서 「實踐論」과 「矛盾論」은 매우 重要的 論文이며 「實踐論」이 「矛盾論」보다 더 重要的 論文이라고 말한 바 있다.⁸⁾

註 5) Samuel S. Kim, op. cit., p. 51.

6) 毛沢東著作의 獨創性에 對해서는 Stuart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9), pp. 85-90;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 7-28; H. Arthur Steiner, "On the Record with Mao and His Regime," Journal of Asian Studies, No. 17 (Feb. 1958), pp. 215-223; China Quarterly, No. 19 (1964), pp. 38-46 參照.

7) "Excerpts of the Record of Comrade Lo Jung-huan's Instruction to the Political Academy on the Study of Mao Tse-tung's Works", J. Chester Chung (ed.), The Politics of the Chinese Red Army (工作通訊)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66), p. 225.

8) Edgar Snow, "Interview with Mao," The New Republic (Feb. 27, 1965), p. 14; Samuel S. Kim; op. cit., p. 52.

以上을 통해서 볼 때 「實踐論」과 「矛盾論」은 毛沢東의 著作들 中에서 가장 重要한 論文들임은 分明하며, 「實踐論」의 重要性이 훨씬 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毛沢東思想에서의 認識論을 考察하기 위해서는 「實踐論」을 배놓을 수가 없다. 1971年 5月 中共黨理論誌 「紅旗」는 毛沢東의 「實踐論」이 世界를 認識하고 改造하는 思想武器임을 力說하는 論文을 掲載한 바도 있다.⁹⁾

그러면 毛沢東의 認識論分析에 앞서 理論家로서의 毛沢東이 갖는 顯著한 特性들을¹⁰⁾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毛沢東은 實踐的인 思想家였기 때문에 純粹知識이나 抽象的인 知識은 적어도 그에게는 쓸모없는 것이었다. 實際로 그는 知識이란 人間의 社会的 實踐과 無關하게 發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實踐과 隔離된 認識論이란 毛沢東에게는 無意味한 것일 뿐이었다.

둘째, 对内·外政策的 問題에 對해서 毛沢東은 辯證法的으로 思惟하면서 對策을 찾으려 했다. 毛沢東의 辯證法的 思考의 틀이 中国固有의 陰陽論에 立脚한 것인지 아니면 Hegel的인 辯證法에 立脚한 것인지는 論亂의 余地가 많다. 그러나 大体로 보아 毛沢東의

註 9) 中國共產黨 遼寧省委員會寫作小組, "認識世界和改造世界的 強大思想武器: 學習實踐論, "「紅旗」, 1971.5. pp.11-19.

10) Samuel S. Kim, op.cit., pp.52-53 參照.

辯証法은 陰陽論의 色彩가 짙게 풍기고 있다.¹¹⁾

셋째, 毛沢東을 非難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가지 側面에서 非難의 素材를 찾아내고 있지만, 毛沢東이 彈力性있고 率直한 思想家였음은 否認하기 어려운 問題다. 그는 教條主義와 經驗主義의 弱點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不斷히 努力했다.

넷째, 毛沢東은 恆常 國際情勢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延安에 있을 때도 國際政治의 흐름에서 눈을 빼지 않고 있었으며, 國際政治의 狀況變化에 따라 敵과 同志를 区分하면서 中國의 國家利益을 不斷히 規定·修正하고 또 再規定하였었다. 毛沢東의 「비전」이 넓은 範圍의 것이 될 수 있었던 理由는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우선 毛沢東自身이 國際問題에 깊은 關心과

註 11) Stuart Schram은 毛沢東의 矛盾論이 陰陽論의 影響을 받았음을 指摘하고 있으나(Schram,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p.90. Samuel S. Kim은 이 問題에 對하여 結論을 留保하고 있다. (Samuel S. Kim, op. cit., p. 52) ... 이 點에 對해서는 第二章 第一節 多項에서 詳論.

知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¹²⁾ 또 한편으로는 어떤 問題狀況을 細部的으로 살피지 않고 크게 잡아 하나로서의 特徵을 抽出해낸 뒤 要素間의 關係를 檢出해내는 毛沢東의 概念化性向때문이었다.¹³⁾

다섯째 毛沢東은 價值指向的 思想家였다. 그의 理論的 著作들 모두가 크게 작게 革命的 價值나 主張과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 認識論

毛沢東의 認識論은 宇宙發展法則에 關한 두 가지 見解, 即 形而上學的 見解와 辯證法的 見解가 相互對立해왔음을 前提하고

註 12) 毛沢東의 國際問題에 對한 關心의 領域과 知識程度에 對해서는 Jerome Chen (ed.), Mao: Great Lives Observ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9), p. 128; John Gittings,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pp. 64-65; Michael Oksenderg, "Policy Making Under Mao," *op. cit.*, p. 67; Edgar Snow, Red China Today (New York: Vintage Books, 1971), p. 177; *idem.*,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Grove Press, 1961), pp. 76-77; Anna Louise Strong, "A World's Eye View from a Yenan Cave," Amerasia, 11 (Apr. 1947), p. 123; Stuart Schram,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Talk and Letters, 1956-1971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 298; John Gittings, "New Light on Mao: His View of the World," China Quarterly, No. 60 (Dec., 1974), p. 751 參照.

13) 毛沢東의 概念化 性向에 對해서는, 「毛沢東選集」, 第一卷 (北京人民出版社, 1969) pp. 97-98, 139-140, 155-156, 159-160 參照.

있다.¹⁴⁾

形而上学的 - 또는 唯心論的 - 宇宙觀이 中國은 勿論 歐洲 歷史에 있어서 相當히 長期間 동안 人類의 思想을 支配해 왔었음이 事實이지만 그것이 衰退할 수밖에 없었다고 指摘하면서, 毛沢東은 그 理由를 다음 두 가지로 要約했다.¹⁵⁾ 첫째 形而上学的 宇宙觀은 社會變化에 對하여 너무 靜態的인 觀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形而上学的 宇宙觀에서는 社會變化的 原動力을 社會外的인 條件 即, 地理, 氣候 등의 條件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毛沢東은 또한 「歷史는 되풀이 한다」는 命題를 拒否하면서 形而上学者들이 "事物은 한 번 그 特性이 決定되면 永遠히 같은 形態만을 反復해서 나타낼 뿐 다른 事物로 變化할 수 없다."라고 主張하고 있음을 非難하고 있다. 이러한 思想의 中國的 表現이 " 하늘이 變하지 않으면 道 亦是 變하지 않는다. (天不變, 道不變)"는 생각이라고 指摘하면서 그것은 바로 腐敗한 封建統治階級の 擁護를 받던 바라고 攻擊하고 있다.¹⁶⁾

形而上学的 宇宙觀에 對하여 大體로 以上과 같이 評價하면서 唯物論的 宇宙觀에 對해서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註4) 毛沢東, "矛盾論", 「毛沢東選集」, 第一卷, p.275.

15) Ibid.

16) Ibid., p.276.

“唯物辯証法的 宇宙觀은 事物의 内部로부터 또는 한 事物이 다른 事物에 對하여 갖는 關係로부터 事物의 發展을 研究한다. 即 事物의 發展을 事物内部에서 있어나는 必然的인 自己運動으로 看做하고 每事物의 運動은 그 事物 周圍의 其他事物과 相互關係를 맺고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事物發展의 根本原因은 事物의 外部에 있지않고 事物内部에 있으며 바로 事物内部의 矛盾性에 있는 것이다. 어떤 事物이든지 그 内部에는 이러한 矛盾性이 있는데 이로 因하여 事物의 運動과 發展이 일어나는 것이다. 事物内部의 이러한 矛盾性이 事物發展의 根本原因이고 한 事物과 다른 事物間의 相互關係나 相互影響은 事物發展의 二次的 原因인 것이다.¹⁷⁾

唯物辯証法的 宇宙觀은 形而上學的 宇宙觀과는 달리, 社會發展의 根本原因을 事物内部에 存在하는 矛盾性으로 보고 事物間의 相互關係나 影響을 變化의 條件으로 把握한다는 것이다. 上記 句節은 「矛盾論」의 一部分이다. 「矛盾論」이 黨內的 教條主義勢力에 對한 攻擊의 一環으로 쓰여졌음을 勘案하면¹⁸⁾ 蘇聯方式으로 中國革命을 遂行하기보다는 中國問題는 中國의 獨特한 内部 矛盾

註 17) Ibid.

18) Ibid., p.274 (註) 參照.

狀況을 잘 理解하고 거기에서 解決方案을 찾아내야 한다는 點을 力說하기 爲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教條主義의 陷阱에 빠지지 않고 中國의 独自の인 革命路線을 確立하려는 毛沢東의 意志가 엿보이는 句節이다.

中國内部의 矛盾解決로써 中國革命을 想定하고 있었기 때문에 毛沢東은 辯證法的 宇宙觀이 目的이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社會· 歷史的 發展過程에 있어서 發生하는 矛盾들을 解決하는 方法論的 道具임을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 辯證法的 宇宙觀은 一次的으로 우리에게 事物의 矛盾的 運動을 觀察·分析하고, 分析에 依拠하여 矛盾을 解決하는 方法을 우리에게 提示해 준다. 따라서 事物의 이러한 矛盾法則을 具體的으로 理解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重要한 것이다. ”¹⁹⁾

唯物辯證法的 宇宙觀의 中心概念으로서 矛盾을 내세우면서 矛盾이 遍在하는 人間社會에서 살아가는 人間의 認識形成과 發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먼저 認識形成要因에 對한 論議부터 보기로 한다.

“ 人間의 社會的 實踐은 生産活動이라는 한 가지 形式에 그치지 않고, 階級鬪爭 政治生活 科學 및 藝術活動등 一切

註 19) Ibid., p.279.

領域이 社会的 實踐에 該當한다. 따라서 人間의 認識은 物質生活 및 政治生活, 文化生活 - 勿論 政治生活, 文化生活이 모두 物質生活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지만 - 을 하면서 人間과 人間사이의 各種關係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各各 다른 程度로 깨닫게 된다. 그중에서도 各種形式의 階級鬪爭이 人間의 認識發展에 深刻한 影響을 미친다. ²⁰⁾

毛沢東은 人間의 認識은 社会的 實踐 即 人間의 實際生活過程 中에 생기는데 그중에서도 階級鬪爭이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認識이 發展하는 過程은 如何히 說明되고 있는가?

“마르크스主義者들은 人類社會의 生産活動이 低級에서 高級으로 向하여 한 발 한 발 發展해나가는 것으로 믿는다. 마찬가지로 人間의 認識도 - 그것이 自然界方面에 對한 것이건 社會方面에 對한 것이건 - 低級에서 高級으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片面的인 데서 多面的인 데로 한 발 한 발 發展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 마르크스主義者들은 人間의 社会的 實踐만이 外界에 對한 認識의 眞理性을 判가름하는 基準이 된다고 생각한다. 實際로 人間들이 社会的 實踐(物質生産過程 階級鬪爭過程 科學實驗過程등)

註 20) 毛沢東, “實踐論”, 「毛沢東選集」, 第一卷, p.260.

을 하면서 그가 豫想했던 바의 結果에 이르렀을 때 人間의 認識이 檢證되는 것이다. 人間이 自己가 하는 일에서 勝利를 거두고자 한다면, 卽 豫想하는 바의 結果를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自己의 思想이 客觀的 外界의 規律性에 맞도록 調整을 해야 한다. 萬若 思想이 客觀的 外界의 規律性에 맞지 않으면 實踐에 있어서 失敗할 수밖에 없다. 失敗한 後에 失敗의 經驗을 教訓으로 삼고 나아가서는 自己의 思想을 客觀的 外界의 規律性에 맞도록 改正하면 失敗를 勝利로 轉化시킬 수 있는 것이다.

所謂 「失敗는 成功의 어머니다」, 「구덩이에 한 번 빠지고 智慧하나를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理致에서 나온 것이다. 唯物辯證法的 認識論은 實踐을 가장 重視하고 人間의 認識이 實踐을 떠나서 形成될 수 없다고 믿는 한편 實踐의 重要性을 否認하거나 認識과 實踐의 關係를 分離시키려는 잘못된 理論을 排斥한다. ²¹⁾

毛沢東은 人間의 認識은 社会的 實踐을 통해서 낮은 段階에서 높은 段階로 發展하는데, 思想이 客觀的 外界의 規律性에 適合하게 되어 있어야만 豫想했던 바의 結果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卽 客觀的 外界의 規律性에 따른 實踐을 통해서 漸進적으로 正確한 認識의 形成·發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註 21) Ibid., pp. 260-261.

論理에 따르면 人間 認識의 限界는 그사람의 社会的 實踐의 限界에 따라서 그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人間の 認識形成에 있어 範圍를 劃定하는 社会的 實踐의 限界는 어떠한 것들이라고 보았는가?

첫째, 階級的 社会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그 自身の 階級的 性格을 反映한다는 것이다.²²⁾ 둘째, 人間の 認識은 그의 生産活動의 特性和 範圍에 依해서 限界가 그어진다는 것이다.²³⁾ 셋째, 모든 眞正한 知識은 直接的인 經驗의 產物인 바²⁴⁾ 直接的인 經驗의 範圍가 認識의 限界를 決定한다는 것이다. 넷째, 人間の 경우는 언제나 實際의 事實보다 뒤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²⁵⁾

以上에서 보듯이 毛沢東은 認識이 社会的 實踐속에서만 形成되는 것이되 階級斗争의 影響을 받아가면서 낮은 段階에서 높은 段階로, 얕은 段階에서 깊은 段階로 漸進적으로 發展해나가는 동안 實踐을 通해 精密化되어간다고 보았던 것이다. 특히 認識의 發展過程을 3 段階로 設定하고 있는 바,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註 22) Ibid., p.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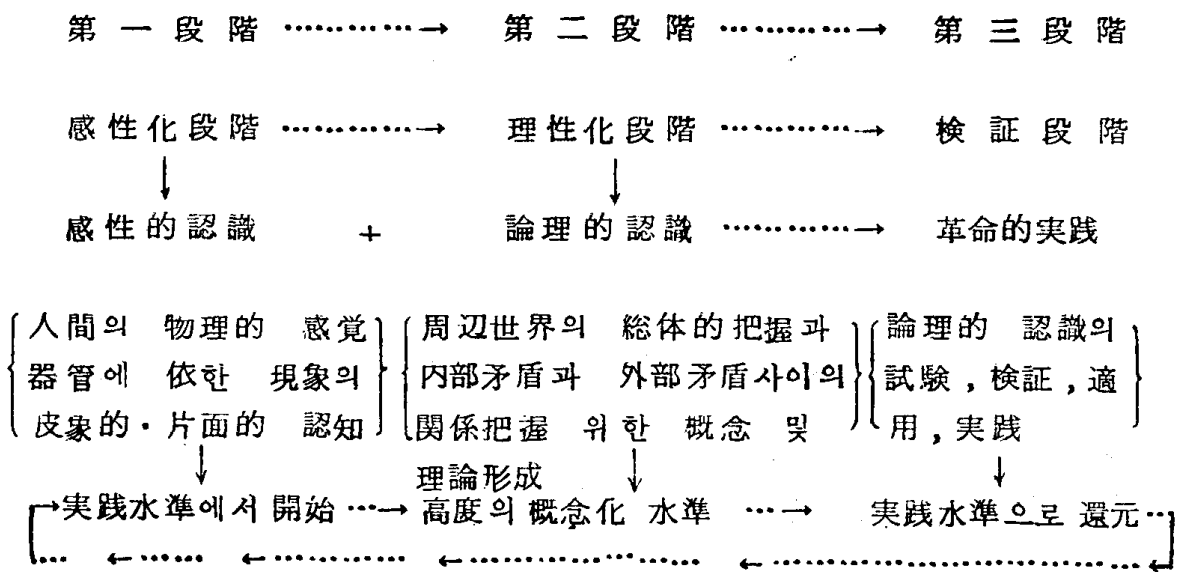
23) Ibid., p. 259.

24) Ibid., p. 264.

25) Ibid., p. 271.

첫째, 認識의 感性段階로서²⁶⁾ 이 段階에서는 感覺 및 印象을 가질 뿐 深刻한 概念을 窺만들고, 따라서 論理性있는 結論을 窺내 린다는 것이다. 둘째, 認識의 理性化段階로서,²⁷⁾ 이 段階에서는 되풀이 되는 認識이 突變·飛躍을 일으켜 概念化되는데 이 概念을 根拠로 判斷하고 推理함으로써 論理性있는 結論의 導出이 可能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現實的 實踐段階로서, 이 段階에서는 理性的인 認識이 現實에 適用되어지면서 그 妥當性和 合理性이 檢證된다는 것이다. 以上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表1> 毛沢東의 認識 모델²⁸⁾



註26) Ibid., p.265. 毛沢東은 中國人들의 帝國主義에 對한 認識過程에서 第一段階인 感性的 段階의 例로 清末의 太平天國亂과 義和團事件을 들고 있다.

27) Ibid., p.266. 帝國主義에 對한 論理的 認識의 段階는 1919年 5.4 運動부터 始作되었다고 한다.

28) Samuel S. Kim, op.cit., p.54.

3 個의 段階를 거쳐 發展한 認識을 如何히 活用하려 했던가?
毛沢東은 매우 實質的이고 功利主義的인 理論家였던 만큼²⁹⁾ 妥当性
合理性이 檢証된 知識을 虛空에 霧散시키려 하지않고, 그것은 반드시
다시 實踐에 適用되어야만 한다고 力說했다.

“ 마르크스主義哲學은 客觀世界的 規律性을 理解하고 그것에
따라 世界를 解釋하는 것만을 重要的 問題로 삼지 않고 이
러한 客觀的 規律性에 對한 認識에 基礎하여 世界를 能動的
으로 改造하는 것도 重視한다. …… 認識은 實踐으로부터
始作되고 實踐을 거쳐 理論的 認識에 到達하지만 반드시 實
踐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認識의 能動的 作用은 感性的
認識이 理性的 認識으로 能動的 飛躍을 하는 데서만 나타나
지를 않는다. 보다 重要的 飛躍은 理性的 認識이 革命的
實踐으로 表現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世界的 規律性을
完全히 把握한 認識은 世界를 改造하려는 實踐의 世界로 반
드시 되돌려져야 한다.”³⁰⁾

實踐→認識→再實踐→再認識이라는 循環過程을 통해서 비로소 人間
의 認識이 發展해나감을 指摘하면서, 同時에 毛沢東은 認識主体
即 「革命的 人民」들이 世界를 改造하는 鬪爭 그 自体도 重要하

註29) Ibid.

30) 毛沢東, “實踐論”, p269..

지만 「革命的 人民」들 自身の 主觀世界(認識能力)를 改造하고 主觀世界와 客觀世界의 關係도 改造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³¹⁾

以上을 綜合해 볼 때, 毛沢東의 認識모델에 따를 것 같으면 「認識論的 鬪爭」은 끝없이 展開될 수밖에 없이 된다. 왜냐하면 毛沢東도指摘했듯이 “全人類가 自覺적으로 自己와 世界를 改造하는 時期가 到來하여야만 共產主義가 世界的 次元에서 勝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永統革命」의 必要性을 力說하는 것도 이러한 論理의 延長인 것이다.

다. 矛盾의 概念과 論理構造: Hegel의인가? 陰陽論的인가?

毛沢東思想에 있어서의 中心概念은 「矛盾의 法則」이라는 概念이다.³²⁾ 毛沢東의 人生觀의 主要骨子は 矛盾이 人間生活 固有의 特性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生命, 社會, 世界 모두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毛沢東의 世界觀에서는 모든 矛盾들이 客觀的 現實을 代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³³⁾

註31) Ibid., pp. 272-273.

32) 「矛盾의 法則」이라는 概念은 여러가지 異稱을 가지고 있다. 例컨대 「唯物辯證法의 가장 根本的인 法則」, 「宇宙의 根本法則」, 「自然과 社會의 根本法則」, 「思惟의 根本法則」 등이 그것이다. 毛沢東, “矛盾論”, p. 274, 275, 300: Samuel S. Kim, p. 557 參照.

33) 毛沢東, “矛盾論”, p. 280 參照.

矛盾의 法則은 唯物辯証法理論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矛盾을 解決하고 分析하기 위해서는 辯証法的 方法을 써
 야만 하기 때문이다.³⁴⁾ 그런데, 矛盾을 解決하기 爲해서는 끊임없는
 鬭爭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事物發展의 原動力으로서의 矛盾은
 發生하고 解決되고 다시 發生 - 마치 끊임없는 물결처럼 - 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要컨대 人間生活의 本質로서의 矛盾, 矛盾을
 理解하고 分析하는 方法으로서의 辯証法, 矛盾을 解決하는데 必要한
 過程으로서의 鬭爭, 이 3者는 毛沢東이 世界를 내다보는 萬華鏡속
 에서 서로 얽혀있는 것이다.³⁵⁾

毛沢東은 矛盾의 普遍性은 이미 여러 사람이 承認하고 있는 바
 라고 前提한 뒤³⁶⁾ 矛盾의 普遍性 - 絶對性 - 에는 두 가지
 意味가 內包되어 있다고 했다. 卽, 첫째 모든 事物의 發展過程에
 반드시 矛盾이 存在한다는 點, 둘째, 每事物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矛盾運動이 繼續일어난다는 點을 들었다.³⁷⁾

註 34) Ibid., p. 274.

35) Samuel S. Kim., op. cit., p. 56.

36) 毛沢東, "矛盾論", p. 279. 毛沢東은 Marx Engels
 Lenin Stalin이 唯物辯証法的 宇宙觀을 發展시키고, 人類歷
 史와 自然歷史分析등 여러 方面에 唯物辯証法을 適用했으며
 社会的 變革과 自然的 變革의 여러 方面에도 應用하여 偉大
 한 成功을 거두었기 때문에 矛盾의 普遍性은 이미 立証된
 바라고 論하고 있다.

37) Ibid., p. 280.

毛沢東은 "運動의 本質이 矛盾"이라는 Engels의 말과 "自然界 - 精神과 社会 兩者 모두 包含 - 의 모든 現象과 過程은 矛盾을 內包하고 있고 相互排斥하고 相互對立하는 傾向이 있다."는 Lenin의 말을 引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事物에 包含되어 있는 矛盾方面의 相互依存과 相互鬭爭은 事物의 生命을 決定하고 事物의 發展을 推進한다. 矛盾을 包含하지 않는 事物은 없으며 矛盾이 없다면 世界도 없다."³⁸⁾

矛盾을 모든 事物發展의 原動力이라고 規定하고 있는 毛沢東 主張이 비록 Engels Lenin의 原典을 引用, 그 마르크스 - 레닌 主義性을 浮刻시키려고 있으나 中國의 陰陽理論家였던 王夫之 (A.D. 1619-1692)³⁹⁾의 理論에 매우 가까운 바 있다.

"易이란 相互推移하여 摩盪함을 이른다. …… 純乾 純坤은 아직 易이 일어나지 않은 狀態로서 相峙하여 併立해 있는 것인데 易이 일어나야 道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⁴⁰⁾

註 38) Ibid., p. 280.

39) 中共에서는 王夫之를 中國古代唯物主義哲學을 集大成한 學者로 讚揚하고 있다. 鄭文光, 席沢宗, 「中國歷史上的 宇宙理論」(北京: 人民出版社, 1975), p. 46.; 湖南省 哲學社會科學學會聯合會, 湖北省 哲學社會科學學會聯合會 共編, 「王船山學術討論集」(上)(北京: 中華書局, 1965), p. 137.

40) 王夫之, 「周易內傳」, 卷一頁一.

여기서 말하는 乾은 陽이며 坤은 陰을 뜻한다. 王夫之의 이 말은 矛盾을 일으키는 對立面이 一定한 條件下에서 關係를 갖게 될 때에 비로소 運動이 생긴다는 뜻이다.⁴¹⁾ 또한 王夫之는 天·地·人·物의 運動과 變化의 原因이 陰陽이라는 對立的 勢力의 消長隱現에 있다고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易이 道가 되게 하는 것은 乾(陽:筆者)·坤(陰:筆者) 뿐이다. …… 혹은 모이고 혹은 흩어지며 혹은 나가고 혹은 들어오면서 엇갈려 變化하는 움직임 모두가 陰陽을 必要로 한다. 陰陽은 太極의 實體로서 그것이 虛空에 豊富하게 充滿해 있어야 變化가 날로 새로워진다.”⁴²⁾

“陰陽二氣가 太虛에 充滿해 있고 이 以外에 他物은 없고 間隙도 없다. 天의 象, 地의 形 모두 그 範圍안에 들어 있다.”⁴³⁾

“天과 地의 化와 人과 物의 生은 모두 陰陽二氣의 具現態이다. ……陰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못하고 陽만으로도 아무것도 생기지 못한다.”⁴⁴⁾

註 41) 「王船山學術討論」, p. 144.

42) 王夫之, 「周易內傳」, 卷一, 頁八.

43) 王夫之, 「張子蒙正注」, 頁十.

44) Ibid., 參兩編.

“ 무릇 天下의 物은 모두 陰陽往來의 神이 變化를 일으킨 것이다. 物마다 陰陽이 있고 事 亦是 그렇다. ”⁴⁵⁾

一切事物이 陰陽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王夫之의 以上과 같은 陰陽論과 矛盾이 萬物의 原動力이라는 毛沢東의 矛盾論은 類似的한 點이 많다. 王夫之의 「陰陽」代身 「矛盾」을 代入하면 그대로 毛沢東의 論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絶對精神」이 辯證法的 發展過程을 통해서 人間世界의 現象으로 具現된 것이라는 Hegel의 理論을 修正, 「絶對精神」代身 「物質的 關係」가 辯證法的 發展過程을 거쳐 具現된 것이 人類史였다고 한 마르크스의 歷史發展段階說의 展開樣式과 恰似하다.

矛盾의 普遍性的 意味中 첫번 째 모든 事物의 發展過程에 矛盾이 存在한다는 點에서 王夫之와 毛沢東이 각각 「陰陽」, 「矛盾」의 用語만 다를 뿐 그 發想·論旨가 類似的함을 보았는 바, 다음은 毛沢東이 말한 바 發展過程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矛盾運動이 일어난다는 矛盾의 永統性에 對한 論議를 比較해 보기로 하자.

毛沢東은 簡單한 運動形式이건 複雜한 運動形式이건, 또는 客觀現象이건 思想現象이건間에 그 内部에 矛盾은 普遍的으로 存在하며 矛盾은 모든 過程에 存在한다. ”고 하면서 “새로이 始作되는 過程에서도 矛盾이 存在하는가, ” “每事物의 發展過程의 처음부터

註45) Ibid..

끝까지 矛盾運動이 일어나는가"라고⁴⁶⁾ 自問한 뒤 스스로 다음과 같이
답을 내리고 있다.

" 새로운 過程의 發生은 낡은 統一과 이 統一을 이룩한
對立成分이 새로운 統一과 이를 이룩할 對立成分에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다. 即 새로운 過程이 낡은 過程을 代替해서
發生하는 것이다. 낡은 過程이 完結되면 새로운 過程이 發
生하는데 새로운 過程은 새로운 矛盾을 內包한채 자기의 矛
盾發展史를 開始하는 것이다. ……事物發展過程에 있어 처음
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矛盾運動은 바로 마르크스가 資本論에
서 模範的으로 分析해낸 바라고 레닌도 指摘한 바 있다." 47)

發展의 原動力으로서 모든 事物에 內在하는 矛盾은 發生하고 解
決되고, 새로운 過程의 始作과 함께 다시 發生하고 다시 解決되는
- 마치 끊임없는 물결이 이는 것처럼 - 것이라는 것이다.

王夫之는 陰陽의 往來가 永統的이며 始作도 없고 끝도 없음을
論하여, " 易에는 太極이 있는데 이 太極이 생겨나는 것은 兩儀
(陰陽: 筆者)로 된다."⁴⁸⁾ " 太極이 父가 되고 兩儀가 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陰陽은 始作이 없으며 太極은 陰陽위에 孤立할 수

註 46) 毛沢東, " 矛盾論 ", p.281.

47) Ibid., p.282.

48) 王夫之, 「 易系辭 」.

없는 것이다.⁴⁹⁾ 라고 하여 太極과 陰陽의 關係를 父子相生의 關係로 理解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陰陽이 始作도 끝도 없는 것임을 말하고 陰陽이라는 對立面이 相互參錯하여 運動을 일으킨다고 했다.

以上에서 볼 때 毛沢東이 矛盾의 普遍性을 論함에 있어 借用한 概念과 論理는 Engels Lenin的 이라기보다는 王夫之的인 面이 훨씬 強하다는 點을 알게 되었다. 要컨대 毛沢東의 矛盾論은 王夫之에서 整理된 中國傳來의 陰陽論을 마르크스-레닌主義的으로 粉飾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

毛沢東의 矛盾論에 있어 또 하나의 主要한 概念은 「新陳代謝」라는 것이다. Hegel의 辯證法에서는 These와 Anti-these사이의 矛盾이 Aufheben하여 Synthese로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毛沢東의 矛盾論에서는 「新陳代謝」라는 것이 Hegel의 辯證法에서의 「Aufheben」과 같은 役割을 하는 것으로 說明되고 있는 것이다.

“新陳代謝는 宇宙間에 있어 普遍的인, 永遠不可抗力的인 規律이다. 事物의 本質的인 性質과 條件에 따라 不同의 飛躍形式을 거쳐 一事物이 他事物로 轉化하는 것이 新陳代謝의 過程이다. 어떠한 事物의 內部에도 모두 新·舊 두 가지 方面의 矛盾이 있으며 이것들이 하나의 系列을 이루며 曲折的 鬪爭을 形成한다. 鬪爭의 結果 새로운 方面의 矛盾은

註49) 王夫之, 「周易內傳」卷五, 頁三十一.

작은 것으로부터 큰것으로 變하여 上昇, 支配的인 것으로되고 남은 方面의 矛盾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變하여 점차로 滅亡해 가는 것이다. 새로운 方面의 矛盾이 남은 方面의 矛盾에 對하여 支配的인 地位를 차지하게 되는 때에 남은 事物의 性質은 새로운 事物의 性質로 되는 것이다. 50)

“이러한 相互轉化의 事情은 우리도 이미 經驗한 바다. 近三百年間 中國을 統治하던 清朝帝國이 辛亥革命으로 打倒됨으로써 孫中山이 이끄는 革命同盟會가 한차례의 勝利를 거두었다. 1924年부터 1927年까지의 革命戰爭期間中國·共合作에 依한 南方革命勢力의 弱小한 力量은 점차로 強大해져 北伐에서 勝利를 거두었고, 一時나마 稱雄하던 北洋軍閥이 打倒되었다. 1927年 共産黨이 領導하던 人民力量이 國民黨反動派들의 攻撃을 받아 極히 微弱한 勢力이 되었지만 党内 機會主義를 肅清한 뒤 점차로 強大해졌다. 共産黨이 領導하는 革命根拠地內에서도 農民이 被治者로부터 統治者로 轉化하였으며 地主는 相反된 轉化를 했다. 世上의 모든 것은 이처럼 새로운 것이 남은 것을 代替하는 것이다. 이처럼 新陳代謝로 남은 것을 除去하고 새로운 것을 피며 또는 묵은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51)

註 50) Ibid., pp. 297-298.

51) Ibid., p. 299.

毛沢東이 이러한 論議를 하는 目的은 再論의 余地없이 그가 말한 대로 " 中国人民들이 無産階級領導下에 力量을 키워 中國을 半植民地 狀態에서 獨立國으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帝國主義를 打倒하여 낡은 中國을 새로운 中國으로 만들⁵²⁾ 수 있다는 이른바 革命的 樂觀主義를 扶植하려는 것이었겠지만, 그 論理展開方式은 多分히 「五行」學說의 인 것이다.

五行이란 水, 火, 木, 金, 土로서 이 五者의 關係는 相互依存的인 것과 相互制約的인 것으로 나뉜다. 相互依存的인 것을 五行相生이라 하는 바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이며, 相互制約的인 것을 五行相勝(또는 相克)이라 하는 바 「水勝火」 「火勝金」 「金勝木」 「木勝土」 「土勝水」로 되어 있다.⁵³⁾

戰國時에 陰陽論을 體系化했다고 하는 鄒衍(B.C.305-240)은 中國歷史上의 王朝交替를 五行의 相勝概念에서 說明하려고 試圖했었다. 伝說上의 黃帝를 土에 夏를 木에 商(殷)을 金에 周를 火에 比喩하면서 以前까지의 王朝交替가 「木勝土」 「金勝木」 「火勝金」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五行의 相勝을 보이고 있는 바 周를 交替할 王朝는 「水勝火」의 原則에 따라 「水」에 屬하는 王朝가 될 것이라 했다.⁵⁴⁾ 漢代에도 五行에 立脚 政治의 治.

註 52) Ibid., p. 298.

53) 鄭文光, 席沢宗, op.cit., pp. 42-43.

54) Ibid., p. 43.

亂을 解釋하려는 試圖가 있었다. 漢代에 儒學과 陰陽五行論을 結合시킨 董仲舒 등은 鄒衍과는 달리 五行相生의 論理에서 王朝交替 등 治·亂을 論議하였다. ⁵⁵⁾

「새로운 中國」을 指向하는 毛沢東의 革命的 樂觀主義는, 基本的으로는 五行相勝의 論理를 빌어 展開되고 있으나 相勝이건 相生이건 五行學說自体가 循環을 基調로 하고 있음은 再論의 余地가 없는 것이다.

毛沢東의 新陳代謝論을 五行의 相勝·相生論理에 立脚해서 說明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 陰陽의 四象概念과도 通하고 있다. “太極은 兩儀(陰陽)을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을 낳는다.” ⁵⁶⁾ 고 했다. 四象이란 太陽(老陽), 少陽, 太陰(老陰), 少陰을 말하는데, 四象論의 要旨는 太陽이 少陽으로 轉移하는 동안 少陽속에서 陰의 因子가 胚胎되어 太陰으로 具現되며 다시 太陰이 少陰으로 바뀌는 동안 少陰속에서 陽의 因子가 胚胎되어 太陽으로 옮겨갈 準備를 한다는 것이다.

辯證法에도 「對立物의 浸透」, 「否定의 否定」등 法則이 ⁵⁷⁾

註 55) 蔭孟武, 「中國政治思想通史」(台北:三民書局, 1969), pp. 179-186.

56) 周易

57) 辯證法의 主要法則 및 그 內容變化에 對해서는 三浦とむ, 「毛沢東主義」(東京:勁草書房, 1976), pp. 77-81 參照.

있으나, 毛沢東의 “ 모든 事物의 内部에 新·旧方面의 矛盾이 內在 하면서 그들사이에 鬪爭이 일어난다 ”는 主張이나 “ 새로운 方面에 矛盾이 남은 方面의 矛盾에 對하여 支配的인 地位를 차지하게 되는 때에 남은 事物의 性質은 새로운 事物의 性質로 된다 ”, 는 主張들은 辯證法的이라기 보다는 四象論的·陰陽論理에 立脚한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Hegel이나 Marx의 辯證法은 循環이 아니라 單線形的인 展開를 基準으로 하고 있는데 反해 毛沢東의 新陳代謝論은 循環論的이기 때문이다.

第二節 毛沢東의 矛盾論 :

— 友·敵概念과 關聯하여 —

가. 矛盾의 普遍性和 特殊性

毛沢東은 政治를 友·敵概念에 立脚하여 把握하고 있었다. 特히 國際政治의 世界에서는 友·敵關係가 더욱 分明히 드러 난다고 보았다.¹⁾

中國의 革命史를 回顧하면서 毛沢東은 敵과 同志를 峻別할 수 있는 觀念的 基準이 模糊하였기 때문에 革命이 成功할 수 없었음을 指摘하고 있다.²⁾ 즉 主要한 矛盾과 次要의 矛盾을 區別할 수 있는 能力의 不在는 곧 敵과 同志의 區別을 어렵게 하여 革命力量의 編成에 誤謬를 犯하게 했다는 것이다. 政治, 特히 國際政治의 世界에서 敵과 同志에 對한 區別이 重要함을 力說하면서, 毛沢東은, 矛盾의 特性들에 對한 理解를 통해서만 過去의 誤謬를 犯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矛盾의 特性을 普遍性和 特殊性에서부터 論하기 始作한 毛沢東은 以外에도, 主要矛盾과 次要矛盾 또는 對抗性的 矛盾과 非對抗性的 矛盾등을 論하고 있다.

註 1) 毛沢東,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 「毛沢東 選集」, 第5卷(北京:人民出版社, 1977), p. 364 參照.

2) 毛沢東, '矛盾論', op.cit., pp. 295-297. 參照.

먼저 矛盾의 普遍성과 特殊性에 대한 毛沢東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矛盾이 普遍的임을 論證하기 위하여 毛沢東은 두 가지를 論하고 있다. 첫째, 모든 事物의 發展過程中에 矛盾이 있다는 點, 둘째 每個事物이 發展해 나가는 過程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矛盾運動이 일어난다는 點을 들고 있다.

모든 事物의 發展過程中에 矛盾이 있다는 具體的 事例를 数学 (+ · - · 微分 · 積分), 力学 (作用 · 反作用), 物理学 (陽電 · 陰電), 化学 (原子的 化合 · 分解), 社会科学 (階級鬭爭), 戰爭 (攻擊 · 守備, 進 · 退, 勝 · 敗) 등에서 列挙하면서 ³⁾ 간단한 運動形式이건 複雜한 運動形式이건, 또는 客觀的 現象이거나 思想現象을 莫論하고 矛盾이 普遍的으로 存在하며 ⁴⁾ 矛盾이 없으면 世界 그 自体가 있을 수 없다고 断定하고 있다. ⁵⁾

每個事物이 發展해 나가는 데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矛盾運動이 일어난다는 點에 대해서, 毛沢東은 Deborin 學派의 理論을 批判하는 데서부터 論旨를 展開하고 있다.

'그들은 矛盾이 過程의 始作과 同時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過程이 一定한 段階에 到達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느 時間以前에

註 3) Ibid., p.281.

4) Ibid.

5) Ibid., p.280.

있어서의 過程發展의 原因은 内部的인 原因에 依한 것이 아니라 外部的인 原因에 依한 것으로 된다. 이러한 Deborin의 主張은 形而上學的 外因論과 機械論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具體的 問題를 分析한 結果 그들은 蘇聯의 革命前 富農과 一般農民 사이에 다만 差異가 있을 뿐 矛盾은 없었다고 보게 됨으로써 Bukharin의 意見에 完全히 同意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 仏蘭西革命을 分析하는 데 있어서도 革命前의 工·農 資產階級들이 形成한 第三階級사이에 差異만 있었을 뿐 矛盾이 없었다는 結論에 이르렀다. ... 그들은 世上의 모든 差異 속에 이미 矛盾이 包含되어 있으며, 差異 바로 그것이 矛盾이라는 點을 모르고 있었다.⁶⁾

差異속에 이미 矛盾이 包含되어 있으며, 差異가 곧 矛盾이라는 論理에 따르면 矛盾은 모든 過程의 初期부터 存在할 수 밖에 없이 된다. 差異가 아직 激化되지 않아 對抗性을 띠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階級鬭爭의 形態를 取하지 않았다 해서 矛盾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毛沢東의 「矛盾의 始終一貫說」의 要旨다.

以上 矛盾의 普遍性에 對한 두 가지 論議를 通해서 政治는 基本的으로 敵과 同志의 關係이며 永遠히 敵과 同志의 世界

註6) Ibid, pp.281-282.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毛沢東이 看破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矛盾의 特殊性에 對한 論議를 보기로 한다. 毛沢東은, 每個物質의 運動形式은 各各 特殊한 本質을 갖추고 있는 바 그것은 곧 每個物質内部의 特殊한 矛盾에 의해서 規定되는 것이며 이러한 現象은 自然界뿐만 아니라 社會現象과 思想現象中에도 存在한다고 前提한 뒤, 相異한 많은 事物들의 特殊한 本質을 認識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力說하고 있다. 이러한 主張은 「党内教条主義者」들이 主張하고 있던 蘇聯式 革命路線追從을 反駁·非難하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中國革命의 特殊性和 그에 따른 革命路線의 再定立을 試圖하려 한 것이었다. 中國革命의 特殊性을 強調하면서 蘇聯式 革命路線追從을 拒否하는 毛沢東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不同質의 矛盾解決은 不同質의 方法을 씀으로써만이 可能하다. 例컨대 無產階級과 資產階級사이의 矛盾은 農業集체화와 農業機械化의 方法으로 解決될 수 있다. 過程이 變化함에 따라 旧過程과 旧矛盾은 消滅되고 新過程과 新矛盾이 發生하기 때문에 矛盾을 解決하는 方法이 같을 수 없어진다. 러시아의 二月革命과 十月革命이 解決한 矛盾 및 그 矛盾을 解決한 方法도 根本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教条主義者들은 革命狀況의 區別에 對한 理解없이 千篇一律的으로 ’ 7)

註 7) Ibid., p.286.

毛沢東은 中國의 農業社會의 特性을 重視했고 따라서 革命도 이러한 特性을 利用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⁸⁾ 1927年의 「湖南省農民運動考察報告」라는 論文의 執筆動機가 그러했거니와 矛盾論의 執筆動機가 「党内教條主義」에 對한 攻擊을 위한 것이었지만, 蘇聯式의 革命路線이 中國에는 不適合하다는 毛沢東의 主張, 특히 時期와 場所에 따라서 革命의 狀況이 區別되어야만 하며 그 解決方法도 相異할 수 밖에 없다는 主張은 敵과 同志를 區別하는데 있어서 時期와 場所에 따라 그 基準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命題로 歸結된다.

敵과 同志를 區別하는 基準은 矛盾의 特殊性에 對한 把握을 前提로 하는 것인데, 矛盾의 特殊性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가? 毛沢東에 따르면, 特殊性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主觀性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片面性 表面性을 버리고 兩面性을 恒常 考慮하여야 客觀性을 떨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特殊性이 찾아

註8) 共產革命에 있어 農民의 役割을 毛沢東이 最初로 重視한 것은 아니었다. 레닌도 이미 아시아革命에 있어서 農民이 重要한 役割을 擔當할 수 있음을 指摘한 바 있다. 勿論 노동자가 主가 되고 農民이 從이 된다는 限界는 있었다. 또한 毛沢東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李大釗도 農民問題를 重視했다. 毛沢東이 農村中心의 革命理論 開發에 着眼하게 된 初期狀況에 對한 論議는 丁世鉉, 「毛沢東批判 序說」, 「北韓과 共產戰略」(서울: 自由아카데미, 1976), pp. 55-56. 參照.

진다는 것이다. 例컨대 農民과 地主, 過去와 狀來, 個體와 全體, 中國과 日本, 共産黨과 國民黨등 對立的인 要素를 念頭에 두고서 矛盾 各 方面의 特徵을 찾아내야만 矛盾의 特殊性이 把握된다는 것이다.⁹⁾

一次的으로는 이와 같이 兩面性을 考慮하되 事物發展의 段階性을 考慮해야 矛盾의 特殊性이 두드러지게 浮刻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事物發展過程에서의 根本矛盾의 性質과 過程의 本質이 비록 變化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根本矛盾은 긴 過程의 여러 段階에 있어서 점차로 激化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根本矛盾에 依해서 規定되거나 影響을 받는 許多한 大小矛盾中에 어떤 것은 激化되고 어떤 것은 暫時 또는 局部的으로 解決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緩和되기도 하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한다. 事物發展의 段階性을 考慮해야 하는 理由는 이처럼 過程이 段階性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⁰⁾

註 9) 毛沢東, '矛盾論,' p. 287.

10) Ibid., pp. 289-290. 毛沢東은 自己의 主張을 論證하기 위하여 辛亥革命 以後 20余年間 反帝·反封建革命의 戰略的 段階는 變하지 않았지만 몇 개의 戰術的 發展段階가 있었음을 例示하고 있다. 즉 反帝·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을 必要로 하는 矛盾은 根本적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辛亥革命의 失敗와 北洋軍閥의 統治, 第一次 民族統一戰線의 建立(第一次 国共合作: 筆者)과 1924年에서 1927年에 이르는 革命, 統一戰線의 破壞와 資產階級의 反革命, 새로운 軍閥戰爭, 土地革命戰爭, 第二次 民族統一戰線의 建立(第二次 国共合作: 筆者)과 抗日→

事物이 發展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의 各個 發展段階上의 矛盾의 特殊性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片面性 表面性 보다는 兩面性を 보면서 事物發展의 段階性を 主視하되 矛盾을 일으키는 要素들 사이의 關係를 連結시키면서 아울러 總體的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矛盾의 各個 方向을 銳意 分析해야만 한다는 것이 毛沢東이 말하는 矛盾의 特殊性을 把握하는 方法이다.¹¹⁾

矛盾의 特殊性을 찾아내기 위해서 如上하게 여러가지 要素들을 考慮하면서도 事物의 範圍가 擴大됨에 따라 普遍性を 띤 矛盾이 境遇에 따라 特殊性을 띤 矛盾이 될 수 있는 反面, 特殊性을 띤 矛盾이 普遍성을 띤 矛盾으로 되어 버릴 수 있음도 考慮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

以上과 같은 矛盾의 普通과 特殊性에 對한 論議를 通해서 毛沢東의 敵과 同志에 對한 概念이 매우 動態的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政治란 永遠히 敵과 同志의 關係에서만 이루어지는

→ 戰爭등 여러 段階를 거치는 동안 土地革命戰爭과 日本의 東北地方侵略에서처럼 어떤 矛盾은 激化되기도 했고, 北洋軍閥의 消滅과 地主의 土地沒收등에 의해 어떤 矛盾은 暫時 또는 局部的으로 解決되기도 했으며, 새로운 軍閥戰爭이 發生하고 南方地主들의 土地再占으로 어떤 矛盾은 다시 發生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註 11) Ibid., p.290.

12) Ibid., p.293.

것이며 敵과 同志의 關係는 매우 流動的이라는 것이다. 通俗的이고 一般的인 概念에 不過하지만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 등의 理論으로 粉飾하면서도 暫定的인 同志의 選擇, 主敵을 打到하기 위하여 潛在的 敵과 聯合하여야 함을 中國內의 革命史와 中國의 故事들¹³⁾ 引用 說明하고 있는 것은 中國革命의 特殊性을 力說하였던 毛沢東으로서는 不可避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 主要 矛盾, 次要矛盾과 新陳代謝

主要矛盾과 次要矛盾, 矛盾의 主要한 方面의 問題는 矛盾의 特殊性和 關聯된 問題로서 毛沢東의 矛盾論에서도 別個의 章으로 設定 論議되는 問題다. 主要矛盾과 次要矛盾의 問題가 毛沢東의 友·敵概念과 關聯되는 것은 主敵과 副次的 敵을 區別하고 暫定的인 同盟勢力을 選別해 내는 基準을 提供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矛盾에 對한 分析結果를 現實的으로 應用하는데 있어서 가장 核心되는 것은 곧 「主要矛盾」을 찾아내는 것임을 毛沢東은 다음과

註 13) 毛沢東은 水許伝에 唯物辯証法的 事例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宋江의 三打祝家莊事例가 제일 좋은 例라고 하고 있다. Ibid., p.288.

14) 政策決定의 基準으로서의 「矛盾論」의 役割에 對해서는 John L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pp.47-52; Peter Van Ness,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Peking's Support for Wars of National Lib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p.25 參照.

같이 論하고 있다.

「複雜한 事物의 發展過程속에는 許多한 矛盾이 存在하는데 그중에는 반드시 主要矛盾이 있기 마련이다. 그 主要矛盾의 存在와 發展에 따라 其他 矛盾의 存在와 發展이 規定되거나 影響을 받게 된다.¹⁵⁾

「어떤 事物發展의 過程에 多數의 矛盾이 存在한다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矛盾은 主要한 것으로서 領導的이며 決定的 作用을 하는 反面, 其他 矛盾들은 次要의 服從的 地位에 處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過程을 研究하는데 있어 두 개 以上の 矛盾이 存在하는 複雜한 過程이 있는 경우에는 全力을 다해서라도 그 속에서의 主要矛盾을 찾아내야만 한다. 主要矛盾이 捕捉되기만 하면 모든 問題는 쉽사리 解決될 수 있다.¹⁶⁾

主要矛盾이 모든 矛盾들의 強度와 方向을 決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主要矛盾을 捕捉하여 그것이 높은 段階로 發展하기 以前에 解決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矛盾에는 段階性이 있으며, 段階가 바뀌므로써 矛盾의 主·次要的 地位도 變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例컨대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無產階級과 資產階級 사이의 矛盾이 主要한 矛盾이 되고 其他의 矛盾力量은 次要의

註 15) 毛沢東, 「矛盾論」, p.295.

16) Ibid., pp.296-297.

矛盾이 되지만, 西洋勢力이 中國을 侵略하던 時期의 主要矛盾은 帝國主義와 中國사이의 矛盾이고 나머지 階級間的 矛盾 등은 次要의 矛盾이 된다는 것이다.¹⁷⁾

여러가지 矛盾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서 主要矛盾을 찾아내는 것이 一次的인 問題라면, 主要한 矛盾이건 次要의 矛盾이건간에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두 개의 方面中에 主要한 方面과 次要의 方面을 区分해 내는 것 또한 重要한 問題라는 것이다.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矛盾이건간에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方面의 發展은 원래 平衡한 것이 아니다. 어느 때는 힘의 均衡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暫時的이고 相對的인 現象일 뿐 基本的인 形態는 平衡된 것이 아니다. 矛盾을 일으키는 諸方面中에 一方面이 반드시 主要한 方面이 되고 他方面은 次要의 方面이 되기 마련이다. 바로 그 主要한 方面이 이른바 矛盾을 일으키는 데 있어 主導的인 作用을 하는 것이다. 事物의 特質은 支配的 地位를 차지하는 矛盾의 主要方面에 의해서 規定되는 것이다.¹⁸⁾

主要矛盾과 矛盾의 主要方面에 관한 以上과 같은 毛沢東의 論議를 綜合하여 敵과 同志의 区分이라는 問題에 連結지워 보면 敵對

註 17) Ibid., p.295.

18) Ibid., p.297.

勢力中の 主敵이 모든 患의 根源이며, 主敵의 索出과 主敵의 打倒만이 中國歷史의 흐름을 바로잡는 關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이 共產革命을 遂行하기 위한 打擊對象으로서의 主敵을 가려내고 主敵을 打倒할 때 同時에 攻撃을 加해야 할 對象으로서의 敵對勢力과 이들을 打倒하는데 動員할 同盟勢力을 区分하는 이른바 스탈린의 戰略概念¹⁹⁾에 따른 敵과 同志의 区分基準이 毛沢東에 이르러 矛盾論으로 粉飾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敵과 同志의 關係는 永遠한 것만은 아니다. 毛沢東도 이 점을 勘案하여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矛盾의 主要方面과 非主要方面은 相互轉化하고 있으며 事物의 性質도 이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다. 矛盾이 發展하는 一定한 段階에 있어서 主要方面은 甲의 方面이 되지만 別途의 段階나 過程에 이르러서는 그 位置를 서로 바꾸게 된다. 이것은 事物發展中 矛盾을 일으키는 雙方의 鬭爭力 量的 增減程度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다.’²⁰⁾

註 19) Stalin의 戰略概念에서 主要한 內容은 1) 革命의 課業, 2) 革命의 打擊對象 및 方向 3) 革命의 主力軍 4) 包撰對象 및 後援勢力 5) 革命力量의 編成計劃 등이다. 仔細한 內容과 論議는 J.V. Stalin, The Foundations of Leninism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65), pp.82-100. 參照.

20) 毛沢東, ‘矛盾論’, p.297.

矛盾을 일으키는 雙方의 鬭爭力량의 增減에 의한 矛盾의 主要方面과 非主要方面사이의 相互轉化를 毛沢東은 「新陳代謝」라고 命名하면서, 이를 宇宙間的 普遍的이고 永遠하며 不可拒抗的인 規律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矛盾 内部에서의 新陳代謝를 爲하여는 必然的으로 鬭爭이 일어나는데 鬭爭의 結果, 새로운 方面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變하여 支配的인 것으로 上昇하는 反面, 남은 方面은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變하면서 점차 滅亡해 간다는 것이다. 事物의 性質은 주로 支配的 地位를 차지하는 矛盾의 主要方面에 依해서 規定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支配的 地位를 차지하는 矛盾의 主要方面에 變化가 일어나면 事物의 性質 또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²¹⁾

毛沢東의 「矛盾論」에서 「新陳代謝」라는 概念은 中國의 共產革命의 必然的 勝利와 아울러 世界속에서의 中國의 地位가 上昇될 수 있다는, 소위 革命的 樂觀主義의 出發點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社會發展段階說과 蘇聯 共產革命의 勝利事例를 根拠로 矛盾方面間的 新陳代謝라는 視角에서, 毛沢東은 中國近代史를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半殖民地를 만들기 위하여 帝國主義가 主要矛盾의 地位를 차지하고 中國人民을 壓迫함으로써 中國은 獨立國으로부터 半殖民地로 되어 버렸다. 그러나 事情은 반드시 變化할

註21) Ibid., p.298.

수 밖에 없다. 雙方(帝國主義와 半植民地 : 筆者)이 鬪爭을 벌이는 동안 無産階級領導下에 生長해 온 力量이 반드시 中國을 半植民地로부터 獨立國으로 만들 것이고 帝國主義는 打倒될 것이다. 낡은 中國은 반드시 새 中國이 되어야 한다.

낡은 中國이 새 中國이 되기 위해서는 國內의 낡은 封建勢力과 새로운 人民勢力사이의 狀況에 變化가 일어나야 한다. 人民들이 無産階級領導下에 被統治者로부터 統治者의 地位에 올라서는 때에 中國社會의 性質에도 變化가 올 것이다. 그리고 半植民地 半封建的 社會가 새로운 民主社會로 될 것이다.²²⁾

國內勢力간의 「新陳代謝」가 일어나야 「낡은 中國」이 「새 中國」으로, 「半植民地」가 「獨立國」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力說하면서 毛沢東은 「新陳代謝」의 必要性을 「新陳代謝」의 必然性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 이러한 相互轉化의 經驗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中國의 近三百年을 統治하던 淸朝帝國이 辛亥革命으로 打倒되고 遜中山이 이끄는 革命同盟體가 勝利를 거두었다.

1924年에서 1927年에 이르는 革命戰爭中 國共合作의 南方革命勢力이 弱少하던 力量을 키워 北伐에서 勝利를 거둠

註22) Ibid., pp.298-299.

으로써 一時 稱雄하던 北洋軍閥이 打倒되었다. 1927年 共産黨이 領導하는 人民力量이 國民黨 反動勢力의 打撃을 받아 매우 弱해졌었다. 그러나 肅清을 통해 점차로 힘을 키워 나왔다. 共産黨이 領導하는 革命根拠地内에서는 農民이 被治者로부터 統治者의 地位로 올라 선 反面 地主들은 相反된 轉化를 했다.²³⁾

主要矛盾과 矛盾의 主要方面 그리고 矛盾方面간의 新陳代謝라는 概念들이 其實은 黨内の 反對派를 攻擊하기 위한 理論展開過程에서 形成된 것이지만, 오늘 날 中共의 對外活動을 分析하는 데는 매우 適切한 面이 있다. 中共外交에 있어 敵과 同志의 区分이 時期에 따라 激變하였고 前後 矛盾的인 樣相을 보였지만 便宜主義에 立脚한 盲目的인 國家利益追求活動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中共外交가 多樣하게 展開되는 것은 矛盾의 分析에 따른 現實主義와 柔軟性의 發露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²⁴⁾ 現實主義와 柔軟性의 發露에 不過하기 때문에 中共外交의 戰略的 目標까지 變換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새 中國」을 建設해 나가는 데 있어서 提起되는 戰術的인 目標 乃至 當面課題를 풀어 나가기 위하여 主要矛盾, 矛盾의 主要方面, 新陳代謝등의 概念을 基準으로 戰術助인 轉換을 自由

註23) Ibid., p.299.

24) Samuel S. Kim. op.cit., p.56.

自在로 할 뿐인 것으로 把握해야 할 것이다.²⁵⁾

다. 矛盾方面사이의 同一性和 鬭爭性

矛盾方面사이의 同一性은 여러가지 異稱을 가지고 있다. 統一性 一致性 相互浸透 相互貫通 相互信賴 相互依存 相互連結 相互合作 등 여러가지로 表現되지만 結局은 同一한 現象을 指稱하는 것으로서 그 意義는 다음 두 가지로 要約된다. 첫째 事物發展過程中에 있어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두 개의 對立的인 方面들은 各各 對立的이면서도 그것과 對立을 일으키는 方面을 自己存在의 前提로 삼으면서 雙方이 하나의 統一体를 이룬다는 點. 둘째 矛盾을 일으키는 雙方이 一定한 條件下에서 各各 相反된 方面으로 轉化한다는 點이다.²⁶⁾

먼저 對立하면서도 統一体를 이루는 問題에 對한 毛沢東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원래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各 方面은 孤立해서 存在할 수 없다. 만약 그것과 對立하고 있는 矛盾의 一方이 없다면 그 自身 存在의 條件을 잃어버리고 만다.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一切의 事物이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註 25) 毛沢東, '矛盾論', p. 301. 毛沢東도 主要矛盾과 非主要矛盾, 矛盾의 主要方面과 非主要方面에 對한 研究는 革命政黨이 政治上·軍事上의 戰略戰術을 正確히 決定하는 重要한 方法의 하나임을 強調하고 있다.

26) Ibid., pp. 301-302.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概念들이 어떤 하나의 方面만 가지고
独立的으로 存在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²⁷⁾

每事가 相對性에 依해서 現實로 具現될 수 있음을 強調하기 위
하여 毛沢東은 生死, 上下, 禍福, 順利와 困難등 人間周邊事로부터
地主와 細農, 資產階級과 無產階級, 帝國主義와 植民地등 階級概念에
立脚한 關係를 例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一定한 條件- 一方이
없어지면 他一方도 存在할 수 없다는- 때문에 一面 相互對立하면서
도 또한 一面으로는 相互連結, 相互貫通, 相互浸透, 相互依賴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을 「矛盾」이라고 指稱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⁸⁾

다음은 矛盾을 일으키는 雙方이 一定한 條件下에서 各各 相反된
方面으로 轉化하는 問題에 對한 毛沢東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矛盾의 方面끼리 相互對立하면서도 相互連結되어야만 事物이 存在할
수 있다는 데만 事物의 矛盾性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다 重要한
것은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事物의 相互轉化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事物内部에서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兩方面이 一定한 條
件으로 因하여 원래 自己와 相反된 方面으로 轉化해 나가
다 結局은 對立方面이 廻하고 있던 地位를 차지하게 된다.
..... 統治를 받던 無產階級이 革命을 거침으로써 統治者로

註 27) Ibid., p. 302.

28) Ibid., p. 303.

轉化하고 原來 統治者였던 資產階級은 被統治者로 轉化하면서 各各 相對方이 占하고 있던 地位로 轉化한다.

일찌기 中國近代史의 一定한 段階에서 某種의 積極的 作用을 했던 國民黨은 그 自體의 固有한 階級性과 帝國主義의 부추김 때문에 1927年 以後 反革命으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中·日間의 矛盾이 尖銳化되면서 共產黨의 統一戰線政策이 나오자 抗日을 贊成할 수 밖에 없도록 壓迫을 받았다.²⁹⁾

矛盾을 일으키고 있는 方面들이 相互 轉化할 수 있는 一定한 條件이란 무엇인가? 毛沢東에 依하면 無產階級은 革命을 通해서 統治者로 轉化하고 國民黨은 自體의 階級性과 帝國主義의 부추김 때문에 反革命으로 轉化했다가 中·日矛盾의 尖銳化와 共產黨의 統一戰線政策으로 因하여 抗日로 다시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革命, 階級性과 帝國主義의 부추김, 中·日矛盾의 尖銳化와 共產黨의 統一戰線등이 毛沢東이 말하는 矛盾方面사이의 相互轉化를 可能케 하는 一定한 條件을 形成한다.

「橋梁」에 比喻되고 있는³⁰⁾ 相互轉化의 一定한 條件이라는 概念은 中共의 立場에서 中·蘇關係가 惡化된 反面 中·美關係가 友好的인 關係로 發展하게 된 것을 理論적으로 說明할 수 있는 根拠를

註 29) Ibid.

30) Ibid., p.304.

提供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中·美關係가 惡化되는 경우에도 이를 合理化시킬 수 있는 根拠가 되는 것이다. 즉 中·蘇關係가 惡化된 反面 中·美關係가 友好的으로 되게 된 「一定한 條件」은 中共의 論理에 따르면, 蘇聯外交政策上的 膨脹主義(帝政러시아時代부터의 遺物인)와 社会帝國主義 그것 때문에 中共이 美國에 對하여 對蘇國際統一戰線을 提議하게 됨으로써 美·蘇의 對中共關係가 相互轉化될 수 밖에 없었다고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中·美關係가 惡化되는 境遇에는, 國民黨이 結局은 그 自体의 固有的 階級性 때문에 反革命으로 돌아섰다는 事例를 引用 說明할 것이다. 왜냐하면 毛沢東 自身이 레닌의 '對立의 統一(一致 同一 全一)은 條件的이고 一時的이며, 過渡的이고 相對的이다. 相互排打하는 對立의 鬭爭은, 進化와 運動이 絶對的인 것처럼, 絶對的이다.'³¹⁾ 라는 말을 引用하면서 '一切의 過程에 始·終이 있으며 一切의 過程은 모두 그들의 對立物로 轉化한다. 一切의 過程의 常住性은 相對的이다. 그러나 한 種類의 過程이 他種類의 過程으로 轉化하는 이러한 種類의 變動性만큼은 絶對的이다.'³²⁾ 라고 強調하고 있기 때문이다.

矛盾方面사이의 同一性을 條件的이고 相對的이며 過渡的이라고

註31) V.I. Lenine, Oeuvres Completes: A Propos de la Dialectique(Paris: Editions Socials Internationales), p.326.

32) 毛沢東, '矛盾論', op.cit, p.306

보는 反面 矛盾方面사이의 鬪争性は 無條件的이라고 前提하고 나서 同一性和 鬪争性的 關係에 對하여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論議하고 있다.

어떤 事物의 運動이건 相對的으로 靜止된 狀態와 顯著하게 變動的인 狀態라는 두 가지 種類의 狀態를 取하고 있다.

두 가지 種類의 狀態를 取하는 運動은 모두 事物内部에 包含되어 있으면서 矛盾을 일으키는 因素들이 相互鬪争을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事物이 運動을 하는데 있어 第一種 狀態에 있을 때는 量的 變化만 일어나고 質的 變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치 靜止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事物의 運動이 第二種 狀態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이미 第一種 狀態에서의 量的 變化가 最高點에 이른 뒤이기 때문에 統一物의 分解가 일어나 質的 變化를 보인다. 따라서 顯著한 變化의 모습을 나타낸다. . . . 事物은 모두 不斷히 第一種 狀態를 거쳐 第二種 狀態로 轉化한다. 그리고 矛盾의 鬪争은 두 種類의 狀態가운데 存在하면서 第二種 狀態를 거쳐 矛盾의 解決에 이른다.'³³⁾

第一種 狀態 즉 量的 變化中の 狀態로서 統一 團結 聯合 調和 均勢 相持 僵局 靜止 平衡 吸引등을 들고, 第二種 狀態로서는 以上과 같은 狀態가 破壞되면서 相反된 狀態로의 質的 變化를 들고

註33) Ibid., p.307.

있다.³⁴⁾ 여기에서 第一種狀態는 곧 矛盾方面간의 同一性이 아직은 維持되는 狀態라고 할 수 있고, 質的 變化가 일어나는 第二種狀態는 矛盾方面간의 鬭爭性이 顯著해지는 狀態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矛盾方面간의 同一性和 鬭爭性사이의 關係를 毛沢東의 論理에 따라 整理한다면 同一性和 鬭爭性은 矛盾運動이라는 連續線上에 놓인 段階的 狀態이며 鬭爭의 結末은 矛盾의 解決을 意味하고, 矛盾이 解決된 뒤 새로운 矛盾이 다시 形成되어 量的 變化가 顯著해지면서 最高點에 이르고, 따라서 質的 變化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는 矛盾方面간의 同一性이 다시 나타나 維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矛盾方面간의 同一性和 鬭爭性이 交叉하는 가운데서 矛盾의 運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同一性이 持續되기 위해서는 - 對立하면서도 하나의 統一體로 共存하거나 相互轉化를 하기 위해서는 - 一定한 條件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一定한 條件을 具備하지 못하는 限 同一性은 깨지고 鬭爭性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矛盾의 本質이기 때문에 鬭爭性이 絶對的이고 無條件的이며 始終一貫하게 되는 反面, 同一性은 條件的이고 暫時的이며 相對的이라는 結論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註 34) Ibid.

라. 對抗性的 矛盾과 非對抗性的 矛盾

- 敵과 同志의 区分을 中心으로 -

「矛盾論」이 1937年 延安時代に 있어 毛沢東이 提示한 抗日民族統一戰線에 異議를 提起하고 蘇聯式 共產主義路線만을 固執하는 「党内教条主義者」들을 攻駁·非難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었지만³⁵⁾ 党勢가 微弱했을 뿐 아니라 自身の 政治的 基盤도 아직 確固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³⁶⁾ 矛盾論의 內容은 直說的인 表現을 迂迴해서 展開되고 있다.

反面 1957年의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 問題」는 論調에 있어 直說的이고 強硬한 面을 보여주고 있다. 自身の 不確固한 位置와 党内反對派의 反撥등을 우려하여 '對抗은 鬭爭의 一形式에

註 35) 金相洙, 「毛沢東思想」 (서울: 知文閣, 1967), pp. 126-127. 參照.

36) 毛沢東이 党權을 掌握한 時期에 對하여 1935年 1月 6-8日 까지의 政治局 擴大会議 (通稱: 遵義會議) 라고 보는 것이 通說이다. 當時會議에서 毛沢東은 党軍事委主席으로 選任되기는 했으되 Comintern과 党内國際派는 毛沢東을 支持하지 않고 있었다. 毛沢東이 國際派를 公共然히 攻擊하고 肅清할 수 있게 된 것은 蘇聯이 第二次大戰에 加担하면서 Comintern 名義의 對外干涉을 積極적으로 할 수 없게 된 때 부터다. 1942年 2月부터 3年余에 걸친 整風運動은 이러한 國際政治的 背景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仔細한 論議는 郭華倫, 「中共史論」 (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3), 第三冊, p. 19, 第四冊, pp. 369-431. 參照.

지나지 않는다.³⁷⁾고 누누히 強調하던 「矛盾論」과는 달리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에서는 敵과 人民을 峻別하고 「反動派」 「破壞者」, 「掠奪者」등 用語를 자주 使用하면서 敵·我間의 矛盾等 對抗性的 矛盾은 「壓迫」 「獨裁」 「鬭爭」등의 方法으로 解決할 수 밖에 없다는 強硬한 論調를 堅持하고 있다.

毛沢東의 立場과 表現이 強硬해진 것은 우선 党内에서의 毛沢東의 地位와 關聯지워서 생각할 수 있다. 즉 党뿐 아니라 中共 全域에 걸쳐 不可侵의 存在로까지 浮上한 뒤인데다가, 「矛盾論」이 党内 反極左鬭爭用이었기 때문에 慎重한 論理展開를 必要로 했던데 反해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는 党内外를 包含한 反右派 鬭爭用이었기 때문에 強硬해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1956年 9月 中共党 八全大會에서 宣布된 社會主義革命을 遂行해 나가는 데 있어, 不得已 動員되어야만 하겠으나 항가리 暴動등의 影響으로 中共党에 反旗를 들 수 있는 可能性을 많이 內包하고 있던 小市民 民族資本家들의 「反動」을 事前에 豫防하기 위해서는 強硬해야만 했다.³⁸⁾

中共内部의 狀況的 与件으로 보아서는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의 執筆必要性이 如上하게 說明될 수 있으나 矛盾에 대한

註 37) 毛沢東, 「矛盾論」, p. 308, 310.

38) 毛沢東의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 執筆背景, 特히 社會·經濟的 背景에 대해서는 金相洙, op. cit., pp. 274-282 參照.

理論展開의 順序로 보아서도 執筆이 不可避했다고 할 수 있다.

「矛盾論」에서는 矛盾의 普遍性和 特殊性, 主要矛盾과 次要矛盾, 矛盾方面間의 同一性和 鬪爭性等 矛盾의 發生과 發展過程의 問題를 주로 다루었다. 矛盾이 發展하여 나가면 矛盾의 極大化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矛盾의 解決이라는 問題가 不可避하게 생긴다. 矛盾의 處理·解決에 對한 論議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에서의 毛沢東의 理論展開는 「人民」(友)과 「敵人」(敵)의 概念을 確定하는 데서부터 出發하고 있다. 毛沢東에 依하면 人民이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해서 어느 때 어디서나 同一한 內容을 가진 不變의 概念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나라에서도 歷史時期에 따라 內容을 달리할 수 있는 可變的인 概念이라는 것이다.³⁹⁾ 中國의 경우, 抗日戰爭(1937-1945)에 있어서는 日本 帝國主義와 中國民族사이의 矛盾이 主要矛盾이었으므로 抗日하는 階級 階層 社會集團이면 人民의 範圍에 包含되었으며 日本帝國主義 賣國奴 親日派는 人民의 敵이었다고 한다. 解放戰爭時期(1945-1949)에 있어서는 「美帝國主義」와 國民黨을 한 편으로 하는 帝國主義와 中國人民間의 矛盾이 主要矛盾이었기 때문에 美帝國主義와 그들의 走狗인 官僚

註 39) 毛沢東,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 p. 364.

資産階級 地主階級 및 이들을 代表하는 国民党 反動派가 人民의 敵이 되는 反面, 反美·反蔣勢力이면 人民의 範圍에 包含되었다는 것이다. 社會主義 建設時期(1949年 以後)라고 하는 段階에서는 社會主義 建設事業을 贊成·擁護하고 參加하는 階級·階層과 社會集團이 人民의 範圍에 들고 社會主義革命에, 反抗하거나 社會主義建設의 社會勢力과 社會集團을 敵對視하고 이를 破壞하려는 者들은 人民의 敵이 된다는 것이다.⁴⁰⁾

人民(友)과 敵人(敵)에 對한 이러한 伸縮自在한 概念은 毛沢東 特有의 것이다. 레닌도 가끔 人民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였으나 그의 人民概念은 社會主義革命의 主体勢力인 勞動者階級과 그 同盟勢力인 農民階級을 합친 無産階級の 代名詞에 不過했었다. 多分히 階級鬭爭의 次元에서만 定立된 固定的인 概念으로서 空間的 時間的으로 內容을 달리할 수 있는 概念은 아니었다. 本是 마르크스-레닌主義 正統理論에서는 知識層과 小市民·民族資本家は 打倒의 對象이지 人民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毛沢東은 그의 不可避한 必要에 따라 共產主義者들 常用의 「人民」속에 이들을 包含시켜 利用하고자 한 것이다.⁴¹⁾ 社會主義建設을 해 나가는 데 있어 毛沢東으로서의 知識分子 民族資産階級을 利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工人階級 農民階級 出身의 新知識層을 많이 確保하고 있지 못한

註 40) Ibid.

41) 金相峽, op. cit., pp. 282-283.

後進共産國家의 立場에서는 西方教育을 받은 知識分子 民族資産階級들의 經驗 知識 技術이라도 動員하여 急速한 工業化를 達成해야만 했다. 이러한 經濟的 理由와 더불어 政治的 理由도 있었다.

知識分子나 民族資産階級 出身의 著名人士들로 하여금 資本主義國家 또는 中立主義國家에 對한 外交活動을 擔當케 함으로써 中共政權이 中國人民 全體의 代表機關인 것처럼 粉飾할 必要도 있었던 것이다.⁴²⁾

如上한 理由에서 人民內部的 矛盾을 非對抗性的인 것으로 糊塗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毛沢東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敵과 同志사이의 矛盾은 對抗性的 矛盾이다. 人民內部的 矛盾은 勞動하는 人民들 사이에서 보면 非對抗性的이다.

搾取階級과 被搾取階級이라는 視角에서 보면 對抗性的 一面도 있지만 非對抗性的 一面도 있다. 人民內部的 矛盾은 오늘 날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다만 各個의 革命 時期와 社會主義 建設時期에 따라 그 內容을 달리 해 왔을 뿐이다. …… 一般的으로 말해서 人民內部的 矛盾은 人民利益이 根本적으로 一致하는 基礎위에서의 矛盾인 것이다.⁴³⁾

人民內部的 矛盾은 常存하는 것이되, 根本적으로 非主要矛盾에

註 42) Ibid., p.277.

43) 毛沢東,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 問題’, pp. 364-365.

不過하다는 점을 力說하면서, 非對抗性的 矛盾이 되는 것은 矛盾 그 자체가 人民利益이 根本적으로 一致하는 基礎위에서 發生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人民利益은 곧 毛沢東이 知識分子 民族資產階級을 動員·利用해야만 하는 政治·經濟的 利益을 말하는 것이다.

政治·經濟的 必要에 依해서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の 矛盾까지도 非對抗性的인 人民内部的 矛盾에 包含시켰지만⁴⁴⁾ 共產主義의 프롤레타리아獨裁理論과는 背馳되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統一戰線戰術理論에 立脚한 打算的 功利主義의 發露에 不過했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獨裁理論에 依하면 知識分子나 資產階級들을 共產革命以後에도 放置해 두면 無知蒙昧한 勞動者·農民大衆을 壓倒하고 煽動하여 不知不識間에 社會主義革命의 進路를 反對方向으로 逆轉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獨裁는 社會主義革命遂行의 必須的 要件이라는 것이다.⁴⁵⁾ 이러한 理論的 關係를 意識하였기

註 44) 毛沢東이 列挙하고 있는 人民内部的 矛盾은 다음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1) 階級·階層 内部的 矛盾: 工人階級内部的 矛盾, 農民階級内部的 矛盾, 知識分子内部的 矛盾, 2) 階級·階層間的 矛盾: 工·農 兩階級사이의 矛盾, 工·農과 知識分子사이의 矛盾,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사이의 矛盾 3) 政府와 人民群衆사이의 矛盾: 國家·集體利益과 個人利益사이의 矛盾, 民主와 集中사이의 矛盾, 領導와 被領導사이의 矛盾, 國家機關·工作員들의 官僚主義와 群衆사이의 矛盾
Ibid. 參照.

45)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必要성과 目的에 對해서는 Ibid., p. 366. 參照.

때문에 毛沢東은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사이의 矛盾에 關해서는 特別한 但書を 添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사이의 矛盾은 人民内部的 矛盾에 屬한다.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사이의 階級鬭爭은 一般的으로 人民内部的 階級鬭爭에 屬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民族資產階級에게는 兩面性이 있기 때문이다. 資產階級 民主革命時期에 있어서 民族資產階級은 革命性과 妥協性的 兩面을 띠었다. 社會主義革命時期에 있어서는 民族資產階級은 工人階級을 搾取하여 利潤을 남기는 一面을 지니면서도 憲法을 擁護하고 社會主義的 改造를 받아들이는 一面도 지니고 있다. 民族資產階級은 帝國主義 地主階級 官僚資產階級과는 다르다.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 사이에 存在하고 있는 搾取와 被搾取의 矛盾은 本來 對抗性的인 矛盾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具體的 條件에서 보면 이 두 階級の 對抗性的 矛盾은 處理를 잘 하면 非對抗性的 矛盾으로 轉變될 수 있으며 平和的 方法으로도 解決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民族資產階級에 對해서 團結 批評 教育의 政策을 쓰지 않는 등 잘못 處理하거나 民族資產階級들이 우리들의 이러한 政策을 拒否하는 경우에는 工人階級과 民族資產階級사이의 矛盾은 곧바로 敵과 同志사이의 矛盾으로 變해 버릴 것이다.⁴⁶⁾

註 46) Ibid., p.364.

背反可能性을 안고 있는 階級을 統一戰線으로 끌어들이 利用하면서 改造하려고 努力하되 境遇에 따라서는 - 革命的 一定한 段階에 이르러서는 - 버려야 할 相對이기 때문에 이처럼 複雜한 論議를 미리 해두는 것이다. 즉 革命的 一定段階에서 民族資產階級을 버려야 할 때에는 民族資產階級 出身들이 團結 - 批評 - 教育이라는 共產黨의 政策에 順應하지 않음으로써 工人階級과의 矛盾을 對抗性的 矛盾으로 發展시켜 왔기 때문에 打倒할 수 밖에 없다는 論理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矛盾을 對抗性的 矛盾과 非對抗性的 矛盾으로 나눈 毛沢東 나름의 理論的 理由가 矛盾의 解決·處理方法에 對한 論議의 必要性에 依한 것임은 前述한 바 있다. 毛沢東에 따르면 敵과 同志사이의 矛盾은 敵과 同志로 区分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對抗性的인 矛盾이 될 수밖에 없으며, 革命이나 戰爭등 暴力的이고 強壓的인 方法에 의해서 解決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反面 人民内部的 矛盾은 一種의 是是非非를 가리는 問題이기 때문에 基本的으로 對抗性的인 것은 아니며, 따라서 團結 - 批評 - 團結의 過程을 되풀이 하는 등의 非強制的인 方法으로도 解決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矛盾論은 政治現象을 敵과 同志의 關係에서 把握하고 풀어 나가려는 毛沢東에 있어 理論的 準拠가 되고 있다. 그러면 矛盾論이 毛沢東의 國際秩序觀에 미친 實際的이면서도 操作的(operational)

註 47) Ibid., p.365, 366, 369, 371. 參照.

인 結果는 무엇이었던가? 敵과 同志의 關係에서 鬪爭의 價值를 力說함으로써 毛沢東은 結果적으로, 調和를 重視하던 中國의 傳統的 國際秩序觀을 根本적으로 否認하게 되었다. 人民内部의 矛盾은 非對抗性的 矛盾이라는 등의 但書條項이 있기는 하나 基本的으로 毛沢東은 鬪爭을 必要 不可缺의 것으로 把握하고 있었다. 즉 毛沢東은 鬪爭이 社會變化를 促進하기 때문에⁴⁸⁾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世上이란 本來 不平等한 것이기 때문에⁴⁹⁾ 鬪爭은 不可避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國際政治舞台에서의 中共의 行爲가 一見 一貫性을 缺如하고 恣意的으로 行해지는 것 같은 데 대한 疑問이 풀린다. 즉 때와 場所, 相對에 따라 鬪爭의 方向을 適切히 調整

註 48) 毛沢東은 1937年 「矛盾論」에서 '世上에 絶對적으로 平衡하게 發展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平衡論이나 均衡論에 反對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이러한 具體的 矛盾狀況과 事物이 發展하는 過程에서 일어나는 矛盾의 主要方面과 非主要方面사이의 變化는 곧 新事物이 旧事物을 代替하게 하는 力量이 된다.' 라고 하였다. 毛沢東, '矛盾論', p. 301.

49) 毛沢東은 本來 「矛盾論」에서 矛盾方面들의 同一性은 條件的이고 暫時的이며 相對的인 反面 鬪爭性은 無條件的이고 絶對的임을 強調해 왔지만, 1958年에도, '不平衡은 經常的이고 絶對的이며, 平衡은 暫時的이며 相對的임'을 力說한 바 있다. 毛沢東, '工作方法 六十條', 「毛沢東思想 萬歲」(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4), 第四輯, p. 33.

하는 것이며 이러한 調整의 理論的 基礎를 矛盾論이 提供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⁰⁾ 中共에게 있어서는 紛爭 競爭 共存 協調등 모든 것이 鬪爭의 多様な 形態에 不過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鬪爭은 政治生活의 方法으로 認知되고 있는 것이다.⁵¹⁾ 鬪爭에 대한 認知가 이러하기 때문에 危機라는 것에 對한 認知도 通常的인 것과는 커다란 差異를 보이게 된다. 通常的인 危機의 概念은 '威脅은 高潮되었으나 措置를 取하기에는 時間이 너무 짧아 政策 決定者들이 奇襲을 當하는' 것과 같은 狀況을 뜻한다.⁵²⁾ 이에 反해 中共은 國際危機를 經濟的 要因에 依해서 發生하되 國內政治的 危機와 關聯을 가지면서 循環的이고 持續적으로 일어나는 現象이라고 認知하고 있다.⁵³⁾ 바꾸어 말해서 中共의 國際秩序觀이라는 脈絡에서

註 50) 毛沢東은 性質이 다른 矛盾은 서로 다른 方法으로써만이 解決될 수 있음을 力說하고 있다. 特히 毛沢東, '矛盾論', p. 286 : idem, '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 問題,' op. cit., p. 365. 參照.

51) Samuel S. Kim, op. cit., p. 58.

52) Charles F. Hermann(ed.), International Crises: Insights from Behavioral Research(New York: Free Press, 1972), pp. 187-211. 參照.

53) John A. Kringen & Steven Chan, 'Chinese Crisis Perception and Behavior: A Summary Findings', (Paper delivered at the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on Contemporary China, Workshop on Chinese Foreign Policy, Ann Arbor, Michigan, August 12-14, 1976), p. 3: Samuel S. Kim, op. cit., p. 58.

보면 國際政治에서의 軍事的 紛爭狀況은 危機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例컨대 金門島事件(1958), 中·印国境紛爭(1962), 東京灣事件(1964) 關聯, 中共文獻에서 「危機」라는 用語가 보이지 않는다.⁵⁴⁾

註54) John A. Kringen & Steven Chan, op.cit., p.28:
Samuel S.Kim, op.cit., p.58.

第三節 毛沢東의 戰爭觀

가. 人性論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政治思想家들은 大概 自己理論의 展開를 위하여 人性을 먼저 論하고 있다. 그것이 戰爭과 平和의 問題에 焦點을 맞추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¹⁾

毛沢東은 그의 矛盾論에서 矛盾이 事物發展의 原動力 임을 前提하고 이에 立脚하여 모든 論理를 展開하고 있다. 여기에서 毛沢東이 말하는 事物이란 生物學的인 또는 醫學的인 意味의 人間이 아닌 社會現象을 뜻하고 있는 바, 이점에서 毛沢東은 魯소의 面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홉스가 人間사이의 鬪爭을 人間의 生來的 現象으로 把握하고 있었던데 反해서 魯소는 人間社會에서의 鬪爭·葛藤의 原因을 社會過程에서 찾으려 했었던 것이다.²⁾

毛沢東은 客觀世界를 改造하기 위해서는 世界觀自体를 改造하여야

註 1) 中國 春秋戰國時代의 諸子百家의 理論들이 거의 모두 人性의 問題를 直接間接으로 論하고 있으며 그중 孟子의 性善說, 荀子의 性惡說이 代表的인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古代 그리스나 近代西洋의 政治思想들도 모두 人性의 問題를 다루고 있거니와 Socrates, Platon, Aristoteles, Hobbes, 그리고 Rousseau가 그 代表的인 境遇에 該當한다. 現代에도 Arnold Wolfers나 Hans Morgenthau等 現實主義者 (realiste)들은 人間을 끝없는 權力에의 欲求에 따라 움직이는 存在라고 前提하고 있다.

2) Samuel S. Kim, op.cit., p.59 參照.

함을 屢次 力說했다.³⁾ 이는 毛沢東이 人性을 改変 可能한 것으로 보았다는 証拠라고 할 수 있다. 毛沢東이 人性을 改変可能한 것으로 보게 된 것은, 本是 惡한 人性이지만 礼教를 通해서 性善의 境地로 나아갈 수 있다고 主張한 荀子の 影響도 있었겠지만, 毛沢東에게 보다 크게 影響을 미치게 된 것은 마르크스의 人間改造論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初期論文들에서 宗教를 批判·排斥하였다. 宗教를 「타락된 意識」이라고 規定하고 「타락된 意識」이 必要한 理由는 그것이 가려주어야 할 必要가 있는 「타락된 世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宗教에 依해서 가려져 있는 「타락된 世界」는 마르크스自身이 믿고있는 人間本性에 適合한 世界가 아니라는 것이다. 人間은 創造物이라기보다는 自己自身の 生活을 創造해나가는 存在이기 때문에 타락된 客觀世界를 人間本性에 適合한 世界로 改造하기 위해서는 人間本性의 回復과 이를 위한 「實踐的 批判(革命)」이 必要하다고 主張하였다.⁴⁾

毛沢東의 人性論이 荀子的이기보다는 마르크스의인 性格의 것임은 人性을 階級的인 論理에서 論한 다음과 같은 그의 論議로 分明히

註 3) 이 점이 毛沢東의 「實踐論」의 基本테마가 되어있다.

4) 마르크스의 人間改造論에 대한 仔細한 論議는 니마이어, "마르크스의 人間改造", 「共產主義本質批判」(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5), pp.33-40; Donald J. Munro, "The Malleability of Man in Chinese Marxism," China Quarterly, No.48.(Oct./Dec. 1971), pp.609-611 參照.

드러난다.

“人性이라는 것이 存在하는가? 勿論 存在한다. 그러나 抽象的인 人性이란 있을 수 없고 存在할 수 있는 것은 具體的인 人性뿐이다. 階級社会에서는 階級性을 띤 人性만이 있을 수 있다. 階級을 超越하는 人性이란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⁵⁾

毛沢東에게 있어서는 人間共通의 人性이라는 概念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階級特有의 性格이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같은 階級에 屬하는 사람이라도 社会環境에 따라 人性이 多樣하게 差異를 보일 수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⁶⁾ 즉 사람이건 無生物이건간에 環境에 따라 그 特質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이 自然法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形式의 運動은 内部에 그 運動特有의 矛盾을 包含하고 있다. 이러한 特殊한 矛盾이 한 事物을 다른 事物과 區別할 수 있는 特殊한 特質을 構成하는 것이다.”⁷⁾

註 5) 毛沢東, “在延安文芸座談会上的 講話, “「選集」, 第三卷(北京; 人民出版社, 1969), p.827.

6) 마르크스主義 固有의 立場은 이와는 若干 다르다. 같은 階級構成員들의 人性은 同一하다는 點을 強調하는 것이 마르크스主義固有의 立場이다. Donald J. Munro, op. cit., p.617.

7) 毛沢東, “矛盾論”, pp.283-284.

“……이러한 矛盾의 特性을 分析할 때는 主觀隨意性을 띄지 말고 具體的 分析을 하여야 한다. 具體的 分析을 하지 않고서는 矛盾의 特性을 認識할 수가 없다.”⁸⁾

個個人的 本性은, 矛盾의 特性이 各各 다르듯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살아서 움직이는 實在 人間들 사이의 差異를 重視하며 다음과 같이 論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人間에 대한 概念들은 內容이 없다. 女子와 男子사이의 差異點, 어른과 아이의 差異點, 中國人과 外國人の 差異點, 革命家와 反革命分子와의 差異點을 물어버리고 있다. 남아있는 것은 人間이 禽獸와 다르다는 事實만을 희미하게 区分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人間을 누가 보았단 말인가? 우리가 通常 볼 수 있는 것은 張三李四(그리고 그런사람)뿐이다. 집을 한 가지 形相으로만 表現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天津에 있는 西洋風의 빌딩이든지 네모진 庭園에 둘러싸인 北京의 住宅같은 그런 집들이다.”⁹⁾

毛沢東에 있어서 具體性에 對한 強調은 곧 特殊性에 對한 強調과 通한다. 當初 毛沢東이 凡人間的인 人性을 否認한 뒤 그는 人間의 階級的 本性이란 것을 云謂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階級內에서도 差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人間의 本性이라는 結論에

註8) Ibid., p.292

9) “毛沢東對 文革指示彙編, “「祖國」66号(1969.9.1.香港), pp.41-46

이르게 된 것이다. 10)

毛沢東이 이와같은 人性論을 갖게 되고 그것이 中共社会에서 主流을 이루는 人性論이 될 수 있었던 것은 中共社会自体가 内包하고 있는 問題点 - 부르조아의 文学·芸術의 蘇甦 可能性 - 때문인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毛沢東의 人性論은, 中共의 社会主義革命을 沮害할 수 있는 「資本主義的 復辟」에 對한 警覺心を 維持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人性論이었던 것이다. 人性論이야말로 革命的 實踐에 있어 그 効用이 매우 크다고 믿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階級的인 差異를 明確하게 区分지을 수 없는 人性論은 끊임 없이 繼續되는 資産階級들의 反革命的 攻撃에 對한 革命的 警覺心を 滅殺시키면서 結局에는 資本主義的 復辟을 許容하고 말기 때문에 害毒다는 것이 中共의 人生論觀이다. 11)

人性에 階級的인 特質이 強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社会体制가 바뀐다고 해서 人性도 同時에 저절로 改變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人性의 改變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鬪爭이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鬪爭은 持久戰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註 10) Donald J. Munro, op, cit., p.618.

11) 資産階級の 人性論이 社会主義 革命에 미치는 害毒에 對한 仔細한 論議는 初瀾, "深入批判·資産階級的 人性論," 「紅旗」1974.4, pp.59-63 : 中國共產黨 遼寧省委員會写作小組, "認識世界和改造世界的 強大思想 武器 : 學習實踐論," 「紅旗」1971.5, p.18 參照

論議를 본다.

“世界觀을 改造하는 鬪爭은 長期的 任務다. 一生에 걸치는 革命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人生 그 自体를 改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社會主義時期的 階級鬪爭은 長期的이고 複雜하고 曲折이 많기 때문이다. …… 自己의 世界觀을 改造하는 일을 放置해버리면 資產繼級·修正主義의 侵蝕을 阻止하지 못하여 及其也는 方向을 잃고 重大한 錯誤를 犯하게 된다.”¹²⁾

“客觀世界的 發展·變化에 完結이란 永遠히 없기 때문에 사람이 客觀世界를 認識하는 데도 完結이 있을 수 없다. 어떤 한 段階의 鬪爭에서 勝利했다는 것은 바로 그 段階內에서 自己의 思想이 客觀世界的 規律性에 符合했다는 意味밖에는 없다. 그러나 無產階級이 客觀世界를 改造하고 또 主觀世界를 改造하는 偉大한 歷史任務에 있어 完成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¹³⁾

마르크스主義는 原來 生産力과 生産關係사이의 相互作用에 依해 社會가 發展한다는 決定論的 歷史觀의 하나다. 마르크스主義가 決定論이라 해서 意識이 物質世界에 逆으로 反作用하는 問題를 전혀 考慮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資本主義社會를 顛覆시키

註12) Ibid.

13) Ibid., p.19.

고 난 뒤 共產社會를 建設하기 위한 過渡期로서의 社會主義期間 동안 全人民의 勞動階級化를 通해 共產社會에서 살 수 있는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養成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共產主義理論의 重要論旨다.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養成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決定論만을 強調할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해서 「共產主義的 새 人間」이 되어야겠다는, 共產社會를 建設하여야겠다는 覺悟가 다르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로서, 여기에서 意識이 物質世界에 逆으로 反作用할 수 있다는 의미한 但書를 붙이게 된 것이다.¹⁴⁾ 그러나 마르크스主義는 “人間的 社會的 存在가 그 사람의 意識을 決定하는 것이지 人間的 意識이 그의 社會的 存在를 決定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有名한 마르크스의 命題¹⁵⁾로 要約되는 決定論的 歷史觀의 性格이 훨씬 強하다.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의 實情에 맞도록 創造的으로 適用하는데 成功했다고 自讚되고 있는 毛沢東思想은 決定論이라기보다는 主意主義的 面貌를 보여주고 있다. 毛沢東思想뿐만 아니라 中國에 共產主義가 傳播되게 된 動機부터가 主意主義的 發想에서였다.

1911年 辛亥革命으로 淸王朝는 崩壞되었으나 西歐式 民主主義가

註 14) 金甲喆, 「北韓政治 이데올로기分析: 主体思想을 中心으로」(서울: 書香閣, 1977), p.175 參照.

15) Karl Marx, A Contribution to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2), p.21.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流産되고 말았다. 이러한 狀況에서 마르크스主義의 決定論的 面貌를 浮刻시켜서는 支持를 받을 수가 없었다.

決定論을 내세우게 되면 下部構造가 成熟할 때까지 中國의 近代化를 앞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論理밖에는 展開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李大釗나 毛沢東등은 物質的 條件보다 人間의 意識이 앞선다는 것을 強調하기 시작했다. 資本主義段階를 건너 뛰어 社會主義에 이를 수 있으며 思想이 生産關係를 轉換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마르크스의 歷史觀을 轉回시켰다.¹⁶⁾

出發부터 主意主義的 性格을 띠게 된 것은 中共黨의 革命過程 때문이었다. 蔣介石軍이 飛行機와 탱크를 保有하고 있는데 反해 小銃 몇 자루와 意志하나만으로 끈질긴 鬪爭을 벌이면서 軍事作戰보다 政治作戰에 注力하여 마침내 勝利를 거두게 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過程을 거친 毛沢東이기 때문에 그의 人性論이 自己 意志에 依한 改造 - 끊임없는 改造를 主題 (Theme) 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註16) 決定論으로서의 마르크스主義가 中國에 傳播된 후 主意主義的 面貌로 바뀌게 된 初期狀況에 對해서는 Joseph R. Lerenson, "Communist China in Time and Space: Roots and Rootlessness" China Quarterly, No.39 (Jul./Sep., 1969), pp.2 ~ 3 參照.

나. 革命的 樂觀主義와 持久戰論

毛沢東은 實踐家였다. 如上한 人性論은 中國社會의 改造를 위해서 目的論的으로 展開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生産力面에서 貧弱하기 짝이 없는 後進農業社會를 近代化시키는데 있어서는 社會發展의 力動力으로서 人間意志의 偉大性을 力說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毛沢東은 黨外勢力보다는 黨内の 反毛沢東幹部들과 鬪爭하는데 더 많은 時間을 虛費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毛沢東 著作中 相當한 部分의 內容이 中國革命의 將來에 對한 樂觀的 展望을 批判하거나 悲觀的인 姿勢를 갖는 黨內 幹部들을 때로는 非難하고 때로는 說得하려는 內容인 것을 보면 毛沢東의 革命的 樂觀主義는 매우 持久戰的으로 展開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¹⁷⁾

毛沢東의 革命的 樂觀主義는 "愚公移山"이라는 題下의 中共黨七全大會演說(1945.6.11)에서 絶頂에 이르고 있다. 집앞의 山을 옮기기 위하여 代를 이어서라도 役事를 完遂할 覺悟로 덤빈 愚公의 努力을 隣近住民들은 嘲笑하였으나 하늘은 感動하여 愚公의 手苦를 덜어줌으로써 愚公當代에 所願을 成就했다는 故事를 引用하면서 中國革命의 將來를 다음과 같이 樂觀하였다.

"오늘날에도 두개의 커다란 山이 中國人民들 머리를 누르고 서 있다. 하나는 帝國主義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封建

註 17) Samuel S. Kim, op.cit., p.61.

主義라는 것이다. 中國共産黨은 오래전부터 이것들을 파내서 없애려고 決心을 해왔다. 우리는 不掘의 意志로 끊임없이 努力하여야만 한다. 努力하면 마침내 우리도 愚公처럼 上帝를 感動시킬 것이다. 우리들의 上帝란 다름아닌 中國人民大衆이다. 만일 그들이 일어서서 우리 中共黨과 함께 파내기 로 든다면 이 두 가지 커다란 山이 어찌 없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¹⁸⁾

意欲만으로 現實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至誠이면 感天」이라는 論理까지 展開한 것을 보면 毛沢東은 人間意欲을 매우 決定的인 要因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貧弱한 經濟的 基盤에서 飛躍을 하기 위하여 人間意志의 偉大性을 믿고 「大躍進運動」을 展開했었고 人性改造不可論을 提起하는 「反動走資派」의 思考方式을 본때있게 攻駁하기 위하여 文化大革命을 벌인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文化大革命期間동안에 人間意志의 改造에 따른 몇가지 成果가 있었다. 山西省 太行山人民公社傘下 大寨生産大隊는 意志의 놀라운 힘으로 놀라운 生産率을 보였고¹⁹⁾ 黑竜江省에서는 油田을

註 18) 毛沢東, “愚公移山”, 「選集」, 第三卷(北京:人民出版社, 1969) p. 1002.

19) 1980年 8月 30日부터 9月 10일까지 열린 全國人民代表大會 第五期三次會議에서 副總理職을 解任當한 陳永貴는 當時 大寨 生産大隊의 農業生産率을 높이는데 主導的 役割을 한 탓으로 文革期間中 一挙에 黨政治局員까지 되었었다.

찾아 끈질기게 해매다가 油由를 発見하여 地名까지 大慶으로 改명한 事例가 있다. 이 두가지 事例는 天賦的인 逆境의 物質的인 与件을 克服한 人間意志의 成功事例로 잘 알려져 있고 大的으로 宣傳되고 있다.²⁰⁾

人間意志의 偉大性을 強力하게 力說하는 毛沢東이었지만 그것이 歴史的 事實이나 事例에 의한 確信이라기보다는 目標을 定해놓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 努力하는 呪術的인 性格의 것이었기 때문에, 毛沢東도 人間意志의 全能性을 信念의 次元에서 믿었던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해서 人間意志의 限界를 意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5年 毛沢東은 Edgar Snow에게 “사람의 뜻대로 일이 잘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告白한 바 있다.²¹⁾ 貧弱하고 落後된 中國經濟体制속에서는 社会的 平等이라는 分配上的 正義를 破壞하지 않고서는 成果와 功績에 대하여 物質的인 補償을 해줄 수가 없었다. 群衆을 社會主義建設에 動員하는 데 있어 動機를 刺戟하는데 隘路가 없을 수 없었다. 한편 毛沢東은 元來가 中國社會의 傳統的인 엘리트主義를 매우 輕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主義

註20) Samuel S. Kim, op. cit., p.62 農業은 大寨을 따라 배우고 (農業學大寨) 工業은 大慶을 따라 배우라 (工業學大慶)는 것이 文革以後 中共의 流行語였으나 鄧小平이 現代化를 推進하면서부터는 크게 強調되지 못하고 있다.

21) Edgar Snow, "Interview with Mao," "The New Republic, Feb. 27, 1965, p.23 : Ibid., p.62에서 再引用.

의 復活을 막기 위하여 갖은 努力을 다했다.²²⁾ 中國經濟의 現實과 毛沢東의 平等主義는 結局 努力動員에 있어서 思想刺戟的인 方式을 扞할 수밖에 없도록 強要하였다.²³⁾

社會主義建設이라는 對內的 革命過程에서는 人間改造可能性을 力說하고 革命的 樂觀主義를 說破함으로써 中國革命의 發展價値에 對한 信仰을 創造하고, 이로써 動員을 比較的 成功的으로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毛沢東의 革命的 樂觀主義는 外部로부터의 侵攻이나 挑戰에 對해서까지 自信滿滿하게 方向을 提示하는 論拠는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逆으로 党内冒險主義에 對抗하면서 持久戰論을 展開하는 出發點이 되었다. 革命의 結果에 對한 悲觀的 展望下에서는 持久戰略이 나올 수 없다. 바꾸어 말해서 一時的으로 挫折도 當하고 敗北도 맞볼 수밖에 없었지만, 結局에는 革命의 勝利를 누릴 수 있다는 革命結果에 對한 樂觀的 展望이 없이는 持久戰略도 설 수가 없는 것이다. 革命의 結果에 對해서는 樂觀을 하되 冒險主義와는 달리 그 過程이 險難하고 障礙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힘의 變化를 誘導하는 迂廻的인 方法을 쓰면서 道理없이 持

註22) 毛沢東의 反엘리트主義形成의 背景은 丁世鉉, "北韓과 中共의 群衆路線 比較研究," 「自由 아카데미研究論叢」, 第一輯(1977), pp.116-117 參照.

23) Samuel S.Kim, op.cit., p.62 : 中共이 思想刺戟的인 方法으로 近代化를 推進할 수 밖에 없었던 狀況과 이를 合理化하려는 毛沢東의 立場에 對해서는 丁世鉉, "北韓과 中共의 群衆路線 比較研究", pp.120-126 參照.

久的으로 對抗性的 矛盾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消極的인 革命的 樂觀主義의 產物이 持久戰略인 것이다. 24)

持久戰概念은 1930年代初 國民黨軍과의 鬪爭에서 一進一退를 하고 있을 때 黨內的 「冒險主義」와 「敗北主義」傾向을 是正하고 「올바른 路線」을 提示하기 위해 毛沢東이 처음으로 拳論하기 始作했다. 특히 革命結果에 悲觀的인 展望을 가지고 있던 敗北主義者들을 說得하여 보려는 意圖에서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捷徑이 아니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將來의 發展이나 變化의 一方的인 方向만을 提示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밖에 못한다. 마르크스主義者들은 機械的인 方式에 依해 革命의 日字와 時間을 固定시켜서도 안되거니와 固定시킬 수도 없다.” 25)

革命의 結果를 너무 燥急하게 樂觀하거나 期待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放漫하게 革命에 任하거나 革命의 結果를 悲觀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必勝의 信念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狀況을 最大限 活用하는 끈기와 知慧가 마르크스主義者들에게는 必要하다는 것이다.

黨內 敗北主義者들에 對한 叱責과 激勵을 兼해 提起된 26) 持久

註24) Samuel S.Kim, op.cit., p.62.

25) 毛沢東, “星星之火, 可以燎原,” 「選集」, 第一卷, p.103.

26) 敗北主義者들의 「抗戰亡國論」을 毛沢東은 그의 持久戰論에서 詳細히 分析하면서 「抗戰亡國論」의 結果를 警戒하라고 主張하고 있다. 毛沢東, “論持久戰”, 「選集」, 第二卷(北京:人民出版社, 1969), pp.418-422

戰의 概念은 1938 年의 「論持久戰」에서 成熟된 理論으로 展開되었다.

持久戰論에서 中心的인 原則은 “戰略적으로 敵을 輕視하되 戰術적으로는 敵을 重視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이 戰略原則은 前漢 淮南王 劉安의 말과 類似한 論旨와 構造로 되어있다. 즉, 劉安은 學問과 實踐의 方向을 提示하면서 “知識에 對한 欲求를 넓고 둥글게 가지고 學問을 하되 그것을 實踐에 옮길 때는 한 方向으로 集中하여 實力을 發揮하라. 每事를 處理하는 데는 大膽한 立場을 基本으로 하되 小小한 問題에도 神經을 써야만 한다.”²⁸⁾ 라고 말한 바 있는데 毛沢東의 戰略原則의 基本發想은 아마도 淮南子의 이러한 句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發想이야 어떠한 起源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戰略原則은 元來 革命的 挑戰勢力과 現象維持勢力사이의 勢力分布狀況을 正確히 評價한 뒤 兩大勢力사이의 勢力을 逆轉시키기 위한 短期戰術과 長期戰術을 樹立하려는 目的에서 세워진 것이다. 劣勢를 均勢로 轉換시키고 畢境에는 優勢를 確保하기 위한 過程은 멀고도 險難한 길이

註 27) 이 原則은 毛沢東의 여러 論文에서 거듭 되풀이되고 있으나 特히 毛沢東의 “中國革命戰爭의 戰略問題” (1936.12), “論持久戰” (1938.5), “關於目前黨的 政策中的幾個 重要問題” (1948.1) 등에서 重點적으로 論議되고 있다. 各各「選集」第一卷, pp.154-226, 第二卷, pp.407-484, 第四卷, pp.1162-1169 參照.

28) 淮南子, “心欲小而膽欲木, 知欲圓而行欲方.”

아닐 수 없다. 毛沢東의 持久戰論을 追從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勝利가 確然히 保障되는 戰爭만을 치루는 反面 不必要한 冒險을 隨伴하는 일은 一切 廻避하면서 段階的으로 敵의 力量을 弱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至上命令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戰略을 扞하는 理由는 單純하다. 즉, 軍事的으로 優勢한 敵과 맞붙어 끝없는 鬪爭을 벌여나가는 동안 革命的 熱意를 維持시킬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었기 때문이다.²⁹⁾ 革命的 熱意를 保存시키려고 努力하는 것이 革命的 結果에 대한 樂觀的 展望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임은 이미 上述한 바와 같다.

毛沢東은 第二次世界大戦이 끝나고 난 뒤 美國의 女記者 Anna Louise Strong과의 인터뷰(1946.8)에서 原子彈과 美國을 「종이호랑이」라고 指稱했었다. 原子彈의 殺傷力을 認定하면서도 또 原子彈으로 日本을 屬服시킨 美國을 「종이호랑이」라고 指稱한 것은³⁰⁾ “戰略적으로 敵을 輕視하라”는 自身の 말을 몸소 實踐한 것이다. 相對의 힘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持久戰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戰術的으로는 美國을 매우 重視하고 있다는 反證인 것이다. 이 점은 1958年12月1日 中共黨政治局 武昌會議에서 한 毛沢東의 演說에서 分明하게 드러나

註29) Samuel S. Kim, op. cit., p. 63.

30) 毛沢東, “和美國記者安娜·路易斯·斯特郎的談話, ” 「選集」, 第四卷(北京:人民出版社, 1969), pp. 1090-1091.

고 있다.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世上의 모든 事物이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帝國主義와 一切의 反動派들도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진짜 호랑이기도 하고 종이호랑이이기도 하다. ……本質적으로 長期的으로 戰略적으로 볼 때는 帝國主義와 反動派들은 반드시 종이호랑이로 把握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觀点에서 우리의 戰略思想을 建立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살아있는, 쇠로된, 진짜호랑이로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러한 觀点에서 우리의 策略思想과 戰術思想을 建立해 나가야 한다.” 31)

오늘날 中共의 여러 政策分野中에서 持久戰論을 가장 充實하게 實踐에 옮기고 있는 것은 對外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中共의 力量은 여러가지 部門에서 微弱하기 짝이 없다. 面積과 人口面에서만 尠大할 뿐 国力을 形成하는 여러 要素面에서 32) 到底히 強國이라고 할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中國外交政策上的 目標은

註31) Ibid., p.1088 (註)

32) Ray S. Cline은 国力의 要素로 人口와 領土, 經濟的 潛在力量, 軍事戰略的 潛在力量, 顯在的 軍事力등 指數化가 可能한 分野外에 國家戰略과 國民士氣까지 들고 있다. Ray S. Cline, World Power Assessment, 1977: A Calculus of Strategic Drift (Boulder: West View Press, 1977) 參照.

野望에 찬 未來를 指向한 것이다. 現實과 理想사이의 罅은 엄청
나리만큼 크지만 中共은 서두르지 않고 그렇다고 諦念도 않고 現
實과 目標사이의 間隔을 좁히기 위해 百方으로 努力하고 있다.

弱勢를 強力한 힘으로 轉換시킬 수 있게 될 때까지 時間을 벌
면서 美國과 손을 잡고 日本과 協力하여 第三世界國家들을 包摂하
여 나가면서 徐徐히 國際政治的 發言權을 強化해나가고 있다. 一
次的인 目標은 蘇聯으로부터 오는 安保上 威脅을 하나씩 떨어나가
면서 中國의 地位를 점차적으로 浮上시켜 나가는 것이다. 革命的
樂觀主義 - 時間은 結果적으로 中國에 有利하게 作用하고 말 것이라
는 - 의 信念속에서 中共은 外交에서 持久戰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다.

다. 革命期 毛沢東의 戰爭觀

毛沢東의 戰爭觀은 相衝된 解釈이 可能할 程度로 多様な 面
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辯證法的 次元에서 보면, 그의 「矛盾論」
에서 보았듯이, 戰爭과 平和는 別다른 差異가 없다고 하는 結論이
된다. 왜냐하면 矛盾論의 論理에 따라 戰爭과 平和는 統一体의
서로 다른 部分을 차지하고 있을뿐, 結局은 서로 서로 交換적으로
相對方面으로 轉化해가는 것으로 說明되기 때문이다.³³⁾ 理論적으로는
이러한 說明이 可能하지만 革命을 해오는 동안 毛沢東은 戰爭이야
말로 人間의 勇氣와 意志를 試驗할 수 있는 最高의 試金石과 같

註 33) 毛沢東, "矛盾論", p.304

은 것이라는 浪漫的인 戰爭觀을 가지고 있었다.

毛沢東은 "戰爭은 私有財産이 생겨나고 따라서 階級이라는 것이 存在하면서부터 있어왔다"고 함으로써³⁴⁾ 그 發生原因에 對해서 마르크스의 主張을 踏襲하고 있다. 그는 또 戰爭의 機能에 對해서는 "階級과 階級, 民族과 民族, 國家와 國家, 政治集團과 政治集團사이의 一定한 發展段階에서 發生하는 矛盾을 解決하는 最高의 鬪爭形式"이라고³⁵⁾ 하면서 鬪爭의 政治性을 다음과 같이 論議하고 있다.

"戰爭은 곧 政治다. 戰爭 그 自体는 곧 政治性을 띤 行動으로서 古來로 政治性을 띠지 않은 戰爭은 있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戰爭은 그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 戰爭이 一般政治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 戰爭은 特殊한 手段을 取하는 政治의 連續이다." ³⁶⁾

戰爭의 種類에 對해서도 正義의 戰爭과 非正義의 戰爭의 두 가지로 나누고 共產主義者들의 戰爭만이 正義의 戰爭이라는³⁷⁾ 마르크스-레닌主義正統理論을 踏襲하고 있다. 戰爭의 當面目的에 對해서는 어떠한 論議를 展開하고 있는가?

註 34) 毛沢東, "中國革命戰爭的戰略問題", 「選集」, 第一卷, P.155, idem, "論持久戰", 「選集」 第二卷, p.442.

35) Ibid.

36) Ibid., pp.446-447.

37) Ibid., p.443 : 毛沢東, "中國革命戰爭的戰略問題", p.158.

“모든 軍事行動의 指導原則은 하나의 基本原則에 根拠하고 있다. 그것은 곧 모든 힘을 다해서 自己를 保存하는 反面 모든 힘을 다해서 敵을 消滅시킨다는 것이다.”³⁸⁾

“戰爭의 目的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自己를 保存하고 敵을 消滅시키는 것이다. 敵을 消滅시킨다는 것은 곧 敵의 武裝을 解除하거나 敵의 抵抗力을 剝奪하는 것이다. 그 肉体까지 完全히 消滅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³⁹⁾

共產主義者들이 하는 戰爭은 正義의 戰爭이라는 主張과 戰爭의 當面目的에 對한 規定은 戰爭의 窮極的인 目的을 美化시키는 前提가 되고 있다. 毛沢東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戰爭! 人類끼리 서로를 殘酷하게 죽이는 이 怪物은 人類社會의 發展에 따라 마침내 消滅시켜야 함은 勿論이거니와 머지않은 將來에도 消滅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戰爭을 消滅시켜야 할 方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戰爭을 통해서 戰爭을 反對하고 革命戰爭을 통해서 反革命戰爭을 反對하며, 民族革命戰爭을 통해서 民族反革命戰爭을 反對하고 階級革命戰爭을 통해서 階級反革命戰爭을 反對하는 수밖에 없다. …… 人類社會가 進歩하여 階級이 消滅되고 國家마저 消滅되면 어떠한 戰爭도 없어진다. 反革命戰爭이 없으면 革命戰

註 38) 毛沢東, “抗日游擊戰爭의 戰略問題”, 「選集」, 第二卷, p.375.

39) 毛沢東, “論持久戰”, p.449.

争도 없어지고 非正義戰爭이 없어지면 正義의 戰爭도 必要없어진다. 이때가 바로 人類의 永久平和時代다.” 40)

“中國의 抗日戰爭의 持久성과 中國 및 世界의 永久平和를 爭取하는 問題는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다. 어떤 하나의 歷史時期에 있어 오늘날처럼 戰爭이 永久平和에 接近하고 있는 때는 없었다. ……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戰爭의 特性은 永久平和에 間斷없이 接近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41)

中國의 抗日戰爭을 통해서 超國家的인 永久平和를 達成할 수 있다고 力說하고 있는 바, 이는 中國人民들과 中共黨員들에게 革命의 結果를 樂觀的으로 展望하도록 하기 위한 心理戰的 發言인 것이다.

中國의 共產革命을 成功으로 이끌기 위한 비전으로서 初期의 毛沢東의 著作은 이와같이 主意主義的인 特性을 強하게 內包하고 있다. 戰爭과 關聯해서 重要하게 浮刻되고 있는 概念으로서 「自覺的 能動性」이 있다. 「人性改造可能性」「人間意志의 偉大性」에 基礎하여 “中國革命의 將來는 決코 어둡지 않기 때문에 持久戰으로 勢力의 變化를 기다리면서 同時に 創造하자. 中國의 抗日戰爭은 中國은 勿論 世界의 永久平和를 가져올 수 있는 戰爭이기 때문에 正義의 戰爭이다”라고 하면서, 이 戰爭을 勝利로 이끌 要素로서 武器보다는 人民들의 「自覺的 能動性」을 強調하고 있다.

註 40) 毛沢東, “中國革命戰爭의 戰略問題”, p. 158.

41) 毛沢東, “論持久戰”, p. 442.

먼저 「自覺的 能動性」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概念을 論하고 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持久戰과 最後 勝利도 사람이 없고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다. 客觀的 事實에 根拠해서만 思想·道理·意見을 形成하고, 計劃·方針·政策·戰略·戰術을 提出하여야만 좋은 成果를 낼 수 있다. 思想들은 主觀的인 것이고 그것에 의한 行動은 主觀이 客觀의 形式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人類만이 가지고 있는 特殊한 能動性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自覺的 能動性」이라 부른다. …… 우리는 이러한 思想과 行動을 發揚하여야만 하고 이러한 「自覺的 能動性」을 發揮하여야만 한다. 抗日戰爭은 帝國主義를 내쫓고 낡은 中國을 새로운 中國으로 變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全中國人民을 動員하여 그들의 抗日自覺的 能動性을 發揮하도록 하여야만 비로소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이른바 愛國心에 의한 自覺的 參戰精神을 「自覺的 能動性」이라고 表現하고, 「自覺的 能動性」을 極大로 動員하기 위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人間意志의 偉大性을 力說하고 있다.

“戰爭의 勝負는 當然히 雙方의 軍事·政治·經濟·地理·戰爭의 性質 國際的 援助等 諸條件에 依해서 決定된다. 그러

註 42) Ibid., p.445

나 이것만으로서는 解決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諸條件들은 勝負 그 自体를 判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다. 勝負를 判가름내는 데는 여기에다가 主觀的인 努力이 加味되어야만 한다. 主觀的인 努力은 다름아닌 自覺的 能動性을 말한다.” 43)

以上에서 보아왔듯이 毛沢東의 革命期戰爭觀은 主意主義的이고 攻擊的인 特性을 強하게 지니고 있었다. 兵力과 軍需面에서 圧倒的인 不足을 느끼는 狀況에서는 主意主義的이고 攻擊的인 戰爭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라. 執權後 毛沢東의 戰爭觀

中國大陸全體的 政治·經濟·軍事·外交等 諸分野를 統括하는 最高責任者가 된 毛沢東과 革命家로서의 毛沢東은 差異가 나지 않을 수 없다. 革命期の 毛沢東으로서는 革命의 勝利만을 위해서 思考하고 行動하여도 無妨했지만 執權後 政策決定에서는 보다 多方的 思考를 해야했고 政策의 執行에서도 慎重을 期하지 않을 수 없었다.

政策決定과 執行에 있어 毛沢東은 矛盾的인 狀況에 處하게 되었다. 抗日戰과 內戰을 連續적으로 치룸으로써 荒廢해진 中國大陸의 産業을 發展시키고 秩序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安定的인 平和期가 오래 持續되어야만 했다. 韓國戰爭에 介入함으로써 惹起된 消耗과

註 43) Ibid., pp.445-446.

打撃같은 事例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수밖에 없었다. 44)

그러나 新生中共을 建設해 나가는데 있어 平和一辺度の 姿勢나 政策은 深刻한 結果를 招來할 憂慮가 있었다. 安定과 平和指向의 姿勢를 許容하거나 強調하다보면 對內的으로는 中共人民들의 闘志를 沮喪시켜 結果적으로 社會主義建設에 必要한 「自覺的 能動性」發場에 支障을 줄 수도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帝國主義侵略者」들의 中共輕視風潮와 對中共侵略的 行動을 誘導시킬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45)

이러한 二重 三重的 壓力이 毛沢東으로 하여금 漸次로 慎重하고도 防禦的인 政策쪽으로 기울도록 誘導했다. 바꾸어 말해서 毛沢東은 宣傳·煽動面에서는 好戰的인 面貌를 잃지 않았지만, 政策을 決定하고 執行하는데 있어서는 防禦的인 姿勢를 取했던 것이다.

1955年9月 中共黨 7期 6次 中央委全員擴大會議에서 毛沢東은 第一次五個年計劃의 完成에 平和的 情勢가 必要함을 前提하고 外交部 對外連結部 軍隊 모두 第一次五個年計劃遂行에 必要한 平和를 確保하는데 總力을 傾注할 것을 當付하였다. 46) 1958年3月10日

註 44) 周恩來는 中共이 韓國戰에 介入함으로써 받게된 打撃을 들면서 이를 蘇聯의 故意的인 態憑에 의한 것이라고 述懷하였다.

45) Samuel S. Kim, op.cit., pp.63-64

46) 毛沢東, "在七屆六中全會擴大會議上的總結", 「毛沢東思想萬歲」, 第一輯(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74), p.15.

成都会議에서도 毛沢東은 平和時期的 國防費는 적게 배정되어야만 한다는 點을 指摘했다. 47) 그러나 1958年5月20日 党8期2次大會에서는 平和의 可能性이 戰爭의 可能性보다 높은 것은 事實이지만 帝國主義가 處한 經濟危機때문에 戰爭이 勃發할 可能性도 充分히 있음을 警告함으로써 48) 「平和」와 「戰爭」 사이를 往來하면서 苦惱하는 모습을 보였다.

平和를 確保하여 中共의 社會主義建設을 促進하면서도 中共人民의 鬪志를 沮喪시키지 않고 維持시키는 問題가 毛沢東思想에 있어 重要課題로 抬頭된 것이다. 毛沢東은 이 두가지 矛盾되는 側面을 如何히 調停해내려 했는가? 毛沢東은 中共이 먼저, 戰爭을 決코 일으키지는 않되 49) 美國이 中共을 攻擊해오면 奮然히 일어나 싸울 것이라는 50) 論理를 一貫해서 展開해 나왔다. 1964年 核實驗에 成功하고 이어서 中距離核運搬手段까지 開發한 뒤에도 中共은 繼續해서 中共自身이 먼저 核을 使用하지 않을 것을 強調함으로써

註47) 毛沢東, "在成都會議上的講話", Ibid., p.163.

48) 毛沢東, "在八大二次會議上的講話", Ibid., p.208.

49) 毛沢東은 1961年 英國의 Montgomery 將軍과의 會見에서 中共은 "資本主義國家가 아니기 때문에 100年, 10,000年 이 지나도 絶대로 侵略行爲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毛沢東, "在擴大的中央工作會議上的講話", Ibid., p.412. 參照.

50) Edgar Snow, "Interview with Mao", op.cit., p.22.

守備中心의 戰略을 堅持하였다.⁵¹⁾ 中共이 防禦的인 姿勢를 取하게 된 것은 勿論 그 力量이 微弱하기 때문에 不得已한 것이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지만⁵²⁾ 50年代 60年代에 걸쳐 守備中心의 戰略을 堅持해 왔음은 1969年 4月 28日 中共黨 九期 1中全會에서 한 毛沢東의 演說內容에서 明確히 드러난다. 그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侵略者들이 우리를 攻撃해올 지 모르나 우리는 우리國境 밖에서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는 侵略戰爭을

註 51) Samuel S. Kim, op.cit., p.69 : 毛沢東의 立場은 이러하였으나 軍部内部에는 強硬·穩健의 對立이 있었다. 中共内部의 強·穩派間의 戰略論爭에 對해서는 Donald Zagoria, "The Strategic Debate in Peking," Tang Tsou (ed.), China in Crisis, Vol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237-268 參照.

52) 50年代 60年代 中共의 戰略이 守備的인 性格의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狀況에 對한 仔細한 說明은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Macmillan, 1960): idem, The Chinese Calculus of Deterrence: India and Indochin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5): idem, "The Use of Force in Foreign Policy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2(Jul./1972), pp.55-66: James C. Hsiung Law and Policy in China's Foreign Relations: A Study of Attitudes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 Samuel S. Kim, op.cit., pp.68-69 參照.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侵略者들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 해도 우리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侵略者들이 우리를 攻撃해오면 우리는 侵略者들을 相對해서 싸울 것이다. …… 侵略者들이 中國에 와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人民들의 包圍網속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飛行機, 탱크, 裝甲車를 끌고와도 中國人들은 그것들을 해치울 수 있는 經驗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⁵³⁾

根本적으로 守備的인 戰略을 扞한 뒤에도 毛沢東은 戰爭에 對한 두려움이 人民들의 革命熱意에 미칠 心理的 影響을 매우 두려워 하였다. 毛沢東은 核時代에 있어서의 戰爭에 對한 두려움은 敵의 力量과 戰爭의 破壞力에 對해서 너무 過大評價한 데에서부터 起因한 것이며, 「帝國主義者」들이 바로 이 點을 利用하여, 核에 對하여 熱心히 虛勢를 부리고 恐喝을 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⁵⁴⁾

따라서 1969年 九期 1中全會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心理的으로 準備를 갖추는 것이다. 心理的으로 準備를 한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精神姿勢를 가다듬어야만 한다는 뜻이다.”⁵⁵⁾ 라고 말

註 53) Stuart Schram, Mao Talks to the People: Talks and Letters, 1956-1971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p. 285-286

54) 毛沢東, “抗日戰爭勝利後的時局和我們的方針”, “選集”, 第四卷, p. 1032: 紅旗雜誌編輯部, “列寧主義萬歲”, 《紅旗》, 1960, 8. pp. 10-11 參照.

55) Stuart Schram, Mao Talks to the People, p. 285.

함으로써 美國의 原子彈에 對抗하여 싸울 수 있는 「精神的인 原子彈」을 갖자고 力說하였다.

物質이 不足하면 精神으로 支撐하려는 것이 人間의 本能이다. 蘇聯은 毛沢東의 이러한 立場을 核에 對하여 無知한 所致라고 비웃었지만, 人間이 武器를 支配하는 것임을 前提하는 毛沢東의 戰略的 樂觀主義는 적어도 두가지 面에서 效果를 거두었다. 첫째, 「帝國主義者」들의 核恐喝에 대한 沮止力을 發揮했다. 즉 核恐喝自体가 一種의 心理戰이었는데 그 效果가 나기는 커녕 中共이 언제라도 싸울 準備가 되어 있다는 覺悟를 表明하면서 오히려 原子彈의 偉力을 無視하려는 逆心理戰을 展開하자, 核恐喝政策의 根本的인 再檢討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核恐喝에도 不拘하고 老大的 人口를 바탕으로 하여 核攻擊까지도 克服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지게 하고 또한 中共人民들이 이데올로기의 面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效果를 남게 한 것이다.⁵⁶⁾

核戰爭發勃에 對한 毛沢東의 戰略的 樂觀主義는 毛沢東의 「帝國主義本質論」에 根拠한 것이다. 毛沢東은 帝國主義란 元來 「人民」을 抹殺시키려 하기보다는 살려두고 擄取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⁵⁷⁾ 따라서 核戰爭을 廻避하려는 것이 帝國主義의 本質에

註 56) Samuel S.Kim, op.cit., p.69.

57) 紅旗雜誌編輯部, "列寧主義萬歲", 「紅旗」, 1960.8. p.14 (人民日報, 1960.4.20) 參照. 이 論文의 實際 執筆者는 毛沢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點에 對해서는 Samuel S.Kim, op.cit., p.50.

基礎한 戰略이라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蘇聯은 核戰爭이란 미치광이에 依해서도 얼마든지 不意에 일어날 수 있는 可能性을 重視하여야 한다고 前提하고, 數百·數億 「人民」들의 生命을 놓고 賭博하는 일은 無謀한 일이라고 反駁하고 나섰던 것이다.⁵⁸⁾ 全面的인 核戰爭의 勃發可能性에 대한 中·蘇의 이러한 相反된 主張은 局地戰的 革命戰爭의 支援問題를 둘러싼 論爭으로 번졌다.⁵⁹⁾

中共은 蘇聯이 平和共存理論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인 뒤 이를 政策으로까지 들고 나옴으로써 国内的 革命戰爭과 國家間的 戰爭 사이에 存在하는 重大한 差異까지도 模糊하게 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国内的 革命戰爭은 바람직하고 또한 不可避한 것인 反面 國家間的 戰爭은 廻避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廻避해야 한다면서, 革命的·反植民主義的인 国内戰爭은 -戰後歷史를 보더라도- 大規模 戰爭이나 核戰爭으로 發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前提에

註 58) 核戰爭의 勃發可能性에 對한 中共의 否定的 立場을 非難하는 蘇聯의 非難內容은 William E. Griffith, The Sino-Soviet Rift (Cambridge: M.I.T. Press, 1964), pp. 354-370 에 收錄

59) 中·蘇間의 論爭에 對한 仔細한 說明은 第三章 第一節 나項 參照. 여기서는 毛沢東의 戰爭觀에 關聯된 中共側의 立場만을 보기로 한다.

60) "列寧主義萬歲", pp. 6-7.

서 中共은 1963年12月 蘇聯共産党中央委員會에 보내는 公開書翰에서 国内革命戰爭 支援에 대한 立場을 다음과 같이 明確하게 闡明하였다.

“相異한 社会制度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도 平和共存原則을 堅持하면서,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義務를 確固不動하게 履行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民族解放運動을 積極적으로 支援할 것이다.”⁶¹⁾

民族解放戰爭의 價值와 不可避性を 力說하고 民族解放 戰爭에 對한 支援을 하겠다고 公言하였지만 支援形態는 大体로 名分上의 支援이라는 獨特한 形態를 取하고 있었다. 毛沢東은 支援問題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革命이란 每個民族의 自己的 事情이라는 立場을 一貫해서 지녀왔다. 우리는 또 프롤레타리아들을 解放할 수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自身들 뿐이며 한나라 人民의 解放에는 自己国内人民들의 覺悟와 自己 国内革命의 條件이 成熟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一貫해서 믿어왔다. 革命은 輸出할 수도 없고 輸入할 수도 없는 것이다. 누구도 다른 나라 人民들이 革命을 進行시키도록 許諾하거나 擘苗助長의 方法으로 다른 나라의 革命을 造作해낼 수도 없다.”⁶²⁾

註 61) Peaceful Coexistence: Two Diametrically Opposed Policies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3), p. 16

62) “列寧主義萬歲”, p. 17.

“中国은 革命運動을 支援해왔다. 그러나 軍隊를 派遣하는 形式은 아니었다. 解放鬪爭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聲明을 發表해서 그 解放鬪爭을 支援하라는 呼訴文을 發表해왔다. 帝國主義者들을 성가시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支援이었다.”⁶³⁾

毛沢東의 이러한 立場은 그의 生前동안 繼續되었다. 1969年9月 林彪도 自力에 依한 民族解放戰爭의 遂行을 強調하였고,⁶⁴⁾ 1975年 5月 喬冠華(外交部長)도 民族解放戰爭에 関한 毛沢東의 路線을 踏襲하여 革命輸出不可論을⁶⁵⁾ 되풀이 했다. 이를 통해서 보면 民族 解放戰爭에 対한 理論과 實際는 크게 乖離됨이 없이 展開되고 實踐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革命戰爭이 價值있고 또한 不可避하다고 主張해온 것은 他국이 中共의 民族解放戰爭類型을 模倣하도록 하려는 意圖에서 였던 것일 뿐, 그 自体가 中共의 世界戰略의 靑写真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⁶⁶⁾ 왜냐하면

註63) Edgar Snow, "Interview with Mao", op. cit., p.22.

64) 林彪, "人民解放戰爭勝利萬歲", 「林彪專輯」, "한 나라의 革命이나 人民戰爭은 그나라 群衆들의 일이며 基本的으로 그들 自身の 努力에 依해서 遂行되어야 한다. 그 以外에는 方途가 없다."라고 했다.

65) 喬冠華, "關於當前, 世界形勢及 中共對外政策的講話", 「中共機密文件彙編」(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78), pp.402-410. 특히 p.404, 405, 407.

66) Samuel S. Kim, op. cit., p.72.

1949年以後 中共이 中共國境밖에서 使用한 武力中에 民族解放戰爭支援의 性格을 띤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⁶⁷⁾ 中共이 다만 中共式의 民族解放戰爭理論만을 輸出하려 했던 것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地域의 革命戰爭에 對한 中共의 支援比率을 보면 알 수 있다. 例컨대 1965年 한 해동안 中共은 120個의 갖가지 類型의 革命戰爭中 23個에 對해서만 聲明·呼訴文등을 發表해 주었을 뿐이다.⁶⁸⁾

以上을 통해서 볼 때 執權後 毛沢東의 戰爭觀은 主意主義的인 面에서는 革命期와 差異가 없었지만, 根本的으로 防禦的인 性格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發生의 不可避性을 前提로 한 民族解放戰爭觀마저도 戰爭理論만을 輸出하려 했을 뿐 民族解放戰爭 그 自体를 使喚하거나 輸出하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註67) James Hsiung, Lan and Policy in China's Foreign Relations,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1972), pp.293-296 : Thomas W.Robinson, "Peking's Revolutionary Strategy in the Developing World:The Failures of Success", (Santa Monica:RAND Corporation, p-4169, August,1969), p.12:Samuel S.Kim, op.cit.,p.72.

68) Peter Van Ness, op.cit., p.82.

第四節 毛沢東의 國際政治思想의 特性

가. 對內的 價値의 國際的 擴散

毛沢東은 對內的인 社會發展과 對外的인 反帝國主義鬪爭을 항상 連結시켜 가면서 그의 理論을 展開했다. 이러한 概念的 連繫는 毛沢東이 共產主義者이기 때문에 생기는 當然한 歸結이다. 部分과 全体에 對한 分析을 同時에 하면서 그 關係를 究明해 나가는 唯物辯證法的 思考類型을 갖춘 者라면 中國의 現實과 國際的 狀況을 恒常 連結지어 가면서 戰略을 樹立하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理論적으로 볼 때는 對內的인 社會發展과 對外的인 反帝國主義 鬪爭의 連結理由가 어떻게 說明되겠지만 毛沢東 自身이 處했던 狀況이 바로 이러한 連繫的 思考를 不可避하게 하였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毛沢東은 안으로는 蔣介石과 싸우면서 同時에 日本을 相對로 하는 이른바 「反封建 反帝國主義鬪爭」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抗日救國民族統一戰線」이라는 名分下에 비록 抗日보다 反蔣介石工作에 더 많은 力量을 集中시키기는 했지만, 反蔣介石·抗日鬪爭을 同時에 遂行해 나가야만 하는 狀況에서 더욱 兩者의 連繫를 重視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革命期의 狀況이 二重鬪爭을 要求하였듯이 執權後에도 毛沢東에게는 二重의 鬪爭이 課題로 賦與되었다. 本是 落後한 中國을 共產化시켰기 때문에 「社會主義建設」에서의 여러가지 難關을 넘어야만 했고 同時에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의 安保的 威脅에도 對處하여야만 했다.

「社會主義建設」과 「帝國主義」의 挑戰속에서 中共의 國際的 地位를 格上시켜 對內·外的으로 「새로운 中國」을 만들어 나가려 했던 것이다.

對內的 問題와 對外的 問題를 恒常 하나의 連結線上에서 把握하고 構想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으로 毛沢東의 認識過程은 直接的인 問題에서 広範한 周辺問題로 퍼져 나가는 方式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國內問題로부터 分析하여 나가다 國際問題로까지 번진다면, 國內政治에서의 價值와 規範을 國際政治에도 適用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對內的인 革命的 秩序와 正義를 國際社會에도 適用하려 하였던 發想은 方法論的 意味로 볼 때, 傳統的인 中國의 國際秩序觀의 展開過程과 類似한 面이 있다. 왜냐하면 傳統的인 國際秩序觀은 原來 儒敎哲學에 基礎한 對內秩序觀을 國際的으로 擴大 適用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

나. 大衆主義

中共은 自身이야말로 '不義와 不平等이 支配하는 現代世界의 非理에 對抗해서 싸우는' 大衆主義의 先導者임을 自處해 왔다. 이러한 立場의 表明이 多分히 宣傳的인 性格의 것임은 再論의 余地가 없지만 單純한 修辭로만 보기에선 矧然하지 않은 面도 많다. 「人民」을 위해서 服務(奉仕)하라(爲人民服務)」는 것이

註1) Samuel S. Kim, op.cit., p.82.

黨·政·軍 모두에게 適用되는 毛沢東의 敎示가 될만큼 毛沢東은 大衆主義를 最高의 價値로 여겼기 때문이다.

原來 마르크스主義에서는 農民을 「文明時代의 野蠻人」으로 規定하는 反面 都市 프롤레타리아의 道德的 革命的 優越性을 假定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를 러시아에 適用하는 過程에서 相當한 修正을 加했던 레닌도, 「勞動者·農民의 同盟」을 革命力量編成의 骨幹으로서 強調하였지만 大衆들의 群衆心理的 衝動을 重視함으로써 大衆의 力量을 根本적으로 低評價하고 있었다. 그러나 毛沢東은 大衆이야말로 歷史創造의 原動力이라고 믿고 있었다. 다만, 大衆들이 지니고 있는 奴隸根性을 버리도록 指導하여 그들 自身の 運命을 스스로 形成하도록 方向을 提示하여 주면 大衆은 무서운 힘을 發揮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면 毛沢東의 大衆主義는 어떠한 狀況에서 形成되었는가?

1921年 上海에서 中國共産黨이 創黨되었을 때 그 基本原理는 帝國主義에 反對하기 위한 統一戰線이 主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當時 中國 共産黨의 組織體系는 매우 散漫한 것이어서 陳獨秀를 頂點으로 하는 黨中央은 Comintern의 指示를 充實히 따르고 있는 反面 大部分의 地方組織은 獨自의인 路線에 依하여 活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黨中央 亦是 共産主義者만의 集合體가 아니고 一統一戰線的 組織原則에서 緣由한 것이지만—無政府主義者 自由主義者 多元主義者 以外에도 雜多한 政治思想의 所有者들의 混合體였다. 다만 陳獨秀라는 共産主義者가 Comintern의 權威를 빌어

雜多한 派閥들 間의 勢力均衡을 維持하고 있었다.²⁾ 그러나 1927年 蔣介石의 掃共作戰으로 國共合作이 깨지면서 中共党内에는 分派主義에 對한 反省과 더불어 새로운 政治的 리더십의 確立이 모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後에도 李立三, 陳紹禹 등의 割居로 黨은 그 리더십을 一元化하지 못하고 있었다.³⁾

한편 創黨멤버의 한 사람이면서도 毛沢東은 黨中央에 크게 進出하지 못하고 있었다. 黨中央에서는 疏外된 채 湖南省을 主舞臺로 共產主義運動을 하던 毛沢東으로서는 黨中央의 分派主義에 對한 反撥意識이 있었다. 分派主義가 바로 自身の 黨内에서의 位置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因으로 作用한다고 理解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與件에서 農村을 舞臺로 共產主義를 普及시키고 組織을 指導하던 毛沢東이 派閥보다는 大衆을 하나로 묶어 그 勢力을 共產化의 原動力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은 當然한 歸結이었을 지도 모른다. 여기에 毛沢東의 大衆主義의 反分派主義的 起源이 있는 것이다.

初期의 共產黨組織들이 恒用 그러했듯이 中國共產黨도 역시 1920年代에는 知識人 中心의 團體였다.⁴⁾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

註2) John W. L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pp.7-9.

3) 그 原因으로서는 Comintern의 背後妨害工作이 있었다고 한다. Ibid., p.10. 參照.

4) Robert A. Scalapino,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 Goals(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9), pp.8-9.

組織原理 自体가 엘리트主義를 挾하고 있기 때문에 知識人 中心의 初期 中共黨에서 知的 背景이 弱한 毛沢東이 重用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⁵⁾ 党中央에서 疏外된 채 党中央의 知識人들과는 別個로 大衆과 呼吸을 같이 하던 毛沢東으로서는 知識人 中心의 共產主義運動보다는 大衆을 動員하는 共產主義運動을 重視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毛沢東의 大衆主義의 反知性主義主義的 起源이 있는 것이다.

知性主義와 分派主義에 對한 反撥속에서 湖南省의 農民運動을 視察한 毛沢東은 그 報告書에서 大衆 特히 農民大衆의 力量을 다음과 같이 높이 評價하고 있다.

‘長沙地方의 調査를 통해서 보면 鄉村人口中 貧農이 百分의 七十을 차지하고 中農이 百分의 二十, 地主와 富農이 百分의 十을 차지하고 있다. …… 이 貧農이라는 大衆은 鄉村人口의 百分의 七十을 차지하면서 同時에 農民協會의 中堅이자 封建勢力을 打倒하는 先鋒이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成就된 革命大業의 元勳이다. 貧農階級없이 는 오늘 날 鄉村의 革命狀態를 결코 이룰 수 없었으며 土豪劣紳을 打倒

註 5) 毛沢東이 1927年 1月4日부터 2月5일까지 32日間に 걸쳐 當時 中共黨이 農民運動의 中心地로 指目하고 있던 湖南省의 農民運動에 對한 視察을 마치고 그 報告書를 党中央에 提出했을 때 黨首腦들은 毛의 報告書를 一蹴해 버렸다고 한다.

하고 民主革命을 完成할 수가 없었다.⁶⁾

'매우 가까운 狀來에 數億의 農民들이 中國의 中部 南部 北部할 것 없이 到處에서 蜂起하여 폭풍과 소나기같은 氣勢로 치내달려 어떠한 커다란 힘도 그것을 抑制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革命的 '党派 革命的 同志들이 將次는 그들의 面前에 서서 檢驗을 當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決定如何에 따라 採択되어지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할 것이다.'⁷⁾

農民을 知慧와 德의 源泉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中國에 새 秩序를 樹立하는 原則까지도 農民에게서 찾아내려 한 毛沢東의 立場은 50年代와 60年代에도 持續되었다. 中·蘇間에 理念紛爭이 激化되면서 毛沢東은 스탈린 生前의 對内外政策이 大衆主義를 取하지 않았음을 痛烈히 非難하고 나섰다. 毛沢東이 스탈린을 非難하는 理由는 農民大衆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農民大衆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中共黨의 執權可能性에 對하여 悲觀的인 立場을 取하였을 뿐만 아니라 沮止하려고까지 했다고 非難하였다.⁸⁾ 毛沢東의

註6) 毛沢東, '湖南農民考察報告'·「選集」, 第一卷, pp.20-21.

7) Ibid. p.13.

8) 毛沢東, '在成都會議上的講話', (1958.3) 「毛沢東思想 萬歲」, 第一輯(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4), p.164: idem, '在八屆十中全會上的講話', (1962.9) ibid., p.432: idem, '關於哲學問題的講話', (1964.8), ibid., p.552.

스탈린에 對한 非難內容을 좀 더 보기로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幹部가 決定한다」라던가 「技術이 모든 것을 決定한다」라는 등의 口號를 내세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쏘비에트를 電氣化하는 것이 共產主義다」라는 口號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口號는 스탈린이 提唱한 것으로서 片面性을 지니고 있다. 「技術이 모든 것을 決定한다」면 政治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幹部가 모든 것을 決定한다」면 大衆은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여기에는 辯證法이 없다. 스탈린은 때로는 辯證法을 알다가도 때로는 辯證法을 모른다.»⁹⁾

「스탈린의 이 冊은 처음부터 끝까지 上層構造에 對하여 言及하지 않고 있다. 사람에 對해서도 考慮를 하지 않고 있다. 物件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고 있다. 스탈린의 最後의 便紙에 나타난 觀點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다. 基本的인 錯誤는 農民을 믿지 않은 것이다.»¹⁰⁾

이를 통해서 볼 때 中·蘇紛爭은 후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를

註 9) 毛沢東, 「在八大 二次會議上的 講話」, (1958.5), 「毛沢東思想 萬歲」, 第一輯, p.204.

10) 毛沢東, 「對斯大林〈蘇聯社會主義 經濟問題〉的 批語」, 「毛沢東思想 萬歲」, 第2輯 (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4), p.156.

契機로 露出되었을 뿐, 其實 스탈린 生前부터 그 素地가 자라왔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基本的인 原因이, 中共 問題 專門家들이 흔히 指摘하는 것처럼 國家利益의 衝突에 있었다기 보다는, 農民大衆들의 革命力量을 如何히 評價하느냐 하는데 對한 立場의 差異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바꾸어 말해서 毛沢東의 價值指向的인 世界觀이 權力指向的인 스탈린의 世界觀과 衝突할 수밖에 없는 方向으로 發展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¹¹⁾

毛沢東의 人性論, 革命的 樂觀主義, 戰爭觀 등에서 보아 온 「중이 호랑이」概念이나 「武器보다는 人間이 戰爭을 하는 것」이라는 등의 主張은 바로 이러한 農民大衆主義가 戰略的 思考로 轉換되어 간 實例가 된다고 하겠다.

毛沢東에게 있어서 大衆은 中共의 国力을 伸張시킬 수 있는 重要한 因素로 把握되고 있었다. 毛沢東은 '中國農民은 英國이나 美國의 勞動者보다 훨씬 훌륭하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빨리 社會主義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¹²⁾ 豪言하면서 中共 人口의 95%가 大衆의 便에 서 있기 때문에 国力 伸張에 있어 아주 좋은 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論理를 國際舞臺에까지 擴大適用해서 다음과 같이 中共의

註 11) Samuel S. Kim, op.cit., p.84.

12) 毛沢東, '關於反右傾 反保守的 講話', (1955.12), 「毛沢東 思想 萬歲」, 第一輯, p.29.

將來를 樂觀하고 있었다.

'이른 바 中國을 反對한다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얼마나 되는가? 西方國家의 帝國主義分子, 其他 國家의 反動派와 半反動派,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의 修正主義分子와 半修正主義分子들이 中國을 反對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種類의 사람들은 모두 합쳐도 全人類의 百分의 몇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百分의 五쯤 된다고 해 보자. 제일 많아도 百分의 十을 못넘는다. 百 사람中에 열 사람이 우리를 反對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全世界 27億 人口中 不過 2億7千萬이 우리를 反對한다는 셈이다. 나머지 24億3千萬은 우리를 擁護하거나 中國을 反對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기껏해야 敵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暫時동안 우리들에 대해서 懷疑的인 立場을 取하는 사람들이다.¹³⁾

世界 全体人口의 10%만이 끝까지 中共을 反對할 뿐 世界의 大衆은 中共을 끝까지 反對하지 않기 때문에 中共의 將來는 希望的이라는 것이다. 毛沢東은 「大衆 即 正義」라는 前提下에 「大衆이 있는 곳에 勝利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¹⁴⁾ 오늘 날 中共이 第三世界의 一員임을 굳이 強調하면서 그들과의 關係強化에 神經을 쓰는 것도 其實 이러한 大衆主義的 背景을

註 13) 毛沢東, 「關於反華問題」, (1960.3), Ibid., pp.316-317.

14) Samuel S. Kim, op.cit., p.84.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 平等主義

傳統的인 中國의 國際秩序觀은 差等的이고 階序的인 國內 社會秩序體系를 國際的으로 擴大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反해 毛沢東은 中共과 他國과의 對等한 位置를 力說해 왔으며 對內的으로도 平等社會를 建設하기 위해서 努力했다. 平等主義란 原來 그 自体로서는 價值觀的 意味가 없다. 그러나 毛沢東은 大衆과의 關係를 維持하면서 生活하는 사람들로서는 無視해서는 안될 하나의 行動指針이기 때문에 亦是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고 생각했다.¹⁵⁾

앙드레·말로의 인터뷰에서 毛沢東은 그의 平等主義的 立場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人間性問題를 放置한다 해도 그것때문에 資本主義가 반드시 되살아 나는것은 아니다. (그런 點에서 蘇聯사람들이 生産手段의 私有化로 復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當身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資本主義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不平等은 되살아 날 수 있다. 「새로운 階級」을 만들어 내려는 힘은 매우 強하다. 우리는 最近 軍의 号稱과

註 15) Andre Malraux, Anti-Memoires, translated by Terence Kilmarti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8), p. 373; Ibid., p. 84 에서 再引用.

階級制度를 廢止했다. 모든 幹部들이 一週日에 적어도 하루씩은 勞動者로 되돌아 가도록 되어 있고, 都市居住者들도 人民公社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 오도록 되어있다. 후루시초프는 共産黨이 政權만 掌握하면 革命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그것이 單純히 民族解放의 問題에 不過한 것처럼 - ' 16)

' (앙드레 · 말로의 質問 : 戰爭도 안해 본 農民이 戰爭에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簡單한 問題다. 우리는 農民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으므로써 農民戰士들로 하여금 우리가 特殊階級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17)

以上에서 보듯이 毛沢東은 大衆과 엘리트사이의 平等을 行動의 原則으로 提示하고 實踐하였던 것이다. 傳統的인 中國의 엘리트主義는 '精神을 쓰는 者는 사람을 다스리고 肉體를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肉體를 쓰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고 精神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먹어야 한다.' 18) 는 論理를 基調로 하고 있었다. 社會過程에서 上層部와

註 16) Ibid., p. 85.

17) 毛沢東, '同法國事務部長 馬爾羅的 談話', (1965.8), 「毛沢東思想 萬歲」, 第一輯, p. 617.

18) 藤文公, '勞力者食人, 勞心者食於人,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孟子」,

下層部の 区分, 文化過程에서의 肉体労働에 対한 精神労働의 優位, 이 두 가지를 根幹으로 해서 正當化되고 維持되어 왔던 것이 傳統中國의 엘리트主義였다.¹⁹⁾ 그 自体 寄生的인 性格의 것이긴 하였지만, 이러한 保守主義的인 現象維持에 對한 어떠한 挑戰이나 攪亂 行爲도 큰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中國社會自体가 이러한 寄生的인 엘리트主義에 對한 不平, 不滿을 胚胎·形成·發展시키기에는 困難하리 만큼 調和의 價值라는 것을 重視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中國歷史에 數 많은 民亂들이 있었으나 엘리트主義論理에 對한 挑戰의 次元에까지 發展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 좋은 傍證이 된다.²⁰⁾ 毛沢東이 平等主義를 提唱하면서 不退轉의 鬪爭을 벌였던 것은 이러한 끈질긴 文化的 歷史的 傳統에 對한 挑戰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 「紅·專論爭」이나 「下放運動」등의

註 19) Samuel S. Kim, op.cit., p.85.

20) 中國의 匪賊들은 往服地를 늘려 갈수록 被征服地를 다스릴 만한 經綸이 不足하여 不得已 當地의 知識人들과 結託 하거나 그들의 指導를 받게 되었다. 農民들에 依하여 推戴된 知識人들이 將帥나 君主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엘리트와 農民사이의 差異는 허물어지지 않았다.

Wolfgang Franke, A Century of Chinese Revolution: 1851-1949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70), pp.8-9. 參照.

中心되는 目標은 指導力과 大衆의 參與를 結合시켜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階級」-寄生的인 엘리트들-의 抬頭를 封鎖하려는 것이었다.

毛沢東의 이러한 平等主義的 立場은 「下放運動」을 통해서 政策的으로 展開되었다.²¹⁾ 1957年 5月 下放運動을 開始함에 즈음하여 毛沢東은 中共의 指導級 人士들이 大衆들과 苦痛을 함께 하려하지 않고 職位와 特惠에만 恣恣해 하는 傾向이 늘어가고 있음을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原則적으로 共產主義라면 모두 自身の 職位 高下를 莫論하고 보통 勞働者들과 비슷하거나 同等한 일을 하여야 한다.」²²⁾

여기에서 毛沢東은 黨幹部 官僚 知識分子 軍官등의 世界觀이 먼저 變化되어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中國社會의 轉化를 爲해서는

註 21) 下放運動의 政治的 意味는 大躍進運動등 毛沢東의 無理한 經濟政策에 批判적이었던 知識分子들에 對한 反右派鬪爭이었다. 本稿에서는 下放運動 自体를 論하지 않고 平等主義政策으로서의 下放運動을 다루기 때문에 下放運動의 平等主義的 側面만을 보기로 한다. 下放運動에 對해서는 Rensselaer W. Lee III, 'The Hsia Fang Systems: Marxism & Modernization', China Quarterly, No. 28. (Oct./Dec., 1966):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p. 90-91, 137-138, 296-297, 451-453, 參照.

22) Rensselaer W. Lee III, op.cit., pp. 44-45.

人民들의 世界觀이 먼저 變化되어야 한다는 前提이기 때문에, 그것은 社会改造를 위한 人間改造作業으로서의 意味까지 지니고 있었다.

人民들의 世界觀을 먼저 改造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인 運動으로서의 下放運動의 目標은 첫째 都市와 農村사이의 隔差를 없애고 둘째 精神勞動과 肉体勞動의 隔差를 없앤다는 데 있었다. 要컨대 中国社会에서의 中心과 周辺사이의 隔差를 克服한다는 데 目標을 둔 運動인 下放運動의 推進方式은, 그 指向하는 바가 매우 어려운 것과는 正反對로, 매우 單純한 感이 없지 않았다. 즉 大衆과 指導層사이의 紐帶가 매우 重要한 것인 바, 그것은 指導層과 大衆이 苦痛을 함께 하고 같이 勞動을 함으로써 形成되고 維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에 立脚하여 毛沢東은 個人秘書에 對한 過多한 依存은 革命意識이 衰退하고 있다는 証拠라는 點, 衛生部가 全体 人口의 15%에게만 醫藥施惠를 줌으로써 人民의 衛生部가 아니라 都市衛生部 또는 都市老人들만의 衛生部가 되어가고 있다는 點, 高位黨職者들이 腐敗· 懈怠해지고 있으며 自己滿足에 흐르고 있는 點, 幹部子弟들이 自己네끼리만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있는 點등을 指摘했던 것이다.²³⁾

註 23) 反平等主義的 風潮에 對한 毛沢東의 批判은 다음과 같은 資料들에서 散見되고 있다. 毛沢東, '和毛遠新的 談話', (1964.3), 「毛沢東思想 萬歲」, 第一輯, p.468; idem, '關於 哲學問題的 講話', (1964.8), ibid., p.551; idem, '對衛生工作的 指示', (1965.6), ibid., p.615. 參照.

下放運動을 展開하고 些少한 原則과 方針까지 毛沢東 自身이 提示하면서 展開한 平等主義 社会建設作業이 順坦하게만 進行되지 不是었다. 毛沢東의 끈질긴 努力에도 不拘하고 「平等主義的 社会建設을 浸蝕하는 反動的인 힘」은 如前하였다.²⁴⁾ 뿐만 아니라 上層部에서는 資本主義的 風潮마저 되살아나고 있었다. 資本主義 自体를 不平等의 温床으로 보고 있는 毛沢東에게 있어서 實用主義는 蘇聯의 修正主義와 마찬가지로 幻想으로만 여겨졌다. 즉 實用主義에 立脚하여, 社会主義的 方式만을 固執할 것이 아니라, 財貨와 用役의 生産性を 높이는 길이 오히려 社会平等과 正義를 具現시키는 捷徑이라는 鄧小平의 「黑猫白猫論」같은 理論을 毛沢東은 매우 危險한 幻想으로만 느꼈던 것이다.²⁵⁾

毛沢東의 價值觀이라는 側面에서만 본다면 文化大革命은 모든 犧牲에도 不拘하고 必要不可缺한 作業이었다. 왜냐하면 社会改造를 위해서 先行되어야 할 上層構造의 問題-意識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唯一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文化大革命을, 劉少奇·鄧小平 등 「走資派」에 빼긴 政治權力을 奪還하려는 鬪爭過程으로 본다면 文化大革命의 意味는 勿論 다른 樣相을 띠게 되지만, 毛沢東 自身の

註24) 1965年 毛沢東은 Edgar Snow 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人性改造의 어려움을 実吐하였다. Edgar Snow, 'Interview with Mao', op.cit., p.23 参照.

25) Samuel S. Kim, op.cit., p.87.

平等主義의 價值觀을 具現시키려는 鬪爭過程으로 볼 때 그 意味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즉 不平等과 엘리트主義를 基調로 한 傳統的인 中國의 精神文化改革으로서 意味를 갖는 것이다.

라. 民族主義 : 中華思想의 持續

한 民族이 感激하거나 奮起하는 것은 그들의 歷史에 대한 回顧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榮光스러웠던 歷史는 後孫들에게 再起할 수 있는 勇氣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며, 辱된 歷史는 後孫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悲劇이 일어나지 않도록 緊張시켜 준다. 民族이 感激하는 것은 勝戰의 기쁨보다는 敗戰의 悔恨에서 비롯되는 境遇가 많다.²⁶⁾ 自己民族의 歷史에 對한 矜持와 不滿이 毛沢東으로 하여금 國際政治에서 強力한 國家를 建設한다는 執念을 불태우게 했던 것이며,²⁷⁾ 이러한 執念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와 中國의 現實을 辯証法的으로 綜合한 所謂 「마르크스主義의 中國化」도

註26) Carlton Hayes, Nationalism; A Religion(New York: MacMillan, 1960): 車基壁譯 「民族主義」 (서울: 文明社, 1972), pp. 17-18.

27) Samuel S. Kim, op.cit., pp. 87-88. 그는 毛沢東의 執念을 自己民族史에 對한 不滿의 所産으로만 보고 있다. 그러나 中國歷史에 對한 矜持가 없이는 不滿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을 考慮하면 自己民族史에 對한 矜持도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毛沢東의 「漢族의 榮光再現」에 對한 概略的인 論及은 Stuart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pp. 161-162. 參照.

可能했던 것이다.

毛沢東의 思想에 있어서 時間이 흐름에 따라 變化해 가는 것들이 大部分이었지만 中國民族이 偉대한 民族이라는 點, 偉大했던 民族이 近代以後 여러가지 壓迫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點, 革命만이 이러한 矛盾을 解決할 수 있고 漢族의 榮光을 再現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點은 時間의 흐름에 關係없이 持續되었던 것들이다.

五·四運動 直後인 7月「湘江評論」創刊号에서 毛沢東은 「中國民族은 本質적으로 偉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壓制가 甚할수록 抵抗도 冑으며, 오랜 歷史를 通해 累積되어 온 이러한 힘은 반드시 爆發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力量을 發揮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만 한다. 우리의 黃金時代, 榮光의 時代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²⁸⁾」라고 함으로써 中國民族의 力量에 對한 矜持의 一端을 表出한 바 있다. 이러한 立場은 共產主義者가 된 뒤에도 繼續되었다. 1940年代의 그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中華民國의 開化史(주로 漢族의)를 보면 農業과 手工業은 매우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었다. 思想家 科學者 發明家 政治家 戰略家 文學家 科學者 藝術家들이 繁昌하였으며 그 結果 古典的인 作品들도 많이 남게 되었다. 羅針版이 中國에서는 棼 오래前에 이미 發明되었고 製紙術도 1800 年前

註 28) 湘江評論에 掲載되었던 毛沢東의 宣言文은 Ib id., pp. 162-164 에 收錄.

부터 發達해 왔다. 1300年前에 印刷術이 發達하기 始作하였고 活字도 800年前부터 쓰여지게 되었다. 火藥도 歐羅巴보다는 훨씬 먼저부터 使用해 왔다. 따라서 世界文明國들 中에서 中國이야말로 4000年前부터 文字로 記述된 歷史를 가진 오랜 國家이다. 中國民族은 그 끈기와 勤勉性으로 因하여 가장 有名할 뿐 아니라 豊富한 革命的 傳統을 지닌, 그러면서도 自由를 사랑하는 民族이다.²⁹⁾

우수한 文化와 不掘의 歷史를 가진 中國이 西洋勢力의 東漸으로 因하여 半植民地로 轉落하고 中國을 宗主國으로 섬기던 周邊國家-보다 正確히 表現하면 屬邦-들도 中國의 影響圈에서 離脫하는가 하면,³⁰⁾ 中國의 歷史發展 自体가 踏步狀態를 免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帝國主義와 國內反動派들의 抑壓과 搾取에 起因한 것으로 前提하는³¹⁾ 毛沢東은 中國大陸의 席捲을 눈 앞에 둔 1949年9月 21日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第一次全體會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30年前 湘江評論에서 論하던 主張을 中間決算하고 있다.

‘우리 民族은 다시는 侮辱을 받는 民族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어섰다. 우리의 革命은 全世界의

註29) 毛沢東, ‘中國革命與 中國共產黨’, 「選集」, 第二卷, pp. 585-586.

30) 隣接國家를 屬邦觀念에서 論하고 있는 毛沢東의 立場에 대해서는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p. 96 參照.

31) 毛沢東, ‘中國人民站起來了’, 「選集」, 第五卷, (北京: 人民出版社, 1977), p. 5 參照.

廣大한 人民들로부터 同情과 歎呼를 받았다. …… 그러나
 우리의 革命課業은 아직 完結된 것은 아니다. …… 우리
 의 先祖들과 우리들의 長期間에 걸친 極度の 어려움을
 克服하고 国内外의 強力한 反動派들을 敗北시킬 수 있었다
 면, 우리라고 해서 革命後에 있어 繁盛한 나라를 왜 建設
 하지 못하겠는가? …… 中國인들이 非文明人으로 여겨지던
 時代는 끝났다. 우리는 高度의 文化를 가진 民族으로 世
 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의 國防도 堅固해 짐으로
 로써 어떠한 帝國主義者도 다시는 우리 領土를 侵犯하지
 못할 것이다. …… 中國 人民의 不懈의 努力으로 우리는
 우리의 目標을 向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³²⁾

既往에 大衆主義와 平等主義를 標榜한 뒤, 民族主義的 野望을 達
 成시키는 데 있어 毛沢東은 對內的인 社會·經濟的 正義와 平等을
 損傷시키지 않고 目的을 達成하려 했던 바, 이는 重大한 挑戰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毛沢東은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特殊한 形態의 矛盾分析方法을 適用했던 것이다. 「紅」과 「專」
 사이의 矛盾이 兩者의 統一로 解決될 수 있다고 믿었듯이, 毛沢東
 은 民族主義的 野望達成과 社會·經濟的인 正義·平等의 溫存사이
 에 均衡과 統一을 取하려 했다. 하나가 他者를 從屬시키는 方式
 을 避하려 했다는 點에서, 毛沢東的 表現을 빌린다면, 民族主義的

註 32) Ibid., pp. 5-6.

野望達成과 社会·經濟的인 正義·平等사이의 關係를 非對抗性的
矛盾關係로 把握했던 것이다.³³⁾

毛沢東이 兩者의 辯証法的 綜合(Synthesization)을 想定하고
있었던 點은 그의 言論에서 드러나고 있다. 急速한 國家發展을
위해 必要한 大衆動員에서 毛沢東은 心理學的 方法을 썼다. 즉
毛沢東은 中共 自身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強力한 國家가 되지
않고는 世界의 余他國家들로부터 平等하고 正當한 待遇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黨幹部와 人民들에게 누차 強調함으로써 民族
主義的 野望達成과 社会·經濟的 正義와 平等의 實現을 同時에
成就하려 했던 것이다. 그의 心理學的 大衆動員을 위한 論議의
一端을 보기로 한다.

「以前에 우리는 國際政治的인 地位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無視를 當했다. 덜레스(美國務長官:筆者)는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事情
에 맞지도 않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一理는
있었다. 왜냐하면 人口는 비록 많지만 力量이 아직 表現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리가 英國과 美國을
凌加하게 되면 그때서야 덜레스도 눈을 뜨고 中國이라는
國家가 있었다는 것을 承認하게 될 것이다.»³⁴⁾

註 33) Samuel S. Kim, op.cit., p. 88 參照.

34) 毛沢東, 「在八大二次會議上的 講話」(1958.5), 「毛沢東思想
萬歲」, 第一輯, p. 217.

'내가 보건대 우리나라의 名聲은 매우 높은데 實力은 強하지 못하다. ----- 現在 우리에게는 寸鐵밖에 없다. 國家는 實際적으로 弱한 實情이다. 政治上으로는 強國이지만 軍事裝備上 經濟上으로는 弱少國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當面한 任務는 弱한 것으로부터 強한 것으로 變化해 나가는 것이다.'³⁵⁾

'..... 西方國家는 歷代로 우리나라를 無視해 왔다. 中國은 오늘 날 無視當할 만한 地位에 處해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無視하는 데도 一理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神通하지 못하여 이렇게 큰 國家가 아주 僅少한 量의 鐵鋼밖에 生産 못하고 文盲者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로 無視當할 만 하기도 하지만 無視할테면 無視하라고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無視當하면 無視當할 수록 努力을 할 것이고 進歩를 하려는 意欲이 刺戟될 테니까.'³⁶⁾

國際社會에서의 平等한 待遇를 받고 中國의 地位를 再確認하기 위하여 - 民族主義的 野望을 達成하기 위하여 毛沢東은 이처럼 民族羞恥感을 먼저 造成한 뒤, 이를 民族發展의 原動力으로 昇華시키려 했던 것이다. 民族羞恥感이 民族發展 原動力으로 昇華될 수 있다.

註 35) 毛沢東, '在八屆六中全會上的 講話', (1958.12), 「毛沢東思想 萬歲」, 第一輯, p.267.

36) 毛沢東, '蘇聯〈政治經濟學〉 讀書筆記', (1962), Ibid, p.382.

믿었던 것은 中国民族의 底力에 对한 毛沢東나름의 確信이 있었기 때문이다.

民族主義的 野望을 達成하기에는 너무나 貧弱한 現實위에 中共이 있다고 믿는 懷疑主義者들을 說得시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急速한 經濟發展이라는 國家的 目標과 平等的 正義具現이라는 社會的 目標를 接合(Sythesize)시키기 위하여 毛沢東은 國家의 力量을 云謂할 때마다 「社會主義」라는 概念을 즐겨 使用했다. '力量의 對比란 鉄鋼이나 其他 財貨의 生産量등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만은 아니고 어느 쪽이 人民의 支持를 받는가 어느 쪽이 더 正義로운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弱者가 强者를 이기고 非武装勢力이 重武装勢力을 이기는 實例와 더불어 正義는 中共便에 있기 때문에, 지금 當場 中共의 財貨生産量이 적다 하더라도 中共이 필경 力量對比의 優位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點을 力說했던 것이다.³⁷⁾

이러한 論理展開方式은 當面難題를 克服할 때마다 毛沢東이 즐겨 써 온 方式으로서 毛沢東 思想의 主要因素인 主意主義的 革命的 樂觀主義의 兪露라고 할 수 있다.

毛沢東이 民族主義的 野望을 達成하기 위하여 理論과 實際의 各方面에서 여러가지 努力을 하였지만, 種族主義的이거나 國粹主義的인

註 37) 「人民日報」, 1957年 11月 25日, 社論 '偉大的 革命 宣言'.

論議나 指示는 하지 않았다. 民族主義가 社会發展의 強力한 原動力이라는 事實은 分明히 認定하면서도 漢族의 國粹主義가 되살아날 危險性이 尙存하고 있음을 警告하였던 것이다. 이런 點에서 毛沢東은 民族主義란 그 自体가 가지고 있는 善·惡의 兩面을 認識하지 못한 채, 善한 面만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卽 毛沢東은 民族主義가 唱導되어야 할 目的과 價値에 依해서 한 나라의 民族主義의 性格이 決定된다고 믿었던 것이다.³⁸⁾

毛沢東의 民族主義가 非種族主義的이고 非國粹主義的인 面貌를 갖추게 된 原因으로서 毛沢東 自身の 如上한 民族主義觀을 들 수도 있지만, 中國의 傳統的 中華思想이 갖는 特性和 結附시켜 論할 수도 있다. 中華思想이란 그 自体가 原來 非種族主義的이며 非國粹主義的인 面을 가진 文化的인 優越意識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毛沢東의 民族主義가 非種族主義的이고 非國粹主義的인 性格을 가지게 된 것은 새삼스럽거나 突然變異的인 事實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³⁹⁾ 要컨대 毛沢東의 民族主義는 中華思想의 連結線上에서 그 形成과 展開過程이 把握되어야만 할 問題인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毛沢東의 民族主義의 內容이 모두 中國民族의

註 38) Samuel S. Kim, op.cit., p. 89.

39) Samuel S. Kim 은 毛沢東의 民族主義에 種族的·國粹主義的 面貌가 없음을 매우 重視하면서 中華思想의 斷絶을 論하려고 있다. Ibid., pp. 89-90 參照.

優秀性を力説하고 中共의 새로운 位置를 熱烈히 喝求하는 方向에서 展開되어 왔기 때문에, 核武器下的 西歐統合을 現代版「朝貢制度」라고 批判하거나⁴⁰⁾ 大國國粹主義에 對한 非難과 함께⁴¹⁾ 中共自身은 絶對로 超強大國이 되지 않겠다는⁴²⁾ 宣傳的인 文句들을 根拠로 毛沢東의 民族主義를 中華思想과 斷絶시켜 가면서 그 意味를 찾으려는 것은 危險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註 40) 毛沢東, 「關於「宦鄉論西方世界的破裂」, (1958), 「毛沢東思想萬歲」, 第一輯, p.245 參照.

41) 毛沢東, 「在八大二次會議上的講話」, (1958.5), Ibid., pp. 186-196. 特히 p.195; 中共黨規約 (1973.8.23. 中共黨 10全大會採択), 第一章(總綱) 參照.

42) 中共憲法(1978.3.5, 全人代 5期 1次會議採択), 序言 參照.

第三章 中共의 對外政策理論 變化過程

第一節 中共의 對外政策 基調 및 指針

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世界革命理論

中共의 國際秩序觀은 상당한 期間동안 스탈린에 의해서 規定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틀 속에서 發展해 왔다. 스탈린이 規定한 마르크스-레닌主義 原則이라는 것이 레닌의 思想과 行動에서 由来하였고 따라서 상당한 持續性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스탈린은 레닌의 思想에서 自己의 立場과 矛盾되는 것들을 削除하고 全体主義國家의 官用이데올로기로써 有用한 部分은 強調하면서 自己 類型으로 定型化했다.¹⁾

스탈린에 依해서 脚色된 마르크스-레닌主義는 蘇聯共產主義者들 뿐만아니라 餘他國家의 「正統」共產主義者들에게도 政治思想教育의 基礎로서 提示되었다. 中共黨幹部들도 여기에서 例外는 아니었다. 1927年8月 陳獨秀가 去勢된 뒤 1935年1月 毛沢東이 黨權을 掌握할 때 까지 期間은 대체로 蘇聯의 中共黨支配期로 통한다.²⁾

註 1) Richard Lowenthal, "Soviet and Chinese Communist World Views", Donald W. Treadgold(ed.), Soviet and Chinese Commun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7), pp. 376-377.

2) 陳獨秀의 去勢原因 및 過程에 對해서는 郭華倫, 「中共史論」, 第一冊 (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69), pp. 233-272 參照.

이 期間 동안에 蘇聯의 理論이 中共黨의 指導路線에 미친 影響은 莫強한 것이었다. 毛沢東이 黨權을 掌握하고 나서 戰略·戰術·黨組織 등에 있어서 中共黨 나름의 独自の인 方向摸索이 強力하게 推進되면서도 毛沢東과 그 一派는 스탈린의 一般原則을 如前히 重視했으며 특히 國際問題에 대한 스탈린의 해석은 더욱 重視되는 實情이었다. 延安時代에도 黨幹部訓練에 있어 스탈린의 著作研究가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고, 中共政權樹立 後는 물론 스탈린의 死後에도 一中·蘇紛爭이 激化되기까지는— 스탈린의 著作은 研究와 引用的 對象이었었다.

그러면 스탈린의 著作들이 中共黨幹部들에게 이처럼 重視되었던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中共黨이 1935年에서 1945年 나아가서는 1949年 政府樹立에 成功할때 까지 蘇聯과의 紐帶를 除外하고는 完全히 孤立된 狀況에서 對日戰爭과 反蔣介石鬭爭을 벌려야만 했던 데에서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³⁾

이러한 事情으로 因하여 中共의 對外政策基調를 把握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탈린에 依해 脚色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世界革命理論에 對한 檢討가 先行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中國의 獨自性を 主張하고 나선 毛沢東 中心의 中國共產主義의 特性과 이에 根拠한 毛沢東 戰略을 分析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唯物史觀에 立脚하여 生産力과 生産關係사이

註3) Lowenthal, op.cit., p.377.

의 矛盾이 極大化되었을 때 無産階級이 主導하는 「밑으로부터의 革命(Revolution from below)」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歴史的 決定論을 主張했다. 「生産力과 生産關係사이의 矛盾이 極大化되었을 때」라는 前提는 곧 無産階級革命發生의 「場所」와 「時期」를 暗示해주고 있다. 즉 物質的 生産力이 高度로 發達한 「先進資本主義國家」에서 生産關係가 계속 發展・膨脹하는 生産力을 더 以上 包容할 수 없도록 自体의 「彈力을 잃었을 때」 無産階級の 革命이 「밑으로 부터」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展開를 위해서는 農村과 農民의 役割은 捨象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마르크스는 農民을 「文明時代의 야만인」이라고 멸시하면서 農村・野蠻國・半開化國・農業國・東方에서는 都市・文明國・工業國・西方의 革命이 일어난 뒤에야 그 影響을 받게되리라고 展望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後進・農業地域의 革命先發可能性을 排除하면서 展開된 先進國革命先發論은 其實 世界革命에 대한 比견을 欠如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先進國革命先發論에 修正을 加하고 世界革命理論的 次元으로 끌어올린 것은 레닌이었다.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革命의 場所로 規定한 「資本主義가 爛熟한 社會」가 아닌 러시아에서 마르

註 4) 스탈린은 “레닌主義는 帝國主義와 無産階級革命時代의 마르크스主義”라고 하므로써 「帝國主義論」이 마르크스主義의 發展에 기여한 點을 讚揚하고 있다. J.V.Stalin, Foundations of Leninism(Peking:Foreign Language Press,1965),pp. 2-3.

크스主義的 革命을 企圖하던 레닌은 「資本主義不均等發展論」과 「弱한 고리論」을 展開하므로써 러시아 革命의 妥當性を 說明하려고 했다.⁵⁾ 레닌은 “資本主義의 發展은 각 나라마다에서 그 速度가 一定하지는 않은 것이다.”⁶⁾ “資本主義世界的 均等發展이니 調和있는 發展이니 하는 것들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⁷⁾ 라고 前提하고 “社會主義가 모든 國家에서 동시에 勝利를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오로지 하나의 또는 몇개의 國家에서 勝利를 거둔 뒤 나머지 國家들은 一定한 時間이 경과한 後에야 資本主義 또는 資本主義前期段階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⁸⁾ 라고 말하므로써 資本主義經濟의 跳躍可能性을 論하고, 經濟發展의 不均等に 따라 생기는 資本主義 國家들 사이의 矛盾을 利用하여 資本主義를 打倒하려고 했다.

한편 이러한 資本主義不均等發展論은 「帝國主義勢力內에서의 弱한 고리」를 打擊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는 戰略理論의 基礎가 되고 있다. 「弱한 고리」論의 要旨을 보기로 한다.

註 5) 尹慶燿, 「從馬克思·列寧到 毛沢東思想探源」(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73), p.3.

6) 列寧, “無產階級革命的 軍事綱領”, 「列寧文選」, 第1卷(莫斯科: 外國文出版書局, 1949), p.1035.

7) 列寧, “第三國際及其其在歷史的地位”, 「列寧文選」第2卷(莫斯科: 外國文出版書局, 1950), p.57

8) 註 3)과 同

“從前에는 資本主義가 發達한 한나라의 無產階級革命은 그 自体가 別個의 独立的 現象인 것 처럼 말들을 하므로서 個別的 民族의 資本主義戰線만을 各自의 敵으로 看做해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觀點은 충분치 못하다. 오늘날은 世界無產階級革命을 論해야 하는 時代로서 個別的 民族의 資本主義戰線은 이미 世界帝國主義戰線이라는 쇠사슬에서 하나의 고리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世界各國의 革命戰線은 이러한 世界帝國主義戰線에 對抗하여 싸워야만 하게 되어있다.

從前에는 無產階級の 革命을 單純히 한나라의 内部發展의 結果로만 把握하였으나 오늘날에는 無產階級の 革命을 世界帝國主義體系속에서 各種 矛盾이 發展한 結果로 보아야 하며 世界帝國主義戰線이라는 쇠사슬이 어느 한 나라에서 끊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⁹⁾

以上과 같은 理論들에 依해 無產階級革命의 「時期」와 「場所」에 대한 마르크스와 Engels의 理論은 正反對로 修正된 셈이다. 즉 工業이 發達하고 無產階級이 人口의 多數를 占하는 地域으로서 文化水準이 높고 民主力量이 큰 곳에서 革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國家들로 構成되는 世界帝國主義의 쇠사슬중에서 가장 「弱한 고리」를 이루는 곳에서 革命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修正이 된 것이다. 革命이 일어난 國家에서는 資本主義戰線이 突破되었다

註 9) Stalin, Foundations of Leninism, pp.28-29.

는 것을 意味하고 그것은 다시 그 地域의 資本主義가 相對的으로 發展하지 않았던 탓으로 可能했다는 論理이기 때문에 스탈린은 "1917年 世界帝國主義쇠사슬중에서 가장 弱한 고리는 곧 러시아였고 다음번에 革命이 일어날 곳은 그때가서 가장 弱한 고리가 되는 곳이다."¹⁰⁾ 라고 말했던 것이다.

러시아 革命이 成功한 直後 레닌이 當面했던 問題는 大略 두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一但 成功한 볼셰비키 政權을 如何히 確固한 基盤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둘째, 最初의 共產國家인 蘇聯을 根拠地로 하여 共產主義 革命을 如何히 輸出 할 것인가? 하는 問題였다.¹¹⁾ 그런데 이 두가지 問題는 其實 하나의 脈絡속에서 說明될 수 있었다. 즉 革命의 輸出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볼셰비키 政權의 安保를 위한 先制攻擊의 意味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次大戰後 러시아는 對歐羅巴 共產主義革命輸出에 積極성을

註 10) Ibid., p.30.

11) 10月 革命後 레닌은 革命政權의 壽命에 對하여 매우 不安스럽게 생각했었다. 즉 Paris Commune의 短命, 러시아 2月 革命의 短命等 左翼革命의 短期性 때문에 革命의 結果를 매우 流動的으로 展望하였다. 列強의 干涉이 러시아에 까지 미치고 있던 狀況에서 國內 反革命勢力의 蠢動 가능성 때문에 레닌은 歐美諸國에 對하여 政權安保를 위한 여러가지 提議와 措置를 취했다. 레닌의 努力에 對한 簡略한 論議는 丁世鉉,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 「比較共產主義」(서울:自由아카데미, 1978), pp.180-182 參照.

되게 되었다. 一次大戰이 끝난 뒤 歐羅巴는 混亂과 貧困의 渦中에 있었다. 바꾸어 말해서 革命發生의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狀況이었다. 이에 레닌은 政府次元에서는 周邊國과 妥協的 姿勢를 취하면서도 黨次元에서는 革命輸出을 서두르는 二重外交를 하고 있었다. 1919年3月에 組織된 Comintern은 이러한 二重 外交目的 達成을 위한 國際組織이었다. Comintern 支部로서의 各國 共産黨을 통해서 레닌은 勞動階層에 侵透하여 그들을 組織하고 그 勢力을 利用하여 社會秩序의 紊亂과 그에 따르는 革命狀態를 誘導코자 했다. 그러나 레닌의 이러한 企圖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西歐에서 失敗한 레닌은 Comintern 極東分局을 創設하고 主攻擊의 方向을 東方으로 돌리기 始作했다. 1920年 第二次 Comintern 大會에서 레닌은 "植民地에서 獲得한 超過 利潤이 現代資本主義가 갖고있는 資產의 主要源泉이다. 現代資本主義는 이 超過利潤의 源泉을 喪失하지 않는 한 體制内の 勞動階級에 依해서 打倒되지 않는다." 12) 라고 하므로써 歐羅巴에 打擊을 加하기 위해서는 歐羅巴 勢力들에 抵抗하고 있는 東方의 民族主義勢力을 包摂할 것을 示唆하였다. 西方을 共産化시키기 위하여 東方의 民族主義勢力을 包摂하고 이들로 하여금 西方의 現代資本主義的 資產의 源泉을 封鎖토록 한다는 이른바 東方迂迴戰略은 東方의 民族自決運動이 反帝鬪爭

註 12) 레닌, "民族 및 植民地問題에 관한 테제", 「레닌選集」하 (평양: 동방사, 1965), p.1394.

争으로 發展할 것이며 그것은 다시 階級革命으로 發展하리라는 前提에서 構想된 것이었다.

그런데 階級革命의 始端이라고 前提된 民族自決運動을 刺戟하고, 民族自決運動이 階級革命으로 連結되게 하기 위해서는 一連의 政治工作이 必要할 것인 바 여기에서 民族主義勢力과 共産黨과의 戰術的 提携問題가 重要한 課題로 남게되면 이를 위한 方針이 이른바 統一戰線戰術이라는 것으로 定立된 것이다. 統一戰線戰術의 定立과 때를 같이하여 모습을 들어낸 東方迂廻戰略은 始源的으로 볼 때는 東方에서 西方革命의 可能性을 造成하고 出路를 打開한다는 意圖의 産物이었기 때문에 그 戰略的 重點은 其實 西方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嚴格한 意味에서 보면 레닌의 東方迂廻戰略은 消極的인 性格의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에 比하여 스탈린의 東方政策은 東方 그 自体의 重要性을 意識하는 面에서 볼 때는 매우 積極的인 性格을 띄고 있었다. 1918 年 11 月 스탈린은 이미 東方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強調한 바 있다.

“잠시라도 東方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東方은 世界帝國主義의 끊임없는 後備力量이다. 제일 믿음직한 後方이다. …… 그들로 하여금 帝國主義에 反對하게 함으로써 帝國主義가 그들의 後備力量과 後方을 喪失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 社會主義가 勝利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東方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眞理를 반드시 擲得하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¹³⁾

그 후에도 스탈린은 植民地 및 後進國의 地位가 無產階級革命의 成·敗를 左右하는 直接的인 關鍵임을 力說하면서 植民地問題·資本主義顛覆·無產階級獨裁를 一連의 問題로 連結지워 “民族과 植民地가 충분한 權利를 되찾지 못하면 帝國主義의 壓迫에서 벗어나는 일과 無產階級の 勝利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¹⁴⁾ 라고 強調했다. 1923年4月에 열린 蘇聯共産黨 12次大會에서도 스탈린은 報告를 통하여 “過去의 被壓迫 民族들은 經濟發展에 있어 第一 重要한 地域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軍事戰略的으로도 重要한 地域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被壓迫民族의 이러한 後備力量을 한 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¹⁵⁾ 는 點을 再 強調한 바 있다.

스탈린의 積極적인 東方政策의 意圖는 1924年4月 Swerdle大學에서 한 스탈린의 演說에서 더욱 鮮明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스탈린은 民族問題는 獨自의 問題가 아니고 無產階級革命이라는 커다란 問題의 一環임을 強調하면서, 民族獨立運動을 支援하는

註13) Stalin, "Don't Forget the East," J.V. Stalin Works, Vol.4(Moscow: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53), pp.174-175.

14) Stalin, "Concerning the Presentation of the National Question", Ibid., Vol.5, pp.56-58.

15) Stalin, "Report on National Factors in Party and State Affairs" J.V. Stalin Works, Vol.4. p.243, p.253.

目的을 다음과 같은 要旨에서 說明하였다. 즉 例컨대, 아프가니스탄의 獨立運動이 비록 君主制를 指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帝國主義勢力을 弱화시킨다는 點에서 볼 때는 革命的인 것이다. 또한 이집트 民族獨立運動指導者가 비록 資本主義勢力 出身이기는 하나 그가 이끄는 勢力이 中東에 있어서의 帝國主義勢力을 弱화시킬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革命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印度와 中國의 民族獨立運動도 帝國主義에 대한 重大한 打擊을 주리라는 點에서는 革命的 발걸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스탈린의 論旨였다.¹⁶⁾

나. 中國共產主義의 特徵

中國共產黨의 成立過程이나 그 初期의 人物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意味에서의 프로레타리아가 아니었음은 前述한 바¹⁷⁾ 있거니와, 소위 「新民主主義」期間에 있어서도 中共黨指導者 70名中 17%만이 無產階級出身이고 70%가 學生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小農·專門職業人·商人出身들이었으며 심지어 귀족적인 官吏집안出身까지도 있었다.¹⁸⁾ 이러한 엘리트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도그마에도 不拘하고 農民도 大衆의 役割을 해낼 수 있으며 革命的

註 16) Stalin, Foundations of Leninism, pp.75-76 參照.

17) 第二章 第五節 나. 大衆主義 參照.

18) Nym Wales, Inside Red China (New York: Praeger, 1939), p.335: 朴奉植, 「中共의 對外政策研究」(1975, 서울大學校 未發刊 博士學位論文) p.2 (以下「對外政策」으로 略記)

轉換의 原動力이 될 수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된 데에는 毛沢東의 役割이 컸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마르크스-레닌主義 原理에서 벗어난 認識過程은 「先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學習後 中国的 特殊性 認識」이라는 過程을 밟았지만,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을 중국의 特殊性에 맞게 적용해나가는 實踐面에서 毛沢東은 共產主義 史上 새로운 寄与를 했다고 할 수 있다.¹⁹⁾

毛沢東 支配下의 中共黨이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에서 보면 產業的 無產階級の 政黨이 아닌 農民의 黨이었고, 形勢에 따라 都市 아닌 農村을 根拠地로 삼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農業社會로서의 中国的 特殊性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重視하여야만 했으며, 그 때문에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라는 것도 불가피했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中共黨의 指導者들이 農村出身이고 革命過程에서 農業社會로서의 中国的 特殊性을 重視했다고 해서, 그들의 政權獲得目的이나 또는 政權獲得 後의 政策들이 農民의 이익을 追求하는 方向에서 決定되지는 않았다. 즉 中共의 指導者들은 窮極的으로 中国的 産業化의 潛在力에 對한 信念을 버리지 않았고 農民속에서 無產大衆의 役割과 力量을 發見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中共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意味의 「無產階級の 前衛」(Vanguard Party of the Proletariat)는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註 19) 朴奉植, 「對外政策」, p.3 그는 中共黨의 毛沢東의 實踐에 理論的 契機를 마련한 것은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1940.1)이라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意味의 「農民政黨」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農民의 불만을 活用하여 農民을 強力하게 組織化하므로써 權力을 掌握한 職業的인 革命家들이었다는 데에 中國共産黨의 第一次的인 特徵이 있다.²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에 成功했다고 하지만, 實踐面에서 共産主義史上 새로운 寄與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共産主義이데올로기 自体를 새로운 次元으로 發展시킨 것은 아니었다. 다만 反蔣介石 鬭爭과 抗日戰을 동시에 遂行해야만 하는 過程에서 지극히 現實的인 必要에 의해 戰略的으로 독특한 智慧를 發揮했던 것이다. 陳獨秀의 逐出이후 毛沢東이 黨權을 掌握하기 까지의 이른바 蘇聯共産黨의 中共黨支配期 동안에 中共黨의 指導路線은 蘇聯에 의해서 左之右之되었지만, Comintern을 통한 蘇聯의 指示가 頻번히 失敗로 끝남으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의인 定式이 中國의 歷史的인 發展段階에는 不適合하다는 것이 實證되었다. 이제 Comintern과는 다른 路線에서 黨의 命脈을 維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데올로기 自体에 대한 修正까지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實踐的인 戰略面에서 獨自的인 길을 扞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그러나 政治的 實踐을 위해서 限定된 範圍內에서 새로운 戰略을 提示하였으면서도, 逆으로 이 戰略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對한 直接的인 暗示를 하고 있었다는 데에 毛沢東思想에 立脚한 中國共産主義의 特徵이 있는 것이다.²¹⁾

註 20) Ibid

21) Ibid., pp. 3-4.

都市勞動者中心의 革命을 前提한 Comintern의 指示가 失敗로 돌아가자 中共黨으로서는 農村과 農民中心의 革命을 力說하는 毛沢東의 戰略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고, 점차로 毛沢東戰略만이 中共黨을 살릴 수 있는 唯一한 길이라는 것이 明白해지자 都市無產階級과의 提携, 그리고 窮極的으로 無產階級이 共産黨의 基盤이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正統的 觀念은 後退하고 말았다. 中國共産主義者들은 오히려 이러한 中國共産主義의 독특한 發展을 자랑으로 생각했고 또 이것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發展을 위한 毛沢東의 寄与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中國共産主義者들은 毛沢東이야말로 正確한 마르크스-레닌主義哲學에 立脚하여 黨을 領導하므로써 中共黨이 知識階級과 農民을 精神的인 面에서 프로레타리아로 轉變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無產階級에 現實的인 基礎를 두고 있다는 事實에서 無產者黨으로서의 共産黨의 本質이 保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正確한 프로레타리아敎理를 體得하고 實踐하는데 있다는 事實을 立証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²²⁾

中共指導者들이 中共의 對外政策을 特徵지우고 中國의 獨自性을 發揮하려는 또하나의 努力은 그들나름의 獨特한 「人民民主主義」 概念의 展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원래 Tito에서 비롯한

註22) Ibid., p.4.

「人民民主主義」라는 概念은²³⁾ 第二次 世界大戰後 蘇聯軍隊에 의해서 「나치스」 獨逸로 부터 「解放」되었고 樹立된 政權의 性格을 說明하는 하나의 理論的인 틀이었다.

1948年을 前後한 東歐諸國의 事情은 蘇聯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實情과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社會主義 概念으로서는 東歐諸國에 樹立된 政治秩序를 合理化할 수가 없었다. 社會主義國家로 發展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르조아民主主義的 課題를 處理하여야 할 過渡期가 必要했으며, 過渡期에서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르조아 小부르조아 農民 無產階級等 잡다한 勢力들로 構成된 聯立政府下에서 「無產階級の hegemony」를 確立할 必要까지 있었다. 뿐만아니라, 社會主義로의 獨自的 路線에 의한 移行을 主張하고 나선 티토를 비롯 Cominform으로 부터 破門시키기는 했지만, 東歐諸國과 기타 共產國家들의 路線統制에도 신경을 써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多面的인 必要에 부응하여 蘇聯은 소위 「新經濟政策(N. E. P.)時代의 人民民主主義」에서 社會主義로 넘어온 그 길이

註23) 人民民主主義라는 概念을 最初로 使用한 사람은 유고의 Tito였다. 1945年 유고의 「祖國戰線會議」에서 人民民主主義라는 用語를 最初로 使用하였으나 1948年여름 Tito는 아이러니칼하게도 「人民民主主義의 敵」으로 낙인 찍혀 Cominform에서 追放당했다. Z.K.Brzezinski, The Soviet Bloc: Unity and Conflict(New York: Praeger, 1967), p.25

정당하며 이 경우 政權은 완전히 프로레타리아 独裁体制下에 있었다는 事實을 강조하면서 이 길 以外에는 許容하지 않는다는 態度를 취했다. 즉 人民民主主義는 부르조아民主主義的 課業이 殘存해 있는 過渡期의 프로레타리아 独裁体制이며 여기서 權力은 프로레타리아와 그 前衛(Vanguard)에 依해서만 行使되어야 社会主義로의 移行이 可能해진다는 立場을 取했던 것이다.²⁴⁾

이러한 人民民主主義概念은 당연히 中共에도 適用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中共은 蘇聯의 「人民民主主義」概念을 그대로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다. 물론 中共이 公式적으로 「人民民主主義」概念을 正面으로 拒否하거나 修正한 것은 아니었다. 1954年9月20日 採択된 憲法前文에서 中共은 人民民主主義 概念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獨特한 立場을 表明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의 人民民主主義 즉 新民主主義 制度는 平和的 過程을 經過하여 擄取와 貧困을 除去하고 繁榮과 幸福을 追求하는 우리나라 社会主義社会의 建設을 保障한다. 中

註 24) 朴奉植, 「對外政策」, p.5 : 「人民民主主義」概念에 對한 보다 仔細한 論議는 梁好民, “北韓에 對한 中共의 思想的, 理論的 影響”, 「中大論文集」第19輯, (1974), pp.337-342; 丁世鉉, “共產主義 革命戰略·戰術”, op.cit., pp.196-198. Samuel L. Sharp : “New Democracy : A Soviet Interpretation”, American Perspective, Vol. I, No.6 (Nov. 1947), pp.369-377 參照.

華人民共和國 成立 以來 社會主義社會의 樹立까지는 過渡期이다. 우리나라의 人民은 中華人民共和國을 樹立한 위대한 鬪爭의 過程에서 이미 中國共産黨을 指導者로 하는 民主的 諸階級 諸黨派 및 人民團體의 廣範한 人民民主統一戰線을 結成하였다. 今後에도 全國人民을 動員 團結하여 國家의 過渡期的 總任務를 完成하고 内外의 敵에 對한 鬪爭을 爲하여 우리나라의 人民民主統一戰線은 계속 그 任務를 遂行한다. " 25)

「人民民主主義 즉 新民主主義」라는 表現을 하고있는 中共의 人民民主主義論에서는 프로레타리아 獨裁의 必要性을 認定하지 않고 「人民民主統一戰線」을 통해 社會主義로 移行하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人民民主統一戰線」에 의한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이 許容되고 또 必要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즉 蘇聯에 있어서는 1917年의 革命에서 러시아의 부르조아가 強力하고 敵對적이었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獨裁가 必要하였으며 東歐의 事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中共의 경우에는 民族資本家勢力마저 弱할 뿐 아니라 프로레타리아에 協調的인 特殊한 事情으로 因하여 資本主義 除去라는 같은 目的을 達成하는 데 있어 暴力과 強制 代身 平和的 方法을 쓰면서 社會主義로 轉換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

註 25) 1954.9.20 制定, 中共憲法, 前文

26) 1955年10月 中共의 「新華月報」에 실린 一論文에서는 이러한 中共方式을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對한 새로운 公理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朴奉植, 「對外政策」, pp.5-6 參照.

中共型的 「人民民主主義」概念의 登場으로 말미암아 「프로레타리아獨裁」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眞理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地域的 特殊性에 基因한 地方的 理論으로 戰略하고만 셈이다. 反面 中共의 경우에는 產業勞動者만이 아닌 「人民」들이 社會主義를 建設한다는 것이며, 中共黨은 프로레타리아 階級政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中國民族 全體의 一般意思 (Volonté Générale)를 具現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力点의 差異는 思想改造와 說得을 強調하는 面과 民族資本家들의 力量을 최대한으로 利用하기 위해 表面的으로나마 소위 「民主集團」과 諸政黨의 政治에의 參與라는 形式을 取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實제에 있어서는 中共에 있어서 共產黨에 의한 支配는 蘇聯에서의 그것보다 더 철저한 것이었고 經濟發展을 위한 方式에서 蘇聯式의 模倣은 東歐諸國에 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共產圈內에서의 그들의 獨特한 性格을 強調함으로써 毛沢東의 이미지를 새롭게 浮刻시키고 中國共產主義의 獨自性을 固執하는 態度를 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狀況이 中共政權樹立 初期에 있어서의 中共 對外政策의 이데올로기의 基調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겠다.²⁷⁾

註27) Ibid., p.6.

다. 毛沢東戰略

中國共産黨은 소위 勞·農同盟에 基盤을 둔 広範한 「反帝·反封建統一戰線」을 形成해 나가면서 訓練된 共産主義엘리트의 指導下에 長期的인 武裝鬪爭戰略을 통하여 国内革命을 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革命過程에서 政治的·軍事的 戰略의 獨特한 形態까지 開發하고 이를 事實上 이데올로기 次元으로 까지 發展시킴으로서 中國共産主義의 獨自性을 浮刻시키고 있다. 28)

「밑으로부터의 統一戰線」과 「위로부터의 人民戰線」이라는 共産主義革命에서의 基本的인 戰術을 成功的으로 結合시키고 이를 戰略의 次元으로까지 29) 發展시킨 것을 흔히 毛沢東戰略으로 부르고

註28) Ibid.

29) 統一戰線과 人民戰線은 오늘날 거의 구별없이 쓰여지고 있다. 더구나 「民族解放戰線」「祖國戰線」「政治協商會議」「大民族會議」등 여러가지 異稱을 가지게 되면서 그 구별이 더욱 어려워진 탓으로 統一戰線과 人民戰線은 共産主義者들이 쓰는 共産化革命戰略·戰術로서만이 막연하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혼동해도 좋은 同意語가 아니다. 統一戰線은 戰術的인 意味가 강한 반면 人民戰線은 戰略으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에서도 兩者는 구별되어 使用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論議는 丁世鉉, "인도지나의 人民戰線戰略과 北韓의 對南戰略比較研究", 「서울大國際問題研究所 論文輯」, 第3号(1976), pp.51-52 : Asa Briggs, "Popular Front", C.D.Kernig(ed.),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Vol.6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3), p.394 : 中村賢二, "統一戰線史論", 勞動運動史研究会編, 「統一戰線の 歷史」(東京: 勞動旬報社 1968), pp.9-11 :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全書」, 下(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336. p.343 參照.

있다. 이러한 毛沢東略戰은 中國의 國內政治에서의 革命的 武器일 뿐만 아니라 日本 美國 그리고 기타 소위 革命的 敵인 「帝國主義」를 물리칠 수 있는 武器라고 까지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中共에서는 1949年 以後 즉 政權樹立以後 對外問題에 까지 毛沢東戰略을 適用하려 해왔다. 中國共產主義의 特殊性을 浮刻시키려고 여러가지로 努力하는 中共黨의 立場에서 보면 國內革命戰略의 對外的 拮散을 피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現實政治라는 面에서 볼 때는 對日戰爭과 反蔣介石鬪爭에서 形成된 毛沢東戰略을 對外的으로 까지 投影・拮散시키려는 태도는 中共政權이 共產國家들로 形成될 國際的統一戰線에 參與함은 물론 여기에서 主導的인 役割을 하겠다는 意圖의 表出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中共指導者들은 毛沢東戰略의 基本概念을 國際政治에 까지 適用하므로써 中共나름의 國家目的과 革命目的을 確保하려 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0)

毛沢東戰略概念에 立脚한 장래 中共의 對內外政策의 方向은 中共政府樹立以前부터 提示되어 있었다. 1949年6月30日 中國共產黨創黨 28周年 記念論文으로 發表된 「人民民主獨裁論」에서 毛沢東은 中國共產主義運動史를 회고하면서 中國의 共產革命過程에서 얻은 主要하고도 基本的인 經驗이 두가지라고 前提한 뒤 다음과같이 政策方向을 提示했다.

註 30) 朴奉植, 「對外政策」, p.7.

“(一) 国内에서는 民衆을 喚起시킨다. 이것은 工人階級 農民階級 都市小資産階級과 民族資産階級을 工人階級の 領導 下에 단결시켜 国内的 統一戰線을 結成하고, 이를 發展시켜 工人階級이 領導하는 工·農聯盟에 基礎한 人民民主独裁國家를 建立한다는 것을 뜻한다.

(二) 国外에서는 우리를 平等하게 對하는 世界上的 모든 民族 및 各國人民들과 聯合하여 共同으로 鬪爭한다. 이것은 蘇聯과 聯合하고, 各人民民主國家와 聯合하고, 其他 各國의 無産階級 및 広範한 人民들과 聯合하여 國際的 統一戰線을 結成하는 것을 뜻한다.”³¹⁾

이 論文에서 보면 그들이 政府를 樹立하기 以前에 이미 中國共產主義者들은 外國에 對한 態度에 있어서 두가지 基準을 세워 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中國內戰에 있어서의 階級問題를 取扱하는 方法論에 따라 敵과 同志를 区分하는 것이었다. 즉 對內政策에 있어서나 對外政策에 있어서 黨이 當면한 主要問題는 그들이 聯合해야할 同盟者가 누구이며, 또 孤立시키고 敗北시켜야 할 敵은 누구인가를 明白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主要한 同盟者와 暫定的인 同盟者를 区分하는 것이다. 國際적으로 볼 때 「帝國主義」와 그들의 「追從者」들이 敵이며, 社會主義陣營과 그 밖의 나라의 「革命的 人民」은 中國의 主要한 同盟

註 31) 毛沢東, “論人民民主專政”, 「選集」第四卷, pp.1361-1362.

者라는 것이다. 그리고 「植民地와 半植民地」에 있어서의 「부르조아의 民族主義者」階級은 「帝國主義」의 利害와 衝突할 境遇 「帝國主義」에 反對하기 때문에 境遇에 따라서는 이들과의 戰術的인 聯合도 可能하다는 것이다. 32)

毛沢東은 上記 論文에서 中共과 다른나라 사이에 있어서도 非共產階級과의 同盟可能性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聯合은 非共產主義者들이 基本的으로 革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不安定하며, 決定的 時期에 이르러서는 動搖하거나 「帝國主義」 또는 「國內反動派」들에게 買收당할 可能性이 있으며, 「民族解放鬪爭」이나 汎世界的인 「反帝國主義鬪爭」에 있어서 이들階級이 革命을 完成시킬 能力이 없다는 것은 過去의 經驗이 말해주고 있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無產階級과 그 前衛로서의 共產黨만이 이러한 鬪爭을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 있다는 것이다.

以上을 통해서 볼 때 毛沢東은 그의 矛盾論에 立脚하여 國際秩序를 分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國際秩序內에서의 主行爲者들을 먼저 敵과 同志로 나눈 다음 다시 基本的인 同志와 暫定的인 同志로 区分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区分은 「敵」의 性格에 따른 적절한 戰略·戰術의 樹立으로 이어진다. 毛沢東은 第一次의 敵(矛盾)을 第二次의 敵(矛盾)과 明確히 區別하여 할 戰略的 必要性을 強調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敵과 同時에 鬪爭한

註 32) 朴奉植, 「對外政策」, pp.7-8.

다는 생각에 反對하였다.

그러면 變化하는 國際的 狀況을 分析해가면서 「主敵」을 가려내는 데 있어 毛沢東의 矛盾論은 어떻게 適用되었는가? 中·日戰爭 (1937 - 1945) 期間中 主要矛盾을 決定하는 課題는 간단하였다. 毛沢東의 表現을 빌리면 “ 中国과 帝國主義全体와의 矛盾이 中国과 日本帝國主義間的 尖銳화된 矛盾으로 轉化 ” 한 反面 中国과 餘他 帝國主義와의 矛盾 그리고 中国内部的 矛盾들이 次要矛盾의 地位로 格下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毛沢東은 統一戰線의 目標는 同時에 모든 帝國主義에 反對하는 것 보다는 主要矛盾 - 日本帝國主義 - 에 反對하기 위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内部的 矛盾과 對外的 矛盾들의 地位가 日本의 對中攻擊에 의해서 變化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中共의 對外政策이 時期와 狀況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 해왔지만 政策決定의 指針은 一貫해서 敵과 同志의 峻別과 同志의 再分類方式에 立脚한 広範한 統一戰線 結成이라는 視角에서 遵守되어 왔음을 보게 된다.

끝으로 毛沢東의 國際情勢認識 및 分析의 過程에서 나타난 特徵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毛沢東은 항상 国内·외의 現實을 中国의 共產革命經驗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思考를 支配하는 것은 「延安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過去 全盛時代의 中国보다는 近代中国이라는 祖国像이

었다. 33) 둘째로 毛沢東의 主된 關心은 國際秩序를 생각하기 以前에 보다 現實的이고 直接的인 것으로써 中國의 運命이라는 데에 있었다. 이는 近代中國이라는 側面에서의 祖國像을 지니고 있었던 데에서 緣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帝國主義」의 侵略앞에서 虛無하게 무너지고 시달림을 받던 祖國의 모습을 다시 再現하지 않으려는 恐怖의 產物인 것이다. 셋째, 毛沢東은 國際政治問題를 分析하는데 있어서도 革命的 樂觀主義的 立場을 堅持하고 있었다. 즉 中國自體의 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敵의 風土的 弱點에 의해서 中國의 力量이 점차 相對的으로 強化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34)

註 33) 毛沢東은 그의 조카 毛遠新과의 談話에서 近代史를 工夫할 것을 強調하여 “歷史를 工夫하는데 있어 重要的 것은 近代史를 學習하는 것이다. 三千年의 歷史가 있을뿐인데 一萬年 前일까지 무슨 재주로 말을 해 낸단 말인가”라고 하고 있다. 毛沢東, “與毛遠新的談話”, (1966.2), 「萬歲」第一輯, p.631.

34) Samuel S. Kim, op.cit., p.33.

第二節 兩 大 陣 營 論

가. 兩 大 陣 營 論 展 開 까 지 의 經 過 및 背 景

「兩 大 陣 營 論」이 란 元 來 第 二 次 世 界 大 戰 後 의 戰 後 處 理 問 題 를 弄 고 聯 合 國 側 과 協 商 하 는 過 程 에 서 見 解 差 가 심 해 지 고 蘇 聯 의 要 求 가 쉽 사 리 貫 徹 되 지 만 은 않 자 1946年 2月 9日 스탈린 에 依 해 서 提 示 된 理 論 으 로 서 스탈린 死 後 흐루시초프 의 「平 和 共 存 論」이 登 場 할 때 까 지 蘇 聯 外 交 政 策 理 論 의 骨 幹 을 이 루 었 던 理 論 이 다.¹⁾

中 共 이 「兩 大 陣 營 論」에 立 脚 하 여 對 外 活 動 을 展 開 하 기 始 作 한 것 은 1948年 末 부 터 이 다. 即 10月 革 命 31周 年 을 記 念 하 여 毛 沢 東 이 쓴 「全 世 界 革 命 力 量 團 結 起 來 , 反 對 帝 國 主 義 的 侵 略」이

Cominform 機 關 紙 에 揭 載 된 1948年 11月 부 터 兩 大 陣 營 論 은 中 共 黨 對 外 政 策 의 基 調 를 이 루 었 던 것 이 다.²⁾ 中 共 外 交 에 서 兩 大 陣 營 論 이 退 潮 하 게 된 것 은 1951年 韓 國 戰 爭 이 膠 着 狀 態 에 빠 지 게 되 고 한 편 으 로 는 中 共 政 策 에 對 한 承 認 을 廣 範 하 게 얻 어 낼 必 要 에 서 聯 合 戰 線 戰 術 과 「平 和 共 存」 概 念 을 強 調 하 면 서 부 터 이 다.³⁾

註 1) 스탈린 의 兩 大 陣 營 論 (Two Camp Thesis) 의 形 成 背 景 과 展 開 過 程 에 對 해 서 는 Alvin Z. Rubinstein,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 pp. 179-194 參 照 . (以 下 Foreign Policy 로 略 記)

2) Michael B. Yahuda,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p. 44, p. 62.

3) 朴 奉 植 , 「對 外 政 策」, pp. 10-11.

中共이 兩大陣營論에 立脚하여 對外政策을 展開하게 되기까지의 經過는 첫째 第二次世界大戰末期에 있어서의 蘇聯의 中國觀, 둘째 當時 中國內部的 政治的 勢力關係, 셋째 中共政權樹立後 中共黨의 政治的 經濟的 必要라는 세가지 側面에서 說明될 수 있다.

먼저 第二次世界大戰末期에 있어서의 蘇聯의 中國觀을 보기로 한다.

中國大陸을 共產化시키는 過程에서 소련과는 다른 路線을 걷고 있으면서도 毛沢東은 內·外政策 樹立과 執行에 있어서 한번도 스탈린의 指示를 公共然하게 拒絶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⁴⁾ 소련과의 이데올로기적인 密接한 紐帶를 機會있을 때 마다 強調해 왔다. 例컨대 1939年の 「獨·蘇不可侵條約」, 1941年の 「日·蘇不可侵條約」, 1943年の Comintern解體時 그 正当性和 有効性을 強調하였다.

毛沢東은 政策的 立場에서 蘇聯에 對한 支持와 贊成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個人에 對한 讚辭와 感謝도 아끼지 않았다.

1939年 스탈린의 回甲에 즈음하여 毛沢東은 "스탈린은 世界革命의

註 4) Ibid., p. 37, 二次에 걸친 國共合作이 蘇聯의 指示와 要求에 依한 것이었지만 國民黨과의 關係에서 中共黨으로서도 必要한 行動이었기에 蘇聯의 立場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西安事變의 處理도 蘇聯의 指示에 따른 것이었다. 이 點에 對한 보다 자세한 論議는 波多野善大, 「中國近代軍閥의 研究」(東京: 河出書房, 1973), pp. 477-479; 丁世鉉, "1920年代 蘇聯의 中國政策과 第一次 國共合作," 「北方研究論叢」, 第二卷, 第一號 (1976.12), pp. 34-44 參照.

指導者다. 人類가 스탈린과 더불어 살고있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마르크스 앵겔스 레닌도 죽었다. 만약 스탈린이 없었더라면 누가 가르침을 내릴 것인가? ⁵⁾ 라고 스탈린個人을 激讚하는가 하면, 1945年 4月末 中共党 7次大会에서도 毛沢東은 中國人民을 代表하여 蘇聯政府와 人民이 中國의 解放戰爭을 위하여 베풀어 준 도움에 感謝의 뜻을 表하고, 1944年 11月 스탈린의 對日非難과 「日·蘇不可侵條約」破棄決定을 환영하면서 “蘇聯의 參與없이 太平洋問題의 最終적인 그리고 完全한 合意에 到達할 수 없다.”고 力說하였다. ⁶⁾

그러나 中共의 이러한 忠誠에도 불구하고 蘇聯은 中共党에 對한 支援에 있어서는 積極性을 띄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中共党 自體의 能力까지도 信賴하지 않고 있었다. ⁷⁾ 이러한 蘇聯의 對中共

註 5) Chen Po-ta, Stalin and Chinese Revolution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53), p. 1: 朴奉植, 「對外政策」, p. 37에서 再引用.

6) Ibid, p. 17, 中共의 對蘇追從態度에 對한 分析은 L.P. Van Slyke (ed.),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A Report of the United War Department, July, 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pp. 221-225 參照.

7) U.S. Department of the State,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of 1944-1945 (U. S. G. P. O. 1949), p. 73 : 朴奉植, 「對外政策」, pp. 16-18, p. 38; Yahuda, op. cit., pp. 43-44; 毛沢東, “論十大關係”, 「紅旗」, 1977.1, p. 22 參照.

立場은 그들의 中国政策의 所産인 것이다. 当初 카이로會談이나 테헤란會談에 臨하던 스탈린은 戰後極東問題處理에 있어 特別한 要求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聯合國側으로 부터 對日參戰을 要求받은 뒤 부터 蘇聯은 樺太(Sakhalin)를 日本으로부터 蘇聯에 넘겨 줄 것과 大連港의 國際化 및 旅順港의 蘇聯海軍基地化등을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스탈린의 要求는 蘇聯이 1905年 露·日戰爭 以前의 東北亞國際秩序를 回復하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었다는 証拠가 된다.⁸⁾ 帝政러시아時代의 外交的 領土的 資産을 되찾고, 可能하다면 蘇聯의 工業中心部를 保護할 수 있도록 中央아시아의 中国地域까지 支配하려는 데에 政治的 目標을 두었기 때문에 蘇聯의 中国政策은 中共黨을 一方的으로 支援하는등 이데올로기의인 것이 될 수 없었다. 現實的으로 蘇聯은 蔣介石의 国民党勢力이 中共黨의 그것보다 強하다는 點을 考慮하여 中国의 指導者로서 毛沢東보다는 蔣介石이 有望하다고 判斷했기 때문에 共產黨代表들도 国民党政府에 参与

註8) 當時 蘇聯의 極東에서의 政治的 意圖에 對해서는 當時 駐蘇 美国大使 Harriman과 駐蘇 美国大使館職員 Kennan의 報告에서 指摘되고 있다. U.S. Department of the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5), pp. 984; idem,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of 1944-1945 (U.S.G. P.O. 1949), p. 97; A. Harriman's Statement to Senate Committee on Armed Forces and Foreign Relation on 13 July, 1951 in Congressional Record Vol. 97. Appt. pt. 14, pp. 5410-5416 參照.

하여 反日統一戰線을 結成할 것을 要求하기로 하였다. 卽 스탈린은 中共黨의 能力을 높이 評價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國民黨과 協助해 서라도 帝政러시아時代 러시아의 國際政治的 地位를 回復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⁹⁾

蘇聯의 이러한 中國政策的 姿勢는 中國內의 政治的 狀況을 매우 複雜하게 만들었다. 1945年 알타協定에 依하면 蘇聯은 國民黨政府와 友好同盟條約을 締結하도록 되어 있었다.

蘇聯이 이러한 條件을 受諾한 것은 美·英이 國民黨政府를 支持하고 있었고 또 國民黨政府가 當時 中國의 正統政府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美·英과의 協力이 必要한 蘇聯으로서는 自國의 利益을 最大限 擴大하는 길은 國民黨과의 關係를 友好的으로 維持해 나가는 것이었다.

한편 美國은 中共黨의 勢力伸張을 막으려고 했다. 따라서 蔣介石政府가 蘇聯과 直接 接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中共의 蘇聯에 對한 依存을 막고 나아가서는 勢力伸張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44年 루즈벨트大統領이 中共軍을 包含한 모든 中國軍을 美國人인 스틸웰將軍揮下에 두려고 했던 것도 中共의

註 9) 新疆에서의 蘇聯의 權利를 5年間 延長하는 問題로 協商하기 위하여 蘇聯은 1949年 4月에도 特使를 國民黨政府(當時 廣東에 所在)에 派遣하였었다. Yahuda, op.cit., p.44 參照.

勢力伸張을 抑制하려는 것이었으며,¹⁰⁾ 1945年 1月 中共軍司令官 朱德이 借款을 要請했을 때 美国武器는 国民党以外の 어떠한 勢力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여 拒絶한 것도 中共의 勢力伸張을 抑制하려는 美国의 对中國政策때문이었다.¹¹⁾

美·蘇의 对中國政策이 이러했던 까닭으로 中·蘇間의 友好同盟 条約을 爲한 交渉은 약一個月半만에 妥結을 보았다. 1945年 7月 첫週에 열려 포츠담會談으로 一時中斷되었다가 8月 14日 (日本의 降服日) 締結된 同条約이 蘇聯側에 有利한 内容으로 차있었지만,¹²⁾ 国民党에서는 이 協定에 만족하고 있었다. 国民党政府가 滿足하는 것은 그 内容이 아니라 蘇聯側에서 中共黨을 包含한 聯合政府를 要求하지 않았고 또 끝까지 国民党을 相對로 했다는 데에 그 理由가 있었다.¹³⁾

蘇聯과 一連의 協商을 通해 蔣介石은 內政問題에 自信을 가지게 되었으며, 中共黨에 대해서도 보다 強力한 態度를 表示하게 되었다. 蘇聯의 国民党政府와의 条約締結이 中國의 中央政府로서의

註 10) Max Beloff,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5-1951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29.

11) 朴奉植, 「對外政策」, p.18.

12) 条約締結過程과 主要内容은 Ibid., pp.18-21 參照.

13) Ibid., p.22.

国民党政府에 對한 支持로 解釋되었기¹⁴⁾ 때문에 共産黨도 國民黨과 의 交渉展開에 誠意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政治적으로 蘇聯과 美國이 國民黨을 支持하는 狀況속에서 中共黨은 軍事的으로도 劣勢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47年 5月부터는 軍事的인 面에서 戰略的 이니시 아티브가 中共軍의 손으로 넘어가기 始作했다. 이 狀況을 中共側의 說明에 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即 "1947年 5月 13日 人民解放軍은 東北과 熱河 萬東등 各戰場에서 同時에 進攻을 開始하여 7月1日까지 8 8萬余名の 敵을 殲滅시키고 40個以上の 都市를 탈환하므로써, 東北解放地區를 分割하려는 敵의 計劃은 完全히 粉碎되었다. 長春鐵道와 北京·遼寧鐵路沿邊의 좁은 廻廊地域에 몰린 敵軍은 소위 要地防衛作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東北中國에 있어서의 全事態를 逆轉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¹⁵⁾는 것이다. 1947年 5月 30日字 奉天駐在 美國總領事의 報告로 "지난 2個月間에 國民黨軍의 士氣가 급격히 低下되고 있고 共産軍은 地下組織과

註 14) 朴奉植 教授는 蘇聯側이 中國國民黨政府와 協定을 締結하므로써 中共黨의 立場을 弱化시킨 것은 事實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美國이 中國內政에 干涉할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하므로써 結果적으로 中共에 有利한 點도 없지 않았음을 指摘하고 있다. Ibid., p. 23.

15) 毛沢東, "解放戰爭 第二年的 戰略方針", 「選集」, 第四卷, p. 1129, 註釈(1)

韓国人地域으로 부터 人的 供給을 받아 數的으로 우세한 軍事力을 가지고 戰線을 最大限 擴張하여 現地補給이 不可能한 国民党軍이 相當한 被害를 입고 있음¹⁶⁾을 指摘하고 있는 바 中共黨과 国民党 사이의 勢力關係는 1947年 여름을 契機로 逆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47年 12月 25日 열린 中共黨 中央委에서 毛沢東이 “中國人民의 革命戰爭이 하나의 轉換點에 이르렀다. 이것은 中國人民解放軍이, 美國의 走狗 蔣介石이 이끄는 數百萬의 反動軍隊의 進擊을 이미 물리치고, 스스로의 進擊을 開始했다는 것을 뜻한다.”¹⁷⁾라고 한 이래 国民党政府의 軍事的 및 經濟的 崩壞는 繼續되었으며, 中共은 攻撃을 더욱 強化하여 1948年 11月1日 奉天을 함락시켰다. 奉天함락의 軍事的 重要性은 그後의 事態發展에 決定的인 影響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全滿洲에 對한 共產支配의 確立을 뜻하며 華北地方에 對한 共產勢力確立의 可能性을 말하는 것으로서 國共間의 均衡에서 共產側이 決定的으로 有利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¹⁸⁾

註 16) U.S. Department of State,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U.S. G.P.O., 1950), pp. 315-316; 朴奉植, 「對外政策」 p. 30에서 再引用.

17) 毛沢東, “目前形勢和我們的任務”, 「選集」第四卷, p. 1139.

18) 朴奉植, 「對外政策」, p. 32.

1948年 11月 1日 奉天을 함락시키므로서 戰略的 優位를 確保한 毛沢東은 10月革命 31周年을 記念하는 論文을 통해 中共 黨의 戰勝結果를 늘어놓고 中共黨은 蘇聯共産黨이 걸어온 길을 본 때 發展해 온 黨임을 強調하면서 다음과 같이 論했다.

“蘇聯을 우두머리로 하는 世界革命統一戰線이 파시스트主義 의 獨逸·伊太利·日本을 이겼다. 만약 10月革命이 없었더 라면, 蘇聯共産黨이 없었더 라면, 蘇聯이 없었다면, 그리고 蘇聯 이 領導하는 西方과 東方의 帝國主義反對革命統一戰線이 없었 더라면, 파시스트 獨逸·伊太利·日本과 그 走狗들을 이길 생 각을 어찌 할 수 있었더 란 말인가?”¹⁹⁾

“모든 國家의 革命力量은, 반드시 團結하고, 나아가서는 蘇 聯을 우두머리로 하는 反帝國主義統一戰線을 반드시 結成하여 正確한 政策이 뒤따르지 않으면 戰爭에 勝利할 수가 없다.”²⁰⁾

蘇聯의 兩大陣營論이 1946年 2月9日 스탈린에 依해 提示된 以來 2年 9個月만에 中共에 依한 支持發言이 나온 셈이다. 스탈린 이 兩大陣營論을 提示하고 있을 때 毛沢東은 事實上 이에 反對하고 있었던 것이다. 即 蘇聯에 依해서 代表되는 「平和陣營」과

註 19) 毛沢東, “全世界革命力量 團結起來, 反對帝國主義的侵略,” 「選集」, 第四卷, p.1249.

20) Ibid., p.1250.

美国에 依해서 代表되는 「帝國主義陣營」으로 世界가 兩分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고, 美国의 攻撃에 의해서 世界大戰이 곧 再發하리라는 생각에도 反對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1946年 6月 8日 美国記者 안나·루이스 스트롱과의 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美国反動派들이 戰爭을 저지르고자 하더라도 그들은 美国 國民들을 먼저 攻撃하여야만 할 것이다. ………美国과 蘇聯은 광활한 地帶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다. 그안에는 歐羅巴 아시아, 아프리카 三洲의 많은 資本主義國家와 植民地, 半植民地國家들이 있다. 美国反動派들이 이들 國家들을 打倒하고 服屬시키기 前에는 蘇聯에 對한 攻撃을 云謂할 수 없을 것이다.”²¹⁾

戰爭의 威脅이 急迫하지 않으며 兩大陣營이 存在하지 않고 各國은 分散되어 있다는 立場을 明白히 한 것이다. 이러한 立場을 取하고 있던 毛沢東이 1948年 11月 兩大陣營論을 支持하고 나선 後, 1949年 3月 18日 - 中共軍이 楊子江을 건너 華南地方을 占領하기 以前 - 新華社通信은 새로운 世界大戰의 危險이 臨迫해 있음을 指摘하므로써 蘇聯의 國際情勢觀을 認定하고 나섰다.²²⁾

註 21) 毛沢東, “和美國記者安娜·路易斯·斯特郎的談話,” 「選集 第四卷, p. 1089.

22) Yahuda, op. cit., p. 44, p. 62.

中共의 立場이 變化하여 蘇聯의 兩大陣營論을 支持하고 나서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을 수 있다.

첫째, 國際政治的 狀況이 中共으로 하여금 兩大陣營論을 採択하지 않을 수 없도록 压迫하였다.

1949年 以前의 아시아情勢는 中共이 聯合하는 데 関心을 가질만한 非共產勢力이 없었다. 1948年頃까지 印度, 버마, 세일론, 필리핀, 파키스탄등 新生獨立國家의 民族主義者들이 帝國主義者들에 對한 疑心을 가지고 있었으나 同時에 共產黨運動을 彈压하고 있었으며, 越南에 서만이 中國共產黨과 비슷하게, 共產黨이 民族主義的 獨立運動에 리더쉽을 쥐고 있었다. 1949年 末까지 아시아諸國에 있어서의 共產黨運動은 非組織的이었을 뿐 아니라 住民들의 支持를 充分히 받지 못하므로서 革命的인 契機를 마련하는 데 結果적으로 失敗하고 말았다.²³⁾

아시아地域의 情勢가 共產主義運動에 不利하게 展開되고 있는 한편 世界的인 次元에서 共產國家와 非共產國家의 關係는 이미 심각한 段階로 發展해 있었다. 이러한 狀況은 蘇聯의 利益을 위하여 東西緊張을 強化시키려는 스탈린의 冷戰政策의 結果였다. 卽 스탈린은 植民地에 있어서 民族主義와 共產主義間의 斗争을 歐羅巴에서의 西方國家들의 地位를 弱화시키는 道具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地域의 共產主義運動의 特殊事情이나 革命은 蘇聯의 大戰略上的 有用성에 따라

註 23) 朴奉植, 「對外政策」, p.8.

左右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²⁴⁾ 中国共産党도 다른 共産党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蘇聯의 外交政策 變化에 따라 路線을 變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고, 비록 政權을 樹立하기 以前이었지만 對外關係에 있어 協調할 수 있는 暫定的인 同盟勢力이나 選擇할 수 있는 余地가 없는 狀況이었기 때문에 中共으로서 蘇聯이나 Cominform의 政策을 支持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⁵⁾

둘째, 對內政治 經濟的인 問題 解決을 위해서는 蘇聯의 支援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国民党에 對한 勝利가 臨迫해짐에 따라 立場을 分明히 밝혀야 할 政治的 必要가 생긴 것이다. 戰勢가 逆轉되기 始作한 以來 中共黨은 이제는 더 以上 內戰에 시달리는 弱少한 勢力이 아니었고 오히려 장차 中国을 代表할 勢力으로 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차 中国全體의 經濟建設이라는 問題도 생각해 두어야 할 時點에 이른 것이다. 當時만해도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라는 것은 共産主義者

註24) Ibid., pp. 8-9.

25) 例컨대 1948年 Cominform이 資本主義國家內에서 共産黨에 의하여 支配되지 않는 植民地 獨立運動에 對하여 暴力斗争을 감행할 것을 장려하였을 때나, 1949年 Cominform이 모든 資本主義政府에 對해서 또한 共産黨의 主導權을 拒否하는 民族主義的 獨立運動에 對한 이데올로기 斗争을 宣布했을 때, 中共은 이 路線을 支持하였다. Ibid., p. 8.

들에게는 拒逆되지 못할 大義名分이었다. 여러가지 政治的, 經濟的 必要때문에도 어느 한편을 挾하여야 하는 狀況에서, 더구나 蘇聯의 兩大陣營政策에 따라 冷戰이 이미 國際政治의 特性을 이룬 狀況에서, 또한 美國이 中國에서의 反共政策을 分明히 한 以上 中共으로서는 蘇聯一辺倒를 挾하는 길 밖에 없었을 것이다. 中國大陸의 全面統治權掌握을 눈앞의 現實로 둔 中共黨으로서 「面竜点睛」을 위한 蘇聯의 支援이 어느때 보다도 切實하게 必要했으며, 이를 爲해서는 蘇聯一辺倒를 公言해야만 했기에 그는 1949年 6月30日 中共黨 創立 28周年記念論文에서 “당장에 걸터앉는 것은 좋지 않고 第三의 길은 없기.”²⁶⁾ 때문에 蘇聯一辺倒할 것을 公言한 뒤에도 政權樹立以前 2個月間에 五篇의 反美論文을 發表하기도 하였다.²⁷⁾

나. 中·蘇條約의 締結과 中·蘇의 葛藤

1948年 여름以後 國民黨政府의 軍事的 및 經濟的 崩壞가 繼續되는 反面 中共黨의 勢力은 날로 強化되었음은 前述한 바 있다. 그러나 蘇聯新聞들은 中共側의 戰勝事實을 크게 報道하지도

註 26) 毛沢東, “論人民民主專政,” 「選集」, 第四卷, p. 1362.

27) “去掉幻想, 準備斗争,” (1949.8.14), “別了, 司徒雷登,” (1949.8.18), “爲什麼討論白皮書,” (1949.8.28), “「友誼」, 「還是侵略」,” (1949.8.30), “唯心歷史觀的 破產,” (1949.9.16).

以上은 「選集」 第四卷, pp. 1372-1406 에 收錄.

않고 国民党的 失敗에 對해서도 言及이 없었다. 이는 蘇聯이 国民党政府가 쉽사리 敗亡하리라고 믿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하겠다.²⁸⁾

1949年 1月 19日 字 프라우다紙는 中共軍의 天津占領(1月 16日) 事實과 이날 毛沢東이 發表한 「平和條件八個項」을 論評 없이 報道하였을 뿐 아니라, 1月21日 中共軍이 北京을 占領했을 때 蘇聯은 国民党政府와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었으며 国民党政府가 廣東으로 撤收했을 때 大使館을 거기까지 따라 보낸 것은 蘇聯뿐이었다. 그리고 中共軍占領地域에서는 領事館을 公式的으로는 폐쇄했지만 이러한 段階에서도 蘇聯은 經濟問題 특히 新疆地方에 關한 問題는 여전히 国民党政府와 交涉을 하고 있었다.²⁹⁾

이러한 蘇聯의 態度에서 中國의 共產革命에 對한 蘇聯의 立場을 엿볼 수 있으며, 蘇聯이 中共黨을 얼마나 支持하지 않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1949年 4月부터는 中共軍의 勝利에 對한 蘇聯의 公式的 態度가 突變했다. 即 1949年 4月 10日 프라우다紙는 처음으로 中共黨의 聲明을 掲載하고 새로운 大戰이 일어나는 경우 中共을 支持할 것을 約束했다. 그리고 中共軍이 楊子江을 건너자 5日後인 4月 25日 蘇聯新聞은 中共軍의 南京解放으로 國民黨의 反動的 支配體制는 終末을 告했다고 報道하였다. 그러면서도 蘇聯은 1949年 5月까지 国民党政府와 外交關係를

註 28) 朴奉植, 「對外政策」, p. 32.

29) Ibid ., p. 33.

持續시키고 있었으며, 駐中(国民党) 蘇聯大使가 撤收할 때도 兩者間의 航空協定을 5年間 延長시킨 뒤 歸國을 했다.³⁰⁾ 當時의 複雜한 事情을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述悔한 바 있다.

“스탈은 中國에 對해서 몇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第二次國內革命戰爭後期 王明의 左傾冒險主義와 抗日戰爭初期 王明의 右傾機會主義는 모두 스탈린에게서 나온 것이다.

解放戰爭時期에 있어서는 內戰이 激化되면 中華民族이 滅亡하고 말 것이라는 理由를 들어 革命을 서두르지 말라고 命令했다. 戰爭(內戰)이 일어나자 그들은 우리를 半信半疑했다. 우리가 戰爭에 勝利하자 이번에는 우리의 勝利가 티토式의 勝利가 아닌가 疑心을 했다. 1949年과 1950年 兩年間에 그들이 우리한테 加한 壓力은 매우 큰 것이었다.”³¹⁾

1949年 10月 1日 毛沢東은 中共政權樹立을 宣言하면서 「中華人民共和國」이 中國의 唯一合法政府이며, 이 政府는 平和·互惠·領土保全과 主權의 相互尊重原則에 同意할 用意가 있는 어떠한 나라와도 外交關係를 樹立할 準備가 되어 있음을 모든 外國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發表했다. 이 宣言은 “中華人民共和國이 다른

註 30) Ibid.

31) 毛沢東, “論十大關係”, 「紅旗」, 1977.1, p.22, 「毛沢東思想萬歲」에 收錄된 “論十大關係”에는 同內容이 削除되어 있다.

나라와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緊要하다'는 內容의 周恩來黨
書와 함께 蘇聯側에 傳達되었고, 10月 3日 프라우다紙는 蘇聯
이 10月 2日에 国民党政府의 承認을 撤廻하고 「中華人民共和國」
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기로 決定했다고 發表했다. 10月 5日 프
라우다紙는 또 中共과 폴란드, 체코,北韓, 루마니아間에도 外交關係
가 樹立하였음을 報道하였다. 그리고 10月 10日 国民党政府時代
의 駐中大使 로시친(Roshchin)이 毛沢東에게 信任狀을 提呈하였
으며 10月 30日에는 最初의 駐蘇中共大使가 信任狀을 提呈하였다.³²⁾

한편 蘇聯은 1949年 11月 그들의 十月革命記念日을 맞이하여
'나라의 自由와 獨立을 爭取하였고 그리고 人民民主主義國家를 創
設한 偉대한 中國人民에 對하여 兄弟的 人事를 보낸다. 中華人民
共和國 萬歲'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中共側에서도 劉少奇가
「十月革命」이라는 論文을 통해 蘇聯의 十月革命의 歷史的 意義와
中共革命에 對한 貢獻을 強調하고 中國과 蘇聯人民間의 꿈을 수
없는 友好關係를 強調하였다. 이로서 中·蘇間에 存在했던 中共의
티토化에 關한 風聞은 一掃되었다.³³⁾

中·蘇間의 關係가 상당히 進展된 狀況에서 1949年 12月 16日
毛沢東은 陳伯達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떠났다. 毛沢東은 모스크바
에 到着하여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課題는 蘇聯을 우두

註 32) 朴奉植, 「對外政策」, p. 36.

33) Ibid., pp. 36-37.

머리로 하는 全世界의 平和戰線의 強化, 戰爭挑發者에 對한 斗争, 中國과 蘇聯 二大國間의 友好關係의 強化 및 中國·蘇聯 人民間의 友好의 發展이다"라고 말하므로써 蘇聯이 中共을 同盟國으로 取扱해줄 것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毛沢東과 協議하면서 滿洲와 新疆省의 代表를 參席시킬 것을 要求하므로써 兩地域에 對한 蘇聯의 關心을 表明함과 아울러 中共의 地位를 正式으로 認定하지 않는 姿勢를 取했다. 스탈린의 要求에 따라 1950年 1月 10日 周恩來가 蘇聯이 認定하는 滿洲責任者 高崗과 新疆省代表 賽福鼎 그리고 經濟專門家 李富春을 데리고 北京을 出發, 1月 21日 모스크바에 到着하였다. 9週間에 걸친 交渉의 結果, 1950年 2月 14日 中·蘇間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 「長春鐵道·旅順 및 大連에 關한 協定」, 「借款供與에 關한 協定」이 締結되었다. 이 新條約과 協定들은 1945年 蔣介石의 國民黨政府가 蘇聯政府와 締結한 것을 土臺로 한 것이었다.³⁴⁾ 그 主要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⁵⁾

첫째, 「蘇聯邦社會主義共和國과 中華人民共和國間의 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의 要旨은 1) "條約締結當事者中의 一方이 日本이나 日本과 聯合한 나라의 攻擊을 받아 戰爭狀態에 빠지게 되면 他一方은 지체없이 모든 可能的 方法을 통해 軍事的 援助를 提供

註 34) Ibid., pp. 38-39; Yahuda, op. cit., p. 52.

35) 朴奉植, 「對外政策」, pp. 39-40.

하여야 한다. 2) 有効期間은 30年으로 하고 期間滿了 1年前에 어느 締結國도 條約効力終了에 關한 通告를 하지 않으면 5年間 効力이 延長되며, 같은 方法으로 有効期間이 더 延長된다는 것이다.

둘째, 「蘇聯邦社會主義共和國과 中華人民共和國間的 中國 長春鐵道, 旅順 및 大連에 關한 協定」의 要旨은 大連을 除外한 滿洲全域에 對한 蘇聯의 모든 權利를 拋棄하되, 다만 即刻적으로 拋棄하는 것이 아니라 日本과 平和條約이 締結되는 時點까지 또는 늦어도 1952年까지 拋棄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問題別로 보면 1) 長春鐵道는 1945年 8月 蔣介石이 蘇聯과 締結한 바 그대로, 繼續해서 中·蘇가 30年 共同으로 運營한다. 2) 旅順도 1945年의 協定에서와 같이 中·蘇가 共同으로 使用하며 蘇聯軍隊가 駐屯하고 旅順海軍基地는 日本 및 日本과 聯合하는 나라와의 戰爭時 共同軍事作戰을 支援하기 위해서 使用한다.³⁶⁾ 3) 大連은 1945年의 條約에서는 蘇聯의 支配下에 두도록 했으나, 大連의 行政은 中國에 屬하여 大連港問題는 日本과의 平和條約이 締結된 後에 檢討한다. 그러나 蘇聯이 借用하거나 管理하는 財産은 1950年末까지 中國에

註:36) 同 協定(1950.2.14)에서는 長春鐵道와 旅順에 關한 蘇聯의 權利拋棄時限이 늦어도 1952年으로 되어 있었으나 中·蘇는 1952年 9月 15日 覺書交換을 통해 이 協定을 修正했다. 即 蘇·日, 中·日間에 平和條約이 締結될 때까지 蘇聯이 軍隊를 駐屯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1955年에 完全히 返還되었다. Ibid., p.39 .

返還한다는 것이다.

셋째, 「蘇聯邦社會主義共和國이 中華人民共和國에 借款을 供與하는데 關한 協定」에서는 蘇聯이 中共에 對하여 1950年 1月 1日 부터 向後 5年間に 걸쳐 美貨 3億弗(年6千萬弗)의 財政援助를 年利1%의 條件으로 提供할 것을 約束하였다. 但 中共經濟의 回復과 發展을 爲하여 中共은 이 돈으로 産業 및 鐵道用 裝備 및 施設을 蘇聯으로부터 導入하는 條件이었다.

이 밖에도 中·蘇는 黨書交換形式을 通해 1945年 8月 14日 宇 國民黨政府와의 蘇聯間에 締結된 條約의 廢棄와 外蒙古獨立에 合意 하였다. 또한 50年 3月 27日에는 「中·蘇國境地域開發協力을 爲한 合資株式會社設立協定」³⁷⁾을, 1950年 4月 19日에는 「中·蘇通商協定」³⁸⁾을 締結하였다. 그리고 中·蘇는 雙方에 影響을 미칠 國際問題에 對한 情報과 意見交換에도 合意하였다.³⁹⁾

註37) 同 協定의 主要內容은 1) 蘇聯의 中央아시아地域에 인접한 新疆省에 非鐵金屬, 稀貴金屬 및 石油開發을 爲한 合資株式會社를 2個設立, 2) 滿洲 外蒙古 및 新疆을 연결하는 空路開發을 爲하여 航空會社 設立, 3) 大連에 船舶의 建造 및 修理會社設立이었다. Ibid., p.40.

38) 同 協定에서는 蘇聯은 産業技術을, 中共은 原資材를 供給키 爲했다. Ibid.

39) 이 事實은 1964年 6月 4日에야 Izvestia에 의해 밝혀졌다 John Gittings, Survey of the Sino-Soviet Dispu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48-9.

以上과 같이하여 中·蘇間에는 各分野에 걸쳐 正常的인 國家關係가 始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關係設定에 對하여 물로토프는 "地球上에서 가장 큰 두개의 國家間에 卽 蘇聯人民과 中國人民間에는 永久한 反帝同盟이 形成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毛沢東도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그의 訪蘇感情을 表現하여 "經濟·文化建設과 其他分野에 있어서 蘇聯의 經驗이 新中國建設의 龜鑑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⁴⁰⁾

그러나 中·蘇間의 新條約締結을 契機로 中·蘇關係가 完全한 信賴의 基盤위에 서게 되었느냐 하는 데에는 많은 疑問이 있다. 물론 「中·蘇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의 "條約締結當事者中의 一方이 日本이나 日本과 聯合한 나라의 攻擊을 받아 戰爭狀態에 빠지게 되면 他一方은 지체없이 모든 可能的 方法을 動員하여 軍事的 援助를 提供한다"는 條項이 50年代와 60年代 中·蘇間의 敵對關係에서 中共을 防衛해 준 것은 事實이다. 예컨대 이 條項이 없었더라면 韓國戰爭에 介入한 中共을 追擊하여, 美國이 中國大陸을 攻擊하였을 것이다. 이 條項으로 潰滅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⁴¹⁾ 그러나 長春鐵道·旅順·大連에 關한 協定은 蘇聯의 中國에 對한 既得權을 延長하겠다는 立場을 中國에 強要한 結果의 所産이며, 借款協定에서 規定된 蘇聯의 對中共 借款額 3億弗은

註40) Beloff, op. cit., p. 77.

41) Yahuda, op. cit., p. 52.

蘇聯이 폴란드에 提供한 4億5千萬弗의 $\frac{2}{3}$ 에 不過한 것이며, 더구나 이것은 28億弗의 長期借款 代身 外蒙古가 親蘇獨立하는 것에 中共이 異議를 提起하지 않는 條件으로 주어진 財政借款이라고 하는 點을 勘案하면 當時 對蘇協商過程에서의 毛沢東의 反蘇感情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毛沢東自身도 後日 스탈린과의 同盟條約協商經驗을 侮辱的인 것으로 描写한 바 있다. 그는 스탈린이 強要하는 問題마다 自身은 양보를 했어야 했던 協商을 「斗争」으로 特徵지웠다. 1958年 蘇聯 모델로 부터 離脫하여 自力更生을 부르짖었을 때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스탈린과의 協商經驗을 回想하였다.

“ 1950年 나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2個月間 論争을 했다. 相互援助條約, 長春鐵道問題, 合資会社問題, 國境問題를 놓고 우리는 두가지 態度를 取했다. 하나는 우리가 同意할 수 없는 提案을 蘇聯이 하면 그것에 對해서 論争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決斷코 主張하는 것은 우리가 受諾하는 것이었다. 社會主義의 利益을 考慮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當時에는 두개의 植民地가 있었다. 即 東北(滿洲: 筆者)地方과 新疆으로서 그 곳에 第三國人은 살 수 없었다.”⁴²⁾

註 42) 毛沢東, “在成都會議上的 講話”, (1958.3.10), 「萬歲」, 第一卷, pp. 163-164.

中·蘇紛爭이 激化되자 1962年 흐루시초프의 指導路線이 修正主義임을 非難하면서 毛沢東은 다시 이 問題를 拳論하였다.

“ 1945年 스탈린은 中國革命을 阻止하려 했다. 스탈린은 말하기를 內戰을 할 수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蔣介石과 合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中華民族은 滅亡할 것이라고 했다. 當時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革命에 勝利하였다. 革命에 勝利한 後 그들은 中國이 유고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티토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疑心을 품었다. 이 후 모스크바에 到着하여 中·蘇同盟援助條約을 締結하는 데도 한바탕 斗争을 벌였다. 그는 條約을 締結하려 하지 않았다. 2個月의 談判을 거쳐서 비로써 署名을 했다. 스탈린이 우리를 믿게 된 것은 어느 때 부터인가? 그는 抗美援朝以後 即 1950年 겨울以後부터 우리가 티토와 유고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始作했다.”⁴³⁾

以上에서 毛沢東의 對蘇感情을 읽을 수 있다. 특히 蘇聯이 滿洲와 新疆에 對하여 要求하던 바를 毛沢東은 植民主義的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었을 만큼 毛沢東의 對蘇感情은 初期부터 좋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스탈린이 毛沢東의 獨目性을 매우 싫어했음도 分明해졌는 바 中·蘇間의 關係가 처음부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註 43) 毛沢東, “在八屆十中全會上的講話”, (1962.9), 「萬歲」, 第一輯, p.432.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中共黨의 統治權이 確立되지 않았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對蘇抵抗을 敢行하지 못했을 뿐이다.⁴⁴⁾

다. 「抗美援朝」政策決定過程과 韓國戰介入結果

1950年 6月 25日 韓國戰爭이 拔擧하자 美國은 몇가지 重大한 措置를 取했다. 첫째 6月 25日 유엔安保理事會議을 召集하여 北韓의 南侵이 重大事態임을 警告하면서 이의 撤収를 要求하는 決議案을 採択하였다. 둘째, 이러한 措置를 背景으로 6月 27日 트루만은 美國의 아시아政策에 一大轉換을 가져 올 聲明을 發表하였다. 即 北韓이 6月 25日字의 유엔決議를 無視하고 있음을 指摘하면서 美國의 海空軍으로 하여금 韓國을 支持하도록 命令하고, 또 한편으로는 “共產軍에 依한 台灣의 占領이 太平洋地域의 安全 및 同地域에서의 合法的인 그리고 必要한 任務를 遂行하는 美軍部隊에 直接的인 威脅이 된다.”⁴⁵⁾고 規定하고 第七艦隊에 依한 台灣의 中立化까지 命令했다. 台灣의 中立化를 爲한 第七艦隊의 發動과 아울러 台灣의 앞으로의 地位問題에도 言及한 트루만은 台灣을 太平洋地域의 安全 및 日本과의 講和 또는 유엔에 依한

註 44) Yahuda, op. cit., p. 51.

註 45) U. S. Department of State,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Problem (U. S. G. P. O. 1953), pp. 36-37: 朴奉植, 「對外政策」, p. 45에서 再引用.

考慮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므로써 1950年初의 不介入·不干涉政策으로부터 180度 轉換된 政策的 立場을 取했다.

이로써 中共이 「台灣解放」을 위해서는 美國의 第七艦隊와 對決하지 않으면 안되는 結果를 가져오고 말았다. 트루만의 이 聲明은 비단 韓半島와 台灣에 對한 積極的인 政策의 契機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의 武力南侵을 中·蘇를 中心으로 한 國際共產主義의 世界的 膨脹政策의 一環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시아全域에 있어서의 共產勢力의 封鎖를 위하여 필리핀駐屯 美軍의 增強, 印度支那에서의 仏蘭西支援에 이르기까지 擴大되었다. 이러한 事態의 進展은 中共으로서의 하나의 衝激이 아닐 수 없었다. 「台灣解放」은 無期限 延期된 셈이고 韓半島에서의 事態收拾도 急한 問題였기 때문이다.⁴⁶⁾

韓國戰爭과 美國의 積極的인 介入에 對하여 中共이 反應을 보인 것은 1950年 6月 28日의 일이었다. 同日 열린 中共中央人民委員會 第八次會議에서 毛沢東은 美國의 韓國과 台灣에 對한 政策을

註46) Ibid., pp. 45-46. A. Doak Barnett는 美國이 北韓의 南侵을 國際共產主義勢力의 「自由圈」에 對한 挑戰으로 看做하여 其他 後統措置를 取한 것이나, 中共이 美國의 北韓과 台灣에 對한 措置를 日本이 中國領土와 安保에 對하여 取했던 과거의 威脅과 같은 것으로 看做하여 參戰을 決定한 것은 모두 計算錯誤였다고 말하고 있다.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4), p. 249.

「侵略」이라고 規定하고 이를 非難하였다. 같은 날 周恩來(當時 外交部長)도 6月 27日의 트루만聲明과 그에 따른 措置를 非難하는 聲明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兩者 모두 美國의 侵略政策一般을 反對하기 爲한 廣範한 反美勢力의 團結을 呼訴하고 있을 뿐 美國에 對한 直接的인 攻擊이나 北韓에 對한 積極적인 支持의 表現은 없었다는 點으로 보아 韓國戰爭에 對하여 中共은 別關心을 갖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中共의 韓國戰爭에 對한 關心과 對北韓支援의 消極性은 6月 27日 字 安保理의 對韓軍事援助勸告決議案에 對한 中共의 反應이 7月 6日에야 그것도 아주 간단한 聲明形式으로 取해진 點⁴⁸⁾과, 1950年 7月 10日부터 實施된 「台灣朝鮮侵略反對運動週間」 關한 「通知」의 內容에서 分明히 들어난다. 이 「通知」(1950年 7月 14日 字)에서 中共은 “美國의 侵略政策이 全世界人民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 말하고 “世界勞聯은 全世界의 勞動者들이 朝鮮人民의 解放斗争을 支援하도록 呼訴하여 이달 10日부터 「朝鮮人民支援週間」을 舉行하고 있다. 우리 中國人民은 世界勞聯의

註 47) 朴奉植, 「對外政策」, p. 46.

48) 1950年 6月 27日 字 安保理의 「對韓軍事援助勸告決議案」은 其實 이에 앞서 取해진 美國의 軍事活動을 正當化시키는 意味가 있었다. 따라서 蘇聯은 7月 4日 長文의 非難聲明을 냈고 폴란드도 蘇聯과 같은 趣旨의 非難聲明을 냈다. 그러나 中共은 蘇聯의 非難聲明 發表가 있는지 2日後에야 폴란드의 그것보다 간단한 聲明을 發表하였다. 보다 자세한 論議는 Ibid., pp. 46-47 參照.

이 呼訴를 단호히 擁護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美国의 台湾侵略에 对한 反对와 朝鮮人民의 解放戰爭에 对한 支援과를 連結시키기 爲해, 또 이 運動을 宣傳工作上 충분히 準備하기 爲해 7月 10日부터 「台湾朝鮮侵略反对運動週間」을 舉行할 것을 呼訴한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⁴⁹⁾

이와같은 世界勞聯에서 이미 始作한 北韓支援運動마저 「台湾侵略反对運動」으로 連結시키려는 등 韓國戰爭에 对해 微温的이던⁵⁰⁾ 中共이 台湾問題에 重点을 두지 않고 韓國問題에 直接 干与하는 政策表明을 하기 始作한 것은 8月 20日부터의 일이다. 8月 20日 周恩來는 "朝鮮은 中国의 이웃이므로 中国人民은 朝鮮問題 解決에 깊은 関心을 가지고 있다. 朝鮮問題를 討議함에 있어서 中華人民共和國代表의 参加를 必要로 하며..... 朝鮮에 있어서 軍事行動을 中止하고 外軍을 撤収시켜야 한다."⁵¹⁾는 内容의 電文을 말리크(當時 UN安保理議長)와 트리그브·리(當時 UN事務總長)에게 보냈었다.

註 49) 日本 國際問題研究所 中国部會編, 「新中国資料集成」, 第3卷 (東京: 1972), pp.138-140; Ibid., p.47.

50) 中共의 態度와 反應에 对해서는 Allen S. Whit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p.54-57 参照.

51) 「新中国資料集成」, 第3卷, p.149.

周恩來의 이 電文은 8月 17日 美国代表 오스틴이 8月 4日 字의 蘇聯代表 말리크案을 拒否한 데⁵²⁾ 대해 压力을 加하기 위한 것으로 解釈되는 것이다. 即 紛爭의 擴大를 外交的으로 막으려는 蘇聯의 妥協案에 中共이 加擔하게 된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 台湾問題와 韓國問題를 結付시키려는 「反對美国侵略台湾朝鮮運動」을 通하여, 8月 13日 最初의 大使派遣을 通하여, 그리고 周恩來의 電文등 유엔에서 蘇聯을 支援하므로서 北韓을 支持하는 立場을 取했으나 軍事的으로 介入한다는 立場은 아직 取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中共의 韓國戰爭에 對한 介入意志가 微温的으로 나타나게 된 对内·外的인 原因을 究明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中共이 「台湾問題와 韓國戰爭問題를 연결지워 보려던 「反對美国侵略台湾朝鮮運動」은 国内体制整備의 目的을 가지고 있었다. 勿論 이를 通해 北韓에 對한 影響力을 強化하고, 以後에 不得已하게 介入하게 될 境遇 이를 正当化시킬 수 있는 輿論基盤을 造成하는 意味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中共은 「反對美国侵略台湾朝鮮運動」을 通하여 우선 「美帝國主義」에 對한 공포심을 없애고 中共内에 親蔣介石殘黨을 一掃하는 平定事業을 早速히 成就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었다. 바꾸어 말해서 「反對美国侵略台湾朝鮮運動」과 勞動組合運動을 通하여 大衆을 組織·動員하였고, 그 後 「抗美援朝」의 口號아래 「志願兵」까지 動員하는 등 輿論形成의

註52) 同 經過에 對해서는, 朴奉植, 「對外政策」, pp. 49-50 參照.

基盤을 構築하기는 하였으나 「反對美國侵略台灣朝鮮運動」은 基本的으로 國內体制의 強化를 위한 것이었다.⁵³⁾

물론, 유엔軍의 本格的인 介入이 展開되고 있는 狀況에서 中共의 安保를 위해 拙速에 빠지지 않으려는 意圖가 있었다. 中共이 介入을 했는데도 不拘하고 유엔軍의 反擊을 阻止하지 못하거나 全面的 勝利를 阻止하지 못했을 境遇, 이미 밝힌바 있는 "北韓利害와 中共利害가 同質의 것"이라는 立場때문에 中共으로서는 軍事的으로 아주 密接한 介入까지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勿論 이러한 介入이 成功했을 경우 아시아에서 中共의 地位가 強化된다는 點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革命의 勝利를 鞏固히 하지도 못한 狀況에서 軍事的 介入까지 招來할 政治的 제스츄어를 쓸 여유는 없었던 것이 當時 中共의 實情이었다. 그러므로 만일의 境遇 蘇聯이 中共을 積極的으로 支援한다는 약속 없이 中共으로서는 韓國戰爭에서 對北韓積極姿勢를 取할 수가 없었던

註 53) Ibid., p. 52, 朴奉植教授는 이러한 判斷의 根拠로 中共이 1950年 6月 29日에 「中華人民共和國工會法」, 6月 30日에 「中華人民共和國土地法」, 7月 23日에 「政務院最高人民法院 關於鎮壓反革命活動的指示」가 公布되는 등 中共內部가 「革命」과 「建設」에 몰두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것이다.⁵⁴⁾ 當時 戰勢가 韓國에 全적으로 不利했었다는 事實도 中共의 微溫的 姿勢를 說明하는데 參考가 될 수 있다.

中共이 軍事的으로 韓國戰爭에 介入한 것은 유엔軍이 38線을 넘어 北進을 始作한지 1週日이 지난 10月 14日부터다. 10月 14-16日頃 中共軍 第4野戰軍部隊의 一部가 「義勇軍」 資格으로 秘密裡에 北韓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11月初頃에는 18萬 乃至 22萬8,000名의 中共軍이 越境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大部分의 中共軍은 이때 이미 滿洲地域에 駐屯하고 있던 軍人들이었으므로⁵⁵⁾ 이들이 유엔軍의 38線을 넘은지 1週日이 다되도록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中共軍의 參戰에 여러가지 戰略的 問題가 많았다는 것을 示唆해주고 있다. 이 때 中共으로서는 美國의 韓國戰

註 54) 中共은 蘇聯의 支援에 對해서 낙관적인 展望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中·蘇同盟條約이 1950年4月11日에 批准되므로서 効力を 發生했다고 하지만, 批准書가 交換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批准書 交換은 1950年9月30日에 있었다. , D.M. Johnston and H. Chiu(eds.), Agree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7-1967: Calen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p. 1-2; Harold C. Hinton 著 (金河 竜訳), 「中共과 世界政治」, (서울: 語文閣, 1967), p. 325.

55) 韓國戰爭拔堯에서 부터 中共軍의 參戰에 이르기까지의 中共軍의 움직임을 正確히 알기는 어려우나 Allen S. Whitting의 研究結果에 따르면, 1950年 5月末과 7月 中旬에 東北地域과 山東地域에 一次的인 增強이 있는 뒤 8月 中旬까지는 큰 變動이 없다가 9月末에 가서 本格的인 軍事移動이 있었다고 한다. Whitting, op. cit., pp. 118-122.

爭에서의 目的이 制限的인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參戰
함에 있어서 一但은 美空軍의 中国本土攻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
었을 것이다. 그리고 軍事戰略的으로 볼 때 毛沢東式 持久戰을
韓半島에서 適用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와 補給의 問題등도 考慮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⁵⁶⁾

이러한 點들을 考慮해 본다면 中共의 韓國戰參戰決定에는 다음과
같은 動機들이 作用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50年 2월에 締結된 中·蘇同盟條約때문에 蘇聯에 對한
協力の 必要性 또는 蘇聯의 要求에 따라서 參戰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中共으로서의 國內·外的인 狀況때문에 또다른 戰爭에 介
入하는 것은 國利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므로 韓國戰爭初期에 比較的
냉담한 態度를 取했고 北韓軍이 거의 完敗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했지만, 台灣과 韓半島에서 莫強한 美軍의 登場이라는 事實앞에 蘇
聯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蘇聯의 要求를 拒絕하기

註 56) 朴奉植, 「對外政策」, p.55 : 韓國戰介入을 決定하기 위하여
毛沢東은 三晝夜를 방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說이 있다.

Chow Ching- Wen, Ten Years of Storm : 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1960),pp.116-117.

어려웠을 것은 쉽사리 想像할 수 있는 일이다.⁵⁷⁾

둘째, 中共스스로의 利害關係가 參戰을 불가피하게 했을 것이다. 韓半島에 共產政權이 存在한다는 것은 설혹 그것이 蘇聯의 衛星國이라 하더라도 中國의 利益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反面에 共產政權이 韓半島에서 없어진 狀態에서 美·日·韓間에 同盟이 形成되는 境遇 이미 變更된 美國의 台灣政策으로 보아 蔣介石 政府의 大陸反攻可能性이 높아진다고 보았을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中共은 一次的으로는 蘇聯의 要請과, 만일의 境遇에 對한 蘇聯의 保障을 基礎로 해서 이를 自國의 利益과 同質化시켜 蘇聯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參戰하는 形式을 取하였던 것이다.⁵⁸⁾

註 57) Ibid., 中共포로의 証言을 土台로 한 美國務省 發表에 依하면 1950年8月初에 蘇聯은 中共에 通文을 傳達, 8月14日 中共은 兵力을, 蘇聯은 火力을 責任지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軍事作戰 및 配置, 兵站, 對內外宣傳, 煽動, 國際的 協力등의 方法에 關한 協定을 締結하였다고 한다. 日本側의 研究에 依하면 스탈린이 8月26日 北京에 特使를 보내어 金日成을 위한 援軍을 要請하였다고 한다. 각각 Whitting, op. cit., p. 187; 民族問題研究会編, 「朝鮮戰爭史」(東京: コリア評論社, 1967), p. 120 參照.

58) 그러나 中共의 參戰決定을 둘러싼 中·蘇間의 協定은 蘇聯의 對中共保障 및 補償에 있어 未解決問題가 많은 채 中共의 參戰이 서둘러 決定된 것 같다. 60年代 中·蘇紛爭이 激化되면서 이 問題를 놓고 中·蘇間에 相互非難을 했기 때문이다. 例컨대 1963年7月14日 蘇聯 共產黨은 “中共이 韓國戰爭에서 美·蘇紛爭을 挑發하려 했다고” 非難한데 反해 中共黨은 1963年7月18日 人民日報를 통해 “中共黨은 美·蘇 正面衝突을 反對했으며, 韓國戰爭과 台灣海峽에서 불가피하게 重荷를 짊어졌으며 社會主義陣營防衛斗争의 第一線에서 싸웠다. 그 덕택으로 蘇聯은 安全한 第二線에 머물러 있었다.” 고 맞섰다. →

参戰關聯 中·蘇間의 合意方法과 節次에 對해서는 자세한 것 을 알 길이 없으나 中共 内部的으로는 8月下旬부터 이미 準備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周恩來는 8月 25日과 30日 美軍機의 中共領空侵犯事件에 對해 美国과 유엔安保理에 正式 提訴를 하는 한편, 8月下旬과 9月中 여러차례에 걸쳐 糾彈大會를 열었다. 9月 15日 유엔軍의 仁川上陸에 이어 事態의 進展이 急迫해 지자 中共軍 副總參謀長 聶榮臻은 9月 25日 駐中共 印度大使와의 會談에서 美軍이 中共國境까지 進擊할 境遇에는 座視하지 않겠 다는 것을 通報했다.

이에 이어서 中·蘇同盟條約批准書가 交換된 9月 30日 周恩來는 國慶節慶祝演說에서 中共參戰의 立場을 보다 명백히 밝혔을 뿐 아니라 이자리에서 그는 蘇聯과 1950年 2月에 締結한 同盟條約 및 其他 諸協定의 存在事實을 強調하였다. 이것은 中共參戰의 條件과 狀況을 간접적으로나 說明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即 周恩來는 中共이 蘇聯을 우두머리로 하는 社會主義陣營에 굳건히 位置하고 있는 同時에 蘇聯과 더불어 가장 親密한 兄弟關係를 맺고 있으며, 中·蘇兩國은 世界的 歴史的 意義를 가지는 中·蘇友好 同盟條約을 締結하였음을 強調하였던 것이다.⁵⁹⁾ 또한 中·蘇間의

← 各各 坂本直道, 「中·蘇國境紛爭の背景」(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70), pp. 100-101; 朴奉植, 「對外政策」, pp. 55-56.

59) 國土統一院編, 「共產圈의 統韓關係文獻集」, 第一輯(서울: 國土統一院, 1972), pp. 280-28.

協定締結과 그 實施로 中共人民들이 소련의 領導者 스탈린大元帥와 蘇聯政府 그리고 蘇聯人民의 友誼에 대해 無限한 感謝를 表示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美軍의 領空侵犯事件에 대해서는 中共人民들은 「平和를 保護하기 위하여」侵略戰爭에 反對하는 것을 겁내지 않으며, 「帝國主義者」들이 自己의 隣接國에 侵略을 姿行하는 것을 傍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中·蘇同盟의 強調와 強力한 姿勢의 表現은 먼저 第5次 유엔總회가 열리어 거기에서 유엔軍에 依한 韓國統一을 合法化하는 案을 討議하고 있는 事實을 意識하면서 美國과 유엔에 影響을 주는 同時에 蘇聯의 支援이 보다 確實해진 狀況에서 中共人民들을 動員하기 위한 것이었다. 10月 1日 유엔軍司令官 맥아더가 金日成에 대해 降伏할 것을 要求하는 最後通牒을 보내자, 10月 2日 周恩來는 深夜에 駐中印度大使를 불러 韓國軍의 越境은 모르나 美軍이 北韓땅에 들어오면 中共의 抵抗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므로써 中共의 戰爭發動原因(Causes Bell)을 提示하였다.⁶⁰⁾

이와 때를 같이해서 10月 2日 蘇聯의 유엔代表 비신스키는 第5次 유엔總회 第1委員會에 이미 上程되어 있는 유엔軍의 越北과 유엔에 依한 統韓決議案을 막기 위한 代案으로써 1) 韓國에서 即時休戰 2) 外軍의 即時撤収 3) 單一國會를 위한 全韓選舉 4) 暫定的인 統治를 위한 南北同數의 共同委員會構成 5) 韓國에

註 60) 朴奉植, 「對外政策」, p.57.

隣接한 國家를 代表로 構成된 유엔委員會 監理下의 選舉 6) 經濟援助 7) 이렇게 해서 생긴 統一政府의 유엔加入 등을 提案하였다.⁶¹⁾ 1948年 유엔監理下의 總選舉實施를 反對해 온 蘇聯의 立場에서 본다면 이러한 提案의 目的은 우선 유엔軍의 越北沮止에 있었었던 것이다.

10月 4日 유엔軍의 越北案과 10月 7日 언커크設立案이 通過되자 中共은 外交部代辯人聲明을 통해 “美軍이 大規模로 38線을 넘으려 하고 있는 바 中國人民들은 美國 및 其他 그를 돕는 國家들이 朝鮮을 侵略하는 이러한 兇惡한 事態와 戰爭을 擴大하려는 危險한 趨勢에 대하여 傍觀할 수 없다.”고 하므로서 韓國戰介入에의 可能性을 밝혔다.⁶²⁾

以上을 通해서 보면 中共이 蘇聯과 더불어 北韓을 保護하려는 政治的 努力은 1950年 10月 初에 끝났으며 다음은 戰場에서의 決定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미 위에서 指摘하였듯이 中共의 韓國戰爭에의 參戰決定은 蘇聯의 要請, 美國의 擴戰政策에 對한 공포등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서 決定이 되었지만, 적어도 表面上으로는 그리고 國民을 勸員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中共의 安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獨自的인 決定으로 만들어 왔음을 指摘할 수 있다.⁶³⁾

註 61) 國土統一院, op.cit., pp. 357-358.

62) 朴奉植, 「對外政策」, p. 57.

63) Ibid.

이제까지 中共의 韓國戰介入背景과 過程을 考察하였는 바 다음으로 中共의 韓國戰參戰結果를 보기로 한다.

첫째 中共의 參戰은 20余年間の 中共의 對外活動에 對한 制約要因을 形成했다. 台灣問題에 美國이 介入하므로써 「台灣解放」이 늦어지게 됨은 勿論이거니와 對中共貿易封鎖와 對中共封込線 (Containment Cordon)의 設定으로 中共은 對外活動에 많은 支障을 받았으며 따라서 國際社會에서의 活動範圍도 制限받게 되었다. 即 非共產國家들은 中共을 膨脹主義的인 攻擊勢力으로 看做하므로써 공포와 敵對感에 따라 中共政府에 對한 承認을 延期하기로 하였다.⁶⁴⁾

둘째, 中共은 韓國戰參戰으로 被害를 입은 것 못지않게 利得도 얻었다. 即 美軍과 부딪치므로써 自信感을 얻었던 것이다. 美軍과의 싸움에서 밀고 밀리는 狀況은 있었으나, 中共으로서는 中國歷史上 最初로 西洋軍隊에 打擊을 주었다는 點에서 民族的 矜持를 느끼기도 했다. "中共은 尊崇되어야 하며 새로운 世界大戰이 絶對한 것이 아니"라는 當時 毛沢東의 말은 美軍과의 對決에서 自信感을 얻었다는 徵表인 것이다. 또한 周恩來가 1970年代初에 "國際社會에서 美國의 役割이 줄어들기 始作한 것은 韓國戰爭때 부터이며, 그로 因하여 美國의 沒落이 始作되었다."고 한 것도 韓國戰爭에서의 中共의 役割과 그 때 얻은 民族的 自信感의

註 64) Yahuda, op. cit., p. 60; Barnett, Uncertain Passage, p. 250.

究露인 것이다.⁶⁵⁾

셋째 韓國戰參戰으로 中共은 國際的 威身을 格上시킬 수 있게 되었다. 中共軍의 參戰으로 北韓이 潰滅을 免할 수 있었다는 事實때문에 中共은 더 以上 無力한 國家가 아니고, 動態的이며 高度로 動員된 民族으로서 自己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確保하고 나아가서는 世界에서 그 位置를 主張하고 나설 수 있는 國家로 認識되기 始作한 것이다.⁶⁶⁾ 특히 韓國戰參戰으로 中共은 北韓에 對한 影響力을 增大시키므로써 東北亞의 主要勢力으로 登場할 수 있게 되었다. 蘇聯에 對해서도 中共의 政治的 立場을 세울 수 있으므로써 「從屬的인 同盟國」(Dependent Ally)으로 부터 「獨立的인 對等한 同盟國」(Independent Equal Ally)⁶⁷⁾의 位置로 나갈 수 있는 橋頭堡를 確保한 셈이다.

要컨대 建國外交를 위한 政策理論으로서의 兩大陣營에 立脚한 對外活動을 하는 동안 對蘇關係에서 屈辱的인 境遇도 있었고, 反面 安保上의 利得과 威脅도 있었지만, 兩大陣營論에 依한 中共의 初期 對外活動을 總決算한다면 中共의 國際政治的 役割이라는 것을 國際的으로 認識시키는 結果를 가져다 주었음은 否認하기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中國」에 이르는 첫 段階을 올라 선 셈이다.

註 65) Yahuda, op. cit., p. 60.

66) Barnett, Uncertain Passage, pp. 249-250.

67) Yahuda, op. cit., p. 51, p. 64.

第三節 平 和 共 存 論

가. 中共의 平和共存論의 起源

- 레닌의 平和共存論 -

中共의 「平和共存」은 흐루시초프의인 「平和共存」이 아니라 레닌의인 「平和共存」이다.

勿論 흐루시초프도 蘇聯共産党 20次大会에서의 演說을¹⁾ 통해 自身이 말하는 「平和共存」이 「社会体制를 달리하는 国家들끼리의 平和共存에 관한 레닌主義의 原則에 立脚하고 있으며 蘇聯對外政策의 一般路線이다.」라고 主張하긴 했지만, 同時에 「오늘날의 國際政治狀況에서는 平和共存이나 歷史上 가장 破壞的인 戰爭이나의 두 가지 路徑에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平和共存」이 레닌의인 平和共存의 政策的 狀況과 다른 性格의 것임을 스스로 明白히 하고 있다.²⁾

그러면 레닌의 「平和共存」의 政策的 狀況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레닌의 「平和共存」은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처럼 強大國間的

註 1) 흐루시초프의 20次 党大会에서의 演說文은 G.F.Hudson et al., The Sino-Soviet Dispute(London: The China Quarterly, 1961), pp.42-46: David Floyd, Mao Against Khrushchev: A Short History of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 Praeger, 1964), pp.228-230.

2) 朴奉植, 「對外政策」, p.72.

戰爭을 避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세워진 소비에트政權을 維持하기 위한 手段이었다. 트로츠키의 「永久 革命論」을 거부한 레닌은 資本主義不均等發展論에 立脚하여 平和共存의 不可避性을 論했다. 즉 資本主義發展이 나라마다 均衡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社會主義革命도 世界的으로 一時에 일어날 수가 없다. 먼저 한 두 나라에서 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는 아직 資本主義國家가 머물러 있는 狀態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一定한 期間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國家가 이웃하여 共存하게 되는 것은 不可避하다는 理論을 展開했었다.³⁾

레닌이 1917年 11月 第二次 소비에트全體會議에서 所謂 「平和提案」(Decree on Peace)을 提唱한 것은 新生 소비에트政權을 第一次世界大戰의 渦中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해서였고, 뒤이은 여러가지 共存政策은 資本主義國家들의 對蘇干涉政策을 封鎖하고 「一國 社會主義」的 經濟建設을 위한 政策이었다. 레닌은 「平和提案」에서 「合併과 賠償없는 即時平和」를 主張하면서 強국이 弱국을 나누어 먹기 위한 戰爭을 繼續한다는 것은 人道에 對한 大罪이기 때문에 「公正하고 民主的인 平和를 위해」 모든 交戰 當事者는 즉시 戰爭終結을 위한 交渉을 벌이자고 提案하였다. 그는 또 帝政露西亞가 他國과 締結한 掠奪的인 秘密條約은 廢棄한다고

註3) V.I. Lenin, Collected Work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4), Vol.26, p.463.

하면서 「善隣的인 条件과 經濟協助에 関한 協定」들을 歡迎한다」⁴⁾
고 함으로써 資本主義國家와 相容할 수 있다는 姿勢를 取했다.

第二次世界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레닌은 1919年 12月에 열린
第七次 소비에트全體大會에서 資本主義國家와의 共存의 길을 더욱
明白히 했다. 즉 蘇聯은 모든 人民과 平和롭게 살기를 원하며,
소비에트체제의 基盤위에서 生産 運輸 및 政府事業의 順調로운
運營을 確立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努力을 國內發展에 기울인다.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協商國들의 平和와 饑餓封鎖로 말미암아 推
進하지 못했던 것이다.⁵⁾라고 말했다.

1920年末頃 日本을 除外한 歐美諸國의 對蘇干涉이 끝나자, 레닌
은 다시 共存問題를 提起하였다. 勿論 그 以前인 1920年 2月
에도 新聞記者들과의 會見에서 레닌은 「아시아에 있어서 蘇聯의
計劃은 유럽에서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모든 人間들과의 平和共存
이다」⁶⁾라고 말했지만, 1920年 11月 12日 레닌은 「우리의
內外位置와 黨의 課業」이란 演說에서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

註 4) Lenin, C.W., Vol.26, p.255. 가장 代表的인 例가 中國主
權에 對한 帝政露西亞의 侵害를 否定한다는 內容을 담은
1918年의 Chicherin 聲明이다. 1919年8月 蘇聯은
Chicherin 聲明을 좀 더 具體的으로 展開하여 Karakhan
宣言을 내놓고 中國政府와의 妥協을 試圖했다. 보다 仔細한
論議는 丁世鉉, 「1920年代 蘇聯의 中國政策과 第一次 國共
合作」, p.37 參照.

5) Lenin, C.W., Vol.30, p.231.

6) Ibid., p.365.

諸國과 通商關係에 들어가는 것은 大端히 複雜하고 絶對적으로 例外的인 狀況에 놓인 우리의 生存을 確保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다.⁷⁾ 라고 前提한 뒤, 1920年 12月 6日 共産黨 熱誠者大會에서는 蘇聯의 尨대한 地下資源을 世界經濟의 恢復을 위하여 開放하겠다고 提議하고 나섰다.⁸⁾

이렇게 「平和共存論」을 展開하고 具體적인 政策提案을 하면서도 레닌은 世界革命이라는 窮極的 目標은 버리지 않았다. 즉 그는 '社會主義를 달리는 國家들 間의 平和는 또 다른 手段에 依한 階級鬭爭의 連續이다'⁹⁾라고 함으로써 平和共存論이 最終的 目標이 아니라는 點을 分明히 했다. 즉 '資本主義國家들이란 그들 自体의 內部分裂的 性格때문에 스스로 崩壞될 것이 分明하지만 全世界의 社會主義化도 쉽사리 成就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資本主義 國家와의 共存을 하면서 힘의 均衡이 바뀔 때까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世界革命을 暫時 뒤로 미룬다는 것이다.¹⁰⁾

註 7) Ibid., Vol. 31, p. 414.

8) Ibid., pp. 450-459.

9) W. W. Kulski, Peaceful Coexistence: An Analysis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Henry Regnery Co., 1959), p. 75.

10) 平和共存論의 戰術的 性格에 對한 見解는 Franklyn Griffiths, 'Origins of Peaceful Coexistence: A Historical Note', Walter Z. Laquer and Leopold Lebedz (eds.), The State of Soviet Studies (Mass: M. I. T. Press, 1965), pp. 151-162 參照.

中共政權이 樹立되던 當時의 狀況은 레닌指導下에 소비에트政權이 樹立되던 第一次大戦末의 그것에 비해 훨씬 有利했다. 美国이 国民党政府를 支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蘇聯의 境遇에서와 같은 列強의 軍事的 干涉은 없었으며 蘇聯의 支援까지 받고 있었다. 다만 韓國戰爭을 契機로 美国과 敵對關係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對外活動에서 行動半徑에 制約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制約要因을 除去하려는 目的에서 中共 指導者들은 레닌의 平和共存政策을 教訓삼아 政權과 体制維持를 爲한 共存外交를 推進하게 된 것이다.¹¹⁾

나. 平和共存外交展開의 背景

中共은 1949年 9月 29日 열린 中国人民政治協商會議 第一回 全体會議에서 採択된 「中国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¹²⁾ 第 11条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은 自由와 平和를 사랑하는 世界の 모든 國家 및 人民, 첫째 蘇聯邦과 各人民民主諸國 및 各被壓迫民族과 提携하고 國際平和와 民主主義陣營에 서서 共同으로 帝國主義侵略에 反對하고 世界の 永久平和를 確保한다'¹³⁾고 함으로써 一但은

註 11) 朴奉植, 「對外政策」, p.74: Barnett, Uncertain Passage, p.254.

12) 同綱領은 中共의 憲法이 1954年 9月 20日 最初로 作成될 때까지 中共의 基本法으로서 機能해 왔다.

13) 世界知識出版社編, 「中華人民共和國 對外關係文件集」 第一集, 1949-1950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7) pp. 1-2.

兩陣營論에 立脚한 對外政策方向을 明示한 바 있다.

그러나 同綱領 56 條에서는 다시 ' 国民党 反動派와의 關係를 斷絶하고 中華人民共和國에 對하여 友好的 態度를 取하는 外國政府에 對하여는 平等 互惠 및 領土主權의 相互尊重을 基礎로 한 交渉을 通하여 外交關係를 樹立한다 ' ¹⁴⁾ 라고 함으로써 政府樹立과 同時에 이미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나라와의 共存關係를 樹立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었다. 이러한 原則에 따라서 中共政權은 台灣을 包含하는 全領土에 對한 北京政府의 主權을 承認하고 中共에 對하여 敵對的인 態度를 取하지 않는 政府와는 設使 그들이 共產主義者들을 彈壓하던 政府라 하더라도, 外交關係樹立을 主저하지 않았다. 즉 1949 年 12 月에는 버마 (12.17), 印度 (12.30) 와 1950 年 1 月에는 파키스탄 (1.5), 스리랑카 (1.7), 이스라엘 (1.9), 아프가니스탄 (1.12), 越盟 (1.15) 과 4 月에는 인도네시아 (4.13) 順으로 隣接國家들과 먼저 外交關係를 樹立했고, 한편으로는 中共을 承認하는 余他 西方國家들. 例컨대 英國 ('50. 1. 6), 노르웨이 ('50. 1. 7), 덴마크 ('50. 1. 9), 핀란드 ('50. 1.13), 스웨덴 ('50. 1.15) 과도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¹⁵⁾

이렇게 본다면 中共은 政權樹立初서부터 Coninfrom의 國際主義

註 14) Ibid., p.74.

15) 「大公報」, 1973. 1.25.

路線과 立場을 달리하기 始作했다고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中共이 周辺國家와의 關係를 友好的으로 調整하기 위하여 共產主義者들을 彈壓하는 政府와도 妥協하는 先例는 10月革命後의 蘇聯政府의 前例를 따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帝政露西亜를 뒤집어 엮고 새로이 政權을 樹立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레닌은 蘇聯政權을 保護하기 위하여 터어키에 接近을 始作했다. 레닌이 反共民族主義 解放運動을 하는 「케말·아타튀르크」를 支援한 것은 英國等 西方 勢力이 터어키에 進出하여 勢力圈을 形成, 對蘇威脅을 加하는 것을 막으려는 意圖에서 였던 것이다.¹⁷⁾

中共이 蘇聯의 先例를 따르고 蘇聯의 世界戰略속에서 派生되는 政策을 遂行하면서도 政策表現의 語句나 內容은 蘇聯의 衛星國들과 는 같지 않았다. 즉 1947年-1951年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理論的 基調였던 兩大陣營論을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 틀을

註 16) 朴奉植, 「對外政策」 p. 9. 이러한 見解에 對하여 當時 中共은 對外政策에 있어서 다른 國內政策과 같은 程度로 獨自的인 政策決定을 할 수 있는 段階가 아니었으며 소련에 依存한 다는 點 以外에는 뚜렷한 政策原則이 없었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John Gittings, 'The Great-Power Triangle and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Quarterly, Vol. 39 (Jul./Sep., 1969), pp. 41-45 參照.

17) Adam B.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The History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Praeger, 1968), p. 168.

깨뜨리지 않았으며,事態의 趨移에 따라 毛沢東은 自身の 戰略指針에 따라 選擇的인 適用을 해 왔던 것이다. 그 具體的인 例는 1951年 韓國戰爭이 膠着狀態에 빠져 彼此 武力에 의한 目的達成이 不可能해 지자¹⁸⁾ 中共은 平和共存政策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選擇的으로 實施하기 始作한 것이다.

韓國戰爭에서 非同盟 中立政策을 표방하고 나선 印度, 버마, 스리랑카 및 인도네시아등 所謂 「反植民主義」勢力들과 紐帶를 強化하고 이들 나라에 對해서 中共이 革命輸出國이 아니라는 印象을 浮刻시킴으로써 對美關係에서 中共의 立場을 強化하려는 目的에서,¹⁹⁾ 中共은 共產主義戰略·戰術의 「統一戰線」原則에 따라 平和共存政策을 내걸고 나왔다. 中共의 平和共存政策은 新生아시아諸國과의 結束을 強化하는 形態로 모습을 드러내기 始作했다. 그 첫 試圖는 1951年 4月과 5月에 걸친 印度와의 通商協定이었다. 이어서, 中共은 1952年 1月 스리랑카와 通商協定을 締結한 뒤, 4月 3日에서 12日사이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非政府레벨의 國際經濟會議

註 18) 1951年 6月 23日 소련의 유엔代表 말리크가 유엔本部에서 38線 停戰會談을 提議한 뒤 6月 27日 16個國이 平和會談에 共同聲明을 내자 6月 30日 트루만 美大統領은 리지웨이 將軍에게 韓國停戰交涉을 指令했다. 7月 1日 金日成과 彭德懷(中共志願軍司令官)가 停戰提議에 同意함으로써 7月 10日부터는 開城에서 休戰會談이 開始되었다.

19) 朴奉植, 「對外政策」, p.76: Barnett, Uncertain Passage, p.251.

에서, 仏蘭西商事와 中国輸出入公司間에 吧타貿易協定을 締結하였다.

1952年 6月 1日에는 中共의 國際貿易促進회가 日本의 國際貿易會議懇談會·中日貿易促進會·中日貿易促進議員聯盟 代表者들과 通商協定을 締結하였다.

1952年 10月에는 37個國으로부터 約 400名의 代表와 그밖의 人士들을 北京에 招致하여 「아시아·太平洋會議」를 열고 韓國休戰會談에서의 美國의 態度를 非難하기도 하였다. 政治体制와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나라들과의 -非政府的 次元의 人民外交일망정- 接觸은 美國의 對中共包圍網을 벗어나기 위한 努力의 所産이었으며 여기에서 平和共存外交의 眞面目이 드러난다. 이러한 政策은 中共政權 樹立以來 韓國戰爭을 거치는 동안 蘇聯의 影響下에서 推進된 革命外交와는 다른 性格의 外交가 展開되는 始發로서 意味를 갖는 것이다.²⁰⁾

勿論 같은 時期에 蘇聯도 兩大陣營論에 立脚한 革命外交만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韓國戰爭이 膠着狀態에 빠진 1951年 後半부터 世界 各地域에서 平和運動이 高潮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強力한 抵抗에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蘇聯으로서도 아시아諸國에 있어서의 革命에 關해 中共과 意見을 調整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다. 1952年 9月 蘇聯 쥬코프의 論文이 中共의 「世界知識」雜誌에 轉載된 것으로 보아 民族解放問題支援의 基本

註 20) 朴奉植, 「對外政策」, p.77.

問題에 關하여 中·蘇間에 某種의 妥協이 이루어졌다고도 한다.²¹⁾
또한 1952年 10月 5日 蘇聯共産黨 19次大會에서 마렌코프는
獨逸과 日本의 中立化를 提起하면서 同時에 第三勢力을 廣範하게
培養할 것을 主張하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這間의 事情은 中共이
蘇聯의 影響圈을 벗어나 獨自的인 外交方式을 開拓하는 데 刺戟을
加하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平和共存外交가 展開되기
始作한 決定的인 原因이라고는 볼 수 없고, 中共이 아시아新生國들
中心으로 平和共存外交를 展開하게 된 原因은 어디까지나 中共指導
者들의 政策指針인 毛沢東戰略의 柔軟性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韓國戰爭이 膠着狀態에 빠진 뒤 조심스럽게 展開되던 中共의 平
和共存外交는 1953年 3月 5日 스탈린의 死亡으로 轉期를 맞이
하게 된다. 즉 스탈린의 死亡으로 共産圈內에서 中共의 地位가
蘇聯과 同等한 地位로까지 올라감으로써 中共指導者들의 政策決定에
있어 裁量權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다른 共産國家와는 달리 스
탈린의 葬禮式에 中共은 毛沢東이 參席하지 않고 周恩來가 參席을
했으나 周恩來는 다른 吊問使節과는 달리 破格的인 待遇를 받았을
뿐 아니라 3月 10日字 프라우다紙는 毛沢東의 寫眞을 가운데
놓고 스탈린과 마렌코프(스탈린 死後 首相)의 寫眞을 左右로

註 21) Barnett,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New York: Praeger, 1963), p.18.

22) David Floyd, op.cit., pp.215-216: 尹慶耀, 「中共外交與對外關係」 (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3)

掲載하였다. 또한 北京駐在 蘇聯大使도 軍人出身에서 勞組幹部出身으로 交替시키고, 「兄弟黨」內 序列도 폴란드黨 代身 中共黨을 一位로 格上시키는 措置를 取했다.²³⁾ 그리고 1955年 2月 8日 蘇聯邦最高會議에서 - 이날 마렌코프의 首相職 辭任이 發表되었다 - 外相 모로토프는 外交政策에 關한 報告를 하는 가운데 '蘇聯에, 좀더 正確히 表現해서, 蘇聯과 中共에 의해서 領導되는 社會主義와 民主主義陣營' 云云 함으로써²⁴⁾ 蘇聯이 中共을 스탈린처럼 制御하기 에는 이미 力量이 모자람을 스스로 露呈하였다.

스탈린의 葬禮式을 參席하고 돌아 온 周恩來는 1953年 3月 30日 韓國休戰會談에 關한 새로운 提案을 내놓았다. 즉 捕虜中 歸還을 反對하는 者는 中立國으로 一但 移送하여 거기에서 公正한 解決을 하자는 것으로서²⁵⁾ 이것이 契機가 되어 韓國休戰會談은 오랜 膠着狀態에서 벗어나 1953年 6月 8日 捕虜交換協定부터 締結되고 7月 27日에는 休戰協定이 締結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스탈린 葬禮式에 參席하고 돌아온 周恩來의 韓國休戰會談 關聯 提議가 갖는 意味는 무엇인가? 그것은 中共 나름의 獨自的인 이니셔티브를 行事하는 試金石으로서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 더구나 隣接國家問題에 中共이 이니셔티브를 行事함으로써 적어도

註 23) Floyd, op.cit., pp.18-19.

24) Ibid., p.221.

25) 「中華人民共和國 對外關係文件集」, 第2集, 1951-1953, pp. 131-134.

아시아에서는 蘇聯을 제치고 強力한 影響圈을 構築해 나가려는 遠
대한 計劃의 第一歩였던 것이다. 韓國休戰問題에서 自信을 얻은
中共은 아시아의 周辺隣接國家를 相對로 보다 積極的인 外交攻勢를
取하기 始作했다.

對蘇關係 및 아시아에서의 中·蘇의 競爭이라는 視角에서 보면
中共이 平和共存論에 立脚한 對外活動을 展開하게 된 背景이 如上
하게 說明될 수 있지만, 「平和共存論」의 裏面에는 中共의 軍事的
脆弱性を 外交的 努力으로 補願하려는 意圖도 있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1951年 後半 韓國戰爭이 膠着狀態에 빠지면서 兩大陣營論의 制
限的 範圍內에서 조심스럽게 選擇的으로 平和共存外交活動을 展開했
음을 前述한 바 있다. 共產主義陣營과 中立國家들을 한데 묶어
反帝國主義·反植民統一戰線을 結成하려는 것도 「平和共存」外交의
또 하나의 目的이었기 때문에 그 政策的 表現에서 好戰的이고 鬪
爭的인 色彩을 지우기가 매우 困難하였다. 이러한 好戰的이고 鬪
爭的인 表現은 修辭(Rhetoric)에 不過한 것이었으나 余他 非共產
國家들은 中共을 危險한 存在로 볼 수밖에 없었고, 特히 中共의
隣接國家들로서는 中共이 아시아에서의 霸權을 掌握하려는 것이 아
닌가 하고 疑心하고 있었다.²⁶⁾ 이에 美國은 1951년부터 1953年
사이에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日本 필리핀 韓國등 中共의 周辺

註 26) Barnett, Uncertain Passage, pp.251-252.

국가들과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中共包圍網을 構築해 왔다.²⁷⁾

中共의 立場에서 볼 때, 美國의 이러한 措置는 매우 不安스러웠다. 勿論 中共自身の 好戰的이고 鬪爭的인 修辭와 거기에서 緣由한 이미지 때문에 惹起된 軍事的 壓迫이자 包圍이기는 하지만, 境遇에 따라서는 美國으로부터의 攻擊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恐怖까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다. 實로 中共指導者들은 中共의 軍事的 脆弱性を 恨歎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中·蘇同盟 條約이라는 것이 있어 最少限의 沮止力은 發揮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美國의 一次的인 先制攻擊에 對한 不安과 恐怖마저 払拭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²⁸⁾

이와같이 軍事的으로 威脅을 느끼고 政治的으로 - 아시아에서 - 孤立되어 있는 狀況에서 中共이 살아남고 勢力을 伸張하여 對美 牽制力을 強化하는 길은 外交的인 方式에 依해 支持·同調勢力을 늘려나가는 길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中共은 共產國家는 勿論 非 共產國家들과도 關係를 強化해야만 한다는 結論을 내리게 된 것이다. 非 共產國家들 가운데 中共이 接近할 수 있는 對象이 非同盟 中立政策을 標榜하는 國家들이었음은 論理的인 當然한 歸結이었다.

마지막으로 中共이 平和共存論에 立脚한 對外活動을 하지 않을

註 27) 仔細한 論議는 Fred Greene, U.S. Policy and the Security of Asia (New York: McGraw Hill, 1968), Part 2, pp.71-123. 參照.

28) Barnett, Uncertain Passage, p.253.

수 없었던 国内的인 原因을 보기로 한다.

中共은 1953年부터 1957년까지의 期間을 第一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期間으로 設定하고 1952年 10月부터 1953年 9月까지 近一年余의 交渉을 벌인 끝에 131個 企業에 對한 蘇聯으로부터의 支援을 約束받았다.²⁹⁾ 一年에 걸쳐 刻苦끝에 얻어낸 支援으로, 政權 樹立後 最初로 實施되는 經濟計劃을 通해 人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나아가서는 國防力까지 強化하려는 中共으로서는 平和的인 國際的 環境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이었다. 1954年 10月 1日 政權樹立五周年紀念演說에서 周恩來는 國內經濟建設을 위한 平和의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強調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國家建設을 위해 平和的인 國際環境을 必要로 한다. 우리의 經濟建設努力의 目標은 人民의 生活水準을 높이고 우리의 國家安保를 強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國際政治的 行動에서 扞할 수 있는 唯一한 方針은 世界平和를 保存하는 길 뿐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方途가 있을 수 없다.’³⁰⁾

註 29) 1954年 10月 흐루시초프와 불가닌이 北京을 訪問함으로써 蘇聯의 中共에 對한 支援은 좀더 強化되었다. 仔細한 論議는 朴奉植, 「對外政策」, pp.60-62: King C, Cheno(ed.), China and the Three Worlds(White Plains: M.E. Sharpe, 1979), p. 12. 參照.

30) Supplement to People's China, No.20(1954), pp.4-5.

戰禍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中國大陸을 떠맡은 中共黨이 그 統治名分을 確保하기 위한 生活水準向上과 國家安保力 強化를 위한 大役事에 있어 平和的 國際環境이야말로 가장 基本的인 担保였던 데서도 中共의 平和共存論 展開原因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 「平和共存五原則」과 中共의 外交

以上에서 보아온 過程과 背景에서 1954年부터 中共은 그들의 對外政策的 表現에서 革命的 目標을 強調하는 代身 「平和共存」을 標榜하고 나선 中共은 非共產國家들과도 正常的인 國家關係를 發展시키는 것이 自國의 目標임을 強調하면서 穩健·柔軟·和解的인 政策들을 展開하기 始作했다.

그 代表的인 最初의 政策的 表現은 1954年 4月 29日 中共과 印度사이 에 締結된 「中國의 티베트地域과 印度間의 通商交通에 關한 協定」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同協定을 締結하는 데 있어 中共은 兩國間 通好의 原則으로서 첫째 領土 및 相互尊重, 둘째 相互不可侵, 셋째 內政不干渉, 넷째 互惠, 平等, 다섯째 平和共存을 提議했던 것이다. 當初 中·印間 通好의 原則으로 提議된 上記 原則들은, 印度支那問題와 韓國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제네바會議」에 參席했다가 休會期間동안 (1954. 6.21-7.9) 政務協議次 歸國途中 印度에 들린 周恩來와 네루가 會談을 갖고 發表한 6月 28日字 「中·印共同聲明」에서, 「平和共存五原則」으로 命名되었다.³¹⁾ 共同

註 31) 朴奉植, 「對外政策」, p.77: King C. Chen (ed.), China and the Three Worlds (White Plains: M. E. Sharpe, 1979), p. 15.

声明에서는 「平和共存五原則」이 中·印 兩國關係뿐만 아니라 一般的인 國際關係에까지도 適用된다면 그것은 平和와 安全의 確固한 基礎가 될 것이며 이로써 現存하는 恐怖와 疑心이 信賴로 바뀔 것³²⁾이라고 함으로써 「平和共存五原則」의 普遍的 妥當性を 強調했다. 周恩來도 뉴·델리記者招待會에서의 書面談話를 통해 「平和共存五原則」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五原則에 따르면 世界各國은 大小強弱을 莫論하고, 그 社會 制度의 如何를 論할 것 없이, 平和共存할 수 있다. 各國 人民의 民族獨立과 自己權利는 반드시 尊重되지 않으면 안 된다. 各國 人民은 모두 그들의 國家制度와 生活方式를 選擇할 權利를 가지며 他國의 干涉을 받아서는 안된다. 革命은 輸出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同時에 한 나라의 人民이 그들 나라 안에서 實現하고 있는 共同意識에 對한 밖으로부터의 干涉을 許容해서도 안된다. 萬一 世界 各國이 모두 이 原則에 따라서 相互關係를 處理한다면…………… 世界 各國의 平和共存의 可能性은 現實化할 것이다.»³³⁾

東西冷戰이 絶頂期에 達한 狀況下에서 當時 中立과 平和의 旗手로 自他가 共認하는 印度首相 네루를 包摂하고 아울러 그와의

註 32) 「新中国資料集成」, 第四卷, p.199.

33) 森下修一編訳, 「周恩來: 中国の内外政策」 (東京: 中国經濟新聞社, 1973), p.229; 朴奉植, 「對外政策」, p.77 에서 再引用.

共同声明에서 「平和共存五原則」을 一般國際關係에까지 適用할 수 있는 原則이라고 合議·發表할 수 있게 된 것은 中共의 平和共存 外交의 첫 成功이었다고 할 수 있다. 「平和共存五原則」은 그 후 周恩來·胡志明 共同声明에서도 그대로 闡明되었다.³⁴⁾

네루와의 共同声明을 契機로 國際的인 公認을 받게 된 「平和共存五原則」에 立脚한 外交活動을 通해 中共은 國際政治에서 独自の 役割을 最大限 遂行했으며 그 結果 強國으로서의 位置를 確保할 수 있게 되었다.³⁵⁾

「平和共存五原則」에 依한 中共外交의 主要「이슈」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제네바會議을 契機로 한 國際政治的 役割強化, 둘째 반둥會議을 契機로 한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路線의 組織化過程, 셋째 台灣問題를 둘러싼 中·美關係의 變化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바³⁶⁾ 順序에 따라 考察하기로 한다.

먼저 제네바會議에서의 中共의 外交를 본다. 韓國休戰協定 第 60 項은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政治會談을 열도록 規定하고 있었다. 한편 1946 年부터 끌어오던 印支戰爭도 膠着狀態에 빠지자 西方陣營에서는 休戰氣運이 높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中共을 包含한 共產側의 平和攻勢가 奏効하여 1954 年 4 月

註 34) Ibid, p.78: Chen, op.cit., p.15.

35) Yahuda, op.cit., p.64.

36) 朴奉植, 「對外政策」, p.78.

26일부터 제네바에서는 韓國問題와 印度支那問題를 終結짓기 위한 政治會談이 열리게 되었다.

中共으로서는 제네바會議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國際會議였지만, 韓國戰爭에의 參戰國이자 印支戰爭에서의 胡志明 後援國의 資格으로 參加하였다. 會議에서 中共은 大國으로서의 中共의 役割을 要求하고 「平和·民族獨立·進歩를 願하는 아시아人民의 代辯者」로 自處하면서, 「平和共存五原則」의 實現을 通하여 아시아의 恒久平和와 集團的 安全을 지키기 위하여 아시아諸國이 共同으로 努力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³⁷⁾ 제네바會議에서 周恩來는 仏蘭西首相을 54年 6月 23日에 베를린에서 個別的으로 만나 印度支那의 休戰과 아울러 政治的 問題를 解決할 原則에 合意한 뒤, 7月 3-5日 胡志明을 만나 그를 說得하여 20度線代身 17度線을 境界로 休戰하도록 讓步시킴으로써 仏·越間에 妥協點을 찾도록 後役을 했다.³⁸⁾ 勿論 17度線으로 讓步하여도 休戰後에 있게 될 選舉에서 越盟이 이길 수 있다는 中·越의 判斷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⁹⁾ 印度支那

註 37) Ibid., pp.78-79.

38) 1972年 6月 越南戰 協商이 進行될 때, 뉴욕타임즈의 솔즈베리와 만난 자리에서 周恩來는 1954年 제네바에서의 自身の 処身을 大國主義的 行動이었다고 後悔하고 個人的으로 越盟에 對해서 責任感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짓을 않겠다고 말했다. Harison E. Salisbury, To Peking and Beyond A Report on the New Asia(Quadrangle, 1973), pp.225-226.

39) 이 점에 對해서는 아이젠하워 美大統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한다. Yahuda, op.cit., p.68.

問題 解決의 妥協點을 찾는 데 背後 調停者 役割을 훌륭히 해낸 周恩來는 印支休戰에 대한 「國際監督委員會(International Commission for Supervision and Control)」의 構成問題에도 새로운 提案을 하여 採択되기도 하였다.⁴⁰⁾

제네바會議을 마치고 歸國한 周恩來는 人民政府委員會에 對한 제네바會議 및 外交問題에 關한 報告에서 제네바會議의 意義를 平和 共存五原則의 脈絡에서 說明하고, 印度支那三國이 冷戰期에 中立化할 수 있다면 印度支那에는 平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國際 的 與件이 有利해 진다면 이러한 集團的인 平和地域을 더욱 擴大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 全域의 國家들이 平和共存하면서도 外部로부터의 干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또 한 제네바會議의 成果와 關聯하여 말하는 가운데 '제네바會議 期間中 中華人民共和國과 英國과의 關係는 改善되었다. 이러한 改善 은 우리가 西方諸國과 政策的인 關係를 樹立하는 可能性을 크게 增大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期間中 우리나라와 西方諸國 과의 사이의 貿易上의 去來와 文化交流도 새로운 發展을 이룩하였 다'라고 말했다.⁴¹⁾

이를 통해서 보면 제네바會議에서 中共이 노린 外交的 目的은 單純한 印度支那半島의 中立化와 韓國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試圖한

註 40) Chen, op.cit., pp.14-15.

41) 「新中國資料集成」, 第四卷, pp.216-224.

데 그치지 않고 中共의 國際社会에서의 立場을 強化하는 데 力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事實上 中共新聞들이 제네바會議에서 自國이 大國으로서의 役割을 해냈다고 自讚하듯이 中共의 國際的地位가 제네바會議을 契機로 크게 格上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⁴²⁾

다음 반둥會議에서의 中共의 外交를 본다. 韓半島와 印度支那半島에서 休戰이 成立되고 난 뒤, 中共의 國際的地位를 格上시켜 주었던 제네바會議 以後 國際情勢는 東西陣營간의 現狀維持方向으로 흐르고 있었다. 現狀維持가 中共의 經濟建設에는 一面 必要하였지만, 台灣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가운데 平和共存의 氣運만이 成熟하여 아시아情勢와 安定되어 버린다는 것은 「台灣解放」을 完遂하지 못한 中共으로서의 困難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美國의 台灣援助가 強化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中共으로서의 平和共存政策을 積極적으로 推進하는 한편 「台灣解放은 中國의 主權과 內政에 속하는 일이며, 絶對로 他國의 干涉을 許容할 수 없는 性質의 것」임을 強調하였다. 이러한 意志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中共은 1955年 1月과 2月 國民黨治下의 2個島嶼를 占領하기도 하였다.⁴³⁾

中共의 軍事的 行動으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紛爭의 再發可能性이 높다고 認識되고, 國際情勢 一般과는 逆으로 冷戰의 激化를 가져 왔다. 이러한 狀況에서 콜롬보計劃國家들(印度, 파키스탄,

註 42) 朴奉植, 「對外政策」, p.79; Chen, op.cit., p.15.

43) Ibid., p.81.

스리랑카, 버마, 인도네시아)은 아시아·아프리카에서 24個国
 代表들을 1955年 4月 18日 - 24日間 인도네시아의 반둥에 招請
 하여 아시아·아프리카의 親善을 圖謀하고 아시아·아프리카의 國際
 政治的 地位를 再定立함으로써 「第3地域」에 있어서의 冷戰解消를
 꾀했다. 그러나 多様な 政治的 性向을 보이고 있는 代表들이 모
 였기 때문에⁴⁴⁾ 會議은 僻頭부터 政治的 論爭場이 되었다. 中共으
 로서는 그들의 「平和共存論」을 遊說하기에 좋은 機會라고 생각하
 였지만 參加国의 代表들이 中共과 같은 立場에서 美國의 同盟政策
 을 反對해 주지만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中共의 窮極的인 目的을
 參加国들에 對한 共產革命輸出에 있지 않나하는 疑心까지 하고 있
 었다.

參加国代表들의 反共的 雰圍氣와 對立的인 立場들을 感知한 周恩
 來는 처음에는 조용히 代表들의 發言을 듣기만 하는 姿勢를 取했
 다. 周恩來의 이러한 姿勢로 代表들의 反共的 立場은 相當히 누
 그러졌다. 그러나 反共国代表들과 中立国代表들 사이의 見解差異는
 좁혀질 줄 모르고 있었다.

이에 周恩來는 비로소 兩側의 立場을 調停하기 始作하는 한편
 補充演說에 나서서 中共이 會議에 參加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

註 44) 반둥會議은 主權国들을 包含하여 總 29個国이 參加했는데, 2個 共產国(中共, 越盟), 12個 中立国, 15個 反共国的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Chen, op.cit., p. 15.

諸국이 植民地支配를 받아왔다는 共通된 經驗의 基盤을 찾기 위해서일 뿐이며, 이데올로기와 制度의 差異를 이미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宣傳의 目的이 없음을 周知시켰다. 이어서 그는 共産黨이 指導하건 民族主義者가 指導하건 아사아·아프리카의 新生國家들이 다시는 帝國主義의 支配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共通의 基盤위에서 友好的으로 協助하자고 主張하였다. 아울러 그는 一千萬 以上の 華僑가 各國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을 活用한 顛覆活動을 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關係國政府와 華僑들의 二重國籍問題를 解決할 用意이 있다고 前提하고, 「平和共存五原則」에 따라, 各國 特히 隣接國家들과 正常的인 關係를 맺을 用意이 있음을 強調했다.⁴⁵⁾

以上을 통해서 볼 때 반둥會議에 參加한 周恩來의 外交的 目標은 兩面性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中共의 平和的 이미지를 公表하여 國家關係 增大의 可能性을 넓히려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反帝國主義·反植民地主義의 旗幟아래 共産主義와 民族主義를 超越하는 커다란 政治勢力을 形成하여 그것을 主導하는 盟主가 되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적어도 1955年 狀況에서는 - 當時 아사아·아프리카諸국이 美·蘇 兩大陣營政策에 反對

註 45) 朴奉植, 「對外政策」, pp.81-82, 周恩來의 演說內容에 對한 보다 仔細한 論議는, Yahuda, op.cit., pp.76-80. 參照.

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中共의 이러한 外交的 目標가 쉽사리 達成될 수 있었다. 즉 中共은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을 反帝國主義 旗幟아래 組織化할 수 있었고, 以後 반등時代라 일컬어지는 59年까지의 期間동안에 아시아·아프리카 9個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수 있었다. 특히 아프리카에까지 中共이 進出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收穫이 아닐 수 없었다.⁴⁶⁾

「平和共存五原則」에 依한 中共의 多邊的 外交活動中 重要な 세 가지 이슈의 마지막 問題인 「台灣問題」를 둘러싼 中·美關係의 變化를 보기로 한다.

반등會議에 參席한 周恩來는 1955年 5月 23日 極東에서의 緊張을 緩和하자는 內容의 聲明을 發表하였는 바, 여기에서의 中共의 立場은 修辭 以上の 眞摯한 것이었다.

「中國人民은 美國人民들에 對해 友好的이다. 中國人民은 美國과 싸우는 것을 願하지 않는다. 中國政府는 美國政府와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極東에서의 緊張을 緩和하는 問題, 특히 台灣地域의 緊張을 緩和하는 問題를 놓고 協商할

註 46) 이 期間동안 中共과 外交關係를 樹立한 國家들은 네팔 ('55. 8. 1), 에집트 ('56. 5. 16), 시리아 ('56. 7. 2), 예멘 ('56. 8. 21), 이라크 ('58. 7. 18), 기니아 ('58. 10. 4), 모로코 ('58. 11. 2), 수단 ('58. 11. 30), 알제리아 ('58. 12. 20) 등이었다. 「大公報」, 1973. 1. 22.

用意가 있다.'⁴⁷⁾

韓國戰爭이 끝난 直後 中共과 美國은 捕虜釈放問題로 數次 交渉을 가진 바 있었다. 그러나 1954年 12月 美國이 台灣과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함으로써 台灣問題로 中共과 美國의 關係가 硬直되었다. 이에 對한 報復으로 中共이 1955年 1月과 2月 台灣領海內의 2個 島嶼를 占領했었고 이로 因하여 極東의 情勢가 緊張되었음은 前述한 바 있다. 中共이 台灣問題와 關聯하여 萬國會議期間동안에 特別聲明을 낸 것은 萬國會議에서 台灣問題가 拳論되는 것을 事前에 抑止하려는 措置였다.

台灣의 2個 島嶼에 對한 中共의 軍事的 行動이 아시아·아프리카諸國에 衝激을 주었기 때문에 萬國會議에서 拳論될 것이 必至의 事實이었다. 그러나 台灣問題는 中共의 主權行使에 關한 問題이지 國際會議의 對象이 아니라는 것이 中共의 台灣政策의 基本立場이었다. 따라서 中共으로서는 聲明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諸國의 關心을 避하면서 台灣에 對한 中共의 主權을 再闡明하는 同時에 對美接近을 試圖하는 三重效果를 거두려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서 中共이 美國과 協商하겠다는 것은 台灣自體의 地位와 關聯된 問題가 아니고 台灣으로 因하여 생긴 國際問題 즉 緊張을 緩和

註47) 'Chon En-lai's Statement on Relaxation of Tension',
23 April 1955, Supplement to People's China, No.10
(1955), p.13; Yahada, op.cit., p.79.

하는 問題만을 美国과 直接 討議하겠다는 것이었음을 特記할 必要가 있다.⁴⁸⁾

周恩來의 声明에 對한 美国의 初期反應은 冷淡하였다. 그러나 中共이 美国捕虜를 釈放하는⁴⁹⁾ 등 對美柔軟姿勢를 取함으로써 周恩來의 声明은 効力を 發하기 始作하였다. 即 1955年 8月 1日 제네바에서 中·美間에 大使級 會議가 열렸고, 1955年 9月 15日 第14次會議부터는 와르쏘에서 會議를 열게 되었다.⁵⁰⁾

註 48) 朴奉植, 「對外政策」, p.82. 台湾의 地位問題를 國際會議의 案件으로 할 수 없다는 立場은 1955年 5月 13日 周恩來의 「亞·阿會議에 關한 報告」에서 보다 分明히 드러나고 있다. 周恩來는 報告에서 「中華人民이 台湾을 解放하는 問題는 中國의 內政問題다. 美国의 台湾占領이 台湾地域의 緊張을 造成하므로 이것은 美国과 中共의 國際問題다. 이 두개의 問題를 混同해서는 안된다. …… 交涉의 方式에 關해서는 蘇聯政府가 提出한 10個國會議案을 支持하지만 其他의 交涉形式을 考慮할 것을 希冀한다. 그러나 어떠한 交涉도 中國人民이 自己의 主權을 行使하고 台湾을 解放하는 正義의 要求와 行動에도 影響을 줄 수는 없다. …… 」라고 했다. 森下修一, op.cit., p.280; 朴奉植, 「對外政策」, p.83 에서 再引用.

49) 유엔事務總長이 1955年初 北京을 訪問하여 6人의 美国捕虜釈放을 慫慂한 바 있다. Chen, op.cit., p.16.

50) 와르쏘에서의 中·美大使級 會談은 136次(1970年2月20日)까지 열렸다. 137次 會談은 1970年5月20日에 열기로 合意(1970. 4.27)했으나, 1970年 5月18日 中共側에서 美国이 캄보디아에 侵攻(1970. 4.30)했다는 理由로 會談을 無期延期함으로써 決裂되었다.

이제까지 考察해 온 平和共存外交展開過程을 회고하자면 中共은 「平和共存」을 標榜하고 「平和」攻勢를 展開하는 한편 「共存」을 摸索·維持하면서 中共의 國際的 地位를 強化시키는 努力을 傾注해 왔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만 特別히 指摘해 두어야 할 點은 平和共存論 亦是 兩大陣營論과 마찬가지로 蘇聯과의 友好라는 -表面的일 망정- 바탕 위에서 展開되었다는 點이다. 즉 「美國을 우두머리로 하는 帝國主義」를 敵으로 規定한 範圍內에서의 矛盾 方面間的 鬭爭性和 同一性 概念에 立脚하여 政策을 樹立하고 執行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볼 때, 中·蘇紛爭 以前의 中共外交政策理論은 아직 獨自性이 없는 -蘇聯의 概念을 中国的으로 變容시킨- 것에 不過했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中共의 獨自的인 概念에 立脚한 外交政策理論을 開發하게 된 것은 中·蘇紛爭以後의 일이라 하겠는데, 여기에는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이 크게 作用을 했다. 반둥會議以後 「平和共存五原則」을 내걸고 아시아·아프리카地域에 浸透하여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國際統一戰線」을 形成하면서 自國의 國際政治的 力量을 強化시켜 나가고 있는데 「帝國主義와의 共存」을 論하는 「平和共存論」이 抬頭됨으로써 中共은 自國의 外交方向을 正當化할 수 있는 새로운 理論開發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第四節 中間地帶論

가. 中間地帶論 抬頭의 國際政治的 背景

- 中·蘇의 外交的 競争과 萬歲 -

毛沢東은 自身이 中間地帶論을 1946년에 이미 提唱했다고 主張하였다. 즉 1958年 12月 12日 各協作區의 主任들과의 談話¹⁾에서 그리고 1964年 6月 18日 잔지바르에서 온 M.M. 알리夫婦와의 談話²⁾에서 中間地帶論의 起源을 1946年의 美國女記者 안나·루이즈·스트롱과의 談話까지로 遡及시켰다. 그러나 實際로 毛沢東이 「中間地帶」라는 用語를 正式으로 使用한 것은, 自身이 直接 代表團을 引率하고 十月革命四十周年行事에 參席한 1957年 11月 6日의 일이었다. 毛沢東이 말하는 1946年 8月의 談話와 1957年 11月의 演說內容中 關聯部分을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1946年 8月 美國의 左翼女記者 안나·루이즈·스트롱이 毛沢東에게 美國의 對蘇戰爭挑發可能性에 對하여 質問하자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答辯하였다.

“美國과 蘇聯의 中間에는 매우 廣闊한 地帶가 펼쳐져 있다. 여기에는 歐羅巴 아시아 아프리카 3個洲의 數 많은 資本主義國家와 植民地·半植民地國家들이 있다. 美國의 反動派들이 이러한 國家들을 壓迫·服屬시키기 以前에는 蘇聯을 攻擊

註 1) 毛沢東, “和各協作區主任의 談話”, 「萬歲」, 第一輯, p.256.

2) 毛沢東, “接見桑給巴爾專家米·女母·阿里夫婦의 談話”, Ibid., p.515.

하는 問題를 敢히 拳論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머지 않은 將來에 이러한 國家들이 自己네를 壓迫하는 者가
美國인가 아니면 蘇聯인가 하는데 對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³⁾

한편 10月革命 40周年記念行事에서 毛沢東은 蘇聯革命의 偉大性과
歷史性を 禮讚하고 蘇聯이 中共에 베푼 恩惠를 致賀한 뒤 美國을
糾彈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美帝國主義는 頑固하게 社會主義國家內部事務를 包含한 各
國의 內部事務를 干涉하려고 한다. 例컨대 中國에서는 臺灣
解放을 干涉하고 헝가리에서는 反革命反亂을 造作해냈다. 美
帝國主義는 美國과 社會主義陣營사이의 中間地帶各國의 內部事
務에 對해서는 特히 제멋대로 干涉하고 있다.”⁴⁾

以上에서 보면 「中間에 있는 廣闊한 地帶」와 「中間地帶」로
우선 差異가 날 뿐 아니라 前後脈絡에서 볼 때 그 政治的 意味
도 差를 알 수 있다. 1946年8月이라면 戰後의 脫殖民地化運
動이 아직은 胚胎期에 있었고 冷戰은 막 始作하려는 瞬間이었다.

이와같은 國際政治的 狀況下에서 當時 國民黨과의 內戰에 沒頭해
있던 毛沢東이 -現實的인 問題를 恒常 重視하는 實踐家로서의 毛沢

註 3) 毛沢東, “和美國記者安那·路易斯·斯特郎的談話,” “「選集」第四
卷, p.1089 (아랫點: 筆者)

4) “毛沢東同志在蘇聯最高蘇維埃慶祝偉大的十月社會主義革命四十周年
會議上的講話”, 「人民手冊」(天津: 大公報社, 1958), p.295
(아랫點: 筆者)

東이 - 中間地帶의 地政學的 意味를 豫視하여 새로운 理論을 세웠다는 데는 首肯이 안가는 點이 많다. 1946年의 그의 主된 關心事는 그 自身도 告白하듯이, 國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有利한 狀況을 잘 認識하지 못하여 鬪爭의 將來에 對하여 悲觀的인 党内同志들에게 事態를 說明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5)

이에 反해 1957年 11月의 「中間地帶」는 美國의 「侵略的 性格」을 實證하기 위한 根拠로서 提示되고 있는 것이다. 1957年 11月 모스크바의 演說에서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을 間接적으로 批判하였다.

“美國은 現在 터키나 이스라엘을 通過하여 獨立시리아에 侵入하려 劃策하고 있다. 反植民主義的인 에집트 政府를 顛覆시킬 陰謀를 꾸미고 있다. 美國의 미치광이같은 이러한 侵略政策은 中東의 危機뿐 아니라 새로운 世界大戰의 危機까지 造成하고 있다.” 6)

그러면 毛沢東이 戰爭危機의 存在를 力說하면서 平和共存의 可能性을 否認하게된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

註 5) 毛沢東은 1946年 10月 1日에 內戰이 爆發한 1946年 7月부터 3個月間의 戰爭結果를 綜合하여 中共軍에 對한 戰略方針과 作戰任務를 提示했다. 19個項으로 된 이 指示에서 보면 1946年 8月 當時 國際政治問題에는 關心을 둘 수 없었음이 分明히 드러난다. 毛沢黨 “三個月總結”, 「選集」, 第四卷, pp.1101-1106 參照.

註 6) 「人民手冊」, op.cit., p.295.

前節에서 이미 論及하였듯이, 中共은 1951年을 前後하여 「平和共存」을 내걸고 自國의 影響力強化를 摸索하여오다가 1955年 반동會議를 轉機로 이를 보다 積極化해왔다. 즉 植民地·反植民地的 支配를 經驗했다는 共通의 歴史的 基盤과 經濟에 있어서 後進的이고 非産業化되어 있다는 現實的 同類意識을 媒介로 아시아·아프리카國家들에게 接近해왔던 것이다.

한편 蘇聯으로서도 中共과 비슷한 時期에 아시아·아프리카國家들에 對한 接近을 試圖하기 始作했다. 1955年 여름 흐루시초프는 불가닌과 함께 긴 旅路에 올랐다. 먼저 유고를 訪問하여 1949年 스탈린의 티토破門을 逆轉시키고 제네바에서 西方의 頂上들을 만난 뒤⁷⁾ 11月과 12月에는 印度·버마·아프가니스탄을 1956年 1月에는 인도네시아를 巡訪하였다. 반동會議以來 中共과 이미 「平和共存」의 關係를 設定한 同地域을 흐루시초프와 불가닌이 訪問하고, 특히 印度와 印度네시아에 對해서는 비록 小規模이기는 했지만, 中共으로서는 敢當할 수 없는 經濟援助를 約束함으로써 中共의 新生獨立國接近에 隘路를 形成하였다.⁸⁾

蘇聯의 이러한 外交方式은 一石二鳥의 效果를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開發途上國에게 經濟的 援助를 하는 것은 美國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事實을 認識시켜 開發途上國들의

註7) 仔細한 論議는 Edward Crankshaw, Khrushchev Remembers (Boston: Little Brown, 1970), pp.374-400 參照.

8) Ulam, op.cit., p.561.

對美依存度を 낮춤으로써⁹⁾ 蘇聯의 影響力行使範圍擴大 基盤을 넓히고, 또 한편으로는 中共이 아시아·아프리카開發途上國들에 接近하는 外交上的 武器의 銳鋒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植民地·半植民地的 被支配의 經驗과 經濟的 後進性에 根拠한 同類意識을 앞세워 開發途上國에 接近할 수 없었던 蘇聯으로서는 中共의 弱點을 利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勿論 이러한 外交方式에 依한 蘇聯의 東南亞政策을 新政權의 人事外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蘇聯이 中共과 對立的인 外交政策을 遂行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미 中共이 이 地域에 對하여 「平和共存五原則」에 依한 積極的인 外交를 展開하고 있었던 點을 甚案한다면 結果的으로 볼 때, 蘇聯이 中共과 外交的인 競爭을 始作한 것만은 否認할 수 없게 된다.¹⁰⁾ 뿐만 아니라 中共이 이미 50年代初에 構想하여 -勿論 그 起源은 레닌에게 있었지만- 1955年 萬國會議期間동안 政策理論으로 發展시킨 平和共存論을 蘇聯의 흐루시초프가 1956年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이를 變形시켜 蘇聯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으로 採択함으로써 中共과 蘇聯의 外交的 對立은 本格化하기 始作했다.¹¹⁾

註 9) Ibid.

10) 朴奉植, 「對外政策」, p.65.

11) 外交에 있어서는 競爭的인 關係가 形成되기 始作했으나 스탈린 死後 흐루시초프初期의 中·蘇兩國間의 關係는 友好的인 面도 強했다. 이 點에 對해서는 朴奉植, Ibid, pp.62-64, pp.66-69 參照.

호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은 基本的으로 核国家로 登場한 蘇聯의 戰爭不可能論에서 出發했지만 社会主義陣營의 力量強化로 소위 帝國主義国家들의 戰爭挑發을 막을 수 있다는 戰爭可避論으로 發展했고, 또 仏蘭西와 伊太利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進歩主義勢力發達로 말미암아 社会主義에로의 非暴力的 移行도 可能하다는 理論으로까지 發展하였다. 12) 특히 호루시초프의 「社会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論은 아시아·아프리카에서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路線을 結成하려는 毛沢東의 戰略과 衝突되는 것이며, 또 美国과의 平和共存을 目的으로 하는 호루시초프의 立場은 臺灣을 占領하고 있는 美国의 아시아政策을 受諾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13)

1955年 後半以後 蘇聯이 取한 여러가지 對中共牽制政策은 實際에 있어 蘇聯이 中共을 同盟國으로 보지않고 社会主義 陣營內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諸國에 對한 影響力擴大에 있어서 하나의 競争者로 보았다는 것을 意味한다. 中共으로서도 이점을 看破하였기 때문에 호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에 反旗를 들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理論을 展開해야 할 必要에 부딪힌 것이

註 12) 蘇聯共産黨 20次大会에서의 호루시초프의 演說文은 Floyd, op.cit., pp.228-230 收錄 호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에서 基本 Theme가 되어있는 「두개 體制間의 平和共存과 平和的 競争」概念은 스탈린 永訣式辭를 통해 1953年 3月 9日 마렌코프가 이미 提示한 바 있다. 尹慶耀, 「中共外交與對外關係」, p.27 參照.

13) 朴奉植, 「對外政策」 p.11.

다.

中共이 平和共存論 代身 中間地帶論을 展開하면서 中間地帶에서의 人民戰爭과 民族解放鬪爭을 強調하여야만 하게된데는 中·蘇間의 外交的 葛藤以外에 또 다른 國際政治的 原因도 있었다.

西獨이 北大西洋條約機構에 加入하고 東南亞國家들은 美國主導下의 東南亞機構에 加担하였던 바, 이는 中共의 平和共存論이 成功을 거두지 못했음을 意味한다. 뿐만 아니라 中共의 對美宥和的 立場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對中共封鎖政策을 더욱 強力히 實施하여가고 있었다.¹⁴⁾ 이러한 狀況에서 中共으로서는 美國과의 共存을 主張하는 흐루시초프를 對中共 壓迫에 있어 美國과의 共謀者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蘇聯으로서는 1956年 헝가리事件때 美國이 蘇聯의 武力干涉을 默認하였다는 事實에서 美國이 歐羅巴에서의 蘇聯의 基本的 利害問題를 놓고 威脅할 意思가 없는 것으로 解釋했다. 즉 美國이 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 歐羅巴에서의 現狀維持에 同意한다는 것으로 解釋했기 때문에 蘇聯으로서는 아시아에서도 美·蘇間의 現狀維持를 꾀했던 것이다. 蘇聯의 이러한 政策은, 반등方式으로 特徵지어지는 - 東南亞諸國과의 平和共存을 꾀하는 - 中共나 름의 特色있는 外交의 拋棄와 蘇聯에의 一方的 依存을 要求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¹⁵⁾

註14) Barnett, Uncertain Passage, p.256 參照.

15) 朴奉植, 「對外政策」, p.12.

以上을 통해서 볼 때 中共이 60年代初 理論적으로 展開를 始作한 中間地帶論은 반동方式을 中心으로 한 平和共存論의 對案으로서 였다고 하겠다. 美國의 아시아政策은 強化一路에 있으나 蘇聯이 美國과의 現狀維持를 追求함으로써 結果적으로 中共의 「臺灣解放」까지도 抑制하는 한편, 아시아·아프리카에서까지 中共에 對하여 競争을 걸어오고 있는 狀況에서, 蘇聯의 外交路線上의 誤謬를 批判하는 한편 自國의 外交目標를 正當化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理論이 必要하였던 것이다. 즉 中立國과의 友好關係를 維持하면서 「植民地·反植民地 및 封建國家에 對한 美國 및 蘇聯의 影響力을 弱화시키고 中共의 影響力을 強化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革命運動-設或 그것이 共産黨에 依하여 指導되고 있지 않더라도-을 支援하여야 할 必要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外交政策理論이 不可避했던 것이다. 毛沢東의 用語를 빌린다면 矛盾의 主要方面과 非主要方面 사이에 相互轉化가 이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理論이 나와야만 했다고 하겠다.

나. 中間地帶論의 革命理論의 背景

中·蘇紛爭이 中共의 國際的 役割 및 地位의 變化에 미친 影響이 至大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原來 政權樹立以前부터 中共은 社會主義陣營의 一員으로서 또는 蘇聯의 主要한 同盟者로서 그들의 革命과 社會主義建設 安保 外交等 모든 問題를 兩大陣營中 蘇聯側에 依支해 왔었다. 大體로 보아 이러한 立場은, 勿論 若干의 起伏과 曲折이 있었지만, 50年代

末까지 持續되었다. 그러나 中·蘇間에 亀裂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는 모든 것의 基礎가 바뀌게 되었다. 勿論 이러한 過程이 一時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즉 中·蘇間의 關係가 變化해가는 速度와 距離에 比例하여 서서히 中共革命의 經驗과 中国近代史의 經驗이 보다 重視되다가 及其也는 完全히 中国的인 土壤과 中国的인 政策需要에 根拠한 性格의 것들로 바뀌었다.¹⁶⁾

中間地帶論이 前述한 바대로 中·蘇間의 亀裂의 産物이라면 中間地帶論의 中共的인 革命理論과의 關係를 檢証해볼 必要가 생긴다. 革命理論이라 할 때 그것은 大概 세가지의 意味를 갖는다. 첫째 共產化戰略·戰術理論으로서의 革命理論, 둘째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動員戰略理論으로서의 革命理論, 셋째 世界革命理論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中間地帶論과 中共党的 共產化(奪權)戰略·戰術理論과의 關係를 考察해보기로 한다. 毛沢東이 国内外的 現實을 주로 中国自體의 革命經驗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려는 傾向이 있다 하여 이를 延安콤플렉스로 부르기도 하지만, 中間地帶論에도 이러한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前引한 바 있는 1946年8月 美国女記者와의 談話中에 나오는 「中間에 있는 広闊한 地帶」나, 1957年11月 모스크바에서 한 演說의 「中間地帶」나 極과 極사이의 中間이라는 点에서는 共通性

註16) Yahada, op.cit., p.102.

을 가지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毛沢東은 中間이라는 存在를 革命에 있어서 매우 重視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略·戰術理論에 따라 「中間」의 意味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革命力量中에서 豫備軍에 該當한다.¹⁷⁾ 革命의 豫備軍이란 主力軍과 달라 革命에의 熱意나 寄与度가 클 수가 없는 勢力이다. 그러나 이 豫備軍을 如何히 煽動·活用하느냐에 따라 革命의 局勢가 左右되기 때문에 主力軍 못지않게 主要한 考慮의 對象이 된다.

이런 点에서 볼 때 蘇聯과 中共의 革命過程에서의 豫備軍 즉 中間勢力의 意味와 位置는 懸隔한 差異가 있었다. 볼셰비키들은 赤衛隊라는 主力軍을 이끌고 「위로부터의 革命(Revolution from above)을 하는 過程에서 中間勢力인 農民 兵士 市民들을 中立化시키는 方向에서 革命力量을 編成하고 都市中心의 一時的인 武裝暴動으로 政權을 掌握하였다.¹⁸⁾ 이에 反해 中共黨은 農民出身의 紅軍을 이끌고 國民黨의 中央軍과 싸우는 한편 抗日戰에도 參加하면서 「農村을 돌아 都市를 包圍」하는 長期間의 革命期를 거쳤다.

註 17) 共產主義 革命戰略·戰術理論에서의 革命力量은 主力軍과 豫備軍으로 나뉘어지며, 豫備軍은 다시 主要한 豫備軍과 副次的인 豫備軍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区分은 스탈린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Stalin, The Foundations of Leninism, p.84 參照.

18) 이에 對한 仔細한 分析은 丁世鉉,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 pp.171-180, 특히 175-178 參照.

「紅區」와 「白區」로 나누어진 勢力圈을 形成해가면서 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支持를 얻느냐, 즉 누가 보다 많은 中間勢力을 自己勢力化하느냐 하는 問題를 놓고 여러가지 非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政網·政策까지 提示하거나 實施까지 했었다. 19)

이와같이 中間勢力에 對한 戰略的 評價와 指導問題로 크게 苦心했으나, 結局은 中間勢力을 自己勢力化하는데 成功함으로써 政權掌握에서까지 成功할 수 있었던 毛沢東이었기 때문에 일찌기 「中間에 있는 廣闊한 地帶」를 意識할 수 있었고, 「中間地帶」의 戰略上의 位置를 重視할 수 있었던 것이다.

「美國과 社會主義陣營사이의 中間地帶」를 拳論한 1957年11月の 毛沢東으로서는 이미 美國과 아울러 蘇聯과의 葛藤이라는 것을 念頭に 두었다고 본다면, 中間地帶에 對한 戰略的 指導는 三派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0年代까지는 大體로 兩大陣營論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範圍內에서 中共의 對外活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中間地帶論은 兩大陣營論을 - 蘇聯을 우두머리로 하건 아니면 中共을 우두머리로 하건 美國이 主敵이라는 意味에서 - 補完發展시킨 理論으로서의 性格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 왜냐하면 中間地帶論에서도 美國은 亦是 中共의 敵으로 分類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註19) 이에 對한 仔細한 分析은 Ibid., pp.200-213, 특히 207-211參照

20) 丁世鉉, "中共의 國際秩序觀研究: 「三世界論」의 形成과 展開過程을 中心으로", 「統一政策」, 第5卷第1号(1979.4)pp.219-220.

다음은 中間地帶論과 对内動員体制維持를 위한 革命理論과의 關係를 考察하기로 한다. 連繫理論 (Linkage Theory)에 依하면 어떤 外交政策의 戰略的인 特徵이 国内政治面에서 統治上の 도움-例컨대 國論統一등-을 주는 한편 이렇게 造成된 国内政治는 다시 外交政策遂行에서 外向的인 強硬策을 發揮토록 뒷받침함으로써 國際的 이슈로 나타나고 国内的인 強硬理論도 自動的으로 正當化된다고 한다.²¹⁾

中·蘇關係에 생긴 亀裂은 中共의 国内政治体制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쳤다. 즉 蘇聯의 平和共存論이 資本主義와의 共存을 前提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反撥한 毛沢東은 國際政治的 次元에서의 反修正主義鬭爭과 国内修正主義者에 對한 鬭爭을 連結시켰다.²²⁾

国内外修正主義에 對한 鬭爭의 淵源은 1958年의 「自力更生」運動에서 비롯하였다. 1957年 11月 十月革命四十周年記念式行事에 參席次 모스크바를 訪問하고 帰國한 毛沢東은 1958年부터 시작되는 中共의 第2次 5個年計劃遂行에 必要한 支援을 蘇聯으로부터 얻어내

註 21) 이와같이 国内外的 政策要素가 不斷히 相互作用·補強되는 連繫를 融合的 連繫 (Fused Linkage)라 한다. James N. Rosenau(ed.), Linkage Politics: Essays on the Converg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s (New York: Free Press, 1967), p.49 參照.

22) 国内外修正主義反對鬭爭은 1962年 9月 24日 党八屆十中全會에서부터다. 毛沢東, “在八屆十中全會上的講領”, 「萬歲」, 第一輯, pp.430-436 參照.

기 어렵다는 점을 認識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선 蘇聯의 「平和
共存論」自体가 拒否의 名分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現實적으로
도 蘇聯은 東歐를 支援하기에도 힘이 벅찬 狀態에 있었기 때문이
다.」²³⁾

그러나 自己生前에 中共을 強力한 現代國家로 만들려는 毛沢東의
執念은 大端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1957年11月 歸國하자마자
黨中央委를 열고 數週日로 다가온, 1958年부터 始作하게 되어있는,
第2次5個年計劃에서의 成長速度를 높이 調整하도록 했다. 原來的
計劃은 一年以上을 두고 熟議한 끝에 重工業의 持續的 發展, 輕工
業의 相對的인 高度成長, 計劃期間동안 賃金 및 收入의 25%以上
引上등을 內容으로하여 짜여져 있었다. 그러나 毛沢東은 短期間內
에 「大躍進」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中共을 現代國家로 發展시킬
수 없다는 조바심에서 工業成長率을 年200%로 올리도록 要求를
했던 것이다. 當初 劉少奇, 陳雲등에 의해 14-15% 程度의 成
長率을 目標로 짜여졌던 計劃이었지만 毛沢東의 強力한 要求에 劉
少奇도 屈服하여 1958年2月 「大躍進」을 위한 經濟計劃이 確定
되었다. ²⁴⁾

確定된 計劃을 執行함에 앞서 中共은 1958年5月5日부터 23日

註23) Edward E. Rice, Mao's Wa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159; Yahuda, op.cit., p.110;
Hudson et al., op.cit., pp.35-8 參照.

24) 這問의 事情에 對해서는 Rice, op.cit., pp.159-161 參照.

까지 党八全大会 第二次會議을 열고 「三面紅旗」路線을 採択했다. 「三面紅旗」란 「社会主義建設의 總路線」「工農業生産에 있어서의 大躍進」「人民公社」를 뜻하는 바, 中共의 急速한 成長에 있어 必須的인 措置로 採択된 것이다. 25) 한편 1958年5月 「解放軍報」에는 毛沢東軍事路線에 로의 轉換을 主張하는 劉丕樓의 「認真學習毛沢東軍事思想」이라는 論文²⁶⁾이 掲載된 뒤 5月27日부터 7月22日에 걸쳐 열린 中共党中央軍事委員會擴大會議에서는 韓國戰爭以後 蘇聯을 모델로 했던 「正規化」「現代化」의 軍事方針을 批判하고 毛沢東路線에 따른 새로운 軍事路線을 大躍進運動과 함께 展開할 것을 決定하였다. 27)

이러한 「三面紅旗路線」과 「毛沢東軍事路線」의 採択과 推進은 蘇聯의 對中共軍事援助 및 臺灣問題, 그리고 「三面紅旗」에 對한

註 25) 三面紅旗路線에 對해서는 陳定中, "共匪的 總路線, 大躍進, 人民公社運動", 張敬文編, 「共匪政治問題論集」(臺北: 國際關係研究所, 1975), pp.123-144 參照.

26) 劉丕樓, "認真學習毛沢東軍事思想", 日本國際問題研究編, 「中國大躍進政策의 展開: 資料 解說」, 上卷(東京: 1973), pp.109-114.

27) Donald Zagoria에 依하면 毛沢東의 執權以後 中共에서는 毛沢東의 思想的 獨自性和 그의 思想的 植民地·反植民地에 適用 可能性을 強調하여왔고 1951年부터는 若干 低調를 보 이다가 1958年부터 毛沢東思想에 對한 強調趨勢가 나타났다고 한다. Donald S.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p.15.

批判에서 由来한 것이다. 28)

먼저 軍事援助問題를 보기로 한다. 1953年 8月과 11月에 蘇聯이 大陸間彈導彈과 Sputnik의 發射에 成功하자 毛沢東은 「東風이 西風을 制壓했다」고 豪言하면서, 增強된 蘇聯의 戰略的 軍事力을 背景으로 蘇聯이 보다 強力한 陣營政策을 實施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미 「平和共存」을 標榜한 蘇聯으로서는 毛沢東의 이러한 好戰的인 要求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蘇聯은 中共指導者들을 說得하여 中·蘇極東艦隊를 編成함으로써 中共의 好戰的인 立場을 牽制하려 하였다. 勿論 中共은 이를 拒絕하였고 29) 蘇聯의 對美宥和에 反抗하여 8月 下旬부터 金門島·馬祖島에 對한 砲擊을 開始하였다. 그러자 蘇聯도 1959年 6月에는 中·蘇雙方이 1957年 10月 15日에 調印한 「國防의 新技術에 關한 協定」을 一方的으로 破棄함으로써 中國에 對한 原子彈見本과 原子彈製造技術資料 提供을 拒否하고 나섰다.

둘째, 臺灣問題를 보기로 한다. 1958年 7月 이라크에 쿠데타가 發生하고, 레바논과 요르단에 美·英軍이 上陸하는등 一聯의 事態를

註 28) 朴奉植, 「對外政策」, p.89 : Harry Gelman, "Sino-Soviet: A Survey," Franz Schurmann and Orville Schell(eds.), Communist China(New York:Vintage Books, 1967), p.22.

29) 흐루시초프는 1958年 7年 31日 國防相 말리노프스키를 帶同하고 4日間 北京을 訪問한 바 있는데, 毛沢東에 依하면 흐루시초프가 이러한 提議를 하여왔다는 것이다. Schram, Mao Tse-tung: Unrehearsed, p.90 參照.

當하여 흐루시초프가 1958年7月31日에 北京을 訪問하기는 하였으나 蘇聯으로서는 臺灣海峽에 對한 中共의 武力行使等 中共의 臺灣政策을 積極적으로 支持할 수가 없었다. 中共으로서는 蘇聯의 이러한 消極的 姿勢가 不滿이었다. 왜냐하면 "1958年8~9月傾의 臺灣海峽情勢가 大端히 緊張되어 있었지만 核武器의 支援을 받을 必要가 없었기" 30) 때문이다. 對美和解라는 世界政策上的 目標 때문에 蘇聯으로서는 中共의 臺灣政策을 支持할 수가 없었고, 이것이 中共의 對蘇不滿을 激化시켜 獨自의 軍事路線을 追求하게 했던 것이다. 31)

셋째로 「三面紅旗」에 對한 蘇聯의 批判을 본다. 中共으로서는 「三面紅旗政策의 旗手로서 革命的이고 批判的이며 理論과 實際를 連結하는 雜誌를 党中央이 直接 1958年6月1日부터 發刊하기로 하고 그 이름까지 「紅旗」라고 붙였다. 中共에서는 人民公社制度의 實施를 通하여 共產主義의 完全한 實施가 머지않아 可能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類例없는 成功이었기 때문에 다른 社會主義諸國에도 有用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宣傳해왔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1958年 여름 毛沢東을 만나 「大躍進」은 危險한 實驗의 길이며 經濟法則과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經驗을 無視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흐루시초프는 「人民公社」도 이미 蘇聯에서 實驗한 事例

註 30) 「中・ソ論争主要文獻集」(東京:日刊勞動評論社, 1966), p.615.

31) 朴奉植, 「對外政策」, p.90 參照.

가 있고 그 결과 「人民公社」가 아닌 레닌의 協同組合計劃을 통하여 農業의 社會主義的 建設의 課題를 解決한 經驗이 있음을 強調하면서, 中共이 蘇聯의 見解를 들으려 하지 않고 蘇聯의 經驗을 無視하고 蘇聯을 保守主義라고 非難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指摘하였다. 以後에도 蘇聯은 公開發적으로 中共의 人民公社制度를 批判하였고, 中·蘇對立이 深化되고 中共이 人民公社制度를 事實上 中止하게 되자 흐루시초프는 이를 가리켜 말 안듣던 아이가 불장난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격이라고 회롱까지 하였다.³²⁾

以上과 같은 中共의 政治的 立場에 批判적이거나 非協助的인 姿勢를 取함으로써 中·蘇間의 關係가 惡化될 수밖에 없었다. 中·蘇關係는 1959年 8~9월에 접어들어 蘇聯의 對美接近問題와 中·印國境紛爭에서 蘇聯이 印度편에 섰으로써 急激히 惡化되었다.³³⁾

蘇聯의 平和共存論과 對美宥和政策이 中共의 政策的 需要와 一致하지 않았기 때문에 中共은 蘇聯을 非難하는 한편 對內的으로 「三面紅旗」로 自力更生을 꾀하였으나 너무 無理한 計劃이었기 때문에 1959年 4月에는 毛沢東이 責任을 지고 國家主席職을 劉少奇에게 물려주었어야만 하는 등 對內的인 緊張이 造成되기 始作했다. 바꾸어 말해서 「三面紅旗」의 後退와 이에 따른 毛沢東의 國家主席職辭退等 一聯의 事件으로 中共內部에는 「紅」「專」對立의 소용

註 32) Ibid., pp.90-91.

33) 蘇聯의 對美接近과 中·印國境紛爭에 對한 仔細한 論議는 Ibid., pp.92-93 參照.

들이가 일기 始作한 것이다. 그 代表的인 事件이 彭德懷事件이었다. 1959年8月16日 中共黨8屆8中全會는 彭德懷와 黃克誠등에 對한 肅清을 決議하면서, 그들을 右傾機會主義者라고 烙印적이고, 그들이 「大躍進」「人民公社」에 對하여 反對하는 한편 「唯武器論」을 主張하고 對內政策에 對한 批判內容의 便紙를 흐루시초프에게 傳達했음을 非難하였다. 34)

「反右傾機會主義」鬭爭을 蘇聯과 結附시킨 것을 契機로 中共의 國內外修正主義에 對한 攻擊이 本格化하기 始作했다. 1960年4月号 「紅旗」에 실린 論文 「帝國主義-近代戰爭의 起源-와 平和를 위한 人民鬭爭路線」과 4月20日字 人民日報에 실린 「레닌主義萬歲」를 通해 毛沢東은 蘇聯이 實踐에 옮기고 있는 平和共存論은³⁵⁾ 全世界에 걸쳐 革命力量을 減少시키는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平和共存」·「戰爭可避」·「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에 對하

註34) David A. Charles, "The Dismissal of Marshal Peng Teh-huai", China Quarterly, No. 8 (Oct./Dec. 1961), pp. 63-76; J. D. Simmonds, "Peng Teh-huai: A Chronology Re-examination", China Quarterly, No. 37 (Jan./Mar. 1969), pp. 120-138; 朴奉植, 「對外政策」, p. 94 參照.

35) 1960年4月号 紅旗에 실린 論文은 于兆力이라는 사람名義로 되어있고 1960年4月20日字 人民日報에 실린 論文은 紅旗雜誌編輯部名義로 되어 있으나 이 두 論文 모두 毛沢東自身의 것이라는 說이있다. 各各 John Gittings,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Eyre Methuen, 1974), p. 219; Samuel S. Kim, op. cit., p. 65.

여 全面的인 攻撃을 加했다. 中共의 理論에 따르면, 設使 世界戰爭은 避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地域的인 反植民主義鬪爭이나 反帝國主義民族解放戰爭은 避할 수 없으며,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은 核武器에 對한 誇張된 恐怖感이나 西方資本主義者들과의 交涉을 便하게 展開하려는 잘못된 期待에 사로잡혀 自身들의 政策을 抑制하지 말고 果敢히 推進하고 支持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戰爭이란 原來 擄取制度의 不可避한 結果이며 近代戰爭은 帝國主義制度에서 비롯하므로 帝國主義와 擄取階級이 存在하는 限 어떤 形態로든지 戰爭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36)

이러한 中共의 理論展開는 그동안의 核武器出現으로 中共式 革命戰略理論은 修正이 不可避해졌 다든지, 地域戰爭은 不可避하게 世界戰爭을 誘發한다든지, 革命的 武力鬪爭이 核武器衝突로 發展할 危險性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삼가해야 한다는 蘇聯의 主張에 對한 最初의 体系的이고 全面的인 攻撃이었다. 37)

世界革命에 對한 中·蘇間의 理論的 差異는 1960年 11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81個共產黨·勞動者黨大會에서 直接的인 對決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蘇聯은 現代의 歷史的 特徵을 論하여 世界的인 社會主義體制가 두드러진 經濟力과 繁榮을 通하여 世界社會의 發展에 影響을 미치고 있거나 곧 미칠 能力이 있다고 前提하면서, 社會主

註 36) 朴奉植, 「對外政策」, p.96.

37) Ibid., 이러한 中共의 對蘇理論的 攻撃에 對한 蘇聯의 回答은 1960年 4月 22日 Otto Kuusinen의 레닌 誕生記念日 演說에서 나타났다. Zagoria, op.cit., pp.314-315.

義陣營이 이미 世界政治에서 強力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暴力을 行使하지 않고도 世界政治에 決定的인 影響力을 미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反해서 中共은 現代를 아직 帝國主義時代 프롤레타리아革命의 時代라고 規定하고, 現代의 狀況이 40年前 레닌이 革命戰爭을 展開했던 當時와 別差異가 없을 뿐만 아니라 帝國主義는 그 性格上 戰爭을 가져오기 때문에 暴力的인 革命이 不可避하다고 主張했다.³⁸⁾

戰爭問題와 關聯된 地域戰爭에 대해서도 中·蘇는 相反된 主張을 되풀이했다. 中共은 여러가지 形態의 地域戰爭이 不可避하며 또 바람직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특히 알제리아나 라오스같은 「植民地」에 있어서의 民族解放運動은 不可避한 것이며 共產陣營은 이에 對하여 西方側과의 戰爭을 무릅쓰고 支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의 主張에 따르면 이러한 支援을 하더라도 蘇聯의 核武器등을 包含하는 共產側의 戰略的 優越性때문에 西方側은 地域的 敗北를 甘受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中共이 이와같이 「東風이 西風을 制壓했다」는 理論에 立脚하여 地域戰爭이 世界戰爭으로 發展하지 않는다고 主張하는데 反해서, 蘇聯은 地域戰爭은 언제든지 全面戰爭으로 發展할 危險을 안고있기 때문에 革命의 目的으로 그러한 危險을 무릅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는 蘇聯의 軍事力이

註38) Ibid., p.99.

充分하지 못하다고 主張하였다. 39)

以上을 통해서 볼 때 中共의 中間地帶論의 革命理論의 背景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中共自身の 革命經驗에서 얻은 中間勢力의 戰略的 重要性에 對한 認識위에서 「帝國主義」와 「社會主義」 陣營사이의 中間地帶의 重要性을 力說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中·蘇間의 葛藤이 露呈되면서 蘇聯으로부터의 支援을 받기 어렵게 되자 「自力更生」을 위하여 蘇聯을 修正主義로 烙印적이고 國民的 敵對感을 刺戟하여 이를 對內的인 社會主義建設의 原動力으로 삼으려 했는 바, 이것은 中·蘇間의 葛藤을 더욱 激化시켰고 나아가서는 中·蘇間의 世界革命理論에서의 深刻한 論爭까지 불러일으키는 導火線이 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平和共存」·「戰爭可避」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을 主張하는 蘇聯과 論爭하는 過程에서 中共은 戰爭不可避論과 暴力革命을 禮讚하

註 39) Ibid., pp. 99-100, 그런데 모스크바會議가 끝난뒤 흐루시초프는 1961年 1月 6日 共産党大學, 社會科學 아카데미, 마르크스-레닌主義大學等 3個黨機關會議에서의 演說을 통해 民族解放戰爭에 關하여 中共의 主張에 가까운 發言을 하였다. 즉, 흐루시초프는 알제리아와 越南의 民族解放戰爭에 關하여 言及하면서 "解放戰爭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가 存在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革命戰爭인 바, 이러한 戰爭은 許容될 뿐만 아니라 不可避하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地域戰爭이 모두 解放戰爭이 아님을 分明히 했고 解放戰爭에 「帝國主義」가 介入하지 않으면 蘇聯도 介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흐루시초프의 演說文은 「中·ソ論爭 主要文獻集」, pp. 1111-1190 에 收錄.

면서 地域的인 解放戰爭에 對한 支援을 強力히 主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地域的인 解放戰爭은 毛沢東이 말하는 바 「中間地帶」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帝國主義」를 打倒할 社會主義陣營이 主導하는 國際 統一路線에서 豫備軍이 바로 「中間地帶」였다는 데에 中間地帶論의 戰略的 뿌리가 있는 것이다.

다. 中間地帶論과 對西歐接近試圖

- 第 1.2 中間地帶로의 分化過程 -

「中間地帶」라는 用語가 正式으로 使用되기 始作한 것이 1957年 11月 6日 모스크바에서 演說하던 毛沢東에 依해서 임은 前述한 바 있지만, 이들 中間地帶의 戰略的 重要性에 對한 評價는 이미 1957年初부터 나타나고 있다.

반둥會議에서의 「平和共存五原則」에 따라 아시아·歐羅巴의 11個國을 巡訪하고 돌아온 周恩來는 1957年 3月 5日 字 그의 報告에서 다음과 같이 아시아·아프리카國家들의 獨立運動을 評價했다.

"民族부르조아들이 이끄는 新生獨立國家들이 植民主義者들의 侵略으로부터 主權을 지켜온 能力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發見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國家들이 物質的인 힘에 있어서 는 強力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自身的 防壁을 튼튼히 하면서 同時에 世界의 平和愛好力量들과 團結하여 堅決히 싸운다면 植民主義들의 모든 侵略은 挫折되고 말 것이라는 뜻

을 깨닫게 된 것이다."40)

中間地帶의 重要性에 對한 評價에 있어서 戰略的 性格을 띠게 되면서, 지금까지 「平和共存」「戰爭可避」를 主張하는 蘇聯과 맞서 온 中共은 1958年으로 접어들면서 아시아·아프리카國家들의 一員임을 強調하기 始作했다. 1958年7月31日 흐루시초프의 北京訪問 日字를 期해 發表된 于兆力名義의 論文에서 毛沢東은 다음과 같이 論했다.

"平和愛好人民들은 確實히 戰爭을 願하지 않는다. 그러나 眞心으로 平和를 간직하려는 사람은 戰爭의 威脅에 屈服하지 않을 것이다. 平和는 帝國主義者들에 求乞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戰爭의 終息과 平和의 獲得은 大衆鬪爭에 依해서만 可能的한 것이다. 共產主義者들(中共:筆者)은 眞正한 愛國者다. 왜냐하면 그들은 人民들의 利益과 동떨어진 自身들의 利益을 別途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被壓迫國家들의 共產主義者들이 民族鬪爭의 最戰線에 서서 싸우는 것이 쉽사리 理解된다." 41)

民族解放鬪爭에 對하여 非協助的인 수밖에 없는 「平和共存論」者

註40) Chou En-lai, "Report on a Visit to Eleven Countries in Asia and Europe", 5 March, 1957, Supplement to People's China 1 April, 1957: Yahuda, op.cit., pp. 114-115에서 再引用.

41) Yu Chao-li, "A New Upsurge in National Revolution", Peking Review, No. 26 (1958), pp. 8-9.

호루시초프를 非難하는 内容이지만, 文脈으로 보아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毛沢東이 民族主義를 帝國主義보다는 共產主義에 더 가까운 것으로 認識하고 있었던 徵表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中共自身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一員으로서의 役割을 強調하면서부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指導者들은 中共이야말로 現代의 國際問題를 가장 잘 理解하고 있으며 美國으로부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加해지는 새로운 壓力에 対処할 올바른 方向을 提示해 주고 勇氣를 주는데 있어 限定된 国力을 가지고나마 最善을 다하는 唯一한 國家라고 認識하고 있었다. 42)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들로부터 代辯者·支援者로서의 役割을 認定받게 되면서 中共에는 많은 代表團들이 몰려들기 始作했다. 1960年 여름에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로부터 5개의 代表團들이 各各 毛沢東을 만난 적이 있는 바, 毛沢東은 그들과 對話를 43) 할 때마다 自身과 中共이 「世界人民」의 便에서 있으며 서로의 鬪爭에 있어 相互支援할 것을 主張하고, 「人民이 모든 일에 있어 決定的 要素」임을 強調하였다. 또한 毛沢東은 共同의 敵인 「美帝國主義」에 對抗하여 같은 戰線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 團結하고 支援하여야 함을 指摘하면서, 敵을 除外한

註 42) Yahuda, op. cit., p. 116.

43) Chairman Mao Tse-tung's Important Talks with Guests from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0) 參照.

모든 力量들이 하나의 統一戰線體를 結成하여야 統一되고 持統的이며 堅決한 鬪爭을 할 수 있다고 力說하였다. 그리고 帝國主義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人民들이 覺醒하는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흐루시초프-派도 이러한 事實을 깨닫게 對美宥和·穩健姿勢를 修正할 것을 期待한다고 말했다.

以上과 같은 毛沢東의 論旨를 綜合해보면, 毛沢東은 帝國主義에 對한 鬪爭의 中心이 社會主義陣營이 아니라 이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人民들에게로 옮겨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들에 이렇게 接近하면서⁴⁴⁾ 隣接 아시아國家들과는 어떠한 關係를 發展시키고 있었던가? 隣接國家들과의 關係에서 中共이 取하려고 한 政策的 目標은 그들로 하여금 中立主義로 나아가도록 使喚함으로써 美國의 軍事的 計劃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目標을 위하여 1960年부터 1963年사이에 中共은 아프가니스탄 버어마 몽고 네팔 파키스탄과 相互讓步의 基礎위에서 國境條約을 締結하였다. 北韓 越盟

註 44) 1960年부터 文化大革命前까지 中共은 아프리카의 13個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쿠바, 라오스, 仏蘭西와도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順序대로 보면 가나('60.7.5), 쿠바('60.9.24), 말리('60.10.14), 소말리아('60.12.16), 탄자니아('61.12.9), 라오스('62.9.7), 우간다('62.10.18), 케냐('63.12.12), 부룬디('63.12.21), 튀니지아('64.1.10), 불란서('64.1.27), 브라자빌콩고('64.2.22), 잠비아('64.10.25), 다호메이('64.11.12), 중앙아프리카('64.11.), 모리타니아('65.7.26)等 16個國이다.

라오스와는 아직 国境問題가 紛糾의 対象으로 登場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印度와 蘇聯과의 国境問題만이 未解決로 남게 되었다.⁴⁵⁾

中共의 中間地帶에 對한 論及과 그 重要性의 強調傾向은 中·蘇 紛爭의 激化過程에 比例하여 나타났다. 国内外 修正主義를 同時에 攻撃하기 始作한 1962年9月24日의 党八届十中全会에서 毛沢東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 新生獨立國家들이 많이 늘어난 點을 注目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國際體制內에서의 矛盾의 順序에 對하여 重大한 發言을 하였다.

"所謂 矛盾이라는 것은 우리와 帝國主義와의 矛盾, 그리고 全世界人民들과 帝國主義사이의 矛盾으로서 이것들은 主要矛盾들이다. 各國의 人民들은 反動的 資產 階級과 反動的 民族主義에 反對하고 있다. 따라서 各國人民들과 修正主義사이의 矛盾, 帝國主義國家들사이의 矛盾, 帝國主義國家들 內部的 矛盾, 社會主義와 帝國主義사이의 矛盾등이 있다."⁴⁶⁾

上記 引用文에서 보면 「社會主義와 帝國主義사이의 矛盾」을 「民族主義國家들과 帝國主義사이의 矛盾」보다도 下位로 言及함으로써 毛沢東은 世界史의 運命이 「蘇聯을 우두머리로 하는 社會主義陣營」이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들에 依해서 決定될 것이라는 暗示를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毛沢東은 레닌以來 共產主義者들이 習慣적으로 云謂해오던 4大 基本矛盾보다

註 45) Yahuda, op.cit., pp.119-120.

46) 毛沢東, "在八届十中全会上的 講話", 「萬歲」, 第一輯, p.433.

「모든나라의 人民들과 修正主義사이의 矛盾」을 먼저 言及함으로써 蘇聯을 間接的으로 非難하였다.

毛沢東의 이러한 矛盾觀은 中共의 國際的 役割을 바꾸겠다는 意志와 表裏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解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中共이 社會主義國家이자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의 一員임을 強調함으로써, 蘇聯을 제치고 「순수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源泉」이자 「解釋者」로 浮上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인 것이다.

이러한 意志를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帝國主義에 對한 鬪爭」의 先頭에 서서 「全世界人民들」을 이끌고 나아가야만 하는데, 中共은 어떠한 中間地帶觀을 가지고 이에 臨하려 하였는가? 中共의 指導者들이 中國近代史와 自身들의 革命經驗에 立脚하여 外界의 問題를 認識하고 評價하려 하는 傾向이 있음은 前述한 바 있다. 中間地帶의 「進歩的 부르조아」와 「反動的 부르조아」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도 中共은 中國革命의 經驗에 依해서 判斷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問題까지도 中國의 歷史的 事實에 比喩하여 認識하려 했다. 例컨대 아프리카의 狀況에 對하여 어떻게 類型化하려 했는가를 보기로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나세르 앙크루마 훗세인 세쿠·투레부르기 바 아바스등이 亂立하여 서로가 서로를 指導하려 함으로써 戰國時代를 彷彿케 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사람들은 모두 自己物件을 팔려고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금 巨大한 政治的 展示場 같다. 그곳에서는 百花가 다투어 피면서 누

군가가 採択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은 事實에 根拠한 經驗에 立脚해서 處理되어야만 한다. 歷史와 現實的인 生活에서 얻은 經驗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健全한 發展의 길을 걸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新·舊植民主義의 本質을 正確히 把握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사람들에게 中國革命의 經驗을 이야기 해주어야만 한다.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害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幻想을 심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眞實이기 때문이다." 47)

아프리카의 狀況을 中國의 歷史的 事實에 立脚하여 類型化하고 中共의 革命經驗만이 아프리카의 進路를 正確히 引導할 수 있는 發展모델임을 主張하면서도, 中共의 指導者들은 아프리카사람들에게 指示를 하거나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革命을 輸出하려 하지도 않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眞正한 源泉이자 反帝國主義運動의 中心地임을 自處하면서도, 中共은 蘇聯이 그랬던 것처럼 會員國家들의 行動을 規制할 수 있는 國際機構 - 例컨대 Comintern 같은 - 를 組織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中共의 中間地帶政策은 어떠한 背景을 가지고 있는가?

註 47) I CH'in-t'ing, "Family Letters become Living Educational Materials", Chester Cheng, op.cit.y p.484.

첫째, 中共革命의 經驗과 現實的 与件때문에 中共은 中国国粹主義的인 姿勢를 取하지 않았다. 즉 外部의 統制로 부터 自由로운 것이 훨씬 더 革命의 生産性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949年以後 蘇聯의 對中共政策을 大國国粹主義的 政策이라고 非難해온 中共으로서는 自身이 他國에 對하여 그러한 姿勢를 取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現實的으로 보더라도 經濟的으로나 軍事的으로 限界를 크게 느끼고 있는 中共으로서 對外的으로 積極的인 介入과 支援을 하는 것보다는 「自力에 依한 人民戰爭遂行論理를 앞세워 對美警覺心을 強化해 나가는 道理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48)

둘째는 中間地帶의 對美鬭爭을 持續시키기 위해서는 國際機構등 同盟形式을 取하는 것보다 느슨한 統一戰線形式이 有利했기 때문이다. 즉 帝國主義라는 共同의 敵을 相對로 鬭爭하기는 하지만 나라마다의 事情이 다르고 그 指導勢力의 階級的 性向과 指導理念이 完全히 一致하지 않는 狀況에서 同盟形式은 오히려 異見露呈에 따른 分裂의 危險性을 안고 있는 反面, 느슨한 協助體制이지만 統一戰線은 보다 많은 勢力을 包含하면서도 各自의 獨自性과 自律性을 尊重함으로써 參與勢力의 離脫을 防止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統一戰線形式을 取하게된 理由의 또 하나는 1960年代初의 國際政治 構造가 兩大體制라고 볼 수 없었던 데 있다. 즉 1960年代初의 國際政治에서는 한 國家가 自己의 存立을 위해 어느 한 陣營을

註 48) Yahuda, op.cit., p.126 參照.

選択해야만 하는 狀況이 이미 아니었고 紛糾와 矛盾이 多元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統一戰線以外的 形式이 採択되기에는 事實上 어려운 実情에 있었던 것이다.⁴⁹⁾

1963年7月25日 締結된 美·英·蘇의 核實驗禁止條約을 契機로 하여 中·蘇關係가 돌이킬 수 없이 惡化되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는 通說이 되어 있지만, 1963年7月以後 中共의 中間地帶論도 새로운 局面에서 展開되기 始作했다.

中共은 1963年7月25日의 核實驗禁止條約을 現在의 核保有國이 中共이 核國家가 되려는 것을 沮止시키려는 陰謀라고 評價하였으며, 이를 契機로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에 對한 攻擊內容에 「美帝主義와 의 野合」이라는 內容이 添加되게 되었다.⁵⁰⁾ 蘇聯에 對한 非難을 強化하는 한편 美國에 對해서는 核實驗禁止條約으로 美國은 中間地帶에 對하여 훨씬 수월하게 侵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境遇에 對해서는 民族解放運動을 沮止시키기 위한 地域戰爭에서 「戰術核」을 使用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主張함으로써 美國과 中間地帶와의 矛盾을 造作하기 始作했다.⁵¹⁾

核時代에 있어 美·蘇라는 超強大國들에 둘러싸였다고 생각한 中

註 49) Ibid., pp.145-146 參照.

50) 「人民日報」, 1963.8.3 : 「人民日報」, 1963.11.1. 參照.

51) Peking Review, No.41(1963), "The New [Holly Alliance] Will End Up No Better Than the Old: Peking Review, No. 51(1963), "Sixth Comment on the Open Letter of the CC of the CPSU, 12 December, 1963."

共은 对外政策을 새로운 概念과 틀에 따라 調整하지 않을 수 없
이 되었다.

1964年1月21日字 人民日報는 「美帝國主義를 反對하는 全世界의
모든 力量은 聯合하자」라는 題下의 社論에서 2個의 中間地帶論을
展開했다. 英·仏·獨·日의 指導者들이 한 말들 中에서 美國에
全的으로 支配받지 않고 獨自性を 確保하려는 立場이 나타나 있는
文句들을 - 특히 드골의 境遇에는 仏蘭西의 民族的 主体를 되찾으려
는 內容의 發言들을 - 引用하면서, 西方의 指導者로서의 美國의 地位
가 그 밑바탕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指摘한 뒤 다음과 같은
論議를 繼續했다.

" 이렇게 볼 때 中間地帶를 制壓하려는 美帝國主義의 企圖
는 모든 나라와 모든 人民들의 反對에 부딪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極히 広闊한 中間地帶는 두 個의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하나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있
는, 이미 獨立을 했거나 獨立을 爭取中인 國家들로 構成되어
있는 바, 이를 第一中間地帶라고 부를 수 있다. 또 하나는
全西歐 大洋洲와 캐나다 등 資本主義國家들로 構成되어 있는
바, 이를 第二中間地帶라고 부를 수 있다. 第2 中間地帶에
屬하는 國家들은 二重的인 特徵을 가지고 있다. 그들 國家
의 統治階級은 擄取者이자 壓制者이지만, 그들 國家 自体는
美國의 統制·干涉·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런 點에서 그들
은 社會主義國家들 및 여러나라의 人民들과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全世界를 敵對함으로써 美帝國主義는 結果적으로 全面
包圍되고 말 것이다." 52)

上記 引用文에서 우리는 重大한 變化를 發見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以外에서 西歐·大洋洲등의 資本主義國
家들마저 中間地帶에 包含시킨 點과, 둘째는 西歐의 프롤레타리아
와 人民들은 勿論하고 西歐의 指導者들 마저 中間地帶에 包含시키
고 있다는 點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中共은 西歐의 資產階級
을 1949年 以前 中國의 民族資產階級-抗日이라는 點에서 共產黨
과 協調할 수 있었던-이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民族
資產階級과 同一視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58年7月31日 흐루시초프訪問日字에 맞춰 發表했던 于兆力名儀
의 論文에서 毛沢東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만을 中間地帶
로 規定하고 中共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들의 一員임
을 強調하였던 點을 勘案하면 커다란 變化임에 分明하다. 그러나
當時까지만 해도 中共은 「社會主義國家」들은 「美帝國主義」의 直
接的인 攻擊目標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바꾸어 말해서 「反共」
이라는 政策路線은 「美帝國主義」의 眞正한 目標가 中間地帶에 있음

註52) 人民日報, 1964.1.21 : Yahuda는 1964年1月21日이 仙蘭西
의 議會代表團이 中共에 到着하는 날 이었음을 重視하고 있
다. 즉 東西洋에서 각각 그位置가 비슷한 中·仙의 共通點
을 強調하여 對仙接近을 強化하려 했다는 論旨을 展開하고
있다. Yahuda, op.cit., p.150.

을 隱蔽시키기 위한 煙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에즈運河事件에서 美国과 英·仏의 利害가 相衝한 것을 契機로 毛沢東은 英·仏도 被压迫國家의 一員으로 分類하기 始作하였다. 나아가서는 日本 獨逸까지도 美国의 压迫을 받는 國家들로 分類했다. 53)

毛沢東은 英·仏·獨·日이 美国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한 性格의 压迫을 社会主义國家들도 蘇聯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에서 引用한 바 있는 1964年1月21日字 人民日報社論의 題目은 비록 "美帝國主義를 反對하는 全世界의 모든 力量은 聯合하자"는 것이었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蘇聯의 支持者들이 美国과의 合作을 通해서 世界를 주무르려는 꿈을 꾸고 있다." 54) 라고 하였다. 勿論 이러한 非難은 1963年7月25日의 核実験禁止條約締結을 非難하는 것이었으나 非難의 根本적인 原因은 中共이 核國家가 되는 것을 抑压하려 한다고 생각한 데 있음은 前述한 바 있다. 어쨌든 이를 通해서 中共은 從來의 反美立場에다가 反蘇立場을 添加하기 始作한 것이다. 이렇게 表出된 中共의 反蘇立場은 보다 直接的인 問題에서의 压迫에 對한 非難으로 이어졌다. 1964年

註 53) Yahuda, op.cit., p.150, 英·仏·獨·日과 美国과의 關係를 葛藤關係에서 把握한 中共의 立場에 對해서는 New York Times, 1964.2.21: Soviet News, 1964.9.2: Peking Review, No.5(1964), p.5 p.10: Sunday Times, 1964.1.22을 各各 参照.

54) 「人民日報」, 1964.1.21.

7月 日本記者와의 對話에서 毛沢東은 蘇聯이 占領한 地域이 너무 많음을 前提하고 몽고, 루마니아의 一部, 폴란드의 一部, 핀란드의 一部가 蘇聯에 의해서 強占되어 있는데도 蘇聯이 다시 中共에게 新疆을 要求하고 나서는 것을 非難하면서 쿠릴列島가 마땅히 日本에 返還되어야 한다는 日本의 主張을 支持하였다. 55)

이를 통해서 보면 中間地帶를 2分한 中共의 政策的 立場이 分明히 드러난다. 즉 中共은 第1中間地帶와 第2中間地帶로 構成되는 中間地帶論을 提唱함으로써 美·蘇를 同時에 攻擊하고 나선 것이다. 美·蘇의 和解로 中共의 國際体制에서의 矛盾觀은 크게 變化를 일으킨 셈이다. 즉 「美·蘇의 野合과 中間地帶와의 矛盾」이 主要矛盾으로 登場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第2中間地帶라는 概念의 登場은 其實 第1中間地帶를 中心으로 한 對外關係에서 크게 成功을 거두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960年初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對한 中共의 對外活動이 蘇聯의 強力한 沮止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때문이다. 56) 그러나 第2中間地帶라는 概念은 1964年末을 前後해서 消失될 해지고 말았다. 우선 毛沢東이 豫想했던 만큼 第2中間地帶國家들이 큰 反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中共内部의 다른 指導者들이

註 55) Dennis J. Doolin, Territorial Claims in the Sino-Soviet Confli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pp. 42-44 參照.

56) 尹慶耀, 「中共外交与對外關係」, pp. 33-35 參照.

第2 中間地帶라는 概念을 別로 重視하지 않을 뿐 아니라 「美帝國主義」를 牽制하는데 第2 中間地帶가 動員되어 影響力을 發揮할 것인가에 懷疑的인 立場을 取했기 때문일 것이다. 57)

1965 年末 中共에서는 越南戰爭에의 介入問題를 놓고 激論을 벌였다. 58) 「反美아시아·아프리카 共同戰線」의 結成이 中·美戰爭을 誘發할 지도 모른다는 憂慮는 結局 中共의 對越姿勢를 微温的인 方向으로 들어놓았으며, 對內的으로도 1962 年부터 始作된 對內外修正主義에 對한 反擊이 무르익어 1966 年부터 始作된 文化大革命의 準備가 完了된 時点이었기 때문에 中間地帶論에 對한 言及조차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第2 中間地帶」概念의 出現은 中共의 對外關係에서 劃期的인 것이었던 만큼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70 年代의 三世界論도 其實은 第2 中間地帶概念위에서 展開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註 57) Yahuda, op. cit., p. 154.

58) 이 점에 對해서는 Allen S. Whiting, The China's Calculus of Deterrence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5), pp. 170-195; Donald Zagoria, "The Strategic Debate in Peking", Tang Ssou (ed.), China in Crisis, Vol. 2: China's Policies in Asia and America's Alterna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p. 237-268; Uri Ra'anani, "Peking's Foreign Policy Debate, 1965-1966." ibid., pp. 23-71 參照.

第五節 造反外交論

가. 造反外交論 展開過程 및 中共의 對外關係

中共에서의 1966 - 1969年期間은 文化大革命期로서, 外交面에서 는 時期를 大體로 造反外交期라고 부르고 있다.²⁾

文化大革命이 中共内部的 權力斗争的 特性이 강한 事件이었지만 中共은, 이 期間동안에 國際問題에도 至大한 關心을 보였다.³⁾

註1) 「造反」이라는 말은 清華大學附中紅衛兵들이 붙인 大字報(66. 6.24, 7.4)에서 자기네들이「反動派들에게 反抗하는 것이 一理가 있다. (對反動派造反有理)」고 한데서 비롯한다. 毛澤東, “覆清華附中紅衛兵的一封信”(1966.8.1), 「中共文化大革命主要文件集」(臺北:中共研究雜誌社, 1973), p.196. 그후 1966年 8月 18日 紅衛兵大集會隊列을 接見하는 席上에서 毛澤東이 「造反有理, 革命無罪」라는 말을 되풀이한 뒤 이 말은 中共 全域에 걸친 靑少年들의 口號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文化大革命의 特性을 나타내는 말로 되었다. 따라서 「造反外交」라는 말은 中共의 文化大革命期間동안의 外交를 말한다.

2) 最高潮期는 1966年 8月부터 1967年 8月로 評價되고 있으며, 1968年 8月부터는 中共의 對外政策이 若干의 變化를 보이기 始作했다. 尹慶燿, 「中共外交與對外關係」, p.38.

3) 本稿에서는 權力斗争的 의미에서의 文化大革命의 原因 및 經過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고 다만 對外關係와 關聯된 問題만을 다루기로 한다. 文化大革命의 原因 및 經過에 對해서는 Byung-joon Ahn,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Seattle: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Jack Chen, Inside the Cultural Revolution(New York:Macmillan, 1975):Thomas Robinson(ed.),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金河龍, 「中共文化革命研究」(서울:高麗大出版部, 1975) 參照.

즉 「平和共存五原則」 「中間地帶論」 등에 立脚한 統一戰線 結成 등 國際主義를 追求하기 보다는 「一國社會主義」的인 對內革命에 注力하기는 하였지만, 蘇聯이 「修正主義」化한 뒤 唯一한 「社會主義의 堡壘」로 自處하게 된 中共으로서는 「社會主義의 堡壘」를 지키는 斗争이야말로 中國革命의 運命은 勿論이거니와 10月革命以後의 마르크스-레닌主義와 國際共產主義運動 그 自體의 運命까지 左右하는 問題라고 생각하였다.⁴⁾ 여기에 中共文化大革命의 國際政治的 意味가 있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堡壘」로서의 中共이라는 自意識에서 中共은, 越南戰을 支援하는 데 있어 蘇聯과 中共이 聯合하자는 提議를⁵⁾ 反駁하면서 1965年 11月 11日에 다음과 같이 世界情勢를 論했다.

“오늘날 世界情勢의 特徵은 國際階級斗争이 날로 深化되는 狀況下에서 바야흐로 大混亂 大分化 大改組 (Reorganization) 를 겪고 있다. …………… 즉 世界의 各種政治力量들이 極熱하게 分化되고 다시 새롭게 모이고 있는 것이다. …… 帝國主義 및 各國의 反動派와 現代修正主義는 滅亡의 길을

註 4) Yahuda, op. cit., p. 190. p. 202.

5) 蘇聯은 中共에게 越盟에 輸送할 軍事施設에 對한 輸送路를 開放하고 蘇聯선박과 항공기가 中共領海와 領空을 通過하도록 許容하며, 中共南部의 空軍基地使用權을 賦與할 것을 요구했었다. William Richardson (ed.), China Today (Maryknoll : Maryknoll Publishing Co., 1969), p. 203.

걸고 있다. 그러나 帝國主義와 反動派는 打擊을 加하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고, 現代修正主義도 斗争하지 않으면 몰아낼 수가 없다. …………… 國際情勢의 發展으로 어쩔 수 없이 矛盾과 衝突이 充滿해졌으며 曲折과 反復이 되풀이되고 있다. 世界各國人民들의 革命斗争은 不得已 물결이 퍼져나가는 式으로 發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6)

中共主導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統一戰線에 蘇聯이 侵透하여 第2次 아시아·아프리카會議에까지 蘇聯이 參加할 수 있도록 決定됨으로써 中共의 中間地帶論이 失敗로 돌아간⁷⁾ 뒤였기 때문에 「大混亂·大分化·大改組」를 論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中共은 基本的으로 國際政治構造가 兩極化되는 것을 指向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共產圈은 中共을 中心으로 한 「眞正한 마르크스-레닌主義勢力」과 修正主義勢力으로 나누어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林彪의 勸告대로 武裝斗争을 하려 하는 勢力과 帝國主義 및 反動派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勢力으로 갈라지며, 資本主義陣營은 独占資本主義와 人民勢力사이의 内部的 矛盾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綜合적으로 말한다면 毛澤東은 國際政治構造는 革命的 勢力

註 6) “駁蘇共新領導的所謂「聯合行動」”, 尹慶耀, 「中共外交與對外關係」, p.38에서 再引用.

7) 中共은 소련이 참가하는 第2次 아시아, 아프리카會議를 分裂을 造成하는 行爲라고 非難하면서 1965年10月26日 不參을 通告했다.

과 反革命的 勢力의 두 가지로 兩極化되어야 하는 것으로 把握하려 했던 것이다.⁸⁾

이러한 立場은 結果적으로 世界의 革命勢力들이 中共을 中心으로 團合해야 한다는 「中國中心의 思想」-共産主義的 「中華思想」이라 할 수 있는 - 을 形成시켰다. 勿論 各國의 反革命勢力은 모두 먼저 自國의 革命을 攻擊하고 結局에는 中共에까지 反對하는 것으로 規定하였다. 따라서 中共은 1966年8월에 열린 党8届11中全會「公報」를 通하여 소련이 “美國이 主導하는 帝國主義 및 各國의 反動派들과 結託하여 새로운 「神聖同盟」을 締結하고 中國의 共産主義와 人民 그리고 革命에 反對하고 있다.”고 非難을 加했던 것이다.⁹⁾

蘇聯을 우두머리로 하는 「現代修正主義」로부터 排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毛澤東은 1966年10月25日 알바니아의 5次党大會에 보내는 便紙에 다음과 같이 썼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眞實은 우리들 便에 있다. 國際無産階級과 被壓迫國家 및 被壓迫人民들도 우리들 便에 있다. 따라서 全世界人口의 90%以上을 차지하는 人民大衆이 우리들 便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全世界에 걸쳐 親舊들을

註8) A.M. Helpern, "China's Foreign Policy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R. MacFarguhar(ed.), Sino-American Relations, 1941-71 (New York: Praeger, 1972), p. 23; Yahuda, op.cit., p. 191.

9) Ibid.

가지고 있다. 우리는 孤立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孤立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必勝不敗로 나갈 것이다.

中國과 알바니아를 敵對하는 한 줌의 불쌍한 者들은 滅亡하고 말 것이다..... 中國과 알바니아黨과 人民들은 서로 團結하자. 모든 나라의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은 團結하자. 全世界의 革命的 人民들은 團結하자. 그리하여 帝國主義와 現代修正主義 그리고 모든 나라의 反動派들을 打倒하자. 帝國主義 資本主義 그리고 搾取制度가 없는 새로운 世界가 確實히 세워지고 말 것이다.* 10)

여기에서 文化大革命期 「造反外交」의 政策路線이 鮮明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毛澤東은 國際的 外交共同體나 國家次元의 外交關係樹立등을 버림으로써 政府次元에서 孤立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全世界의 90%人民들과 革命的 團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不過 1~2年前까지 主張해오던 中間地帶들과의 國際政治的 統一戰線은 革命的 同志들과의 深度 깊은 團합을 위하여 果敢하게 버린다는 뜻이다. 11)

毛澤東의 造反外交路線은 1967年 7月 7日 黨幹部들에 對한 談話에서 더욱 激烈하게 表現되었다. 그는 1964年 10月 14日의 原子爆彈實驗成功이래 中共의 核技術이 날로 發展하여 2年 8個月만에 世界 第4位의 核國家로 登場했음을 想起시키면서, 印度 印度네시아

註 10) Peking Review, No. 46 (1967), p. 5.

11) Yahuda, op.cit., p. 194.

버어마 泰國등에 武裝活動이 高潮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武裝斗争이 일어남으로써 「美帝國主義」의 孤立은 날로 深化되어가고 있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蘇聯도 中東事件에서의 陰謀的 活動으로 因하여 아랍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부터 強力한 反撥을 사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中國은 世界革命의 政治中心일 뿐만 아니라 軍事的으로나 技術的으로나 世界革命의 中心이 됨으로써 그들(武裝斗争勢力: 筆者)에게 武器를 주되 特殊地區를 除外하고는 中國이라는 表示가 있는 武器를 주어 公開的으로 支持함으로써 世界革命의 兵器廠이 되어야 한다.”¹²⁾

毛澤東의 이러한 政策的 立場을 基準으로 하여 具體的인 行動方針을 提示한 것은 林彪였다. 1967年 11月 6日 10月革命 50周年 記念演說을 通해 林彪은 中共이 「社會主義의 堡壘」임을 論證하고 “世界革命의 中心地로서의 中共人民들에게 주어진 歷史的 偉業이자 國際主義的 義務는 10月革命의 旗幟와 마르크스-레닌主義 그리고 毛澤東思想의 旗幟를 높이 들고 文化大革命을 끝까지 完遂하는 것이라고 前提한 뒤, 1) 中共을 보다 強力한 世界革命의 基地로 만들것, 2)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와 人民들의 革命的 斗争을 더욱 強力하게 支援할 것, 3) 世界의 革命的 人民들과 團結하여 美國이 主導하는 帝國主義와 蘇聯修正主義背教者들을 中心으로 하는

註12) 毛澤東, “中國要成爲 世界革命的兵工廠”, 「萬歲」, 第一輯, pp. 680-681.

現代修正主義에 對한 斗争을 끝까지 貫徹할 것, 4) 毛澤東思想에 對한 學習을 더욱 強化하고 通達하여 全世界에 보다 廣範하게 傳播시킬 것을 強調하였다.¹³⁾

林彪의 이러한 演說로써 革命의 純粹性을 위해서는 必要하다면 孤立도 不辭하겠다는 立場은 더욱 分明하게 公表되었으며 즉 美·蘇兩國뿐 아니라 美·蘇를 反對하는 데 있어서 中共과 立場을 달리하는 나라들과도 斗争하겠다는 戰斗的인 姿勢가 表明된 셈이 だ. 이러한 狀況에서 海外駐在 中共外交官들의 任務는 現地의 革命斗争을 支援하고 毛澤東思想을 傳播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 었던 것이다.¹⁴⁾

「造反有理·革命無罪」의 論理에 立脚한 國內政治가 國際政治 에 까지 擴散된 結果로서의 中共의 「造反外交」는 1966年 8月 22 日 紅衛兵들이 蘇聯大使館을 包圍한 事件을 烽火로 삼아 行動에 옮겨지기 始作했다.

· 1966年 12月 海外駐在 外交官들이 모두 召選되어 文革에 參加 하도록 強要되었고, 1967年初부터는 外交部長 陳毅 僑務委員會委 員長 廖承志에 對한 紅衛兵들의 批判이 始作되고 5月에는 範圍 를 넓혀 外交部副部長 姬鵬飛 喬冠華까지 攻擊의 對象으로 삼았 다.¹⁵⁾ 外交部에 對한 攻擊으로 內部分裂이 생기면서 國際慣例

註 13) Peking Review, No. 46 (1967), pp. 4-8.

14) Yahuda, op. cit., p. 193.

15) 外交部 및 對外政策에 對한 批判問題는 本節나項「造反外交 의 國內政治的 背景」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를 無視함으로써 共產國家와의 關係도 惡化되기 始作했다. 例컨대 알바니아 루마니아 越盟을 除外한 共產國家들과 中共사이에서 相對方의 學生 記者 外交官을 追放하는 事例가 빈번히 일어났고 北韓과도 1966年 10月 10日에 勞動黨創建記念日에 中共代表團을 派遣하지 않을 만큼 關係가 惡化되었었다. 1966年 8月 부터 1967年까지 中共과 餘他共產國家들과의 사이에 都合 47件의 抗議가 오고갈 程度였다.¹⁶⁾

共產國家들과의 關係가 이러했던 만큼 非共產國家와의 關係亦是 좋을 수는 없었다. 1966年 8月부터 東京에서 毛澤東思想을 宣傳하면서 「反美·反政府」를 鼓吹한 結果 左翼團體의 「九月東京事件」을 誘發시킴으로써 日本과의 關係가 惡化된 것을 비롯하여, 中共內에서 外國人記者, 船長, 外交官들이 紅衛兵들로부터 毆打 당하거나 軟禁됨으로써 커다란 外交問題로 發展하였다. 東南亞와 南亞에 對한 武裝暴力支援은 이들 地域國家들로 하여금 中共의 活動을 規制하도록 自招하였고, 스웨덴 스위스 알제리아에서도 中共外交官들이 毛澤東選集·語錄을 配布하다가 問題를 일으켰다. 이러한 「造反外交」活動 結果 中共은 5個國으로부터 外交關係를 凍結·斷絶당하게 되었다.¹⁷⁾

註 16) 中共이 他共產國에 對하여 28件, 他共產國이 中共에 對하여 19件(其中蘇聯이 中共에 對해서는 10件)이었다. 尹慶燿, 「中共外交與對外關係」p.42.

17) Ibid., pp.42-43., 外交關係斷絶: 다호메이(66.1.3), 中央아프리카(66.1.6), 가나(66.10.12). 外交關係凍結: 인도네시아(67.10.31), 中共側大使館閉鎖: 튀니지아(67.9.26). 이들 大部分이 中間地帶論에 의한 關係設定國이다.

「社會主義의 堡壘」를 自處하면서 「反帝·反修」를 위하여 始作된 「造反外交」에 紅衛兵들의 極烈한 批判이 加勢함으로써 對外的으로 여러가지 問題를 惹起시키고 結果적으로 斷交등 外交的 孤立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 큰 混亂을 隨伴함으로써 中共의 發展은 그만큼 損失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 造反外交의 國內政治的 背景

「造反外交」를 통해 得보다는 失이 더 많았음은 이미 確認된 바이지만 損失과 退步를 甘受하면서도 造反外交를 해야만 했던 理由는 무엇이었던가?

흔히 外交를 對內政治의 延長이라고 하지만¹⁸⁾ 造反外交만큼 對內體制와 緊密한 連繫를 가지고 展開된 境遇도 흔치 않을 것이다.

文化大革命이 展開되면서 紅衛兵과 左派들은 外交官들의 生活態度와 行動에의 批判을 起點으로 外交政策上的 主要問題에 對해서까지 過激한 批判을 加하고 나갔다. 이어서 文化大革命의 불길은 及其也 外交部와 傘下機構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外交部뿐만이 아닌 모든 組織과 機構들이 文化大革命의 渦中에 휩쓸렸다는 點에서 볼 때는 外交部 및 傘下機構에 번진 文化大革命의 意味는 尋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周恩来 陳毅 廖承志등 所謂 當權派巨物들을 逐出하기 위한 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그程도는

註 18) 對內政治體制가 對外政策의 性格을 決定짓는데 對한 代表的인 論議는 Henry A. Kissinger, "Domestic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Daedalus, XCV (Spring/1966), pp. 503-529 參照.

相對的으로 激熱할 수밖에 없었고, 大衆의 要求에 따라서 움직이
가는 國家利益의 確保에 있어 重大한 支障을 招來할 수밖에 없는
것이 外交이기 때문에 外交部와 傘下機構에 對한 攻擊은 特別한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毛澤東自身이 깊은 關心를 가지고 있으면서 政策의
方向을 定立하고, 提示해오던 外交問題를 다루는 外交部가 劉少奇를
우두머리로 하는 當權派의 手中으로 넘어가버렸다는 事實은 毛澤東
으로 하여금 어떠한 方法을 써서라도, 어떠한 犧牲을 치르고서라도
奪還하려는 欲求를 불러 일으킬만한 原因이 될 수 있었다.¹⁹⁾

毛澤東個人的 權力的 欲求가 이러하였던 한편, 文化大革命을 指導
하는 勢力들의 立場 또한 外交部의 實務者들과 달랐던 것이다.

左派들은 「純粹한 外交政策路線」을 主張하고 있었다. 즉 中共
은 革命運動을 支援하여야 하며 資產階級政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莫論하고 排斥하여야 하며, 中共에는 如何한 外國의
影響도 미칠 수 없도록 그 殘滓까지 뿌리 뽑아야 하며, 貿易을

註 19) Yahuda, op. cit., p. 197. 毛澤東이 外交部의 權限을 掌握한
것은 1967年 8月이라고 한다. 따라서 權限奪還以後지만
1967年 9月 毛澤東의 外交部文革小組에 대한 指示를 보면
毛澤東이 對外政策樹立에 있어 自身の 役割을 매우 重視해
음을 알 수 있다. 그主要内容은 1) 모든 外交單位를 合併
하여 外交部로 統合하고 部長에 陳毅가 適當한가 檢討하라. 不適
當하면 누가 좋겠는가? 2) 對外路線은 내가 制定하고 (아랫
점: 筆者), 周總理는 執行하는데 너희들의 攻擊對象이 너무
廣範하다. 이미 내가 여기 있었지 (外交部掌握: 筆者) 않는
가? 尹慶權, 「中共外交與對外關係」, p. 41.

拋棄하더라도 中共内の 革命을 持續하는 한편 對內的인 革命도 促進시켜야 한다는 것이 左派의 立場이었다. 이러한 立場은 國家利益이라는 것을 전혀 念頭に 두지 않거나 考慮하지 않을 뿐 아니라 矛盾과 勢力均衡에 對한 慎重한 分析을 缺如한 立場이었다.

또한 外部世界の 實情을 完全히 度外視한 立場이었기 때문에 外交擔當者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外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外交란 때로는 強力한 反對를 무릅쓰고 逆流를 하여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妥協에 成功하기도 하고, 때로는 妥協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許多한 어려운 課題이기 때문이었다.²⁰⁾

그러나 毛澤東의 支援을 받아 士氣가 沸騰한 紅衛兵과 左派들은 「劉少奇를 우두머리로 하는 外交部內的 特權層」에 對한 批判을 加하기 始作했다. 例컨대 “이미 資本主義的 生活方式에 물든 大使나 商務官들은 黨의 原則을 無視하고 ……… 黨會議에 出席하는 일과 組織生活을 하는 일을 免除받고”²¹⁾ 있다는 批判등을 加하면서 官僚的 生活樣式 全般에 對하여 攻擊을 加했다.

外交官들의 特權層으로서의 生活樣式과 資本主義的 風潮를 批判하고 드디어 對外政策上的 主要問題에 까지 干涉을 始作했다. 紅衛兵을 앞세운 左派들은 革命의 輸出을 要求했던 것이다. 그러나 海

註20) Yahuda, op.cit., p.198.

21) 「外事紅旗」, 1967.6.14: Selections from Chinese Mainland Press, No.4004, Ibid., p.199에서 再引用.

외의 革命運動을 支援하는 問題는 中共의 國力으로 보나 外交上의 問題로 보나 만만한 일은 아니었고, 海外에 있는 外交官이 國內에서 進行되고 있는 革命에 步調를 맞추어 가면서 「革命中國의 外交官」으로서 處身하는 問題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文化大革命期間동안 繼續해서 是非의 對象이 되어 있었다. 紅衛兵과 左派들의 끈질긴 是非와 批判이 두려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毛澤東思想 宣傳冊子를 配布하는 등 若干의 一 對內的 熱氣에 比해서 一 革命活動은 하였으나 左派들이 보는 中共의 役割을 爭取하는 데는 事實上 別 도움이 되지 못하는 程度에 그치고 말았다.²²⁾ 勿論 對內的 熱氣에 比해서는 微弱한 行動이었지만 對象國의 立場에서 보면 嚴重한 挑戰이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革命의 輸出과 關聯된 問題로서 華僑政策도 批判의 對象이 되었다. 左派들은 僑務委員會 主任 廖承志를 “僑務委員會內에서 走資派路線을 걷는 高位當權派”라고 烙印적이고 “愛國的 華僑들의 利益을 背反하였다”는 批判을 加했다. 勿論 華僑政策이란 其實 僑務委員會에서 樹立되는 것이 아니고 外交部 및 黨書記處에서 樹立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批判은 當權派 全體에 對한 批判의 意味를 가지고 있었다. 紅衛兵들은 華僑들로 하여금 居住國에서 武裝活動을 하도록 支援하고 激勵할 것을 要求했지만 深

註 22) Ibid., p. 200.

刻한' 批判이 自身에게 加해지는 데도 不拘하고 廖承志는 中共의 政策宣傳用 各種 華僑團體들을 解散할 것을 命하면서, 居住國의 政府를 批判하지 말 뿐 아니라 居住國의 法律과 風習까지 遵守 하라고 指示했다고 한다. 勿論 이러한 措置와 指示는 華僑居住 國들의 反中共姿勢를 誘導하지 않는다는 國家利益의 次元에서 取 해진 것이다.²³⁾

外交部나 華僑委員會가 左派들의 要求대로 革命輸出에 積極성을 보였더라면 東南亞 華僑居住國의 政府들은 反共으로 기울어 親美 化 했을 것이며, 그것은 結局 中共의 安保에 마이너스結果를 가져 왔을 것이다. 또한 華僑의 武装革命活動을 助張하였더라면 對內的 인 文化大革命自體도 退步하는 한편 華僑居住國內에 人種紛糾를 惹 起시킨 結果 中共政府의 이미지를 損傷시킴으로써 必要時 다시 國際統一 戰線戰術을 展開하기가 至極히 어려워졌을 것이다.²⁴⁾

註23) Ibid., p.198. 1965年9月30日 인도네시아共産党등 쿠데타 가 失敗로 돌아가자 印度네시아政府는 同事件에 聯關되었다 는 理由로 華僑들을 大挙 死刑에 처하거나 投獄시켰다. 當時 中共政府는 外交的 抗議만 했을 뿐 華僑를 保護할 實力 이 없음을 露呈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廖承志가 紅衛兵 들의 要求를 默殺함으로써 結局 肅清 되었으나 文革後 復權되어 다시 僑務問題責任者로 있다.

24) Ibid., p.199.

外交業務의 專問性과 外交擔當者들의 理性的 判斷에 依해서 左派들의 政策的 要求가 額面 그대로 實踐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지만, 「世界革命의 兵器廠」 「民族解放運動의 基地」로서의 中共의 이미지가 浮刻되기에는 充分할 만큼 中共의 言·論·行이 이루어진 것 또한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外國公館의 襲擊·包圍·放火와 外國人의 毆打·軟禁·海外反政府계렬活動의 使喚 및 支援, 毛澤東思想冊子の 配布등에 關聯國들을 驚愕시킴으로써 外交的 抗議와 斷交가 続出했기 때문이다.

다. 造反外交의 思想的 背景

지금까지 보아온 左派들의 「造反外交」主張과 行動에서 重大한 事實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左派들에게서 우리는 中共中心의 思想 - 共產主義的 中華思想이라 命名할 수 있는 - 과 國粹主義的 傾向을 띤 民族主義를 發見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問題는 論證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文革指導者들의 言論을 引用하면서 詳論하기로 한다. 이미 引用한 바 있는 1967年7月7日字 毛澤東의 指示나²⁵⁾ 1967年11月6日字 林彪의 演說²⁶⁾ 등에서 보았듯이 中共의 文革指導者 및 左派들은 中共만이 「眞正

註25) 第五節, 가. 造反外交論의 展開과정과 中共의 對外關係, 註12) 參照.

26) 上同 註13) 參照.

한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으로 具現된²⁷⁾ - 의 中心이며, 中共만이 資本主義復活에 依해서 社會主義國家가 꺼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積極적으로 努力하는 國家이며, 中共만이 無產階級獨裁 下에서 革命을 繼續하고 있으며, 中共만이 純粹하게 社會主義的 文化를 向해 나아가고 있으며, 中共만이 새로운 社會主義 政治秩序를 發展시켜나가고 있다는 前提위에서 있었다.

問題를 보는 立場과 視角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中共이 外國에서 배울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中國人들의 社會生活속에 侵透되어 있는 外國의 影響은, 舊習과 함께, 摘出해내는 것이 至極히 바람직하다는 立場으로 發展하였다. 文化大革命期 主役의 한 사람이었던 江青은 1960年代以來 中國藝術에 스며든 蘇聯의 影響을 除去하면서 동시에 京劇(中國式오페라)을 代替할 수 있는 革命劇을 發展시키기 위해서 매우 熱誠적으로 活動했다고 한다.²⁸⁾

文革指導者들의 「中國」에 對한 優越意識을 좀더 보기 위하여 林彪가 1967年 11월에 행한 「政治를 앞세우자」라는 演說中 一部를 引用해 본다.

“毛澤東은 外國의 進步的 이데올로기 - 例컨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 와 古代中國의 進步的 이데올로기를 結合

註 27) 楊成武는 「毛澤東思想은 現代에 있어서의 最高의 마르크스-레닌主義다」라는 말을 여러번 強調하면서 毛澤東思想만이 革命의 길잡이임을 力說하였다. Peking Review, No. 46 (1967), pp. 17-24.

28) Yahuda, op.cit., p. 200.

시켰다. 그가 그것을 賢明하게 結合시켰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그것은 人類의 가장 進歩的인 이데올로기들이 集中된 代表的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오늘날 軍隊와 國家가 해야 할 主要課題는 毛澤東思想에 依據하여 中國과 世界의 모습을 바꾸고 繼續해서 그것들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일이다.” 29)

上記 引用文에서 西洋과 中國의 遺産을 물려받아 毛澤東思想이 形成되었다는 論議는, 毛澤東思想이 中國과 世界의 모습을 바꾸는 思想的 指針이라는 主張을 하기 위한 論理的 基礎인 것이다.

勿論 林彪가 毛澤東個人崇拜運動의 強力한 推進者³⁰⁾이기는 하다.

註 29) Chinese Law and Government, Vol. VI, No. 1. (Spring/1973), p. 87.

30) 林彪는 1966年 1月 “毛澤東이 말하는 것은 모두 眞實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한 句節은 萬句節의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한 뒤 1966年 8月 1日 党 8屆 11中全會에서는 “우리는 毛主席의 指示를 理解하건 못하건간에 결단코 수행하여야만 한다”고 하는등 毛澤東을 天才로 추켜올리고 毛澤東思想을 萬能의 사상으로 신봉하도록 하는데 積極的인 역할을 하였다. 林彪의 毛澤東讚揚發言은 Ibid., p. 13, p. 53 參照. 毛澤東自身은 너무 찬양하여 神格化시키는 것을 당시에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Ibid., Vol. VI, No. 2 (Summer/1973), p. 97 參照. 그러나 1970年 에드가 스노우를 만난 자리에서 毛澤東은 中共의 大衆들이 修正主義와 싸우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自身の 超越的인 權威가 必要했기 때문에 毛自身이 意圖的으로 自身の 偶像化를 推進시켰다고 말했다. Edgar Snow, China's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p. 144; Yahuda, op. cit., p. 201, p. 210

그러나 林彪自身도 江青이 中國적인 것을 重視했듯이, 中國적인 視角에서 國際問題까지 類型化하려 했었다. 例컨대 1966年 5月 18日 政治局에서 林彪은 即興演說을³¹⁾ 했는 바 內容은 「쿠데타」와 毛澤東讚揚에 관한 것으로, 그 中 「쿠데타」關聯 內容을 보면 1960年以來 1966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쿠데타」 61件을 列擧하면서 그 策略과 暗殺類型을 中國의 歷史事實에 比喩하여 分類·說明하였다.³²⁾ 이로 미루어 볼 때 毛澤東思想을 古代中國의 이데올로기와 結附시켜 論議한 것은 毛澤東讚揚을 위해 取해진 方便으로서만의 意味를 넘어서서, 中共文化大革命의 指導理念이 其實 中共中心思想 — 「共產主義的 中華思想」이라 부를 수 있는 — 이었다는 點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林彪만 中國의 視角에서 問題들을 認識한 것은 아니었다. 文化大革命期の 極左派들의 文章을 훑어보면 革命의 模型을 云謂하는데 있어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 共產主義理論家들은 勿論이거니와 外國의 事例도 引用하지 않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外國의 革命事例를 讚揚하는 境遇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毛澤東思想을 追從하였다는 理由에서 였을 뿐이다. 中共은 1968年 5月에 仏蘭西에서 일어난 騷擾마저도 中共의 文化大革命을 模型로 한 것이라고 評價하기도 하였다.

註31) Chinese Law and Government, Vol. II, No. 4 (Winter/1971), pp. 42-62.

32) Yahuda, op.cit., p. 201.

이런 點에서 볼 때 中共의 左派들은, 마이켈야후다가 指摘하듯이, 獨特하고도 非自我的인 逆說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즉 中共의 左派들은 中共人들의 社會生活에서 封建·資本主義의 殘滓를 없애므로써 새롭고 純粹한 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하겠다고 主張하면서도 바로 封建主義의 象徴인 中國의 過去史에서 革命에 必要한 着想 類例 比喩의 밑천을 찾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³³⁾

中共의 文化大革命期 左派들의 思想中에 中國第一主義가 強하게 뿌리내려 있었음은 如上하거니와, 다음은 左派들의 思想中에서 國粹主義的 側面을 보기로 한다.

前述한 바 있는 1968年5月 仏蘭西에서의 騷擾事件 때 中共에서는 仏蘭西 革命家들을 支持하는 大規模 群衆集會를 열었다.

이때 北京駐在 外國人들 中 이 集會에 參與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中共當局은 이를 許容하지 않았다. 또한 中共의 共產革命過程을 거의 지켜보다시피 할 정도로 오랫동안 中國에 살면서 共產革命의 大義名分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文化大革命期間 동안에 毆打당하거나 投獄, 또는 軟禁되어야만 했다.³⁴⁾ 數千名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數百名程度의 中國인들이 外國과 關係가 있다고 해서 困辱을 치루어야만 했다. 그리고 紅衛兵등의 政治儀式이나 行事 또는 隱喩는 中國의 過去史에 對한 諧博한 知識이 없이는 到底히 그 意味를 알 수 없는 土着的인 民俗이나 呪術·迷信등

註 33) Ibid.

34) 文化大革命期동안의 外國人에 對한 迫害問題는 尹慶權, 「中共外交與對外關係」, pp. 42-43 參照.

에서 由來하거나 着想된 것들이었다. 大體로 보아 外部世界에 對한 姿勢는 外國人忌避症같은 傾向마저 엿보이는 強한 國粹主義的 性格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³⁵⁾

文革期 左派들의 이러한 國粹主義的 性向은 두 가지 側面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中國이 清末 西洋의 侵略을 받아 苦楚를 겪던 時節의 西洋觀에서부터 由來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中國사람들의 눈에 처음 비친 西洋사람들은 모두 상스럽고 羊고기 냄새가 나며 그 身體的 特徵마저 奇異했던 것이다. 따라서 中國사람들은 西洋사람들을 番鬼(또는 審鬼: 西洋鬼神이라는 뜻) 洋鬼子(番鬼와 같은 뜻) 大鼻子(코 큰놈) 毛子(털보)라고 불렀었다.³⁶⁾

西洋人들에 對한 敵對感을 背景으로 이루어진 西洋人에 對한 이러한 俗稱이 아직까지도 中國人들에 依해서 쓰여지고 있는 바 中國人들의 外國人들에 對한 感情은 抵抗의 次元을 넘어서서 憎

註35) Ibid., p.202.

36) John K. Fairban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梁好民, 禹勝勇訳, 「現代中國의 展開」(서울:東西文化社, 1972), p.158.

惡感마저 있음을 알 수 있다.³⁷⁾

文化大革命期 左派들 특히 過激한 紅衛兵들에 依해서 中國人의 西洋觀이 極度の 形態로 表現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 國粹主義는 中華思想과 表裏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傳統的으로 中華의 優越에 對한 信念이 強한 中國人들 이지만 現在의 處地와 立場이 中華의 榮光을 主張하거나 實現시킬 수 없는 狀況에서는 國粹主義的인 性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나친 自慢心과 自尊心의 裏面에는 強한 劣等意識이 있고, 그 劣等意識은 大概 過去의 榮光이 誇문할 수밖에 없는 條件에서 생겨난 것이듯이 中共左派들의 國粹主義도 19世紀中葉以來 具現시킬 수 없었던 「中華의 榮光」에 對한 反撥의 形態로 나타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造反外交論의 展開過程 및 여러가지 背景分析을 通해서 볼 때, 造反外交論은 過激한 對內政策의 外延이었기 때문에 文化大革命이 中共의 發展을 中止·退步시켰다는 最近 中共内部의

註37) 1967年 6月 24日 字 人民日報에는 “英國帝國主義로 하여금 中國 프롤레타리아階級の 鐵拳맛을 한번 보도록 하자”라는 題下의 評論員의 글이 실린 바 있다. 이 事件은 다음과 같이 展開되었다. 1966年 5月 造反外交路線에 따라 中共은 香港에서 暴動을 策勵하였다. 이때 中共記者가 체포되자 中共에서는 北京駐在 英國記者를 逮捕함으로써 보복했고 다시 6月 9日에 英國의 北京連絡所를 包圍하였다. 6月 24日에는 人民日報에 上記 글이 실렸고 8月 24日에는 드디어 英國의 北京連絡所를 불태워 버렸다. 尹慶龍, 「中共外交與 對外關係」, p.42.

批判대로 中共의 對外關係에도 커다란 打擊을 안겨 준 理論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造反外交論은 理論的인 脈絡에서만 보면, 中間地帶論이 深化된 形態였다고 할 수 있다. 中共은 後期中間地帶論 - 第1 中間地帶와 第2 中間地帶로 나눈 뒤 - 에서 反美·反蘇를 對外政策의 基本戰略方針으로 設定하였으나 곧 이어 文化大革命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對內體制性格에 맞는 새로운 理論段階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對內的인 權力斗争으로서의 反修正主義斗争은 對外的인 「造反」까지도 合理化시켜야 했기 때문에 「社會主義의 堡壘」의 概念이 登場하게 된 것이다. 「社會主義의 堡壘」로서의 矜持는 中共中心思想 - 共產主義的 中華思想 - 을 나왔고, 이로써 中共은 이데올로기의으로는 蘇聯을 競争者以下の 存在로까지 認識하게 된 것이다.

造反外交가 가져온 問題點과 破壞的인 結果는 至大한 것이었으나 造反外交時期의 中共으로서는 「中華의 榮光 再現」 - 幻想일 망정 - 을 強하게 意識하기 始作했고 「中華의 榮光 再現」의 意志는 造反外交를 清算하고 드디어 對美接近 등을 통한 強大國으로의 발돋움을 催促했던 것이다. 要컨대 70年代의 中共外交의 方向과 「修正主義的」³⁸⁾ 特性을 결정지워 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極左派들의 造反外交論이었던 것이다.

註38) 中共을 修正主義로 規定한 것은 알바니아勞動黨第一書記엔베르 호자였다. Enver Hoxha, Imperialism and the Revolution (Chicago: Central Organization of U.S. Marxist-Leninists, 1979), pp. 76-86 參照.

第四章 三世界論과 中共의 國際秩序觀

第一節 三世界論 展開의 背景

가. 社会帝国主義 非難과 造反外交의 後遺症 收拾

文化大革命期間동안 中共은 「社会主義의 堡壘」 「世界革命의 兵器廠」을 自處하면서, 國家 및 黨次元의 外交方式보다는 소위 「人民外交」(People's Diplomacy)方式을 통해 「世界의 革命的 人民」들에게 「反美·反蘇」를 高唱하여 왔다.¹⁾ 그러나 中共의 「造反外交」는 蘇聯軍의 체코進駐를 契機로 終末을 告했다. 즉 1968年 8月 20日 蘇聯軍의 체코進駐를 본 中共은 自國의 安保를 爲해서는 「人民外交」方式에 의한 「造反外交」를 清算하고 國家 및 黨次元의 外交活動을 통한 反蘇國際統一戰線의 形成이 必要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中共의 國家 및 黨次元의 外交活動은 蘇聯軍의 체코進駐 3日後인

註 1) 「革命的 人民」들을 對象으로 한 「人民外交」와 「反美·反蘇」煽動에도 불구하고 文化大革命期間동안 中共으로부터의 「革命輸出」은 없었다. 이는 "革命은 内部로부터 自生的으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毛沢東의 對外革命觀에 起因한 結果였다. 革命의 輸出을 否認하고 自力에 의한 鬭爭을 強調하는 中共의 立場은 林彪의 「人民戰爭勝利萬歲」라는 論文을 통해 文革以前인 1965年 10月 1日에 이미 상세하게 闡明되었었다. 林彪의 論文은 「紅旗」, 1967.12. PP.17-42 또는 「林彪專輯」(香港: 自聯出版社, 1970), PP.215-260에 收錄

1968年 8月 23日 駐中共 루마니아大使館에서 열린 루마니아 國慶
節宴會에서 周恩來가 「社会帝國主義」非難을 開始하면서 부터 再開
되었다. 演說에서 周恩來는 蘇聯指導部를 "過去의 히틀러와 똑같
은 者들" - 從來에는 美國大統領을 非難할 때만 쓰여지던 - 이
라고 呼稱하면서, "蘇聯의 修正主義 背信者集團은 오래前부터 社会帝
國主義者·社会파쇼分子로 轉落해왔다"고 主張했다. 그는 또한 蘇聯
의 체코進駐는 美國의 諒解下에 이루어진 것인 바, 美國의 諒解는
美國의 越南侵略을 蘇聯이 諒解하는 條件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主張했다. 「社会帝國主義」와 「美·蘇의 野合」論理에 基礎하여
周恩來는 루마니아가 蘇聯軍의 체코進入後 取한 措置 - 人民動員
會 - 를 主權과 獨立을 위한 偉대한 措置라고 찬양하면서 루마
니아와 中共의 結束을 主張하였다. 2)

루마니아와의 結束을 主張한 周恩來의 社会帝國主義反對外交는
1968年 10月 2日 越盟의 國慶節行事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周恩來
는 蘇聯軍의 체코進駐를 「美·蘇의 野合」結果라고 前提한 뒤
"蘇聯의 修正主義 背信者들은.....한때 存在했었던 社会主義陣營을
오래전부터 破壞해왔다" 3) 고 主張하므로써 對蘇非難의 「톤」을 높
였다.

註 2) Yahuda, op.cit., PP.205-206, 「社会帝國主義」에 대한 非
難은 1968年 8月 23日字 「人民日報」에서도 있었다.

3) Peking Review, No.36(1968), PP.6 - 7

그런데 二次에 걸친 周恩來의 對蘇非難演說과 人民日報의 글에서 注目할 만한 事實은, 蘇聯의 對中共 軍事的인 威脅이 指摘되지 않고 있다는 點이었다. 이는 中共이 蘇聯의 체코進駐를 크게 두려워 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共產圈과의 國家 및 黨次元의 外交用으로만 活用하려 했다는 뜻이 된다. 바꾸어 말해서 東歐등 共產國家를 / 蘇聯의 影響圈에서 빼어내는 대신 中共과의 結束을 強化하려 했다는 것이다. 例컨대 1968年 9月 17日 中共은 와르쏘條約機構를 脫退한 알바니아에 보낸 祝電에서 "美帝國主義와 蘇聯修正主義를 反對하는 하나의 새로운 歷史的 時期가 이미 開始되었다" 라고 하면서 알바니아의 와르쏘條約機構 脫退를 支持하므로서 南슬라브地域國家들과의 國家關係를 改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⁴⁾

그러나 蘇聯의 체코進駐를 正當化하기 위한 브레즈네프의 「制限主權論」⁵⁾ 이 公式的으로 表明되고, 蘇聯軍隊가 中·蘇國境地帶로 移動하고 있다는 情報를 入手하게 되자 中共은 蘇聯으로 부터 加해질 수 있는 軍事的 行動의 可能性을 우려하기 始作했다.⁶⁾ 이에 1968年 10月 1日 國慶節演說에서 周恩來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警戒를 強化하고 戰爭에 대한 對備態勢를 갖추

註 4) 尹慶耀, 「中共外交與對外關係」, P.44

5) 「制限主權論」의 內容에 대해서는 Rubinstein, Foreign Policy, PP.302-305 參照

6) Rice, op.cit., PP.461-462; Yanuda, op.cit., P.206

어야 한다. 그래야만 美帝國主義와 蘇聯修正主義 및 그 走狗들에 의해서 一個別的으로 또는 集團的으로 加해질지 모르는 侵略的 行動을 아무때나 粉碎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敵들이 우리 祖國에 대하여 侵略을 敢行한다면, 文化大革命으로 어느때보다 強力해진 七億의 中共人民들은 틀림없이 그들을 決定的으로, 徹底하게, 모조리, 완벽하게 쓸어 내버리고 말 것이다." 7)

蘇聯으로 부터의 軍事的 威脅을 感知한 中共은 알바니아와는 軍事的 協助를 緊密히 하고 8) 유고와는 貿易關係를 開設 9) 하는등 脫蘇 東歐共產國家들에 積極的으로 接近하는 한편 美國에 대해서도 平和攻勢를 展開하기 始作했다. 越盟에 對한 北爆의 全面中止를 宣言한 1968年10月31日字 존슨 美大統領의 聲明과 이에 對한 越盟의 11月2日字 聲明을 11月3日字 人民日報에 論評없이 同時에 掲載하였다. 이어서 1968年 11月26日에는 外交部代辦人 聲明을 통해 닉슨 大統領이 就任한 以後인 1969年2月20日에 워르쑈에서 第135次 中·美大使級會談을 再開하자고 促求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註7) Peking Review, No.40(1968), P.15

8) 尹慶耀, 「中共外交与對外關係」, P.44, 1968年10月4日 알바니아代表團의 中共訪問을 환영하는 群衆集會에서 總參謀長 黃永勝은 알바니아와 中共이 共히 蘇聯으로부터 軍事的威脅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兩國의 結束을 強調했다. 이 點에 대해서는 Peking Review, No.41(1968), P.9

9) 中共은 1968年6月以後 유고에 對한 修正主義 非難을 中止하고, 蘇聯의 체코進駐 以後에는 貿易關係開設을 推進하여 1969年2月 유고代表團의 中共訪問이 있었다. Yahuda, op.cit., P.207 參照

" 지난 13年 동안 中·美大使級會談을 해오면서 中國政府는 다음 두가지 原則을 一貫해서 主張해왔다. 즉, 첫째 美國政府는 中國의 領土인 台灣省과 台灣海峽에서 軍隊를 즉각 撤收하고 台灣省에 設置된 모든 軍事施設을 撤去할것. 둘째 中國과 美國이 平和共存五原則에 立脚하여 이 問題를 妥決하는 데 美國政府가 同意할 것을 主張해 왔었다".¹⁰⁾

上記 聲明은 세가지 點에서 注目할 만한 것이다.

첫째, 1955年 5月 23日, 반둥會議期間중, 周恩來가 發表한 對美聲明도 美國과의 敵對關係를 緩和시키려는 意圖에서 나왔으며 당시 中共이 平和共存五原則을 高唱하던 時期인데도 불구하고 平和共存原則에 對한 言及이 없었는 데 反해 11月 26日 上記 聲明은 平和共存五原則을 云謂하고 있다는 點이다. 文化大革命以後 最初로 平和共存五原則을 云謂했다는 點에서도 特異한 일이지만 그 對象이 美國이었다는 點에서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中共의 對外政策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事實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中·美大使級會談이 1955년부터 열리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秘密이기는 했으나 1960年代를 一貫해서 中共側에 의해 公開的으로 言及된 적이 없었던 데 比해, 이를 公開的으로 拳論했다는 點이 注目된다. 대체로 3個月 간격으로 開催되어 오던 中·美大使級會談은 13.1次會談(1966.9.7)까지는 正常的으로 開催되어 오다가

註10) Peking Review, No.48(1968), PP.30-31

文化大革命期間동안 不規則的으로 開催되었었다. 그러나 134次會談이 1968年1月8日 開催된 바 있었던 點을 勘案하면 135次會談을 굳이 公的으로 要求할 特別한 理由가 없었던 것이다.

셋째, 닉슨이 大統領에 就任한 以後를 中·美大使級會談再開의 時期로 提示했다는 點이다.

1969年 2月20日로 豫定된 會談은 네델란드駐在 1月24日字 中共外交官 廖和叔의 美国亡命事件으로 中共側에 의해 延期됨¹¹⁾에 따라 流産되고 말았지만, 文化大革命以後 最初로 平和共存五原則을 拳論하고 더구나 美国에 對해서 까지 平和共存五原則을 適用하겠다는 立場을 表明한 것은 비단 對美用일 뿐만 아니라 全外國을 相對로 한 것이었다고 解釋할 수 있는 바, 中共外交에 있어서 重大한 變化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變化의 原因은 무엇이었는가? 蘇聯軍의 체코進駐와 때를 같이하여 美国의 對中共政策 可能性이 보이기 始作하므로서 中共은 對蘇關係를 再定立할 必要가 생긴 것이다. 즉 制限主權論을 主張하면서 「社會主義兄弟國家」에 對한 干涉을 公公연히 하는 蘇聯이기 때문에 中共에 對해서도 軍事的 行動을 取할 可能

註 11) 廖和叔의 台灣亡命에 對하여 1969年2月19日 中共은 外交部代辯人聲明을 통해 美国政府가 亡命을 誘導했다고 非難하면서도 135次 會談은 時期에 拘碍받지 말고 적당한 時期에 다시 열것을 要求했다. 135次 會談은 1970年1月20日에 열렸다.

「中共總覽」(서울: 國土統一院, 1973), P.202, P.555 參照

性は 얼마든지 있다고 判断하고 있던 中共에게 있어서 美国의 对中共政策 变化조짐은 对美接近의 可能性을 示唆해주고 있었다.

越南戰에서의 中·蘇聯合行動을 提議해 온 蘇聯을 공개적으로 非難하고 나선 1965年11月11日字 中共의 反駁文이¹²⁾ 發表되고 난 뒤 西方에서는 中·蘇의 分裂을 既定事實로 認定했고, 특히 美国에서는 이 關係를 利用해 보려고 했었다. 1966年3月 美下院外交委員會 極東·環太平洋小委員會가 開催한 아시아政策聽聞會에서는 对中共和解論과 对中共接觸論이 나오는등 对中共柔軟政策이 論議된 바 있다.¹³⁾ 뿐만 아니라 1963年10月 닉슨은 Foreign Affairs 誌에 寄稿한 論文에서 中国의 現實을 認定해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政策的 变化可能性은 越南戰에 臨하는 美国의 態度에서도 中共側에 의하여 感知되었다. 즉 中共은 美国이 越盟과의 戰爭에 50萬의 兵力을 投入하고도 「人民戰爭」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对內的인 反戰與論 때문에 越南으로 부터 명예로운 撤収의 名分만을 찾고 있음을 看破했던 것이다.¹⁴⁾

註 12) 第五章 第五節 造反外交論, 가. 造反外交論展開過程 및 中共의 对外關係 註 6) 參照

13) 尹慶耀, 「中共外交与对外關係」, P.45 : 「中共總覽」, P.190 參照

14) Yahuda, op.cit., PP.203-204: Barnett, Uncertain Passage, P.276 越南戰爭에서의 美国의 戰略变化와 이에따른 蘇聯의 아시아政策에 대한 中共側의 評價는 Peking Review, No.10 (1966), PP.3-4, No.15(1966), PP.6-8 參照

美國의 對아시아政策 變化可能性을 前提로 美國의 힘을 빌려 소련을 牽制하려는 中共의 對美政策은¹⁵⁾ 「以夷制夷」의 發想이라고 할 수 있으며 中共의 對外政策에서의 커다란 變化였다. 이는 中共의 主敵이 美國이 아닌 蘇聯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었다.

中共指導部の 이러한 政策變化는 党九全大會에서 認准을 받음으로써 公式化했다. 1969年4月1日부터 24日까지 열렸던 党九全大會에서 政治報告를 통해 林彪는 다음과 같은 矛盾論을 展開하므로서 反蘇政策을 正当化하려 했다.

"오늘날 世界에는 四大矛盾이 存在하고 있다. 被压迫 民族과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 사이의 矛盾, 資本主義·修正主義國家內部的 無產階級과 資產階級 사이의 矛盾, 帝國主義國家와 社會帝國主義사이 및 帝國主義國家들 사이의 矛盾, 社會主義國家와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사이의 矛盾이 存在하고 있는 것이다."¹⁶⁾

帝國主義와 社會帝國主義, 資本主義와 修正主義를 同列視하면서도 「帝國主義國家와 社會帝國主義 사이의 矛盾」을 指摘한 것은 美·蘇間에 協助와 葛藤關係가 併存하고 있음을 意識하여 이를 利用,

註 15) 이 問題에 對해서 毛沢東과 林彪는 立場을 달리했는데, 對內政治的 狀況과 關係되는 問題로서 中共의 對美接近·和解過程을 論할때 詳述하기로 한다.

16) Lin Piao, "Report to the Nin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eking Review, No.18(1969), PP.16-35: 「人民日報」, 1969.4.28

「聯美制蘇」하겠다는 뜻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矛盾論에 立脚하여 林彪는 1) 社會主義陣營으로부터 蘇聯 逐出, 2) 革命鬪爭支援 3) 平和共存을 中共對外政策의 三項原則으로 提示했다.

마지막 原則으로 提示되기는 했으나 「平和共存」이 對外政策의 一原則으로 採択된 후 中共의 外交는 文化大革命期の 孤立을 打破하기 위한 方向에서 積極化하기 始作했다. 周恩來系列의 職業外交官들이 文革期間동안 비워두었던 海外公館에 다시 復歸하기 始作하는 한편, 北京駐在 外交官 및 外國人들에 對한 待遇도 公손해지기 始作했다. 歸任 또는 新任의 周恩來系列 外交官들은 駐在國과의 外交關係를 再開함에 있어 革命的인 言動을 一切 自制하는 反面 극히 外交的이고 專問的인 問題들만을 拳論하므로써 駐在國의 好感과 信任을 얻기 始作했다. 17)

이와같은 새로운 外交活動 指針의 結果로 中共은 과거 樹交國과의 外交關係 再開는 물론, 樹交의 範圍를 급격히 擴大해 나갔다.

그중에서 캐나다와의 外交關係樹立(1970.10.13)은 中共外交에 있어 分水嶺을 이루는 事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와 大使級外交關係 樹立問題를 論議하는 자리에서 中共은 重大한 양보를 했던 것이다. 즉 中共은 캐나다로 하여금 台灣에 對한 中共의 主權을 認定하도록 要求하지 않고, "中共의 台灣에 對한 主權主張

註 17) Barnett, Uncertain Passage, P.272. 大使들의 赴任은 1969年 5月中旬 알바니아 大使에 耿驤가 任命된 것을 始發로 하여 2-3個月 以內에 불란서, 루마니아, 越盟, 에멘 등 16個國을 相對로 이루어졌다. Chen, op.cit., P.35

을 캐나다가 注目한다"는 條件을 受諾했던 것이다. 이러한 先例는 많은 國家들로 하여금 中共承認을 考慮하게 하는 端緒가 되었고, 1970年末 칠레가 中共을 承認할 것을 決定(1971.1.5 樹交)하자 各國이 앞을 다투어 中共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것을 決定하므로써, UN에 加入하게 된 1971년까지 中共은 약 60個國과 外交關係를 가지게 되었다. 18) UN加入은 後述할 強大國들의 中共承認에 힘입은 바 크지만, 群少國家들과의 外交關係樹立도 크게 作用했음이 分明하다.

造反外交의 後遺症을 收拾하기 위하여 非이데올로기의인 實用主義에 立脚한 對外活動을 展開하면서도 中共은 開發途上國家들 사이에서 主導權을 掌握하기 위한 努力을 그치지 않았다. 19) 「中間地帶」에서의 主導權 掌握을 위하여 中共은 國際問題에 있어서 보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立場을 取하므로써 強大國에 맞서는 한편, 「第二中間地帶」에 속하는 歐羅巴國家들과의 關係改善에도 總力を 傾注하였다.

註 18) Barnett, Uncertain Passage, P.273

19) 그러나 文化大革命以後 第一中間地帶에 대한 中共의 外交 - 특히 造反外交期에 - 는 文化大革命前에 比해 그 強度가 크게 줄어들었음이 특징적이다. 이는 鄭鍾旭教授가 指摘하듯이 林彪의 九全大會政治報告中 四大矛盾에서 「弱少國家 및 開發途上國家들과 帝國主義國家들 사이의 矛盾」이 빠질 정도로 政策的 比重이 이미 낮게 잡혀져 있었던 때문이다. 鄭鍾旭, "中共의 外交政策과 韓半島",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I卷, 第2号(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1979.9), P.51 參照(以下 "外交政策"으로 略記)

70年代初의 中共外交는 中共의 國際的 地位를 浮上시키기 위한 總力戰이었으며, 이를 위해 中共은 過去 그들이 非難해 하지 않던 右傾機會主義마저 서슴치 않고 犯했던 것이다.

나. 林彪의 肅清과 對美·對日 接近

第一中間地帶와 第二中間地帶에 對한 積極적인 接近 結果 中共의 國際的 地位가 크게 浮上된 것은 否認할 수 없으나, 中共이 強大國의 地位로 까지 格上될 수 있었던 決定的인 原因은 東北亞의 反蘇 強大國인 美·日에 對한 接近과 和解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

中共의 對美接近과 和解問題는 其實 中共의 主導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美國의 主導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5年 11月11日 中共이 越南戰에서의 中·蘇聯合 行動을 提議한 蘇聯을 反駁한 뒤, 西方 특히 美國이 中·蘇의 紛裂을 確認하고 이를 利用하려 했으며, 1966年 3月부터 美國의 對中共政策의 變化 조짐이 있었음은 이미 指摘한 바 있다.

美國의 對中共姿勢가 바뀌고 蘇聯의 對中共壓力이 強化되는 狀況에서 毛沢東은 對美接近을 摸索하였다. 對美接近 希望을 內容으로 하는 1968年 11月26日字 外交部代辯人 聲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毛沢東의 이러한 政策的 立場 때문이었으며, 1970年 12月12日 에드가 스노우를 만난 자리에서 毛沢東이 美國의 左派는 물론 닉슨

註 20) Barnett, Uncertain Passage, P.274

大統領까지도 그가 中國에 온다면 환영하겠다는 立場²¹⁾을 밝힌 것도 같은 理由에서 였다

그러나 이러한 毛沢東의 立場은 쉽사리 政策으로 執行될 수 없었다. 1966年부터 1971年까지의 期間동안 林彪의 政治的 影響力은 대단한 것이었다. 특히 文化大革命期間동안에 伸張된 勢力을 背景으로 九全大會를 통해 黨副主席이 된 1969年 4月부터 肅清될 때까지의 期間동안 - 소위 毛·林體制期 - 林彪는 對內政策뿐 아니라 對外政策面에서도 毛沢東과 對立的인 立場을 取했었다. 즉 林彪는 對美接近을 構想하는 毛沢東과는 달리 文化大革命期の 造反外交路線을 主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造反外交의 後遺症을 收拾하기 위하여 平和共存五原則을 主張하는 周恩來에 對해서도 심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對美接近問題에 對해서는 強力한 反對立場을 取하고 있었다. 美國이야말로 모든 國際統一戰線의 攻擊對象이며 「反美」는 「反蘇」보다도 優先한다는 主張을 하였던 것이다. 22)

對外政策에 있어서 文化大革命期の 造反外交路線을 主張하는 理由는 一応 간단한 것이었다. 文化大革命의 結實인 九全大會 以後의 體制속에서 林彪가 自己의 權限을 더욱 強化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極左路線을 強力하게 밀고 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平和共存五原則」이니 對美接近이니 하는 方向으로 對外政策이 기울게 되면 對內體制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며, 그것은 바로 林彪의 失

註 21) Snow, China's Long Revolution, P.146

22) Yahuda, op.cit., P.221

權으로 歸結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23)

軍部를 背景으로 한 林彪의 強力한 反對에 부딪혀 있었던 毛沢東이 對美接近政策을 서서히 實踐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反林彪 쿠데타計劃이 確定되어 그 첫케이스로 林彪系列의 陳伯達에 對한 肅清을 끝낸 1971年 봄 以後의 일이며 毛沢東이 완전히 自由로운 분위기에서 周恩來와 손잡고 對美接近을 적극 推進할 수 있었던 것은 1971年 9月 林彪肅清 以後의 일이었다. 24)

中共內에서 毛沢東과 林彪의 權力鬭爭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美國에서는 이미 1967年부터 中國의 現實을 認定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는 닉슨이 大統領에 就任한 뒤, 보다 적극적인 對中共政策을 展開하고 있었다. 1969年 7月 25日 닉슨의 「팜·독트린」이 發表된 뒤 美國은 中共과의 對話回復을 위한 布石으로서 中共에 對해 友好的인 措置들을 取했다. 例컨대 中共旅行制限緩和 및 100 弗미만의 中共產 廢物搬入許容(1969.9.21), 美國系 海外企業의 對中共 非戰略物資 去來許容 및 中共產 廢物搬入制限撤廢(1969.12.19), 第七艦隊의 台灣海峽 巡察緩和(1969.12.24) 등에 이어

註23) Ibid., P.223

24) 林彪肅清過程은 對內政治權力鬭爭의 하나였던 고로 本稿에서는 論及을 피하고 그 結果가 對外政策에 미친 영향만을 論한다. 林彪肅清問題에 대한 자세한 分析은 Jaap Van Ginnekan, The Rise and Fall of Lin Piao (London: Penguin books, 1976) Michael Y.M.Kau, The Lin Piao Affair (White Plains: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1975) 參照

1971年 2月 25日에는 닉슨이 議會報告를 통해 中共을 「中華人民共和國」으로 呼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71年 3月 15日 美國務省은 中共本土에의 旅行制限을 완전히 撤廢하는 措置를 取하기도 하였다. 25)

林彪集團에 對한 肅清準備가 끝난 뒤라고 할 수 있는 1971年 4月 7日, 中共은 美國의 탁구團을 招請하므로써 美國의 對中共 友好的 措置에 對한 反應을 보이기 始作했다. 이에 4月 14日에는 中·美關係改善을 위한 닉슨의 5個項²⁶⁾이 發表되고, 4月 16日에는 닉슨의 中共訪問希望이 記者會見 形式으로 表明되었다. 美國의 對中共接近을 위한 措置는 台灣問題의 拳論으로까지 擴大되었다. 즉 4月 28日字 美國務省代辯人聲明을 통해 "台灣과 澎湖列島의 主權이 未解決 問題로 남아있다"라고 하므로써 美國은 台灣問題에 對한 中

註 25) 美國의 對中共政策과 美·中共 相互關係의 初期展開過程에 對해서는 Barnett, A New U.S. Policy toward China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1): Richard Moorsteen and Morton Abramowitz, Remarking China Policy: U.S. - China Relations and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Roderick Macfarquar et al., Sino-American Relations, 1949-1971 (New York: Praeger, 1972) 參照

26) 닉슨의 5個項은 1) 中共人에게 美國入國查證發給, 2) 中共人의 美貨使用認定, 3) 中共發着 航空機 및 船舶에 對한 美會社의 給油許容, 4) 中共港口를 제외한 港口와 美國港口間의 美國船舶의 中共貨物運設許容, 5) 對中共 輸出非戰略物資의 리스트作成 등이었다.

共의 主張에 同意할 意思가 있는듯한 여운을 남겼던 것이다. 이
에 對해 6月21日 周恩來는 中共訪問 美記者와의 인터뷰에서 "美
國이 台灣에서 손을 빼면 美·中共問題의 解決이 可能하다"고 応
手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이루어진 키신저의 中共訪問 및 키신저·周
恩來會談 (1971.7.11)과 中共의 닉슨招請計劃 發表 (1971.7.1)
는 그다지 衝激的인 事件이 되지 못하였다. 이미 예상한대로 였
기 때문이다. 또한 1971年8月2日 로저스美國務長官이 中共의
UN參加를 支持한다는 立場을 밝혔을 때나, 10月25日 中共이 UN
에 加入했을 때도 世上은 놀라지 않았다. 1972年 2月21日 닉
슨의 中共訪問과 上海共同聲明 (1971.2.28) 發表로 美·中共關係
는 和解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27)

닉슨·周恩來會談 結果인 上海共同聲明은 東北亞 國際政治秩序의
새로운 章을 여는 端緒가 되었다. 우선 上海共同聲明에서는 美·
中共間의 直接交易·文化交流·外交接觸強化 (但 公式的인 外交關係樹
立은 없이)를 規定하므로써 中·美關係의 新局面을 豫告했지만, 보
다 重要한 것은 上海共同聲明으로 中·美가 相互間에 肯定的인 立
場을 取하기 시작하므로써 終局的으로는 關係正常化에 이르리라는
展望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展望과 關聯하여 提起되는
問題가 台灣問題였다. 물론 上海共同聲明에서도 20年以上을 끌어온

註 27) 上海共同聲明의 政治的 意味에 對한 간단한 分析은 Yahuda,
op.cit., PP.228-232 參照

台灣問題에 대한 快刀亂麻的인 決定을 내리지 못하고 暫定的으로 不問에 붙인다는 原則만이 表明되었지만, 中共이 從來의 主張에서 양보하여 台灣問題에 대한 明確한 規定없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受諾했다는 것은, 中共外交가 이데올로기 보다는 現實的인 方向으로 展開된다는 徵表로서 解釋될 수 있었기 때문에 國際政治的으로는 커다란 意味를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方式은 이미 1970年 10月 캐나다와의 外交關係樹立過程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台灣問題의 「當事者」로서의 美國과의 關係에까지 적용되었다는 데에서 그 政治的 意味가 더욱 컸던 것이다.

닉슨의 中共訪問을 前後한 中·美關係의 進展은 아시아問題에 利害關係가 있는 大小國家들로 하여금 그들의 對中共政策과 姿勢를 再定立하도록 強要하였다. 더구나 中·日關係改善의 기미마저 보이자 소련은 對美·日外交를 強化하는 등 민감한 反應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28)

그러면 먼저 中·日接近過程을 考察해보기로 한다.

1967年以後 日本經濟는 急成長을 계속하므로써 아시아에서 政治·經濟的으로 影響力있는 國家로 浮上하기 始作했다. 日本의 이러한

註 28) Barnett, Uncertain Passage, PP.277-278. 대부분의 國家들이 中共의 對美接近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中共은 越盟에 對하여 中共의 對美接近狀況을 수시로 說明하는등 特別措置를 取했다. 이는 當時 Paris 會談에 參加하고 있던 越盟이 中共의 對美接近 및 和解에 反撥하여 親蘇化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對美接近期 中共의 對越盟政策에 對한 간단한 論議는 Chen, op. cit., PP.36-39 參照

政治・經濟的 成長을 가장 注視하고 있는 것은 中共이었다. 中共의 對日警戒心은 歷史的인 經驗에서 볼 때 一応 一理있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1969年 11月 21日 닉슨・佐藤共同聲明이 發表된 後 中共은 敏感한 反應을 나타내기 始作했다. 닉슨・佐藤聲明에서는 "台灣地域과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한 條件"임을 確認하고 있었는데, 中共은 여기에서 日本이 장차 美國을 代理하여 韓國과 台灣의 安保를 責任지게 되리라는 暗示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中共은 日本의 「再武裝陰謀」를 非難하면서 「軍國主義復活企圖」에 對한 攻擊을 開始했다. 29)

日本의 「軍國主義復活」과 「再武裝陰謀」를 糾彈하면서도, 中共은 日本과의 關係를 調整하려는 現實的인 努力을 併行했다. 즉 1970年 4月 19日 周恩來는 松村謙三을 團長으로 하는 中共訪問團과의 會見에서 이른바 「日・中貿易의 四原則」³⁰⁾을 提示하여 貿易面에서 日本의 「軍國主義化」를 阻止하려 했고, 人民外交方式을 통한 侵透로 公明黨 中心의 日・中國交關係正常化國民協議會(1970.12.13), 社會黨 中心의 日・中國交正常化國民會議(1971.2.16)를 組織케 하

註 29) 「人民日報」, 1969.11.28, 12.28, 1970.4.9 參照 특히 「人民日報」, 1970.4.9 에는 周恩來의 平壤訪問時 署名(1970.4.7)한 北韓・中共 共同聲明이 收錄되어 있음.

30) 周恩來 四原則은 1) 台灣과 韓國의 反共立場을 支持하는 製造業者, 2) 台灣과 韓國에 多額投資하고 있는 製造業者, 3) 越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武器를 輸送하거나, 反共政府 및 美國과 協力・協助하고 있는 製造業者, 4) 日本所在 美・日 合作企業 및 美國의 子會社 등과는 去來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는 등 多方面的인 關係調整作業을 서둘렀다. 31) 그러면 中共의 對日接近政策 推進의 背景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當時의 國際情勢를 勘案하면 中共은 두가지 目的에서 對日接近을 試圖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日本과의 關係를 改善하지 않으면 日本이 보다 더 빠른 時日內에 對中共 威脅的인 存在로 浮上하리라는 判斷에서, 對日 懷柔를 통해 「軍國主義化」를 阻止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過程을 거쳐 日·中關係가 正常化되면 中共의 對蘇牽制力이 그만큼 強化될 수 있다는 判斷에서 對蘇牽制力을 強化하기 위해서 였다고 할 수 있다. 32)

對日接近의 目的이 이와같이 對蘇戰略的인 性格의 것이었기 때문에, 自然히 對美接近과 併行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美國의 對中共接近姿勢가 積極적임을 確認한 中共은 키신저訪問과 닉슨訪問의 中間時点を 挾해 日本의 「再武裝陰謀」 反對宣傳의 「톤」을 높이는 한편, 누가 佐藤榮作의 後任이 되든 그와 더불어 關係正常化를 論議할 用意가 있다는 立場을 表明하는 등 二重外交를 展開했다. 33)

한편 日本에서는 어떠한 反應을 보였는가? 닉슨의 中共訪問과 上海共同聲明이 日本과의 一言半句 協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當時 日本新聞들은 닉슨의 中共訪問을 「닉슨쇼크」라고까지 稱했다. 아시아 및 世界에서의 日本의 位置를 定立할 것을 要求하는

註 31) 「中共總覽」, PP.219-220

32) Barnett, Uncertain Passage, PP.275-276

33) Ibid., PP.277-278

与論의 压力을 意識한 日本政府는 「메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초조한 心情」³⁴⁾에서 对中共接近을 적극적으로 推進했다. 前外相 三木武夫를 1972年 4月 4日 中共에 派遣하여 事前調整을 하도록 한 뒤, 佐藤榮作의 後任首相으로 당선된 田中角榮은 1972年 8月 8日 党内協議會에서 9月中 中共訪問計劃을 發表하고, 그뒤 9月 25日 北京에 到着한 田中角榮은 9月 29日 中共과의 共同声明을 통해 当日字로 中共과 外交關係를 樹立한다고 宣言하기에 이르렀다.

中共의 对美·日接近은 蘇聯의 对美·日接近을 刺戟했다. 蘇聯外相 그로미코가 1972年初 日本을 訪問하여 「日·蘇平和協定」問題를 再論하고, 시베리아 및 以東地域에서의 日·蘇經濟協力 可能性을 論議한 것은, 日本이 中共을 업고 아시아에서의 發言權을 強化하고 나아가서는 北方四個島嶼返還問題協商에서 对蘇 優位를 確保하려는 것을 阻止시키는 同時에 中·日關係의 中和로 中共의 영향력을 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바꾸어 말해서 中·日關係가 对蘇压力의 背景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意圖에서 취해진 訪日이었으며, 1972年 下半期の 美·蘇頂上會談 開催의 政治的 目的도 역시 对中共 牽制에 있었다. 中·美, 中·日接近에 对한 反應이 蘇聯側으로부터는 牽制의 形態로 나타났지만 東南亞國家들로부터는 善隣關係 摸索의 形態로 나타났다.³⁵⁾

中共의 对美·日接近으로 中共은 명실공히 아시아의 強大國으로 浮上했으며 世界的으로도 重大한 國家로 認識되게 되었다. 여기에 中

註 34) 尹慶權, 「中共外交与对外關係」, P.227

35) Ibid., P.229; Barnett, Uncertain Passage, P.278

共이 三世界論을 展開할 수 있게 된 國際政治的 土臺가 있는 것이다.

다. 矛盾論과 勢力均衡論의 結合

中·美, 中·日接近 및 和解에 이르는 過程은 東北亞에서의 中共의 位置가 급격히 浮上하므로써 中共이 政治的인 強大國으로 認定을 받아가는 過程이었다. 그 結果 中共의 對外政策은 全地球的인 次元에서 樹立되고 遂行되기 始作했다.

그러나 回顧하건대, 이러한 結果는 其實 中共의 二重外交의 所産이었을 뿐 中共의 主權上의 毀損과 交換된 것이 아니며 더구나 中共主導下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³⁶⁾, 敵들 사이의 矛盾關係를 利用한 結果였다고 할 수 있다.

60年代末 70年代初 中共의 國際情勢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中共은 美國이 二次大戰以後 一貫해온 「侵略的이고 膨脹主義的인 帝國主義政策」을 이미 追求할 수 없게 되었다고 判斷하고 있었다. 越南에서의 1968年 「테트」 攻勢以後 美國은 對內外的으로 궁지에 몰리기 始作하여 美弗貨의 評價切下와 國際貿易上의 赤字現象까지 나타났을 뿐 아니라, 西歐國家들이 經濟적으로 또는 外交적으로 脫美路線을 追求하므로써 美國의 國際政治的 力量은 매우 虛弱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소련이 美國代身 膨脹主義的인 帝國主義勢力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1968年

註36) Yahuda, op.cit., P.214

체코進駐以後 1968年과 1969年中·蘇国境地帶에서 对中共武力行使
를 遂行하므로써 「膨脹主義的인 野欲」을 노골화 했으며, 美国이 越
南戰이라는 늪에 발목이 빠져있는 틈을 타서 歐羅巴와 中東에 까지
도 소련의 影響力을 擴大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美·蘇間의
力量에 變化가 일고 있기 때문에 美国도 印度支那에서 撤収할 時期
와 方法만을 講究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2次世界大戰以後
一般的이었던 國際政治의 秩序가 급격히 變化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
이다. 37)

이를 통해서 본다면 60年代末 70年代初 中共은 兩大陣營論的 冷
戰論理를 완전히 脫皮했다고 할 수 있는 바, 그들이 認識한 國際政
治秩序의 심각한 變化와 그 展望을 다음과 같이 論議하였다.

" 60年代의 大混亂 大分化 大改組를 거쳐 世界의 革命力量이 壯
大해지고 階級戰線이 分明해졌다. ……앞으로는 (70年代는:筆者)
人民革命의 폭풍이 全世界的으로 더욱 크게 일어나는 年代가 될
것이다. 또한 帝國主義가 중첩된 矛盾속에서 加速적으로 崩壞되는
年代가 될 것이며, 全世界의 革命勢力과 反革命勢力사이의 極烈한
鬭爭이 進行되는 年代가 될 것이다." 38)

" 超強國들은 既往의 힘을 더욱 強化시켜 他國에 比하여 優越해지
려 하고, 나아가서는 他國에 主人노릇을 하려하고 있다. ……수많은
中·小國家들이 美帝國主義와 社會帝國主義라는 두개의 超強大國의

註 37) Ibid., P.216

38)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 1970.1.1, 共同元旦社論

強國政治에 反對하여 일어난 것은 이미 不可抗拒의 歷史潮流가 되어 버렸다. ……中國은 全世界無產階級 被壓迫人民 被壓迫民族과 같은 隊列에 굳세게 서있을 것이다. 中國은 언제까지나 超強大國이 되지 않을 것이다. 現在에도 超強大國이 아니며 앞으로도 영원히 안될 것이다." 39)

"세계의 일들은 商量(協議와 談判: 筆者)을 필요로 한다. 國內의 일은 國內人民들 自身이 解決하여야 하며, 國際間의 일들은 모두가 商量하여 解決해야지 兩大國에 의해서만 決定될 수는 없는 일이다." 40)

上記 引用文들은 中共이 當時의 國際情勢를 「天下大亂」으로 規定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中共은 世界가 보다 복잡하고 多元化된 狀況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만큼은 分明하나 새로 등장할 秩序의 類型이 과거와 같이 國際政治的인 對決·對峙를 基調로 한 形態는 아닐 것이라는 展望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如上한 國際情勢의 分析에서 注目할만한 것은 中共의 分析「틀」이 이미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概念에 立脚한 것이 아니라는 点이다. 즉 美·蘇間의 關係를 聯合과 鬭爭 또는 提携와 紛爭이 共存하는 關係로 把握하므로써, 國際政治를 政治·經濟學的인 概念에 의해서 解釋하는 傳統的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立場을 이

註 39)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 1971.1.1, 共同元旦社論

40)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 1972.1.1, 共同元旦社論

미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立場이 아니기는 하지만 能力 (Capabilities)이라는 概念으로 國際政治를 分析하지도 않고 있는 바 西方的인 分析들을 採択한 것도 아니다. 41)

中共의 70年代初 國際情勢分析을 통해서 볼 때, 中共이 國際政治를 分析하는 「틀」의 主概念 (Key Concept)은 「權力 (Power)」이지만, 그 論理的 前提는 「矛盾의 同一性和 鬭爭性」사이의 關係를 適宜 利用하여 中共의 國際政治的 位相을 變化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中·蘇間의 國境衝突事件 (1969.3)以後 國境會談을 開始 (1969.10.20. 北京)하고 中·美大使級會談의 再開를 서두르면서, 동시에 對內的으로 黨幹部와 黨員들에게 毛沢東의 論文 「論政策」(1940.12.25) 「關於重慶談判」(1945.10.17) 등에 對한 學習을 指示했다는 42) 事實이 立證을 해준다.

「論政策」과 「關於重慶談判」이라는 두편의 論文에 對한 學習을 指示한 意圖는 키신저의 中共訪問이 있고 난 뒤인, 1971年 7月 25日과 26日字 香港의 「文匯報」에 실린 글들과 「紅旗」 1971年 9月 號에 실린 論文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文匯報」는 「從重慶談判起」「美帝侵略本性不變」「毛主席對敵鬭爭的政策和策略」등의 글을 이들에 걸쳐 揭載하였다. 例컨대 그중에 「從重慶談判起」의 內容을 보면 "革命의 두손으로 反革命의 두손을 相對한다." "帝國主義 및 反動派와 談判을 進行하는 것이 곧 鬭爭이자, 바늘과 쇠뿔등

註 41) Yahuda, op.cit., P.216

42) 尹慶燿, 「中共外交與對外關係」, P.48

이로 相對하는 것이다." 43) 라는 點등이 強調되고 있다. 이는 毛 沢東의 戰術中의 하나인 「談談打打」를 強調하는 것이다. 44) 즉 中共政府의 對美接近 및 對日和解가 既往의 中共路線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點을 說得시켜 毛沢東의 對美·日接近에 對한 支持를 創造하려 했던 것이다.

「紅旗」에 掲載된 「團結人民戰勝敵人的強大武器 — 學習"論政策"」의 內容에서는 毛沢東이 이미 1940年 12月 25日에 發表한 「論政策」 45) 中의 "矛盾을 利用하여 多數를 爭取하고 少數에 反對하며 各個擊破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現實인 鬪爭가운데서 우리가 敵을 克服하고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銳利한 武器다"라는 句節과, "感情을 政策에 代替해서 쓸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라는 句節들이 46) 強調되고 있다. 이것 또한 對美·對日接近이 右傾機會

註 43) 「文匯報」, 1971.7.25

44) 二次大戰後 美國의 仲裁에 의한 國·共 協商이 進行되고 있을 때 重慶會談에 參席한 뒤 延安에 돌아온 毛沢東은 1945年 10月 17日 幹部會議에 의 報告를 통해 "우리들의 方針은 일찌기 定해진 바로서 바늘과 쇠뿔등을 교대로 써가면서 相對하되 寸土를 놓고도 鬪爭한다는 것이다. …… 바늘과 쇠뿔등을 교대로 쓰기 위해서는 形勢를 보아야 한다. 어느때는 談判하러 가지않고, 어느때는 談判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므로써 談判과 鬪爭을 戰術적으로 運用하는 問題를 論한 바 있다. 毛沢東, "關於重慶談判" 「選集」, 第四卷, PP.1054-1063 參照

45) Ibid., PP.720-728

46) 中國共產黨湖北省委員會寫作小組, "團結人民戰勝敵人的強大武器—學習「論政策」" 「紅旗」, 1971.9, PP.10-17

主義가 아니고 뚜렷한 政策方向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說得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抗日戰爭期 国民党과 「日本帝國主義」와의 矛盾을 利用하여 中共黨이 勝利할 수 있었던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서 對美·對日接近이 이루어질 것인즉 動搖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하겠다.

黨과 政府의 政策方向에 對한 合理化를 기하고 支持를 創造하려는 意圖에서 나왔으면서도, 이러한 政策的 立場은 바로 中共의 對外活動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美·日에 對한 接近은 美·蘇, 日·蘇의 矛盾을 利用한 것이었으며, 西歐등 第二世界에 接近할 때에는 그들의 脫美自主路線에 便乘 또는 脫美自主路線을 刺戟하였으며, 47) 第三世界에 接近할 때에는 그들의 強國政治 (Power Politics) 反對感情에 呼訴하였던 것이다. 또한 "日本을 養育한 것은 美國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日本이 美國을 凌加할 것"임을 強調하여 48) 美·日의 矛盾을 造作하려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것은 모두 中共以外的 國家들 相互間에 存在하는 矛盾을 利用한다는 原

註 47) 캐나다와 樹交할 때는 그들의 脫美路線을 찬양했고 (「人民日報」, 1970.10.15. 社論, "歡迎中加建交"), 이탈리아와 樹交할 때는 "美國이 中共을 孤立시키려 한 結果 오히려 逆으로 自身이 孤立되었다"라고 (「人民日報」, 1970.11.18. 社論, "歡迎中義建交") 하므로써 이탈리아의 親中共立場을 反美로 이끌려 했다.

48) "周總理同馬克斯韋爾的談話", (1971.11.20) 「中共機密文件彙編」(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8), P.335

則에 依한 것이었다. 49) 그리고 美·日에 接近하는 過程에서 中共이 宣傳的인 次元에서 또는 事實上 對美 對日 非難과 攻撃을 서슴치 않았음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이는 「談談打打」 戰術原則에 의한 것이었다. 50)

抗日戰爭期の 国民党과 日本사이에 끼어들어 国民党과 日本사이의 矛盾을 利用하므로써 쌍방의 힘을 弱화시키는 한편, 農民大衆에게는 国民党과 資本家·地主들의 彈壓을 非難하고 民族資本家 知識人들에게는 日本의 帝國主義를 糾彈하므로써 多數를 얻고 少數를 各個擊破해 온 經驗이 國際政治에 適用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点에서 中共의 共產化革命戰略·戰術은 中間地帶論에서 對外政策理論의 基底로 採択이 되었으나 70年代初의 反霸權主義外交에서 비로소 實踐에 옮겨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해서 「矛盾의 同一性和 鬭爭性」등 矛盾論的 概念에 立脚한 中共特有的 對外關係類型은 中共의 國際政治的 位置가 浮上한 뒤에 비로소 모습을 들어낼 수 있었던

註 49) 1971年12月 周恩來는 党内에서 한 國際情勢報告에서 당면한 10個問題를 拳論할때 7번째 問題인 「敵의 矛盾과 弱點을 충분히 이용하는 問題에 관하여」에서 "蘇·美矛盾, 美·日矛盾, 美國과 歐州의 矛盾을 모두 利用하여야 한다"는 것이 政策的 立場임을 說明한 바 있다. "周恩來關於國際形勢的報告", (1971.12), Ibid., P.354

50) 周恩來는 上記報告의 8번째 問題인 「革命의 두 손을 써서 反革命의 두 손을 막는다」는 問題를 말하면서 毛沢東이 이미 重慶談判에서 先例를 남겼을 뿐 아니라, "美國은 台灣과 印支를 侵略하면서 우리와 談判했고 蘇聯修正主義者들도 中·蘇國境에 百萬大軍을 布陣시켜놓고 동시에 우리와 國境談判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써 「談談打打」의 政策的 妥當性을 力說했다. Ibid.

것이다.

国内共產革命過程에서 有効했던 戰略戰術의 對外的 擴散適用을 摸索하던 期間동안, 中共에서는 「勢力均衡」이라는 視角에서 國際秩序를 論議하고 있었다. 當時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長이자 科學院院長이던 郭沫若이 1971年 中盤頃 한 外國人과의 非公式會見에서 美·蘇·歐州共同体·日本·中共을 뜻하는 「五星」(Five Pointed Star) 概念에 立脚하여 國際情勢를 論議한 바 있다.⁵¹⁾ 또한 周恩來도 1971年 11月 20日 英國作家 겸 記者인 넬빌·맥스웰과의 會見에서 「五種力量」을 云謂하였는 바, 그의 論議를 引用하여 본다.

"닉슨은 켄사스市에서 한 演說에서 戰後 26年동안 美國의 地位가 이렇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戰後初期와 같은 狀況은 꿈도 꿀 수 없이 되었다고 말했다. 蘇聯은 戰後 점차로 變하여 超強大國이 되어 美國과 다투고 있다. 第二中間地帶인 西歐에는 하나의 共同市場이 생겨나므로써 歐州의 工業發達國들이 聯合하여 美國과 다투고 있다. 이것이 세가지의 力量이다. 네번째의 力量은 日本이다. ... 닉슨大統領은 말하기를 다섯번째의 力量이 있는데 그것은 中國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中國은 하나의 潛在的 力量이라고 말했다. 히스 英國首相도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우리가 幾十年內에 發展하여 強盛한 國家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認定하는 바

註 51) East is Red, October 1971(York SACU), PP.6 - 10:

Ya huda, op.cit., P.217.

다. " 52)

周恩来自身이指摘하고 있듯이 이러한 論議는 닉슨에게서 影響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닉슨의 補佐官이었던 키신저가 勢力均衡概念에 立脚하여 國際政治를 分析하였음이 周知의 事實이고 보면, 中共의 對美接近은 中共의 國際政治的地位를 浮上시킨 以外에도 勢力均衡概念을 導入하게된 契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勢力均衡의 概念이 中共指導者들의 國際情勢分析에 援用되기 始作하므로써, 中共에서는 國際政治를 社會·經濟的인 原因分析의 立場에서 論하지 않고 勢力間의 關係 및 行態라는 視角에서 認識하게 되었다.⁵³⁾ 는 點은 一応 마르크스-레닌主義로부터의 「코페르니스의인 轉廻」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스튜어트·슈랍이 지적하고 있듯이, 毛沢東이 항상 효율적인 權力의 本質이라는 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고, 레닌主義的인 觀念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⁵⁴⁾ 點에서 보면 勢力均衡概念의 導入이 경탄할 정도의 事件은 아니다. 그러나 結果의 論理에서 볼 때, 勢力均衡概念의

註 52) " 周總理同馬克斯韋爾的談話 ", 「中共機密文件彙編」, PP.335-336. 周恩來와의 會見記가 掲載된 Sunday Times, London, 19 December 1971 에는 五種力量에 관한 內容이 누락되어 있다.

53) Yahuda, op. cit., P.218

54)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PP.90-114, PP.134-138 參照

導入이 反霸權主義國際統一戰線追求의 始端이⁵⁵⁾ 되고 나아가서 三世界論의 理論的 基礎를 提供했다는 点에서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三世界論이 단순한 勢力均衡概念에만 立脚하지 않고 矛盾論을 始發로 한 理論的 發展과 實踐을 통해서 中國戰國時代의 「合縱・連橫論」의 思考와 實踐까지⁵⁶⁾ 加味시키므로써 對外政策理論에서 中國古代로의 復歸現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歷史의 螺線形的 循環을 보게 되는 것이다.

註 55) 崔明, "中共의 外交政策과 그 形成要因", 「社会科学과 政策研究」 第I卷, 第2号, PP.27-28 그는 여기서 中共이 導入한 勢力均衡概念을 西歐的인 意味의 政治的・軍事的 힘의 均衡의 意味라기 보다는 中共의 利害가 직결된 地域에서 한 強大國에 의한 「霸權」의 設立을 反對한다는 意味에서 把握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56) 合縱・連橫論에 대한 簡略한 分析은 李用熙, 「政治와 政治思想」(서울: 一潮閣, 1960), PP.327-338. 보다 자세한 研究는 顧念先, 「縱橫家研究」(台北: 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69)를 各各 參照

第二節 三世界論의 理論的 展開

가. 霸權主義·超強國 概念의 規定과 主敵의 設定

오늘날의 中共이 對外政策理論으로 삼고 있는 三世界論은 1974年 2月 22日 잠비아大統領 카운다¹⁾와의 會談에서 毛澤東에 依해서 最初로 舉論되기 始作했다. 그러나 三世界論은 가깝게는 70年代初부터 中共이 推進해온 反霸權主義 外交政策이 理論化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먼저 中共의 反霸權主義 政策에 대한 考察이 先行되어야 한다.

60年代末 70年代初 中共은 國際政治秩序의 特徵을 論함에 있어 「大混亂·大分化·大改組」라는 말을 즐겨 使用하였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狀況을 念頭에 두고 한 말이었다.²⁾

첫째, 「帝國主義超強國」중 美國의 勢力은 戰後 衰落一路를 걸어 온데, 反해 蘇聯의 膨脹主義가 相對적으로 強化되어 美國代身 前列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美·蘇間의 力量轉化로 因하

註 1) 1977年 11月 1日까지만 해도 잠비아大統領 카운다는 「北京을 訪問한 아프리카의 指導者」로 밖에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알바니아가 中共의 三世界論에 對하여 크게 반발, 理論政勢를 積極化하자 中共의 高위관리 王炳南(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長)은 China Now(英·中友好協會機關誌)記者와의 會見에서 1974年 2月 22日 毛澤東을 만난 아프리카의 指導者가 누구냐는 質問에 카운다라고 答했다. Chen, op. cit., p. 41; Yahu-da, op. cit., p. 266 參照

2) Ibid., pp. 238-239

여 越南戰爭은 終結될 수 밖에 없이 되었으나 戰後 印度支那의 混亂은 相當期間 持續되리라는 것이다. 셋째, 美國이 越南戰爭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을 利用하여 蘇聯이 歐羅巴와 中東에 大舉進出하여 勢力圈을 形成하였으나 同地域에서 反蘇·反美運動이 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矛盾의 衝突·對立이 多面的으로 進行되고 있는 「天下大亂」의 時期에 즈음하여 周恩來는 1971年 12月 党内報告에서 「一個傾向」 「兩種可能」 「三個部分」 「四大矛盾」을 論하면서 國際統一戰線을 擴大하는 것이 對外政策의 目標임을 밝혔다.

周恩來의 論議에 따르면 “오늘날 世界의 主要한 傾向은 革命” (一個傾向)이지만, “革命이 戰爭을 抑止할 可能性과 革命으로 戰爭이 일어날 可能性(兩種可能)이 있는 한편, “美·蘇兩霸가 二部分을 이루고 第三世界(中共包含:筆者)가 또 하나의 部分을 이루고” (三個部分)있음으로써, “美·蘇兩霸와 全世界人民사이의 矛盾, 美·蘇가 世界霸權을 서로 爭奪하려는 데서 생기는 矛盾, 帝國主義 國家들 사이에 서로 經濟危機를 轉嫁시키려는 데서 생기는 矛盾, 中·小國家들이 聯合하여 美·蘇와 斗争하는 데서 생기는 矛盾” (四大矛盾)이 当代의 基本矛盾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³⁾ “英國 仏蘭西 西獨에 對해서 이제부터 非難을 줄이고 策略을 講究” 함으로써 第一中間地帶 第二中間地帶를 總網羅한 國際統一戰線을 結成

註3) “周恩來關於國際形勢的報告”(1971.12)「中共機密文件彙編」, p.349.

하여 美·蘇에 對抗하여야⁴⁾ 한다는 것이었다.

周恩來의 發言內容中 四大矛盾論은 1969年4月 党九全大會 政治報告를 한 林彪의 四大矛盾論과 差異를 보이고 있다. 첫째, 林彪는 「被壓迫人民과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사이의 矛盾」으로 表現했던 것을 周恩來는 「被壓迫人民」을 「全世界人民」으로 代置하고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를 「美·蘇」로 直稱하고 있다. 「被壓迫人民」을 「全世界人民」으로 代置하고 그 相對方面을 「美·蘇」로 規定한 것은 美·蘇의 「膨脹主義」의 政策이 「被壓迫」을 包含한 「全體人民」들의 抵抗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즉 中共의 「人民」들까지 包含한 「全體人民」들의 抵抗을 받고 있다는 暗示를 통해 中共의 對美·蘇關係를 基本的으로 矛盾關係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林彪는 「資本主義·修正主義國家內的 無產階級과 資產階級사이의 矛盾」을 第2位의 矛盾으로 配列하였으나 周恩來는 그의 四大矛盾論에서 이를 아예 削除하는 代身 「美·蘇의 矛盾」을 重視하였다. 이러한 代置 및 配列은 두 가지의 뜻을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階級的인 矛盾은 이미 主要한 矛盾이 아니라는 뜻과 中共의 對美·蘇關係에서 生기는 矛盾이 가장 重要하지만 美·蘇間의 矛盾 또한 深刻한 만큼 中共은 美·蘇間의 矛盾을 利用하면서 美·蘇에 抵抗하여야 한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註 4) Ibid., p. 353.

中共에서 1971年 中盤부터 勢力均衡이라는 概念에 立脚하여 國際秩序를 論議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社會·經濟的 分析을 하는 代身 勢力間의 關係 및 行態라는 視角에서 國際秩序를 分析하기 始作했음은 이미 指摘한 바 있다. 周恩来가 階級的인 矛盾을 削除한 것은 이러한 分析「들」의 變化의 結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勢力關係 및 行態를 重視한 結果로써 美·蘇間의 矛盾이 크게 浮刻하게 된 것이다.

셋째, 林彪가 「帝國主義와 社會帝國主義사이의 모순 및 帝國主義들끼리의 矛盾」을 論했으나 周恩来는 「帝國主義들끼리의 矛盾」만을 學論하였다. 이는 「美·蘇間의 矛盾」을 이미 論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林彪의 四大矛盾中 마지막 矛盾인 「社會主義와 帝國主義·社會帝國主義사이의 矛盾」을 周恩来는 中·小國家와 美·蘇사이의 矛盾이라고 함으로써 「社會主義」를 「中·小國家」로 代置시켰다.

「社會主義」는 第一矛盾에서의 「全世界人民」속으로 包含된 結果 다시 學論할 必要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第二中間地帶등 中·小(資本主義)國家들과 美·蘇사이의 矛盾이 점차로 擴大되어가고 있다는 判斷에서 論議된 것이다. 이 問題는 周恩来가 1971年 11月 20日 英國人 넬빌·맥스웰과의 會見에서 五種力量을 論할 때 세번째 力量과 關聯하여 論議되었었다. 다만 概念의 醇化過程을 거쳐 四大矛盾의 하나로 展開된 것이다.

以上을 통해서 볼 때 中共은 蘇聯을 社會帝國主義로 糾彈하면서 對美接近을 試圖하던 時期에 이미 反美·反蘇國際統一戰線의 結成이

라는 것을 對外政策的 目標로 設定해 놓고 徐徐히 矛盾論에 立脚한 理論化作業을 進行해 나가는 동안 70年代初에는 將次 反霸權主義政策으로 옮겨갈 수 있는 基礎를 다져놓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談談打打」戰術原則에 立脚하여 對外的인 公表의 時期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日本과의 樹交가 發表된 이틀後인 1972年 10月 1日 人民日報는 國慶節社論을 통해 中間地帶論을 7年만에 다시 舉論하면서 中間地帶의 反蘇·反美를 刺戟하였다.

“第一中間地帶와 第二中間地帶에서는 날이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多樣한 規模와 相異한 形態로 兩大 超強國을 反對하는 斗争에 參加해 오고 있다. 第三世界는 國際問題에 있어 날이 갈수록 重要한 役割을 해가고 있다. 蘇聯修正主義와 美帝國主義의 꽤 刻薄한 統制를 받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蘇·美의 指示와 命令으로부터 自由로와지려고 애쓰고 있다.”⁵⁾

論旨로 보아서는 反霸權主義 國際統一戰線의 問題를 舉論하고 있으나 아직은 「中間地帶」代身 「第二世界」 「第三世界」라는 말을 使用하지 않고 또한 「霸權主義」라는 用語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2年 10月 3日 第 27次 유엔總會에서 한 喬冠華의 演說에서는 「三世界」概念과 「霸權主義」에 近接해가는 表現들을 發見하게 된다.

註 5) 「人民日報」, 1972.10.1, 社論, “奪取新的勝利”(「紅旗」, 「解放軍報」와의 共同社論)

* …… 第三世界國家들은 보다 廣範하게 聯合하여 超強大國의 侵略政策, 膨脹政策, 戰爭政策에 反對하고 있다. …… 超強大國들은 各種手段을 利用하여 膨脹主義를 實踐에 옮겨 나가면서 世界를 놓고 다투는 局面을 보이고 있다." 6)

「反霸權主義」政策이 中共의 政策으로 公式宣言된 것은 1973年8월에 열린 中共黨十大大會에서 였다. 十大大會에서 採擇된 「中國共產黨章程」(黨規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 中國共產黨은 …… 全世界의 純粹한 마르크스-레닌主義 黨 및 組織들과 堅決히 團合하고 全世界의 無產階級·被壓迫人民·被壓迫民族들과 堅決히 團結하여 그들과 함께 美·蘇라는 超強大國의 霸權主義에 對抗할 것이다." 7)

中共은 兩大超強國의 出現을 「새로운 現象」으로 規定하고 있었지만 事實上으로는 오래前부터 指摘되어 오던 바로서 그 뿌리는 大國國粹主義에 對한 抵抗에 있는 것이다.

國際的인 斗争의 理論的 合理化를 위하여 中共은 國家의 面積,

註 6) 「人民日報」, 1972.10.5: "Chiao Kuan-hua's Speech at the 27th U.N. General Assembly Session," (1972.10.3), Warren Kuo(ed.), Foreign Policy Speeches by Chinese Communist Leaders 1963-1975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76), pp. 65-79.

7) Peking Review, No. 35-36 (1973), p. 26.

人力, 經濟, 産業力, 軍事力 등 一般的이고 西歐的인 基準에 依한
뿐 아니라 「侵略的인 政策」과 「帝國主義的 行動」을 浮刻시키
면서 「超強國」이라는 概念을 規定하였다. 例컨대 1974年 4月
10日 第6次 유엔特別總會에서의 演說을 通해 鄧小平은 “超強國
이란 到處에서 다른 나라를 侵略하고, 干涉하고, 顛覆시키고, 掠奪
하면서 世界的 霸權을 追求하고 있다.”⁸⁾ 라고 指摘했던 것이다.

超強國과 霸權主義에 對한 中共의 概念規定은 더욱 發展하여
1977年 11月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超強國의 ……… 國家機構는 가장 集中된 形態의 独占資
本에 依해서 支配되고 있으며, 經濟的 搾取와 政治的 抑壓
을 期하고 全地球的인 範圍에서 軍事的 支配權을 確保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越等한 經濟·軍事力에 依支하고 있
다. 超強國은 各各 排他独占的인 世界的 霸權을 그들의
目標로 設定하고 이의 達成을 위하여 새로운 世界大戰의
準備를 狂亂的으로 서두르고 있다.”⁹⁾

中共의 主張에 따르면 美國은 世界속에서 自國의 既得權을 保
護하려고 하는 한편 蘇聯은 膨脹政策을 쓰고 있으나, 그러한 狀
況下에서도 超強國들은 世界的 支配權을 確保하기 위하여 一時的
으로 野合하고 臨機應變的으로 거짓 和解 (Détente) 하고 있다

註 8) Chen, op. cit., p. 39.

9) 人民日報編輯部, “毛主席關於三個世界劃分的 理論是對馬克思列寧
主義的重大貢獻,” 「人國日報」, 1977. 11: 1 이 論文은 同日
字「人民日報」6面全體에 걸쳐 掲載되었다.

는 것이다. 즉 美·蘇는 全世界의 霸權을 위하여 끊임없이 斗争하여 왔고, 複雜한 軍事技術과 武器를 開發하는 軍備競争을 벌이면서도 和解 (Détente) 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激熱한 競争은 將次 戰爭을 誘發하고 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獨立과 革命을 위하여 第二世界와 第三世界の 모든 나라들은 廣範한 統一戰線을 形成하고 超強國들의 霸權主義와 그들의 戰爭政策에 對抗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그러면 第二世界와 第三世界の 國家들이 結成할 反霸權主義國際統一戰線의 主敵은 누구인가? 中共의 主張에 따르면, 美國이라는 超強國도 帝國主義的 行動을 많이 姿行해 왔지만 最近 國際秩序의 變化로 그 反革命的 世界戰略이 壁에 부딪힘으로써 攻擊力이 크게 阻喪되었는가 하면, 蘇聯이라는 超強國은 二次大戰後 美國이 英國등 舊時代 帝國主義者들이 支配하던 地域을 蚕食했던 方式으로 美國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을 奪取하려 함으로써 美國보다 훨씬 冒險的이고 欺瞞的인 行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蘇聯은 社會帝國主義的 根性を 가지고 非社會主義國家는 勿論 社會主義國家에 對해서까지 그 支配力을 擴張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戰爭의 가장 危險스러운 源泉이 되었다는 것이다.¹¹⁾

그러면 以上과 같은 修辭 裏面に 숨어있는 眞實 즉 反霸權主義를 통해 中共이 達成하려는 政治的 目的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

註 10) Ibid.

11) Ibid.

름아닌 蘇聯의 國際的 孤立이었다. 이 點에 對하여 周恩來는 이미 1973年 3月初부터 立場을 分明히 한 바 있다. 『党内報告』를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兩霸를 反對하는 것은 基實 하나의 口號에 不過하다. 實質的으로 重要的 것은 蘇聯修正主義·社會帝國主義라는 가장 現實的인 敵을 反對하고 이 社會帝國主義에 打擊을 加하는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미국도 잘 알고 있다.”¹²⁾

이와 같이 反蘇國際統一戰線을 追求하면서도 中共은 美國과의 關係에 있어 線을 分明히 긋고 있다. 勿論 反霸權主義國際統一戰線의 打擊對象이라는 點에서도 그러하지만, 戰略方針上 美國과의 너무 깊은 關係는 中共自身이 避하고 있는 것이다. 周恩來의 論議를 보기로 한다.

“兩霸를 反對하는 데 있어서 重要的 것은 目前的 最直接的이고 最危險的이며 最現實的인 敵으로서의 蘇聯修正主義·社會帝國主義를 反對하는 것이다. 이 方針은 毛主席이 定한 것이다. 主席은 말하기를 ‘우리는 兩面作戰을 할 必要가 없다. 一面作戰만 하여야 한다’ 라고 했다. …… 世界的 兩霸中 하나가 直接的인 敵이다. 美國은 지금 第2位로 물러나 있다. 事情에 依해서 우리와 美國사이에 共通點이 있기는 하

註 12) “周恩來關於國際形勢的報告”(1973.3), 「中共機密文件彙編」, p. 358.

지만 우리는 「聯美反蘇」를 提示할 수가 없다. 美國에는 Pentagon이라는 好戰分子들의 소굴이 있어 戰爭武器商들로부터 커다란 支持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美國에 對해서도 蘇聯에 對해서와 마찬가지로 警戒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¹³⁾

美國 亦是 敵이며 美國內의 右派 때문에 永遠한 同盟이 어려운 故로 「聯美反蘇」를 自進해서 提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兩面作戰을 하는 것이 戰略上 不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中華의 榮光을 前提로 한 國際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 보다 直接的으로는 中國의 安保를 위하여 - 中國이 傳統的으로 써오던 外交政策의 歷史的 再現現象을 發見하게 된다.

즉 第1의 敵을 牽制·打倒하기 위하여 第2의 敵과 暫定的으로만 提携하는 데서 「以夷制夷」를, 地理적으로 隣接한 또는 政治적으로 가까웠던 蘇聯이라는 敵을 攻擊하기 위해 政治적으로 地理적으로 먼 美國과 提携하는 데서 「遠交近攻」을, 兩霸를 反對한다는 名分으로 國際統一戰線의 結成을 呼訴하면서도 其實 自國의 敵인 蘇聯에 對한 攻擊을 誘導하는 데서 戰國時代 六國이 盟約하여 秦을 制禦하자던 蘇秦의 「合縱說」의 再現을 볼 수 있는 것이다.

註 13) Ibid., p. 360.

나. 鄧小平의 三世界論

前述한 바 있듯이 三世界論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74年 2月 22日이었다. 잠비아 大統領 카운다와 會見하는 자리에서 毛澤東은 過去 中共이 第一中間地帶라 부르던 곳을 第二世界로, 美·蘇를 第一世界로 命名하면서 中共이 第三世界에 屬한다고 主張했다. 當時 毛澤東이 말한 關係句節을 引用해 본다.

“내가 보기에 美國과 蘇聯은 第一世界다. 中間派와 日本 歐羅巴 카나다는 第二世界다. 우리는 (中共과 잠비아:筆者) 第三世界다.. 第三世界는 人口가 매우 많다.

아시아는 日本을 除外하고 모두 第三世界다. 아프리카도 모두 第三世界다. 라틴아메리카도 모두 第三世界다.

中國은 第三世界에 속한다. 왜냐하면 政治·經濟의 各方面에서 中國이 富國이나 大國에 比할 수 없는 反面 比較的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¹⁴⁾

中共이 第三世界에 包含된다는 主張은 1971年까지 溯及해서 起源을 찾을 수 있다. 유엔에 加入한 뒤 當時 中共代表團長 喬冠華는 中共의 對外政策에 關한 유엔總會演說(1971.11.15)에서 “中國은 아직 落後한 國家이면서 지금 한창 發展途上에 있는 國家다. 中國과 絶對多數의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들은

註 14) 「人民日報」, 1977.11.1.

모두 第三世界에 屬한다. ”¹⁵⁾ 라고 함으로써 유엔에서 絶對多數를 占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國家들에 對한 接近을 公開적으로 推進했었다.

한편 喬冠華의 이와 같은 發言은 中共이 가지고 있는 第三世界 概念에서 第三世界の 範圍를 알려주는 最初의 公式發言으로서도 意味가 있었다.¹⁶⁾ 以後 中共은 1972年 11月 「紅旗」의 論文을 通해 中共이 보는 第三世界の 範圍를 밝혔다.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地中海沿岸의 中小國家 그리고 以上地域間의 共產國家를 第三世界로 指稱하면서 中共을 第三世界에 包含시켰다.¹⁷⁾ 이러한 範圍設定의 基準이 무엇인가는 밝힌 바 없으나 論文中의 “第二中間地帶는 美國과 蘇聯이라는 兩霸를 除外한 西方과 東方의 모든 資本主義國家를 包括한다”는 句節을 보아서는 經濟制度를 相當히 重視하였던 것 같다. 또한 社會制度의 特性도 第三世界 範圍設定의 基準이 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社會制度의 特性을 考慮하지 않고서는 中共을 第三世界에 包含시킬 수 없

註 15) 「人民日報」, 1971.11.17.

16) 毛澤東도 1965年 에드가 스노우와의 會見에서 第三世界를 論한 바 있다.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지의 低開發國家로서 原來 殖民地였거나 現在도 殖民地로 남아 있는 國家들”이 第三世界라고 했다. 그가 第三世界를 論議한 것은 當時 仏蘭西가 第三世界임을 主張하는데 대한 見解를 밝힌 것이다. 史諾, “毛澤東會見記”, 「毛澤東自傳」(香港: 馬崑傑文化公司, n. d.), p. 50.

17) 「紅旗」, 1972.11, “了解一些民族解放運動的歷史.”

있기 때문이다.

中共은 自國이 絶對多數國家들로 構成되는 第三世界에 包含되는 理由를 論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理論的 試圖를 했었다. 왜냐 하면 西方學者들의 第三世界概念과 그 分類基準에 따르면 中共을 第三世界에 包含시키는 것이 論難의 餘地가 많았기 때문이다.¹⁸⁾

例컨대 1974年1月22日字 「國際資料」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第三世界라는 것은 하나의 發展過程을 거쳐 形成된 것이다. 第2大戦이 끝난 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民族解放運動 물결이 일어 몇십개의 나라들이 植民地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民族의 獨立을 爭取했을 때 第三世界の 概念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50年代에는 帝國主義陣營을 第一世界, 社會主義陣營을 第二世界, 民族獨立國家를 第三世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世界人民革命斗争과 世界各國의 基本矛盾이 發展함에 따라 國際적으로도 大混亂·大分化·大改組의 새로운 局面이 나타나기 始作했다. 美帝

註 18) 西方學者들의 中共關聯 第三世界 分類基準에 對해서는 Peter van Ness, "China and the Third World", Current History, Vol. 67, No. 397 (Sep 1974), p. 107; A. M. Halpern (ed.), Politics towards China: Views from Six Continents (New York: MacGraw Hill, 1956), p. 476.; Alvin Z. Rubinstein (ed.), Soviet and Chinese Influence in the Third World (New York: Praeger, 1975), p. 1; Edward Taborovsky, Communist Penetration of the Third World (New York: Robert Speller and Sons, 1973), Preface, ii 參照.

國主義는 날이 갈수록 沒落하고 帝國主義陳營은 四分五裂되어 가고 있다. 同時에 蘇聯修正主義集團들은 資本主義를 復活시키므로써 社會主義的 蘇聯은 社會帝國主義로 變하였고. 따라서 社會主義陳營도 存在하지 않게 되었다.¹⁹⁾

요컨대 第二世界였던 社會主義陳營이 蘇聯의 修正主義路線으로 因하여 四分五裂됨으로써 已往에 社會主義陳營에 屬해 있던 國家들이 설 곳이 없어졌다는 것과 아울러 蘇聯은 이미 帝國主義勢力으로 化했기 때문에 勢力的 再編成이 不可避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밝아온 「第三世界の 一員으로서의 中共」이라는 立場이 1974年2月22日字 毛澤東·카운다會見에서 再論되었고, 1974年 4月10日 第6次 유엔特別總會에서의 鄧小平演說에서 本格的인 「三世界論」으로 展開된 것이다.

鄧小平이 演說한 第6次 유엔特別總會는 1973年 石油波動以後 資源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會議였다. 三世界論을 公開적으로 宣言하는 時點을 資源問題會議期間으로 設定하고 開發途上國家들로 하여금 國際經濟秩序의 再編을 主張하도록 促求하였다는 事實에, 中共의 三世界論이 第三世界國家들을 國際秩序再編의 主力軍으로 設定한 戰略理論이며 世界革命理論이라는 評價를 可能케 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²⁰⁾

註19) 「國際資料」(新華通訊社), 1974.1.22.

20) Yahuda, op. cit., p. 240 參照

“天下大亂의 形勢下에 世界의 各種 政治力量들이 長期間의 競争과 斗争을 거쳐 急激한 分化와 再編을 하고 있다. ………”

戰後 한 때 存在했던 社會主義陳營은 이미 存在하지 않고 있다”고 序頭를 꺼낸 鄧小平은 레닌이 帝國主義論을 展開하기 위해 創案해낸 資本主義不均等發展理論을 援用하여 “西方帝國主義陳營도 崩壞되고 있다”고 前提한 뒤 世界三分論을 다음과 같이 闡明했다.

“國際關係의 變化를 볼 때 오늘날의 世界는 實際로 相互連關을 맺고 있으면서도 同時에 三個方面에서 相互矛盾을 안고 있다. 즉 世界는 三個部分 또는 三個世界로 나누어져 있다. 美國과 蘇聯은 第一世界를 이루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其他地域의 開發途上國들은 第三世界를 이룬다. 兩者의 中間에 있는 發展된 나라들은 第二世界를 이루고 있다.”²¹⁾

社會主義陳營이 이미 存在하지 않고 資本主義陳營도 崩壞되어온 結果 世界가 三分되었다는 뜻이지만 鄧小平의 이러한 國際秩序觀 闡明은 重大한 意味를 賦與할 수 있는 事件이었다. 世界三分論은

註 21) 「人民日報」, 1974. 4. 11.

中共이 레닌以來的 兩大陳營의 思考²²⁾를 超克했다는 徵表가 된 것이다. 中·蘇間의 紛爭에서 對蘇非難·攻擊을 것처럼 極熱히 展開하면서도 中共은 基本的으로 兩大陳營의 思考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文化大革命期 造反外交論이 「社會主義堡壘」를 強化하기 위한 對外政策理論이었다는 點을 想起하면 쉽사리 理解되는 問題다. 그러나 世界三分論을 완전히 버리고 中共 特有的 國際秩序觀을 形成·展開하게 된 것이다.

國際關係의 變化와 그에 緣由한 「天下大亂」의 狀況을 「世界三分」으로 概念規定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中國의 歷史的 經驗에 對한 省察에서 由來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中共의 指導者들이 中國의 歷史的 事實 또는 寓話에서 分析·類型化의 모델을 찾아내어 즐겨 사용했음은 이미 論議한 바 있거니와²³⁾ 毛澤東自身 三國誌演義를 즐겨 읽었다는 點을²⁴⁾ 勘案하면 世界三分論은

註 22) 1920年 레닌은 코민테른 2次大會時 民族 및 植民地問題에 關한 報告를 通해 世界가 被壓迫民族과 壓迫民族으로 兩分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兩大陳營의 思考의 起源은 레닌生前의 스탈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미 스탈린은 1919年에 “世界가 兩大陳營으로 나누어져 있어 돌이킬 수 없이 되었다”고 한 바 있다. 어쨌든 볼셰비키 革命直後부터 共產主義者들은 兩大陳營의 國際秩序觀을 가지고 있었다. 이 問題에 對한 仔細한 論議는 「人民日報」, 1977.11.1. 參照.

23) 第三章 第五節 다. 造反外交의 思想的 背景參照.

24) 福本和夫, 「毛澤東思想의 原點」, (東京:三一書房, 1973), p.20.

蜀·吳·魏의 三國鼎立이라는 歷史的 事實에서 由來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判斷에는 相當한 根據가 있다. 1975年 5月 20日 天津警備區政治部講堂에서 한 秘密演說에서 喬冠華는 世界三分論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을 했다.

“兩漢末葉의 中國은 競爭的인 세 나라에 依해서 統治되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三國誌演義를 읽어보았을 것이다. 毛主席이 우리에게 古典小說을 읽으라고 한 것은 심심풀이 하라는 것이 아니다. 三國誌演義는 어떠한가? 그것을 읽는 데는 目的이 있다. 三分된 天下가 最後로 晉에게 돌아간 데는 두 가지 原因이 있었다. 첫째 吳와 蜀이 맞서 싸우는 바람에 다른 나라(魏:筆者)가 漁夫之利를 얻고 吳와蜀은 亡할 수 밖에 없었고, 둘째는 曹丕(曹操의 아들:筆者)가 비록 狡猾하였지만 다음 代에 이르러 司馬昭에게 나라를 뺏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養虎爲患이라 한다. 毛主席이 지금 世界의 一百餘個國을 「三分天下」로 比喻한 意義는 이런 點에서 明白해지는 것이다.”²⁵⁾

以上을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三世界論을 契機로 中共은 馬르크스-레닌主義的 國際秩序觀을 完全히 脫皮하고 中國의 歷史的 經驗에 相據한 分析모델에 立脚하여 自己나름

註25) “Ch'iao Kuan-hua's Speech on Foreign Policy,” Kuo, op.cit., pp.10-11.

의 獨特한 國際秩序觀을 定立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分析모
델의 發想은 「三國鼎立」의 歷史的 事實에서 緣由한 것이라고……

中國的인 發想에서 由來한 世界三分論을 闡明한 鄧小平은 論議의
焦點을 戰爭의 原因으로 돌렸다. 이미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發想
을 廢棄시킨 뒤이기 때문에 鄧小平은 社會主義와 帝國主義勢力間의
紛爭이 戰爭을 誘發한다는 從來의 主張을 되풀이 하지 않고, 超強
國들의 霸權斗争과 다른 나라들의 對超強國 反霸權主義斗争이 戰爭
을 誘發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超強大國들의 霸權斗争에 對한 論議를 보기로 한다.

鄧小平은 超強國들이 1)核武器를 많이 가지고 있고, 2)刻薄한
程度로 軍備競争을 해왔고, 3)國外에 많은 軍隊를 駐屯시키고 있
으며, 4)到處에 軍事基地를 構築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獨立과 安
全을 威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戰爭의 源泉을 이룬다고 主張
했다. 超強國들의 霸權斗争이 戰爭을 誘發할 可能性이 가장 높은
가운데 그 중에서도 보다 높은 戰爭觸發可能性을 가지고 있는 側
은 “社會主義의 딱지를 붙이고 있는 超強國”이라고 指摘함으로써
蘇聯의 戰爭挑發 優先順位를 가장 높게 보았다.

다음으로 第二世界와 第三世界の 對超強國 反霸權主義斗争에 對한
論議를 보기로 한다. 超強國과 開發途上國사이에 끼어있는 第2世
界中에는 植民地搾取를 繼續하는 나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亦是 超強國으로부터 統制와 威脅을 받고 있기 때문에 超強國의
拘束과 支配를 벗어나 民族獨立과 主權回復을 하려는 意志를 가지

고 있는데 이를 抑壓할 境遇 戰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第三世界國家들은 政治的 獨立을 한 뒤 植民地主義的 殘滓清算, 民族經濟의 發展, 民族獨立의 確保라는 歷史的 課業遂行을 위하여 帝國主義的 壓制에 抵抗하면서 自由와 發展을 喝求하고 있는 바, 그들의 意志를 꺾으려는 帝國主義的 壓制가 強해지면 그들 亦是 戰爭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第三世界の 民族經濟의 發展, 民族獨立의 確保를 위한 努力과 熱情이 強力하다는 屬性때문에 第三世界는 世界歷史의 수레바퀴를 前進시키는 革命的 原動力이며 植民地主義·帝國主義-특히 超強國을 打倒할 主力軍이라는 것이다.

戰爭의 主源泉으로서 超強國의 霸權斗争을 指摘했기 때문에 美·蘇間의 和解(Détente)의 虛構性을 論하지 않을 수 없었던 鄧小平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完全히 浚加하기 前에는 그들사이의 矛盾을 克服할 수 없다고 前提하고, 「相互軍縮」, 「戰略武器制限」등은 빈말에 不過하며 協定따위는 빈 껍데기이거나 詐欺일 뿐이다라고 結論지었다. 다만 超強國들은 거짓 和解를 통해 아직까지 存続하고 있는데 그들이 存続하는 限 平和란 絶對로 있을 수 없다고 力說했다. 왜냐하면 그들 서로가 戰爭을 하거나 아니면 超強國의 霸權主義에 反對하는 「人民」들이 革命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戰爭原因論을 展開한 다음 鄧小平은 超強國의 霸權斗争에 의한 戰爭을 막기 위하여는 第三世界가 團結할 것을 主張했는 바, 그의

主張가운데서 特別히 우리의 注目對象이 될 만한 것은 第三世界의 政治的 獨立을 確保하기 위하여 資源을 武器로 삼아야 한다는 主張과 第三世界國家들끼리의 國際的 協力關係는 主權을 尊重하는 平等的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張이다.

먼저 資源의 武器化에 對한 論議를 보기로 한다. 鄧小平은 資本輸出이나 多國籍企業을 「帝國主義」가 開發途上國을 搾取하고 掠奪하기 위한 新植民主義的 方法이라고 規定하는 同時에, 「經濟協力」 「勞動의 國際的 分業」이라는 美名下에 社會帝國主義도 社會主義國家들과 開發途上國家들을 搾取해왔다고 前提한 뒤, 開發途上國들이 帝國主義的 經濟獨占과 掠奪을 遮斷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經濟的 資源과 其他 權利들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모든 方法을 講究하는 것이 全적으로 正當하다고 主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最近의 中東戰爭에서 아랍國家들은 하나로 團結하여 石油을 武器化함으로써 시온主義와 그 支持者들에 打擊을 주었다. 그들이 한 일은 잘한 일이었고 옳은 일이었다. 이것은 開發途上國家들이 그들의 對帝國主義斗争에서 取할 수 있는 行動의 先驅的 意味를 가지고 있다…… 帝國主義獨占資本家들이 開發途上國들의 利益에 決定的인 損害를 끼치면서 그들 뜻대로 市場을 操作하고 있는데, 開發途上國이라고 해서 그들끼리 團結하여 帝國主義的 獨占을 깨뜨리고 그들 自身の 經濟的 權利와 利益을 保護해서 안된다는 法이 어디 있는가? 石油戰爭은 人民들의 視野를 넓혀 주었다. 石油戰爭에서 取해진 것과 같은 方法이 다.

른 資源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또 적용될 수 있다."²⁶⁾

資源의 武器化에 못지 않게 重要的 것이 資源의 保護라고 鄧小平은 力說했다. 즉 資源의 보호는 經濟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政治的, 軍事的 意味까지 있다는 것이다. 軍備擴張과 戰爭準備을 하면서 世界霸權을 놓고 다투는 超強國들이 第三世界의 資源을 強奪하려 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政治的 獨立도 民族經濟의 發展도 期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超強國들의 戰爭과 侵略을 阻止시킬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開發途上國家는 무엇보다도 먼저 資源을 자기 손아귀에 掌握하고 生産, 販賣, 貯藏, 輸送問題에 까지 主權을 行使하여야 貧困과 落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서 世界平和 까지 確保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主權을 尊重하는 平等的 次元에서의 國際協力은 第三世界의 經濟 發展의 제일가는 必須要件이라는 것이 鄧小平의 主張이다. 政治的 獨立없이 經濟的 獨立을 達成할 수 없고, 經濟的 獨立없이 政治的 獨立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第三世界國家들은 一次的으로 自力更生의 方針을 堅持하되 相互主權尊重·平等·互惠·相互補完的 交易의 基礎위에서 經濟·技術交流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植民主義 新植民主義 強大國霸權主義에 共同으로 抵抗하는 第三世界國家들이 經濟發展과 國家建設을 同時에 期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帝國主義 超強國들의 戰爭挑發을 抑止시킬 수 있다는 것

註 26) 「人民日報」, 1974.4.11.

이다.

過去 中共은 國際統一戰線의 結成을 促求하면서 政治的이고 軍事的인 面을 力說하고, 이데올로기의 呼訴를 해왔던 것이 常例였다.

그러나 유엔總會에서의 鄧小平演說을 契機로 中共은 國際統一戰線을 經濟的 次元에서까지 促求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至上主義를 克服하고 實用主義的인 姿勢를 定立해 가는 中共의 面貌를 여기에서도 發見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資源武器化主張이나 資源保護主張, 第三世界國家들끼리의 平等한 協力關係主張에서 反蘇國際統一戰線의 結成으로 蘇聯의 國際的 孤立을 超來하려는 中共의 意志가 얼마나 強한 것인가를 읽을 수 있다.

世界를 三分하고 資源問題와 第三世界를 結附시킨 鄧小平의 論議는 第三世界國家들의 團結을 통한 經濟秩序의 再編要求와, 斗争으로 부터 國際秩序의 再編을 誘導하려 했다는 點에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中共이 社會主義國家로서 發展途上國이기 때문에 第三世界에 屬한다는 主張이나, 中共은 결코 超強國이 되지 않겠다는 宣言的 發言의 意圖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제야 明確해진 것이다.

즉 中共은 第三世界國家들과의 團結을 통해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樹立해나감으로써 國際政治的 新時代의 主役으로서 登場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에 中共이 中·蘇間의 對立·矛盾을 辯證法的으로 發展시킨 結果로서의 三世界論의 意味가 浮刻되는 것이다. 中共은 이미 反蘇感情의 脈絡에서만 對外政策을 論하지 않고 反蘇를 超克한 새로

은 次元에서 國際秩序를 보고, 解釈하고, 構想하게 된 것이다.

다. 알바니아의 三世界論批判과 中共의 對應

鄧小平의 三世界論은 비록 그 內容에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對한 立場, 超強國들에 對한 具體적인 政策方向, 對外貿易問題 戰略등에 對한 明言적인 論議가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中共의 對外政策方向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充分히 알 수 있을 만큼 包括적이면서도 明確한 것이었다. 즉 中共의 對外政策에서 第二世界와 第三世界가 차지하는 重要性이 明確히 드러남으로써 超強國에 對한 具體적인 政策方向과 戰略 및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對한 立場은 能히 推論할 수 있으며, 相互主權尊重을 基礎로 한 國際協力關係의 重要性에 對한 論議에서 對外貿易政策方向도 充分히 感知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⁷⁾

鄧小平의 演說이 中國自體의 政策에 미친 影響은 이처럼 絶對적이었지만 對外的인 關係에서는 몇가지 問題를 惹起시켰다. 즉 中共自身이야 社會主義陳營이 이미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社會主義國家로서 開發途上에 있는 第三世界の 一員임을 主張할 수도 있었겠지만, 餘他 共產國家들이 中共과 마찬가지로의 立場을 取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한 마디로 中共의 三世界論에 對한 開發途上共產國家들의 支持問題가 單純하지 않았던 것이다.

三世界論이 發表되고 난 直後 暫時동안 北韓은 스스로 第三世界

註 27) Yahuda, op. cit., p. 243.

國家임을 自處했으나 蘇聯의 눈치를 살폈음인지 곧 撤回하고 말았다. 越盟은 三世界論을 拒否하면서 社會主義陳營이 健在하고 있음을 主張하고 나섰다. 알바니아는 中共의 反蘇立場에 支持를 보냄으로써 三世界論을 認定하고 있었다.²⁸⁾

親蘇立場이 分명한 東歐共產國家와 쿠바가 中共의 三世界論에 冷談한 反應을 보였던 것은 論議의 餘地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中共의 三世界論은, 共產國家들 中에서는, 알바니아로부터만 否定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알바니아의 이러한 立場은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1977年7月 알바니아는 中共의 三世界論을 猛烈히 非難하기 시작한 것이다. 알바니아는 그들 黨(알바니아 勞動黨)機關紙 「人民의 소리」(Zeri I Popullit)에 中共의 三世界論을 非難하는 論文을 掲載하였다. 이 論文을 통해 알바니아는 주로 兩大陳營論을 否認하는 中共의 立場을 攻擊하였다. 즉 社會主義社會內部에서의 主要 矛盾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사이의 階級斗爭이듯이 國際社會에도 階級斗爭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階級斗爭의 立場에 서서 알바니아는 「나의 敵의 敵은 同志다」라는 前提에서 中共이 超強國을 兩分하여 美國에 接近하는 것은 無原則한 政策임을 非難하였다. 또한 알바니아는 第二世界와 第三世界觀에 對해서도 反對의 立場을 表示했다. 그 理由는 第二世界는 資本主義고 第三世界도 結局은 이란의 Shah나 칠레의 Pinochet

註28) Ibid.

같은 反動政權과 한 패거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⁹⁾

이러한 理論的인 非難과 아울러, 알바니아는 對中共 行動에서 敵對性을 露出했다. 例컨대 中共을 非難한 上記論文들을 北京駐在 外國大使館들에 配布하고, 1977年 유엔總會에서 中共代表들에게 人事도 건네지 않았으며 宴會에도 同席을 畧避하였던 것이다. 또한 機會있을 때마다 中共이 革命原則을 背反하고 投降主義에 빠져 있다고 非難했다. 이에 對해 中共은 알바니아가 機會主義에 빠져 있으며, 四人幫들과 結託되어 있었던 點을 非難하였다.³⁰⁾ 餘他社會主義國家들로부터 아무런 支持도 못받을 뿐 아니라, 알바니아로부터 深刻한 挑戰을 받고 있던 中共은 三世界論이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忠實한 理論임을 論證하기 위한 長文의 論文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1977年11月1日字 「人民日報」 全面(6面)을 메운 「世界를 三個로 區分한 毛主席의 理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對한 重大한 貢獻이다」라는 題下의 論文을 통해서 中共은 三世界論에서 國家와

註 29) Zeri I Populit, 7 July 1977, editorial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volution," Yahuda, op.cit., p. 243 에서 再引用.

30) 알바니아가 中共을 非難하게 된 實質的인 原因은 알바니아의 獨立을 威脅하는 유고에 對한 中共의 接近때문이었다. 中·蘇紛爭期 알바니아와 中共이 가까웠던 것은 유고에 對한 中共의 立場이 敵對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三世界論으로 因하여 이데올로기의으로도 困難해졌지만, 中共의 유고接近이 이루어짐으로써 알바니아는 심하게 反撥하고 나선 것이다. 이點에 對한 簡略한 分析은 Chen, op.cit., pp. 41-42 參照.

民族들사이의 關係를 重視한 것은 外形上 그러했을 뿐이고 本質에 있어서는 世界的인 規模에 있어서의 階級斗争이라는 重大한 問題를 論하고 있다는 點을 強調하였다. 同論文에서는 毛澤東이 世界를 三分한 것을 正當化시키기 위하여 마르크스 앵겔스 레닌 스탈린의 著作에서 많은 句節들을 引用해가면서 그들도 非社會主義國家들사이의 斗争을 類型別로 分類하였으며, 그들도 가끔 이러한 斗争에 介入했었음을 指摘하였다. 人民日報의 論文은 毛澤東이 世界를 三分하면서 純粹한 마르크스-레닌主義者가 聯合할 同志는 누구이고 反對해야 할 敵은 누구이며 自己便으로 끌어들이야 할 中間勢力은 누구인가를 가려냈다고 主張했다. 이러한 論理의 展開를 통해 中共이 意圖한 것은 毛澤東이야말로 레닌과 脈을 같이 하고 있다는 點을 暗示하려는 것이었다.³¹⁾

中共이 三世界論의 妥當性을 立證하기 위해서 주로 인용한 것은 레닌의 著作에 나오는 句節들이었다.³²⁾ 레닌이 世界를 三分한 事例가 있다고 主張하기 위하여 引用하고 있는 文章과 同 引用文에 대한 中共의 解釋을 보기로 한다.

註 31) Yahuda, op. cit., p. 244.

32) 1977年 11月 1日 字「人民日報」의 論文에는 85개의 個人 著作引用註(全體註 90個)가 있는데 그中 毛澤東에서 27個, 레닌에서 23個, 스탈린에서 9個, 마르크스에서 4個, 앵겔스에서 4個, 기타에서 18個 句節을 引用함으로써 毛澤東以外에는 레닌에 最優先을 두었다.

* 十月革命과 第1次世界大戰이 끝나고 난 後 레닌은 1920
 年 코민테른 第2次代表大會에서 「國際情勢와 코민테른의 基
 本任務에 관한 보고」를 했다. 이 報告는 당시 人口 17
 億 5千萬의 世界各國을 三種類로 明確히 나누고 이러한 區
 分을 國際無產階級戰略·戰術의 出發點으로 삼았다. 레닌은
 말하기를 '이것이 帝國主義大戰 後 世界狀況의 輪廓이다. 被
 壓迫植民地의 人口는 12億 5千萬인데 그중에는 페르시아 터
 어키 中國등 他國에 依해서 分割된 國家가 包含되며, 敗戰으로
 因하여 植民地地位로 떨어진 國家도 包含된다. (引用者의 생
 각에는 레닌은 오스트리아 - 헝가리帝國, 獨逸과 불가리아,
 이들과 마찬가지로 戰爭에 依하여 植民地와 조금도 차이가
 없게 된 소비에트 러시아를 指稱한 것 같다.) 원래부터
 의 地位를 누리고 있는 國家의 人口는 불과 2億 5千萬이
 다. 그러나 이 國家들은 經濟적으로 이미 美國에 依賴하는
 地位가 되었고 戰爭時에는 軍事的으로도 美國에 依賴해왔기 때문에
 戰爭이 全世界를 휩쓸게 되자 이들중 어떤 나라도 眞正한 中立을 지킬
 수 없었다. 마지막은 人口가 2億 5千萬도 안되는 몇개의 國家들인데 (引用
 者의 생각에는 레닌은 여기에서 美國, 日本, 英國등을 指稱하는 것 같다.
 이 國家들에서는 다만 上層分子와 資本家만이 世界를 分割하는
 데서 오는 利益을 享受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狀況을 注意하여 볼 것을 促求한다. 왜냐하면 革命을
 불러일으키는 資本主義 基本矛盾과 帝國主義 基本矛盾, 第2인

더내서날에 激烈한 斗争을 불러일으켰던 勞動運動中の 基本 矛盾들이 모두 世界人口의 이러한 區分과 聯關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닌의 이말은 얼마나 좋은가? 世界政治力量을 區分하는 問題에 있어 그것은 오늘날의 現實에 아주 잘 들어맞는 簡單하고도 正確한 表現인 것이다. 레닌은 이 報告에서 世界上의 國家를 簡單하게 나누어 버림으로써 資本主義 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두 種類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反對로 資本主義世界의 서로 다른 國家들을 區分하여 세번 種類的 國家에 分類하였다. 즉 그 하나는 壓迫을 받는 植民地 및 半植民地와 敗戰國이고, 또 다른 하나는 原来的 地位를 누리고 있는 國家이며, 세번 째는 世界를 分割하는 데서 오는 利益을 누리는 戰勝國이다. 同時에 그는 社會主義的 러시아를 被壓迫民族·被壓迫國家와 같은 類에 分類하였다. * 33)

世界를 三分하는 것이 階級的인 革命原則을 背反한 投降主義라고 비난하는 알바니아에 對하여 中共은 이처럼 레닌도 世界를 三分한 바 있음을 指摘함으로써 自國의 立場을 辯護하는 한편, 레닌이 소련을 被壓迫民族·被壓迫國家와 같은 類에 分類한 적이 있음을 想起시킴으로써 「第三世界의 一員으로서의 中共」에 對한 主張도 類

註 33) 「人民日報」, 1977.11.1.

似한 先例가 있음을 據證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알바니아의 非難을 一但 反駁하고 난 中共은 더 나아가서 三世界論의 効用性を 納得시키려는 論議를 展開하기 始作했다. 兩分論理에 依하여 世界를 區分하다 보면 中間勢力의 處理가 困難한 問題로 惹起된다고 하면서, 三分論理에 立脚한 中間勢力의 認定과 그 包攝을 통한 成功事例를 中國의 國內革命經驗에서 摘出·提示하고 있다. 즉 毛澤東의 「新民主主義論」에서 提示된 統一戰線戰術을 實踐함으로써 中共은 中間勢力의 支持를 獲得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孤立시킴으로써 革命에 成功할 수 있었다고 主張한 것이다. 따라서 世界革命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社會體制의 國家들을 無條件 反動으로만 몰아붙이거나 超強國과 結託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들에 對한 統一戰線戰術的 接近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三世界論의 戰略的 効用性を 論議한 뒤 人民日報의 論文은, 三世界論이 急造된 것이 아니고 歷史的인 背景을 가지고 있음을 主張했다. 즉 1946年 美國女記者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會見에서 舉論된 「美國과 소련의 中間에 있는 廣活한 地帶」에서부터 三世界의 發想이 있었다고 主張한 뒤, 1957年 수에즈運河事件以後 毛澤東이 中共에 2개의 矛盾과 3大勢力이 存在하고 있음을 指摘했고, 1964년에는 第二中間地帶論을 展開해 왔음을 想起시키면서 三世界論이 결코 歷史가 日淺한 理論이 아님을 力說했다.

끝으로 國際政治的 狀況變化와 蘇聯의 社會帝國主義化에서 三世界

論 擡頭의 必然性을 說明하려고 試圖했다. 이 問題는 三世界論의 國際政治的 意味와 관련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關係句節을 引用해보기로 한다.

“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集團은 共產主義事業을 徹底하게 背反하였다. 蘇聯은 資本主義를 復活시켰고 아울러 社會帝國主義國家가 되었다. 아직까지 中國과 其他 社會主義國家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過去와 같은 그런 社會主義 陳營은 이미 存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歷史條件도 社會主義 陳營을 새로이 形成할 것을 要求하지도 않는다. 이와 同時에 帝國主義 陳營의 많은 國家들이 이미 美國의 指揮를 다시는 따르지 않으려 하고, 公開發적으로 美國과 갈라서서 싸우는 나라도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絶對多數의 植民地 半植民地國家들이 힘든 斗争을 거쳐 잇달아 獨立을 宣布하고 있다. 世界의 各種 政治力量은 一次 大混亂 大分化 大改組를 거쳐 이제는 一種의 새로운 歷史的 形勢에 臨하고 있다.” 34)

中共은 蘇聯의 背反으로 社會主義 陳營이 虛弱해진 狀況에서, 남아 있는 社會主義 國家들만으로 社會主義 陳營을 꾸미고 兩大 陳營論을 主張한다는 것은 아무런 意味가 없을 뿐만 아니라 非生産的이라고 까지 指摘하고 있다. 오히려 時急한 것은 兩大 超強國의 霸權主

註 34) Ibid.

義的 野望을 꺾는 일이기 때문에, 第三世界와 聯合하여 兩大超強國에 對抗하면서 第二世界를 包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兩大 超強國의 霸權主義에 對抗하되 攻擊의 焦點은 소련에 두어야 한다는 主張에서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理論으로서의 三世界論의 性格이 露呈된다고 할 수 있다. 革命에서의 一次的 打擊對象으로서 소련을 指目하는 理由를 中共은 네 가지로 說明하려 했다.

첫째, 新興 帝國主義勢力이기 때문에 훨씬 더 攻擊적이고 野望에 차 있으며, 둘째, 經濟적으로 餘裕가 없으면서 龐대한 軍事施設을 維持하려면 不足分을 充當하기 위해서 軍事力을 쓸 수밖에 없으며, 셋째, 独占資本主義이면서 同時에 中央集權化되어 있기 때문에 軍事經濟를 強化하거나 軍國主義 大國國粹主義化하기가 容易하며, 넷째 最初의 社會主義國家였다는 事實때문에 다른 社會主義國家를 欺瞞하여 社會帝國主義가 아닌 것으로 偽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바니아가 三世界論을 비난한 意圖는 中共의 對유고接近을 이데올로기적으로 攻擊하겠다는 것이었지만, 中共의 理論的 防禦를 誘發시켰을 뿐이다. 이를 契機로 三世界論은 理論적으로 더욱 成熟했을 뿐만 아니라 對美, 對日接近을 正當化시킬 수 있는 理論³⁵⁾으로까지 發展할 수 있었던 것이다.

註 35) 鄭鍾旭, 「中共의 最近對韓半島政策」(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78), p.25 參照.

第三節 三世界論의 政治·經濟學

가. 三世界論과 反霸權主義國際統一戰線의 摸索

- 그 理論과 實際 -

스탈린의 戰略理論에 依하면, 戰略이란 1) 革命의 課業 2) 革命의 攻擊對象 및 主要攻擊方向 3) 革命의 主力軍 4) 豫備軍(包攝對象 및 後援勢力)을 選定하고 5) 이들 革命力量(主力軍과 豫備軍)의 編成計劃을 다루는 革命의 科學이라고 한다.¹⁾

1977年11月1日字 人民日報의 論文은 스탈린의 戰略概念에 가장 充實하게 쓰여진 論文이라고 할 수 있다. 前節에서 보았듯이 同論文은, 三世界論의 마르크스 - 레닌主義의 正統성과 戰略的 効用性 그리고 理論自體의 歷史성을 論한 뒤, 「美帝國主義」의 衰殘과 資本主義陳營의 崩壞 그리고 소련의 社會帝國主義化 및 霸權追求에 따른 社會主義陳營의 崩壞라는 脈絡에서 三世界論 擡頭의 必然성을 論함으로써 結果적으로 「反帝·反植民·反霸權主義 斗争」을 통한 「戰爭政策反對」라는 「革命의 課業」을 抽出해 냈다. 또한 反霸權主義斗争에서의 「打擊對象」이 美·蘇임을 指摘하고 社會主義의 탈을 쓴 帝國主義가 더 惡辣하기 때문에 「主要攻擊方向」은 蘇聯이라는 點도 指摘한 것이다.

註1) Stalin, The Foundations of Leninism, pp. 82-100. 특히 p. 84, p. 86 參照.

이어서 同論文은 第三世界와 第二世界가 團結하여 國際統一戰線을 結成함으로써 超強國의 霸權主義에 對抗할 것을 主張하고 있는 바 이는 上述한 스탈린의 戰略概念에서의 主力軍과 豫備軍 및 이들 革命力량의 編成計劃을 論議한 것이라고 하겠다.

먼저 主力軍으로 選定되어 있는 第三世界の 豫備軍으로 選定된 第二世界에 對한 中共의 見解와 革命力량의 編成計劃에 對한 中共의 主張을 보기로 한다.

中共은 第三世界가 反帝·反植民·反霸權主義斗争의 主力軍이라는 點을 4가지 側面에서 說明하고 있다.²⁾

첫째, 30 億에 가까운 第三世界 「被壓迫人民」들은 反植民主義斗争을 거쳐 獨立한 뒤 自己의 軍隊를 가지고 植民主義의 影響을 排除하기 위하여 斗争하고 있으며, 全世界人口의 1/5 을 차지하는 中共도 半植民·半封建國家로부터 社會主義國家가 되어 第三世界隊列에 參與함으로써 重大한 力量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第三世界國家들이 이미 政治的으로는 獨立을 했으나 超強國은 經濟的인 浸透方式을 통해 아직도 新生國家들에 對해서 政治的인 統制·顛覆·干涉을 試圖하고 軍事的인 方法으로 資源과 戰略要衝을 奪取함으로써 새로운 民族解放戰爭의 發生이 不可避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第二次世界大戰以前과는 달리 第三世界國家들사이의 團結과 相互支援이 強化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帝國主義國家들의 第三

註2) 「人民日報」, 1977.11.1.

世界彈壓力量에는 限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帝國主義끼리의 衝突마저 있는 바, 帝國主義의 弱點(力量의 限界)과 帝國主義内部的 矛盾을 利用하면 反霸權主義革命運動이 不斷히 前進할 수 있다는 것이다. 但 第三世界内 個別國家들의 對内事情은 同一하지 않기 때문에 革命派, 中間派, 反動派 심지어 帝國主義의 代理人까지 있으나 總體的으로 보아 第三世界가 反帝·反植民·反霸權主義斗争의 主力軍이 된다는 基本的인 事實에는 影響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

1974年 4月 10日 第六次 유엔特別總會演說에서 鄧小平은 超強國과 開發途上國사이에서 끼어있는 第二世界の 立場이 獨特한 것이라고 指摘한 바 있다. 1977年 11月 1日字 人民日報의 論文에서도 第二世界の 兩面性을 指摘하면서, 이 兩面性때문에 第二世界가 反霸權主義斗争에 있어서는 聯合할 수 있는 力量임을 喚起시키고 있다.

中共이 보는 第二世界の 兩面性이란 무엇인가? 第二世界는 對内的으로 独占資本家들에 의해서 支配되는 屬性때문에 第三世界에 関한 榨取를 繼續하려 하는 屬性이 있으나, 對外的으로는 超強國들의 霸權主義에 抵抗하고 있다는 것이다.³⁾

그런데 中共의 主張에 따르면 第二世界란 이러한 兩面性으로 因하여 自進해서 反霸權主義斗争에 뛰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第

註 3) Ibid.

三世界の 反霸權主義斗争에 있어 一定한 條件下에서만 聯合할 수 있거나 中立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第三世界 및 第二世界の 特性分析에 基礎하여 中共은 第三世界와 第二世界가 廣範한 國際統一戰線을 結成하여 超強國의 霸權主義와 戰爭政策을 打倒·敗北시키자고 主張하고 있다. 國際統一戰線에서의 力量編成計劃은 第三世界를 主力軍으로 하고 第二世界는 一定한 條件下에서 聯合力量으로 活用한다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말하는 一定한 條件이란 現實政治的 性格에 依한 兩面性으로 因하여 第三世界の 目的인 反帝·反植民·反霸權主義斗争에는 全面 參與시키지 못하고 다만 反霸權主義斗争에만 參與시킨다는 것을 意味한다.

第三世界와 第二世界가 聯合한 國際統一戰線의 任務는 첫째, 「人民」들에게 戰爭의 危險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둘째, 反霸權斗争에 全力을 다하고 셋째, 小康狀態에 滿足하지 않고 戰爭을 根源的으로 除去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지금까지 「反帝·反植民·反霸權主義斗争」에서의 革命力量의 選定 및 編成에 對한 中共의 見解와 主張을 보았는 바, 다음으로는 그 戰略的 意味를 論하기로 한다. 戰略的 意味를 論함에 있어서는 理論的인 分析과 아울러 中共의 對第三世界 및 對第二世界關係의 實際를 分析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戰略的 意味가 鮮明하게

註 4) Ibid.

5) Ibid.

浮刻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共이 第三世界를 主力軍으로 選定한 것은 第三世界の 戰略的 價値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中共의 立場에서는 數적으로 斷然 優勢하고 豊富한 資源을 가지고 있으면서 「帝國主義的 植民地 統治」를 받아 본 歴史的 經驗때문에 反帝國主義的 性向을 띠고 있는 第三世界는 中共中心의 國際秩序를 樹立하는 「革命」에 있어서 最上의 主力軍이 아닐 수 없다.⁶⁾

中共外交의 最高綱領的 目標는 中共中心의 國際秩序를 樹立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中共이 取할 수 있는 次善의 目標는 中共中心의 勢力圈을 形成함으로써 美·蘇라는 超強國에 버금가는 亞霸權的 地位라도 確保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次善의 目標마저 難望일 경우, 中共으로서는 스스로 第三世界에 뛰어들어 領導의 中心이 없어 組織的 團結力을 行使하지 못하는 第三世界를 自己의 主導下에 하나의 勢力으로 團結시키고 이들을 親中共化시킴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中共의 影響力을 增進시키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點에서 第三世界는 中共의 外交에 있어서 매우 有用한 工具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第三世界에 對한 中共의 如上한 戰略的 評價는 中共의 共產化戰

註6) 林彪가 「人民戰爭勝利萬歲」에서 強調한 「世界의 農村을 돌아 세계의 都市를 包圍한다」는 世界革命戰略構圖는 其實 이러한 判斷에 依據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略·戰術의 特性과 關聯지을 수 있다. 中共은 中國을 共產化시키는데 있어 “裝備를 많이 갖추고 있고 人力을 많이 確保하고 있고, 人民群衆속에서 支持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戰爭에서 勝利를 거둘 수 있다.”⁷⁾ 는 레닌의 가르침을 받아 「게릴라와 人民大衆과의 關係는 물과 물고기의 關係와 같다」는 命題까지 定立하고 게릴라戰을 成功裡에 遂行했던 것을 보면, 中共이 第三世界를 重視하는 것은 그 外交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必須的 前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前後의 脈絡속에서 中共은 中間地帶論展開와 關聯하여 1963年부터 第三世界の 戰略的 重要性을 強調하여 왔다. 中·蘇紛爭이 理論斗争의 次元으로 發展한 1963年 蘇聯 共產党中央委員會로부터 中共黨에 傳達된 편지(1963.3.30日字)에 對한 答信에서, 中共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世界の 各種矛盾이 集中되어 있으며, 同地域은 帝國主義의 統治가 第一 薄弱한 곳으로서 帝國主義에 直接的인 打擊을 줄 수 있는 世界革命暴風의 主要地區”임을 指摘하면서 “國際 프롤레타리아階級の 革命事業에서는 世界人口의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이러한 곳의 人民革命斗争을 프롤레타리아革命으로 轉移시키는 問題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다.⁸⁾ 이러한 主張은 原来 蘇聯을 相對로 한 것이기 때문에

註7) 列寧, “莫斯科征收黨員周的總結和我們的任務,” 「列寧全集」第三十卷(北京:人民出版社, 1957), p.56.

8) 「人民日報」, 1963.6.17.

勿論 宣傳的이고 이데올로기의인 色彩를 띠고 있으나, 그러나 中共의 第三世界觀과 第三世界에서 中共이 찾으려고 하는 「利益」이 무엇인가를 充分히 읽을 수 있다.

中共의 第三世界에 對한 立場에서 注目할 點은 第三世界에 對한 蘇聯의 浸透可能性을 徹底히 封鎖하려 했다는 點이다. 1977年 11月 1日字 論文에서 “第三世界國家内에는 革命派, 反動派, 中間派, 帝國主義代理人까지 있을 수 있으나 總體的인 面에서 보아 第三世界가 反帝·反植民·反霸權主義斗争의 主力軍이 되는 데는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는 點을 強調하고 있다. 이는 蘇聯의 同地域浸透를 封鎖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第三世界를 다시 「革命性」과 「進歩性」을 基準으로 細分하게 되면 第三世界の 分裂·反目を 招來하여 「第四世界」⁹⁾라는 概念을 形成하게 될 뿐 아니라, 分裂 그 自體가 蘇聯의 同地域 浸透에 有利하게 作用하리라는 判斷에서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國家들로 構成된다는 第三世界에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등 脫蘇 東歐共產國家를 包含시킨 데서도 中共이 第三世界를 蘇聯과 關係없는 地域으로 또는 反蘇地域으

註9) 1975年 30次 유엔總會에서 喬冠華는 蘇聯의 第三世界浸透可能性을 豫想하고 第三世界國家들을 거냥하여 “開發途上國家들 가운데는 極도로 窮乏한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가 도와주면 되는 일이고 事實上 그렇게 되고 있다. 따라서 極도로 궁핍한 나라들을 「第四世界」라고 부르는 것은 根據없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함으로써 第三世界内の 團結을 促求하려 했다. 「人民日報」, 1975.9.27.

로 規定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0)

第三世界에 對한 蘇聯의 浸透를 沮止하는 代身 中共의 影響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中共은 第三世界の 立場을 支持하고 代辯하면서도 그 自身이 直接的으로 介入하지는 않았다. 例컨대 ASEAN이나 「아프리카團結機構」 또는 OPEC와 같은 第三世界の 「消費財 生産者 機構」등을 讚成·支持하면서도 社會主義國家로서의 中共의 獨自性을 理由로 이러한 機構에 直接 參與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海洋法會議·人口會議·食糧會議 등에서도 中共은 第三世界の 立場을 支持하고 代辯한 結果 第三世界國家들 중 中共의 兩大 超強國에 對한 反對立場을 支持하는 國家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11)

第二世界가 反霸權主義斗争의 豫備軍으로 選定된 것은 第二世界の 兩面性때문이다. 第二世界の 兩面性에 對한 論議에서 毛澤東의 矛盾論·適用과 對內的 價値 및 規範의 國際的 擴散·適用事例를 發見하게 된다. 第二世界の 兩面性에 對한 分析은 毛澤東의 抗日 및 共產化戰略에서의 資產階級에 對한 評價와 類似하다. 즉 資產階級이라는 屬性때문에 「人民」을 搾取한다는 點에서는 本質上 日本帝國主義 및 封建統治勢力과 같으나 反日이라는 點에서는 「人民」과 行動을 같이 할 수 있는 面이 있기 때문에 一定한 條件下에서 이들을 反帝斗争에 參與시킬 수 있고,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註 10) Yahuda, op. cit., p. 259 參照.

11) Ibid., p. 260.

第二世界の 特性을 反帝斗争이라는 脈絡에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中共은 東歐國家중 체코, 폴란드등 反蘇·反體制運動이 일고 있거나 있었던 國家도 第二世界에 包含시키고 있다.¹²⁾

이런 點에서 볼 때 中共의 第二世界觀은 階級的 論理에 立脚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矛盾論에 根據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第二世界에 對한 評價를 함에 있어 人民日報는 이러한 階級的 矛盾論理에 依하여 兩面性을 指摘하기 前에 먼저 前後 30 年間の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勢力變化에 따른 矛盾方面사이의 轉化를 論議하였다는 點이 우리의 注目을 끈다. 人民日報는 歐洲共同體의 發展, 드골의 對美獨立路線, 美國의 印度支那戰爭政策에 對한 西歐의 非難과 批判, 美弗貨中心貨幣體制的 崩壞등 事例를 指摘함으로써 勢力關係의 變化라는 視角에서 第二世界の 反美立場을 論했다.

또한 蘇聯의 對西歐 및 對日 軍事威脅과 膨脹政策이 第二世界の 反霸權主義斗争을, 刺戟하고 있다고 指摘함으로써 西方的인 國際政治分析의 틀을 使用했다는 點은 中共의 國際秩序觀變화와 깊은 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로서 重大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勢力關係變化에 對한 着眼은 勢力均衡的 思考를 낳고, 이는 다시 勢力均衡을 위한 對第二世界對外活動을 刺戟하였다. 1970年代 中共의 對第二世界接近은 括目할 만한 成長趨勢를 보였다.

註 12) 「人民日報」, 1977.11.1.

中共의 對第二世界關係에서 가장 活潑하게 進行된 것은 貿易分野였다. 1971年부터 1975年 사이에 中共의 對外貿易量이 4倍로 늘어났는데 그중 5%가 對西歐·카나다·오스트랄리아·日本과의 貿易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中共은 이들 나라로부터 先進技術을 導入하고 新式武器體系의 部屬品까지 購入했다.¹³⁾

貿易關係의 改善·強化와 더불어 나타난 것이 中共의 對西歐 政治的 接近이었다. 英·獨·仏의 指導者들이 北京을 訪問했고 中共에서도 1979年 10月 15日~11月 6日기간 동안에 華國鋒이 仏·獨·英·伊 등 西歐 4個國을 巡訪하였다. 中共은 歐洲共同體에 對해서 특별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 바, 歐洲聯邦論者들보다 더 積極的인 姿勢로 歐洲共同體가 自力에 의한 防衛共同體로까지 發展할 것을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期待가 쉽게 이루어지기에는 西歐內部에 複雜한 問題가 많다는 것을 中共 亦是 잘 알고 있기 때문에 西歐에 對하여 無理한 要求를 하지 않고 있지만, 西歐 國家들이 蘇聯의 對歐洲威脅과 戰爭挑發可能性에 對한 中共의 警告와 主張을 大部分 받아들이고 있다는 點은 對西歐 中共外交의 크나큰 成果라고 할 수 있다.

70年代初 對西歐接近을 促進시키면서도 中共은, 公式적으로는 西

註 13)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 Preassessment of the Economy, 10 July 1975, p. 631, pp. 649 - 50: Yahuda, op. cit., p. 257

歐의 資本主義的 本質과 對內的 階級紛爭을 指摘하여 왔었다. 즉 西歐의 指導者와 独占資本家들이 經濟危機의 負擔을 勤勞人民大衆에게 지우려 하고 있다고 非難을 했었다. 그러나 勢力均衡에 눈뜨기 始作하면서부터 中共은 資本主義的 本質에도 不拘하고 西歐國家에 대하여 政府次元에서 積極的으로 接近하기 始作했다. 왜냐하면 資本主義自體의 階級的 本質은 保守的인 것이지만 바로 그 保守的인 本質이 소련의 膨脹政策을 反對하도록 하는 要因이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言行을 믿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의 政策에 대한 展望까지도 可能하게 해 준다고 判斷한 때문이다.¹⁴⁾

中共이 NATO의 強化를 支持하고 EEC와 最惠國貿易協定을 締結하는 등 對西方 政府次元의 接近을 強化하면서 中共은 西歐共産黨들에 對한 非難을 더욱 強하게 展開했다.

70年代初에도 西歐共産黨을 修正主義集團으로 指目했지만 中共이 西歐共産黨을 外面하는 것은 西歐國家들의 政府와의 關係強化를 통한 對蘇牽制의 布石으로서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다.¹⁵⁾

以上을 通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三世界論을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三世界論은 矛盾論, 勢力均衡論, 共産主義革命戰略·戰術概念, 中國의 傳統的 外交戰略概念의 混合體라는 것이다.

註 14) Ibid.

15) Chalmers Johnson, "The New Thrust in China'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Fall, 1978, p. 129.

理論構成 및 展開의 方式에 있어서는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概念에 立脚하는 한편 國際關係의 分析에 있어 矛盾論을 基調로 하되 勢力均衡의 概念을 도입하였으며 戰略目標達成의 手段講究에 있어서 共產主義革命戰略·戰術以外에 「以夷制夷」 「合縱」등 中國의 傳統的 外交戰略들이 加味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三世界論은 中共의 對外活動의 範圍를 넓힐 뿐 아니라 對西歐接近까지도 合理化할 수 있는 名分으로서 機能했다는 것이다. 三世界論이 理論적으로는 反美·反蘇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를 名分으로 對第三世界影響力을 強化하는 한편 反蘇를 名分으로 西歐·日本등 第二世界에 對한 接近을 試圖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理論적으로는 反霸權主義斗争에만 動員될 수 있는 豫備軍으로 規定된 第二世界에 對한 接近을 合理化시켜 줄 수 있었다는 點에서 三世界論의 理論的 展開는 高度의 戰略性을 띤 措置였다고 할 수 있다.

나. 三世界論以後 中共外交의 新趨勢

— 現代化外交와 勢力均衡의 併行 —

政權樹立初期부터 文化大革命期까지의 中共의 對外政策은 主로 對蘇關係라는 對外的 要因에 依해서 樹立·執行되어 왔다. 그런데 이 期間中 對蘇關係는 國內的 要因인 權力斗争이라는 問題와 緊密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註 16) 鄭鍾旭, “外交政策,” p. 52.

그러나 中·蘇紛爭이 長期化되고, 蘇聯의 對中共 軍事的 威脅이 顯在化하자 中共은 反霸權主義國際統一戰線의 結成을 追求하면서 對西方接近을 摸索하는 同時에 이를 合理化하기 위한 三世界論을 展開하였다. 또한 中共의 國力을 強化시키기 위하여 四個現代化를 推進하고 있다. 中共의 立場에서는 勢力均衡的 現象維持만으로는 中共의 安全을 窮極적으로 保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中共의 國際的 地位를 強化시키기 어렵다는 判斷에서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 四個分野에서 西紀 2000 년까지 先進國水準을 確保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中共은 勢力均衡外交를 통해 暫定的인 安全保障을 確保하는 한편 現代化로 中共의 國力을 強化하려 하는 바, 勢力均衡外交는 現代化의 與件造成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兩面作戰을 展開하는 時期에 있어서 中共의 對外政策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主要한 變數는 經濟發展에 對한 要求라는 國內的 要因으로 바뀌게 된 셈이다. 勿論 對蘇抗爭이라는 要因이 對外政策決定의 要因으로 作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優先順位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오늘날 中共外交는 現代化外交라고 特徵지을 수 있을 것이다.

中共이 四個現代化計劃을 公式적으로 밝힌 것은 1978 年 2 月 27 日 부터 3 月 5 日까지 열렸던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5 期 1 次會議에서 였다. 즉 당시 國務院總理 華國鋒이 政府工作報告¹⁷⁾에서 「國民經

註 17) 華國鋒의 政府工作報告는 「人民日報」, 1978. 3. 7.

濟發展十年計劃要綱」을 통해 1976년부터 1985년까지의 經濟發展計劃을 밝히고 西紀 2000년까지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 四個分野에서 現代化를 이룩함으로써 西方의 先進資本主義國家들의 隊列에 끼겠다고 宣言했던 것이다. 華國鋒의 近代化에 對한 靑写真公表와 아울러 中共은 憲法을 改正하고 그 前文에 “無產階級獨裁下에 「繼續革命」을 堅持하고 「階級斗爭」을 展開하며 「生産斗爭과 科學實驗」을 하는 등 三大革命運動을 함으로써 今世紀內에 우리나라를 農業·工業·國防·科學技術에 있어 現代化된 偉大한 社會主義強國으로 만든다”라고 明示하기에 까지 이르렀다.¹⁸⁾

勿論 華國鋒이 提示한 近代化의 靑写真이 最初의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64년부터 毛澤東은 西紀 2000년까지 中共을 先進國隊列에 參與시키겠다는 꿈을 莫然하나마 披擲했고, 文化大革命的 混亂이 가라앉고 林彪事件의 後統處理까지 끝난 1975年1月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周恩來도 四次五個年經濟發展計劃(1976-1980)을 發表하면서 비슷한 現代化의 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周恩來의 꿈은 四人幫事件을 前後한 政治的 소용돌이 속에서 그 實踐이 延期되었고, 1978年2月 全國人民代表大會 5期1次會議가 열릴 즈음해서는 第四次五個年計劃의 期間內 達成이 不可能하다는 것이 明白해졌다. 이에 第四次五個年計劃과 第五次五個年計劃이 「國民經濟十

註 18) 1978年3月 全國人民代表大會 第5期1次會議에서 採擇된 修正憲法은 이러한 規定 때문에 一名「現代化憲法」이라고도 俗稱되고 있다. 憲法全文은 「人民日報」, 1978.3.8.

年發展計劃」으로 統合·調整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華國鋒의 現代化計劃은 原來의 計劃이 四人幫事件으로 因하여 延期되고 調整이 不可避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計劃의 內容自體가 박찬 것이었다.¹⁹⁾

現代化가 中共外交에 미치는 影響의 深刻性은 이미 指摘한 바 있지만 中共外交의 性格과 展望에 對한 理解를 위해서 現代化計劃中 重要目標를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10 個年計劃 (76~85)의 主要프로젝트 및 그 目標²⁰⁾

년도 分野	79 80 81 82 83 84 85	85 년의 目標
금속공업	자원탐사와 자원의 공동개발 : 鞍山, 本溪, 石景山, 武漢, 馬鞍山 등의 既設製鐵所의 改造 : 上海宝山, 河北冀東 등 大規模 製鐵所의 新規建設.	10 大 鐵鋼工場을 건설하여 粗鋼年産 6,000 만톤의 능력을 갖추고 9개의 非鐵工場을 建設 完了한다.
기계공업	单品多量生産體制確立 : 製品の 標準化 : 部品生産의 專門化 : 기술수준을 세계의 70年代의 최고 수준 도달 : 농업기계 및 자동차공업 先行 : 省力化 技術의 도입	노동생산성을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키고 鋼材使用率을 70% 이상으로 올린다.

註 19) 鄭鍾旭, "外交政策", pp.52 - 53.

20) 資料出處, Ibid., p.54.

년도 分野	79 80 81 82 83 84 85	85 年의 目標
石 油	渤海灣과 珠江의 日·美·中 공동개발 : 大慶油田등 既存 大規模工場의 生産能力增強 (年産 4,000 ~ 5,000 만톤)	10개 油田 및 가스 油田 建設
石 炭	兗州, 古交, 大同, 淮北등 大 型炭鉍을 日·美·西獨과 공 동개발 : 華東, 東北, 中南지역 의 主要炭鉍의 機械化 : 그 밖의 大,中規模의 炭鉍機械化	8개의 炭鉍 新規建設 : 年産 10 億톤. 全國에 12개 商 品食糧 生産기지 建設.
電 力	大型火力發電所 (30 ~ 60 만킬 로와트) 建設 : 全國적인 高壓 線 電線망 建設 : 長江과 黃河에 日本과 美國과 공동으로 大 規模火力發電所 建設	30개 발전소 新規建設
石油化學	尿素, 合纖을 비롯한 總合的 인 石油化學콤비나트를 北京, 上海, 南京, 四川, 大慶, 吉林, 蘭州등에 建設	各 省, 市, 自治區에 최소한 1개이상의 大型化學비료工場 을 建設 : 紡織原料에 合纖使 用을 4% 이상.

分野	년도	85년의 目標
	79 80 81 82 83 84 85	
농업	農業機械率 70 % 이상 (80 년까지) : 헥타르당 비료사 용량 600 kg 이상 (80 년까 지) : 農業機械化率 85 % 이상 (85 년까지)	食糧生産 4 億톤.

上記表에서 볼 수 있듯이 現代化計劃의 가장 重要한 部門은 金屬・機械工業部門과 石油・石炭등 에너지部門으로서 이 部門의 發展은 工業의 近代化뿐 아니라 農業 및 國防의 近代化에도 寄與하는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이러한 計劃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資金과 技術이 必要하다는 데 있다. 現代化計劃實現을 위한 基本建設投資에 所要되는 額數는 6,000 億 - 8,000 億弗로서 이중 10 個年計劃 (1976 - 1985) 中 120 個의 大型프로젝트 建設에 3,200 億弗 程度라고 推算되고 있다.²¹⁾ 이에 비해 中共의 對外支払能力은 殆貧弱한

註21) 丁世鉉, 「中共의 四個現代化計劃評價」(國土統一院報告書, 1979.5.15), p.2. 同報告書는 1979年5月14日 海外經濟研究所主催 「春季共產圈經濟學術세미나」에 參席한 日本 東京工業大學 矢島鈞次教授가 行한 “中共의 四個現代化計劃評價와 實現可能性” 이란 題下의 講演內容을 要約하여 報告書로 作成한 것임을 밝혀둔다. 日本의 「世界經濟評論」, 1979.1. p.76 에서는 所要額數를 6,000 億弗 (資本投資 3,500 億弗以上) 로 評價하고 있다.

實情에 있다. 1978年末現在 對外支払能力은 55億弗(外貨保有 : 20億弗, 阿片輸出에 依한 備蓄額 : 10億弗, 金保有 : 20億弗, 華僑送金額 : 5億弗)에 不過하고,²²⁾ 1978年 輸出이 100億弗에 不過²³⁾ 하다는 事實을 勘案하면 現代化에 必要한 資金과 中共의 能力에 어느 만큼의 差異가 나는 지는 쉽게 알 수 있다.

現代化에 必要한 技術 또한 問題로 되어 있다. 華國鋒이 1978年 3月 「全國科學大會」에서 發表한 「科學十年發展要綱」에 의하면 1985년까지 中共은 專門科學技術要員 80萬名이 必要하다고 한다.

그러나 現在 中共이 可用한 科學者 乃至 技術者는 6萬5千名程度에 不過하다는 事實과 그나마 高級技術者들이 大部分 70~80歲의 高齡이라는 事實을²⁴⁾ 勘案하면 中共이 設使 外國으로부터 플랜트를 導入해도 運用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생기는 實情이다.

以上과 같은 資金不足과 技術不足이 中共外交를 現代化를 위한 對西方密着으로 方向지워주고 있는 것이다.

中共은 이러한 龐大한 資金需要를 主로 石油, 石炭 그리고 輕工業製品의 輸出을 통해서 充當하려 하고 있다. 그 中 石油가

註 22) 丁世鉉, 「中共의 四個現代化計劃評價」, p.3.

23) 鄭鍾旭, 「外交政策」, p.53.

24) 丁世鉉, 「中共의 四個現代化計劃評價」, p.1. 矢島教授는 高級技術者들이 高齡인 것은 大部分의 技術者들이 文化大革命期間동안에 党性批判을 받고 職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指摘하고, 1978年 당시 技術修習次 日本에 가있는 技術者 中 제일 젊은 층이 50代라고 報告하였다.

外貨獲得源으로서 차지하는 比重은 거의 壓倒的인 바, 10 個年計劃 에서는 새로운 油田의 開發, 특히 近海油田의 開發에 큰 力點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近海油田開發에 있어 美國이 世界어 느나라보다도 先進技術을 保有하고 있고 日本 또한 海底油田開發에 있어 높은 技術水準을 維持하고 있다는 데에도 中共의 對美·對日 密着이 不可避해지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²⁵⁾

中共이 現代化를 서두르는 目的은 그들 自身이 告白하고 있듯이 「偉대한 社會主義強國」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現代化를 達成하는 데는 資金과 技術도 必要하지만 自國의 安保와 周邊情勢가 安定되는 것 또한 重要な 要件이 된다.

中共이 自國의 安保를 威脅하는 第一次的인 假想敵國으로 보는 것은, 中共이 屢次 暗示해 왔고 三世界論에서도 이미 指摘되었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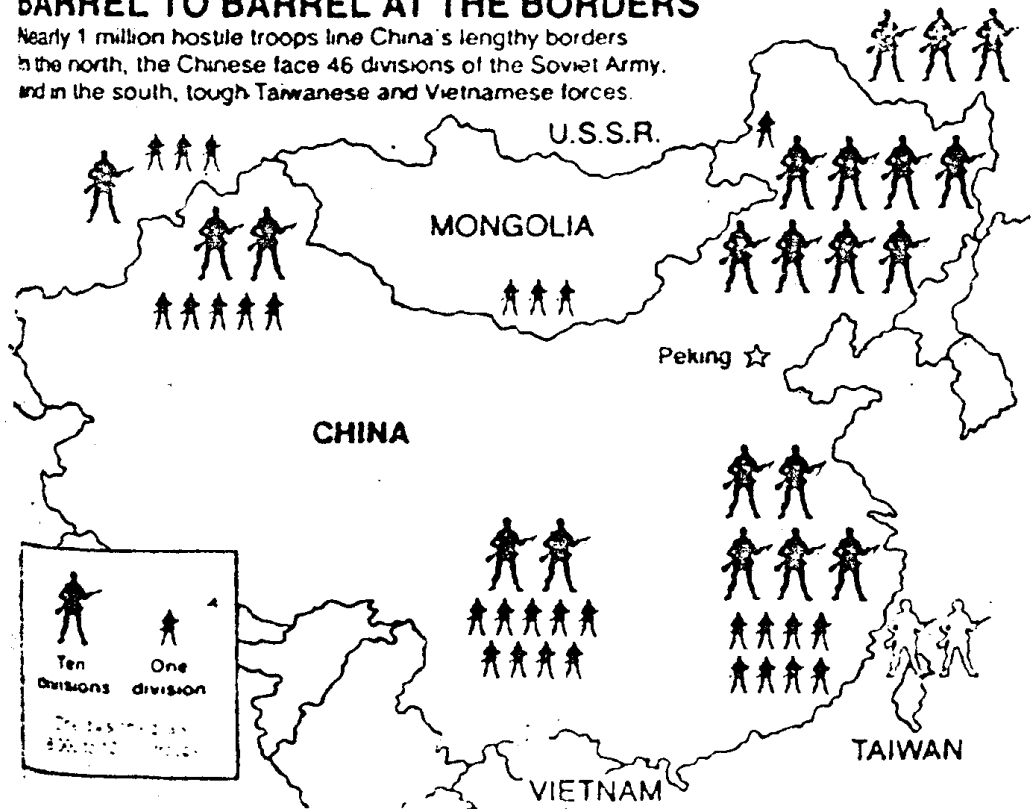
註 25) 鄭鍾旭, “外交政策”, pp.53-54. 中共의 油田分布 및 油田 開發에 관한 簡略한 分析은, *idem*, “資源과 開發問題 - 中共의 石油問題를 中心으로” 「서울大國際問題研究所論文集」, 第六號(1980), pp.94-103. 仔細한 論議는 Selig Harrison, China, Oil and Asia: Conflict Ahea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특히 pp.10-124 參照.

蘇聯이다.²⁶⁾ 勿論 現在狀況에서 蘇聯이 中共에 對한 全面攻擊을 해

註 26) 中共의 對外 軍事的 對峙狀況을 보면 中共은 46 個의 蘇聯 師團과 對峙하여 中共의 北部에 106 個 師團을 配置하고 있고, 親蘇越南의 10 個師團에 對峙하여 中共의 南部에 29 個師團을 配置하고 있다. 臺灣의 軍隊가 親蘇는 아니지만 中共과 敵對的이라는 點에서는 中共의 軍事的 負擔을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58 個師團을 東部에 配置시켜 臺灣의 20 個師團과 對峙하고 있다. 參考로 이를 地圖上에 表視하면 다음과 같다.

BARREL TO BARREL AT THE BORDERS

Nearly 1 million hostile troops line China's lengthy borders. In the north, the Chinese face 46 divisions of the Soviet Army, and in the south, tough Taiwanese and Vietnamese forces.



資料出處：Newsweek
(1980.6.9. p. 3.)

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中共의 北部地方이나 東北部 또는 北西部에서 制限된 政治的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先制奇襲攻擊을 加해 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中共도 이러한 가능성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이 現在 推進하고 있는 核武器開發이 1984年以前에 蘇聯에 對해서 最小限의 沮止力(minimum credible deterrence)을 保有할 程度로 進歩될 可能性이 濃厚한 바, 中共이 이러한 能力을 갖추기 前에 蘇聯이 中共西北部地方에 있는 核施設이나 東北部 또는 北部의 工業施設에 對해서 先制攻擊을 加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⁷⁾

만약 蘇聯이 中共을 攻擊하는 경우 美·蘇, 美·日關係는 一時的으로 冷却되고 더우기 第三世界國家들의 對蘇支持가 크게 줄어들 것은 充分히 豫想되는 바로서 蘇聯도 이 點을 두려워 하고 있지만, 앞으로 中共이 現代化를 成功裡에 達成함으로써 中·蘇間의 勢

註 27) 鄭鍾旭, "外交政策", p. 56.

力對比는 28) 勿論 凡世界的 均衡이 破壞되고 따라서 蘇聯에 絶對的으로 不利한 事態가 招來된다면 蘇聯으로서는 미리 中共의 力量을 弱화시키는 措置를 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으로서는 必要以上으로 蘇聯을 刺戟하지 않으면서 同時에 美·日·西歐와 第三世界國家들에 對한 外交的關係를 強化하여, 蘇聯이 中共에 對하여 先制奇襲攻擊을 加하는 境遇 그 政治的 副作用이 極大化하리라는 點을 蘇聯側에 認識시킴으로써 蘇聯의 對中共攻擊을 防止하려 하고 있다. 29)

이러한 對蘇軍事的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東北亞에서 蘇聯과 對峙하고 있는 美·日과 歐羅巴에서 蘇聯의 威脅을 받고 있는 나라들과 提携하는 艱박에 없다. 뿐만 아니라 獨自的인 對蘇抑止力을 갖추기 위한 現代化 - 國防의 現代化 및 이를 뒷받

註 28) 參考로 現在의 美國·蘇聯·中共의 軍事力을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地上軍	核彈頭	長距離誘導彈	戰鬥機	탱크	航空母艦	其他主要軍艦	核潛水艦	디젤潛水艦
美	200萬名	9,200基	1,710基	6,015臺	12,575臺	13隻	167隻	73隻	7隻
蘇	370萬名	5,000基	2,426基	5,879臺	50,000臺	2隻	273隻	87隻	162隻
中	360萬名	350基	2基	5,500臺	11,000臺	0	25隻	1隻	91隻

(資料出處：Newsweek 1980.6.9, p.14)

數的으로는 如上하지만 裝備의 發展度는 10~20年뒤졌다는 것이 定評이다. 中共軍事力의 現況 특히 그 技術水準에 關해서는 Johnson, op.cit., pp.132-134 參照.

29) 鄭鍾旭, "外交政策", p.56.

침할 工業,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위해서도 이들과 提携하는 길 밖에 없다. 왜냐하면 蘇聯의 對中共 軍事的인 壓力 그 自體가 現代化가 가져올 對蘇不利益이라는 結果를 두려워하는 데서 緣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現代化에 必要的인 技術과 資金支援을 蘇聯으로부터 期待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 이데올로기를 無視한 中共의 對美, 對日 對西歐接近의 또 하나의 動機가 있는 것이다.³⁰⁾

第一次的인 假想敵國인 蘇聯으로부터의 威脅을 阻止시키기 위해서는 美·日·西歐에 接近하여 勢力均衡을 통한 對蘇牽制力을 確保하고 同時에 이들 國家들로부터 現代化에 必要的인 資金과 技術支援까지 받으려는 二重目的에서 中共은 우선 日本과의 關係를 緊密히 하기 始作했다.

中共은 1978年 2月 16日 日本과 向後 8年間 200億弗 相當의 貿易協定을 締結한 것을 契機로, 1974年 11月부터 끌어오던 「中·日平和友好條約」締結 交渉도 1978年 5月 10日부터 再開하여 1978年 8月 12日에는 그 締結을 보게 되었다. 특히 「中·日平和友好條約」에 日本의 要求에 따라 「第三國條項」이 挿入되기는 했지만, 同時에 「反霸權條項」도 挿入되었다는 것은 中共外交에 있어서 凱歌가 아닐 수 없었다.³¹⁾

註 30) Johnson, op. cit., p. 129.

31) 中·日平和·友好條約에 이르는 過程과 中·日間の 未解決問題에 對한 簡略한 分析은 Ibid., pp. 130-132 參照.

日本과의 關係를 緊密히 다져놓은 中共은 歐洲共同體와도 「貿易協定の 輪廓을 밝히는 條約 (Framework of Agreement)」을 締結했고 1979年 12月에는 1979年 1月 1日字로 中·美國交를 正常化한다고 發表하기에 이르렀으며 1979年 1月에는 現代化의 主役 鄧小平의 美國訪問까지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中共의 對西方接近과 密着은 第三世界에 對한 關係를 犧牲시키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中共은 現在 第三世界の 革命에 對한 支持를 줄이고 黨次元의 關係보다 政府次元의 關係에 重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政策은 第三世界の 革新社會主義政黨으로부터 많은 非難을 받고 있다. 中·蘇紛爭以後 中共의 가장 密接한 對蘇斗争의 戰友였던 알바니아와의 關係가 破鏡에 이르게 된 것도 — 勿論 中共과 유고와의 關係가 現實的인 原因이 되었지만 — 中共의 第三世界政策때문이었다. 그러나 中共으로서는 現代化와 對蘇勢力均衡의 確保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로 當面되어 있기 때문에 第三世界에 對한 革命의 支援보다는 政府間의 關係에 注力하여 外交的인 支援을 確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³²⁾

三世界論以後 最近 中共外交에서는 第一世界를 第一次的으로 重視하고 — 그 立場이 敵對的이건 또는 友好的이건 — 第二世界를 第二次的으로 그리고 第三世界는 第三次的으로 考慮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는 바, 이를 歷史의 아이로니로만 돌릴 것인가 아니면 「中體西用」과 「變法自強」을 通하여 強國으로 浮上함으로써 「中華의 榮光」을 再現하려는 中共의 執念의 所産으로 돌릴 것인가?

註 32) 鄭鍾旭, "外交政策", pp. 56-57.

第四節 三世界論과 아시아

가. 中共의 아시아政策基調

中共은 아시아國家의 하나로서 大部分의 아시아國家들과 陸地로 接해 있다. 設便 바다로 隔해있다 하더라도 그 幅이 華南地方에서 華北地方에 이르는 거리보다도 좁을 뿐만 아니라 中共의 主要都市 및 工業地帶가 바다를 向한 平原地帶에 주로 分布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로 隔해 있는 곳도 對中共攻擊의 前哨基地로서의 戰略的 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中共은 周邊아시아 國家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좀더 正確히 말하면 包圍되어 있는— 地政學的 位置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歴史的으로 보면 中國에 對한 威脅은 中國과 隣接한 國家들에 對한 介入의 形態로 始作하여 中國大陸으로까지 번졌었다. 例컨대 清末中國에 있어서 露西亞의 滿洲攻略이 本土에 對한 「野欲」으로 번졌고, 日本의 韓半島侵略이 大陸으로 延長되었으며 英國의 印度經營이 廣東進出로 이어졌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二次大戰後에도 美國의 中共封込政策(Containment Policy)은 韓國과 台灣, 필리핀을 잇는 線에서 이루어졌고, 1969年 여름 蘇聯이 提起한 「아시아集團安保論」도 中共의 周邊國家를 對象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點에서 中共은 自國의 安全保障上 아시아國家들에게 至大한 關

心を 갖지 않을 수 없다. 1)

그러나 이러한 地政学的인 位置에서 緣由한 政策的 關心 以外에도 中共은 아시아에 對하여 關心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음아닌 아시아가 傳統的으로 中國의 政治·文化圈에 屬해 있던 지역이라는 歷史的 事實에 緣由한 關心이다. 바꾸어 말해서 中國中心의 國際秩序體系를 形成하던 構成員들이었다는 데서 中共의 아시아에 對한 關心은 그 뿌리가 매우 깊은 것이다. 2)

中共에 敵對적이던 美國의 對中共 威脅이 아시아의 周邊國家를 통해서 中共에게 加해졌듯이, 中共에 對한 美國의 非敵對적인 姿勢의 表現도 越南등 周邊國家의 問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勿論 美國의 아시아政策이 變化한 것은, 中共도 指摘하고 있듯이, 美國國力の 相對的 衰殘때문이었다. 美國의 아시아介入의 程度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자 蘇聯은 1969年 6月 「아시아集團安保論」을 提唱하고 1972年부터는 越盟과 密着하는 등, 蘇聯이 一躍 아시아에서의 最強勢力으로 登場했을 뿐만 아니라 軍事的인 行動마저도 一路強化해왔다. 요컨대 美國의 對中共 包圍가 풀리자 蘇聯의 對

註 1) Marie Louise-Nath, "PRC Policies Towards South and South East Asia", Current Scene, Vol.13, No.7-8(Jun.-Jul./1975), P.3: 朴奉植, "中共의 韓國觀研究", 「서울大 國際問題研究所論文集」, 第六号(1980) PP.262-263 參照(以下 "韓國觀"으로 略記)

2) Ibid., PP.255-262 參照

中共 包圍가 始作되었던 것이다. 3)

中共이 "앞문으로 호랑이가 나가자 뒷문으로 승냥이가 들어왔다"고 風刺한 바도 있는 이러한 狀況이 展開되기 前까지 中共의 아시아 政策은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優勢를 牽制하며 美國이 中共周邊地域에 軍事基地를 建設하는 것을 阻止시키는 方向에서 樹立·遂行되어 왔다. 그러나 蘇聯의 아시아 進出後로는 中共의 아시아 政策의 方向이 바뀌기 始作했다. 첫째 過去 對美牽制策으로서의 아시아 政策을 遂行하던 時節과는 달리, 第三世界の 一員으로서의 아시아 國家들 사이의 紛爭은 軍事的인 方法 아닌 協商을 通해서 解決되어야만 한다는 立場을 表明하기 始作한 것이다. 만약 協商이 아닌 軍事的 解決方式을 찾는다면 超強國에게 有利한 狀況만이 展開되리라는 것이었다. 4) 둘째 蘇聯의 影響力 扶植을 막기 위하여 東南亞 國家들 사이의 勢力均衡을 造作하려 했다.

이는 1970年 쿠데타로 시하누크를 몰아낸 론놀政府를 蘇聯이 承認한 것을 보고, 蘇聯이 印度支那를 樞點으로 삼아 將次 東南亞에 進出하려고 한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1972年 周恩來가 "印度支那의 어느 한 國家가 다른 國家들을 支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蘇聯의 使喚을 받는 一國이 東南亞를 支配함으로써 東南亞가 對中共 威脅要因이 되는 狀況을 豫防하려는 政策的 意志의

註 3) 「人民日報」, 1980.1.11. 參照

4) Yanuda, Op.cit, P.261.

表現이었던 것이다. 5)

中·蘇間의 抗争이 東南亞로 옮겨지자, 中共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東南亞國家끼리의 「平和中存」 「勢力均衡」을 摸索하면서 東南亞國家들에 對한 接近을 위해 柔軟한 姿勢를 取했다.

原來 東南亞에는 華僑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少數民族問題가 심심치 않게 提起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反政府暴動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東南亞國家들은 中共에 對하여 背後操縱의 嫌疑를 두고 있었다. 東南亞國家들이 中共과 20年以上 敵對的인 關係를 維持해왔던 것은 이러한 中共觀때문이었다. 그러나 中共의 對外政策方向이 바뀌어 對東南亞 柔軟姿勢가 보이고 中共이 UN에 加入하는가 하면, 美·日과 和解를 하면서 對西歐 接近마저 強化하자 東南亞國家들은 - 中共과는 氷炭不相容의 關係에 있었고, 따라서 결코 中共을 承認하지 않을 것 같던 - 그들이 먼저 積極的 對中共 接近을 始作해왔다. 1974年 말레이시아를 畢頭로 1975年에는 필리핀 泰國의 頂上級들이 中共을 訪問했고 1976年 5月에는 李光耀 싱가포르 首相이 中共을 訪問하게 되었다. 6)

東南亞國家들에 對한 外交的 接近이 對蘇牽制라는 目的이 있었던 만큼, 中共은 李光耀의 中共訪問을 契機로 「東南亞國家聯合」(ASEAN)에서 主張하던 「東南亞中立地帶化論」을 熱烈히 支持한다고 力說함

註 5) Ibid., P.263: Ross Terrill, 800,000,000, The Real China(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5), P.235

6) Yahuda, op.cit., P.262

으로써 東南亞地域 특히 「東南亞國家聯合」國家들에 對한 友好的 立場을 더욱 強하게 表出하였다. 「東南亞國家聯合」國家들에 對한 이와같은 接近攻勢는 이미 越南을 蘇聯에 鬻진 뒤였기 때문에 取해진 것이다. 즉 中共에게는 「東南亞中立地帶化」 그 自体도 바람직하지만, 越南을 소련에 鬻김으로써 南쪽에서도 蘇聯의 包圍網이 構築되기 始作했기 때문에 이를 突破하여 東南亞에서 蘇聯을 逆包圍하기 위해서는 「東南亞國家聯合」과 提携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当初에는 政治·軍事的인 目的에서 取해졌던 「東南亞國家聯合」國家들에 對한 外交攻勢는 現代化計劃의 推進과 더불어 經濟的인 側面까지 添加되었다. 中共이 現代化推進에 必要한 資金을 確保하기 위하여 輸出을 擴大하려 한다는 點은 이미 指摘한 바 있다. 中共은 輕工業製品의 輸出에서도 外貨獲得을 增加시키려고 하였던 바, 東南亞가 바로 이 市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978年 여름과 가을에 걸쳐 鄧小平과 李先念이 이들 國家를 訪問하여 「東南亞國家聯合」의 團結을 더욱 強力하게 支持하는 立場을 表明한 것은 政治·軍事·經濟的인 紐帶를 強化시키려는 意圖에서 였던 것이다. 7)

註 7) 鄭鍾旭: "外交政策", P.57. 1978年 復權되어 鄧小平과 더불어 現代化의 雙頭馬車를 끌고가는 陳雲은 1950年代 後半부터 現在의 「東南亞國家聯合」國家들과의 交易을 強調하였다가 毛沢東의 不信을 사서 肅清되었었다고 한다. Franz Schurman, The Logic of World Power(New York:Pantheon Books., 1974), Chap.4

이와같이 東南亞에서도 中共은 蘇聯과 競争하면서 現代化에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東南亞國家들 끼리의 「平和共存」과 「勢力均衡」을 主張하고, 따라서 中共의 平和的인 이미지를 浮刻시키려고 努力해 왔지만, 아시아의 大國으로서의 權威와 役割을 拋棄하지는 않았다. 1974年初 西沙群島(Paracel 群島)의 領有權問題로 티우越南政府와 對立되어 있을 때 中共은 그의 主權이 挑戰받게 될 때는 莫強한 軍事力을 行使할 準備가 되어있음을 充分히 誇示했던 것이다. 아시아國家들은 原來 中共을 大國으로 認識해왔고 지금도 아시아의 大國으로 認定들을 하고 있다.⁸⁾ 中共 亦是 아시아 大國으로서의 中共이라는 自意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1979年初 中·越戰爭에서 立證되었다. 中·越戰爭이 일어났을 때 中共은 越南에 "「教訓」을 주기 위하여 「懲罰」"한 것이라고 中·越戰爭의 性格을 說明했던 바, 「教訓」「懲罰」등의 表現은 過去 宗主國으로서의 中共에 對한 越南의 挑戰을 坐視하지 못하겠다는 뉴앙스를 가진 表現들로서 中共이 自身을 大國視하는 좋은 証拠가 된다고 하겠다.⁹⁾ 다만 그러한 意識을 通常的으로 露骨化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다.

東南亞問題를 通해서 보여준 中共의 아시아 政策은 東北亞에서도

註 8) Yahuda, op.cit., P.264

9) 「人民日報」, 1979.2.21. 및 3.27. 中·越戰爭에 임한 中共의 姿勢에 對한 仔細한 論議는 朱良, "中共進兵越南의 內因和 目的的探討", 「中共研究」, 第十三卷, 第三期(1979.3.15). PP.36-40 參照

같은 類型으로 具現되었다. 즉 「平和共存」 「勢力均衡」이라는 基本立場이 具體적인 政策에 投影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 背景은 다르다. 東南亞에서는 蘇聯과 直接 부딪히는 過程에서 東南亞에 中共의 影響力을 扶植하기 위해서였다면, 東北亞에서의 「平和共存」 「勢力均衡」은 中·美和解의 所産으로서의 意味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東北亞에서의 中共의 影響力을 喪失하지 않으려는 努力의 一環이었기 때문이다. 勿論 中·美和解가 對蘇抗爭이라는 要因에 의한 것이라는 點에서는 東北亞에서의 「平和共存」 「勢力均衡」摸索도 中·蘇關係와 결코 無関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直接的인 原因은 東北亞의 平和적인 現象維持를 希望하는 美國과 提携하기 위해서는 美國의 要求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데 있다.

韓半島는 美·蘇·日뿐만 아니라 中共에게도 重要な 地域이다. 어쩌면 中共에게 가장 重要な 地域인지도 모른다.¹⁰⁾ 그런데 韓半島에 美·蘇·日·中 모두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中共의 韓半島政策은 곧바로 美·日·蘇에 對한 政策으로서의 意味를 지니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中共이 韓半島에서 美·日·蘇와 無関하

註 10) 中共은 韓半島의 戰略的 位置를 "中國의 머리를 치려는 「햄머」모양"으로 놓여 있으면서 "日本의 心臟部를 겨냥한 短劍모양"이라고 表現했다고 한다.

Cn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5-19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5 參照

게 自國의 利益을 追求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韓半島의 國際政治的 位相이다.

中共은 公式的으로는 北韓政權의 對外政策과 對南戰略을 一貫해서 支持해왔다. 北韓政權을 蘇聯에 繫기자 않고 自身의 影響圈下에 두기 위해서는 不得已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非公式的으로는 韓半島에서의 「一民族二國家」라는 現狀維持를 肯定하고, 이러한 現象維持에 있어 美軍의 韓國駐屯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立場을 取하게 되었다. 11)

美軍의 韓國駐屯을 事實上 默認하는 政策은 두가지 目的을 가지고 있다. 첫째, 美軍의 韓國駐屯을 通해서 蘇聯의 南下를 沮止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美軍의 韓國駐屯을 通해 北韓政權의 對南挑發을 抑止함으로써 現代化에 必要한 周邊情勢의 安定을 圖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北韓間의 「朝·中友好協助 및 相互援助條約」이 아직 有効한 바 條約의 規定上 韓半島에 戰爭이 發生할 경우 介

註 11) 對內的으로 이러한 立場은 이미 1975年 5月 以前부터 定해져 있었다. 喬冠華는 1975.5.20. 天津警備區 政治部講堂에서 한 秘密報告에서 "戰略的이고 一時的"이라는 但書 붙이고 "아시아駐屯 美軍의 即刻的인 全面撤収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Ch'iao Kuan-hua's Speech on Foreign Policy", op.cit., P.22

入할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¹²⁾ 6.25 戰爭以後 「唇亡齒寒」 「血盟」을 자주 強調해왔기 때문에 名分上 北韓을 支援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어있다. 反面 北韓을 支援하다 보면 結果적으로 美國과 戰爭을 해야만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中共의 北韓政權에 對한 支援에 있어서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二律背反的인 立場에 處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安定된 周邊環境을 造成하여 現代化를 成功裡에 達成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戰爭狀態가 惹起되지 않도록 北韓을 說得하고 牽制하는 路밖에 없다. 이에 따라 北韓의 對南戰略과 關聯된 問題에 對한 中共의 立場이 現實적으로도 兩面的이고 二律背反적으로 露呈될 수 밖에 없었다.

中共의 世界戰略은 現代化와 勢力均衡에 依한 安全保障이라는 두 가지가 融合되어 展開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目標의 優先順位를 가리기가 實로 어려운 點마저 있다. 그러나 中共과 隣接한

註 12) 1961年 7月 11日 金日成과 周恩來 사이에 締結된 「朝·中友好協助 및 相互援助條約」 第二條에서는 "締約一方이 어떤 國家 또는 몇개의 國家들의 聯合으로부터 武力侵攻을 당함으로써 戰爭狀態에 處하게 되는 경우, 締約相手方은 모든 힘을 다하여 遲滯없이 軍事的 및 其他援助를 提供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第 7條에서는 "本條約은 修正 또는 廢棄한데 對한 雙方間의 合意가 없는 以上 계속 効力を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半永久的인 條約(蘇聯과 北韓은 最初 10年以後 5年씩 期間으로 延長될 수 있도록 規定)을 締結하였다.

국가들에 대한 政策의 大体的인 흐름을 隣接國家들의 戰略的 位置와 政治・經濟的 立場때문에 對蘇牽制 目的의 接近을 통한 自國의 安全保障과 周邊情勢의 安定이라는 점에 焦點이 주어지고 있으며, 強穩의 方法을 選擇的으로 쓰면서 아시아大國으로서의 影響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安全保障과 周邊情勢安定追求가 現代化를 위한 條件造成的 一環임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이러한 政策基調는 越南을 蘇聯에 빼긴 뒤 唯一하게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中共에게는 가장 重要한 地域인 한반도에서 高度로 複合되어 具現되고 있다.

나. 中共의 한반도정책

— 三世界論以後 對北韓支援問題를 中心으로 —

中共의 韓半島政策은 南北韓의 統一問題와 關聯된 北韓의 主張 및 提議에 對한 反應과 美軍撤収와 關聯된 北韓의 對美・對南誹謗에 對한 立場이라는 두가지 形式으로 表現된다고 할 수 있다. 13)

勿論 두 가지 問題는 서로 連結되어 있는 問題로서 別個로 分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論理展開의 便宜를 위해서 두 가지 問題를 나누어서 考察하기로 한다. 論理展開의 便宜란, 名分과 實際사이의 乖離를 指摘하는 데 있어서의 便宜를 말한다. 즉 名分

註13) 朴奉植, "韓國觀", P.265

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北韓의 統一方案 및 對南提議에 對한 支援과, 中共의 利害와도 關聯되어 있는 美軍撤収問題에 對한 北韓의 立場에 對하여 中共이 反應을 보이는 것을 實際問題라고 前提하고, 두가지 問題를 놓고 中共에 보이는 反應을 比較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目的을 充足시키면서 中共의 한반도정책의 特性을 論議하기 위해서는 中·蘇가 既往에 보여주었던 對北支援의 趨勢를 간략하게나마 考察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大體로 보아 經濟·科學·技術·軍事등 實質的인 問題에 있어서는 蘇聯이 中共보다 앞서왔으며, 이데올로기·統一問題등 北韓政權의 名分과 關聯된 問題에 있어서는 中共이 蘇聯보다 積極的으로 北韓을 支援하는 趨勢를 보여왔다. 14)

그러나 三世界論以後부터는 그 樣相이 달라지기 始作했고, 특히 現代化 推進이 本格化되면서 부터는 더욱 커다란 變化를 보이게 되었는데, 먼저 統一問題와 關聯된 中共의 對北韓支援姿勢의 變化를 보기로 한다.

鄧小平이 公式的으로 三世界論을 提示한(1974.4.11) 뒤인 1974年 6月 25日 人民日報는 韓國戰爭勃發 24周年에 關聯하여 社說을 통해 다음과 같이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였다.

" 韓國의 休戰이 成立된지 이미 21年이 지났으나 朝鮮의 三千里 錦繡江山은 如前히 分斷狀態에 놓여있으며 祖國의 自主·平

註 14) 보다 仔細한 論議는 具本泰·朴鏞德: 「中蘇의 對北傀支援에 關한 研究」(서울: 國土統一院, 1978) 參照

和統一을 實現하기 위하여 全体 朝鮮人民은 長期間에 걸쳐서 不斷한 鬪爭을 展開하면서 一連의 正當하고 合理的인 主張을 提出하여 왔다. 作年 6月 23日 金×× ××은 「民族의 分裂을 防止하고 祖國을 統一하자」는 重要的 談話를 發表하여 祖國統一을 위한 五個綱領을 提出함으로써 또 다시 祖國統一의 正確한 路線을 明白히 하여왔다. 朝鮮政府와 人民의 祖國統一을 爭取하기 위한 努力은 國際적으로 広範한 支持와 讚揚을 받고 있다. 今年 三月 朝鮮最高人民會議는 「美國議會에 보내는 便紙」를 通過시키고 美國政府와 平和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는 바, 이는 朝鮮人民이 朝鮮半島의 緊張된 情勢를 解消하고 祖國의 自主·平和統一을 促進하기 위하여 推進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努力이다." 15)

北韓의 「五大綱領」, 「對美協商 提議」를 積極적으로 支持하면서 中共은 "朝鮮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길"은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없는 條件下에서 朝鮮人民이 自主적으로 統一을 實現시키는 것"임을 強調하고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共同鬪爭에 있어서 中國人民은 永遠히 英雄的인 朝鮮人民과 함께 團結하고 相互支持하고 相互學習하여 共同으로 前進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韓國政府에 對하여서는 北韓이 對內外的으로 朝國政府를 非難하는 論調를 그대로 踏襲하여 非難을 하고 있다. 例컨대 七·四

註 15) 「人民日報」, 1974.6.25

共同声明發表 2周年이 되는 날 人民日報는 "朝鮮統一事業의 破壞者는 果然 누구인가?" 라는 題下의 新華社通信員論評을 掲載하여 다음과 같이 韓國을 非難하였다.

"오로지 帝國主義에 依支하여 人民을 敵으로 하고있는 朴×××은 朝鮮人民의 強列한 要求에 의하여 不得已 이 声明을 發表하는 데 同意는 하였으나 이 声明의 貫徹을 百方으로 阻止하여 朝鮮의 統一事業을 破壞하고 있다. ……그들은 다만 南北의 接觸을 利用하여 南朝鮮人民의 그들에 對한 不滿과 反抗을 緩和하려고만 企圖하였다." 16)

以上과 같은 論調는 北韓의 對南放送이나 所謂 統革黨放送의 對南非難 論調와 完全一致한다. 7·4 南北共同声明以後 원래 北韓이 南北對話에 應해왔던 所期의 目標가 達成되지는 않았지만, 더 以上 期待할 것이 없다는 判斷아래 韓國內部の 政治的 事件을 理由로 1973年 8月 28日 이른 바 金英柱声明을 통해 對話의 主要한 通路를 一方的으로 遮斷했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對話 및 統一問題에 관한 中共側의 論調는 위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大体로 韓國政府의 統一努力을 全面無視하고 北韓側의 主張을 거의 踏襲하거나 引用하는 方式으로 北韓을 支持해 왔다. 17)

그러나 1974年 7月 4日字 人民日報에 실린 글을 마지막으로 中共의 韓國統一問題關聯 對南非難이나 對北支持의 論調가 相當히

註 16) 「人民日報」, 1974.7.4

17) 朴奉植: "韓國觀" P.266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美國과의 關係가 緊密해지면서 부터는 그 變化가 極甚했다. 그동안 中共은 北韓의 主要·對南提議 記念日이나 南北韓問題關聯 날짜가 되면 社說 또는 評論員의 論評을 掲載하여 왔었다. 그러나 1974年7月4日 「7·4共同聲明」에 關聯하여 北韓을 支持하는 社說과 論評을 掲載한 以後 社說·論評形式으로 北韓의 統一問題關聯 提議나 主張을 支持하는 傾向은 크게 줄어들었다. 代身 紀行文이나 論評없는 單純한 事實報道 또는 轉載形式들을 즐겨 取했으며, 論調에 있어서도 매우 抽象的으로만 統一의 當위성을 인정해줄 뿐 韓國을 「反動」이나 「統一을 妨害하는 勢力」이니 하는 表現은 一切 쓰지 않아 왔음이 特徵적으로 浮刻된다. 18)

現代化에 總力을 기울이기 始作하고 美國과의 國交도 正常化한 뒤인 1979年7月6日 人民日報는 "朝鮮統一의 歷史的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는 題下의 그러나 至極히 平凡하고 特別한 意味가 전혀없는 人民日報記者의 北韓旅行記를 掲載함으로써 「7·4共同聲明」에 關聯하여 中共의 微溫的인 對北韓支持趨勢를 더욱 浮刻시켰다. 關係句節中의 一部를 引用해 본다.

"수년 동안 조선노동당과 정부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一連의 正確하고 合理的인 建議를 提出하여 왔다.조선의 자주·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人心이 향하는 方

註18) Ibid., P.267

向이며 大勢의 나아가는 바이다. 이러한 歷史의 潮流는 어떠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19)

統一問題에 關係된 北韓의 主張이나 提議에 對한 支持論調가 變換한 것은 美軍撤収問題와 關聯된 對美·對南 非難論調의 變化와 表裏를 이루고 있다.

過去 60年代까지 中共은 駐韓美軍撤収問題에 對하여 北韓의 主張대로 駐韓美軍의 「全面的이고 即刻的인 撤収」를 支持하여 왔다. 또한 美國을 非難하는 데 있어서도 「美帝國主義」가 韓國을 占領하고서 北韓을 「侵略할 機會를 노리고 있다」는 등 極限的인 表現들을 使用하여 왔다. 그러나 美國과 中共關係가 好轉되면서 부터는 美國을 「美帝國主義」라고 罵倒할 수 없어졌고 美軍의 撤収問題를 自進하여 拳論하기에도 困難해졌다. 20)

中共이 美軍撤収問題에 對하여 北韓과 立場의 差異를 보이기 始作한 것은 大體로 1977年初로 보인다. 이때부터 中共의 報道機關에서는 「美軍의 全面的이고 即刻的인 撤収」主張代身 「美軍의 全面的인 撤収」만을 主張하는가 하면 海底石油開發問題를 놓고 韓國과 協商할 用意까지 表明한 바 있다. 21) 元來 中·蘇對立의 狀況에서 對蘇牽制를 위한 同伴者로 美國을 挾하고 對美接近을 해왔기 때문에 美軍이 結局은 아시아에서 全面的으로 撤収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註 19) 「人民日報」, 1979.7.6

20) 朴奉植: "韓國觀", P.263

21) 鄭鍾旭: 「對韓半島政策」, PP.46-47.

中共의 立場이겠지만, 「即刻적인 撤軍」은 中共의 對蘇牽制라는 對美政策의 基本目標와 어긋나는 일이다.

名分上의 支援을 對北韓外交의 主要手段으로 삼아왔던 中共이지만 美軍撤収問題로 困境에 處해있을 수만은 없었다. 對美接近이 中共의 四個現代化를 위해 最急先務이지만 北韓이 蘇聯에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도 中共의 安保에 있어서 至大한 問題이므로 中共은 北韓을 무마하기 위하여 補償을 해주어야만 했다. 그 길만이 北韓과의 關係를 破壞시키지 않고 自國의 利益을 確保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²²⁾ 1978年 中共에서는 華國鋒 黨主席兼 總理와 副主席 鄧小平이 各各 北韓을 訪問하고 經濟的 支援을 約束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中共의 頂上級 人士 2名이 交代로 北韓을 訪問한 것은 美軍問題와 關聯된 名分支援을 減少시키면서 中共·北韓關係를 維持할 수 있는 方途를 摸索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分明히 立場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華國鋒歡迎 平壤市軍중집회에서 金日成과 華國鋒은 各各 다음과 같이 美軍撤収問題에 對한 立場의 差異를 드러냈다.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미국이 지금과

註 22) 70年代初 中共이 秘密裡에 美國과 接觸하면서 中共은 北韓과 越南에 對하여 巨物級 招請·訪問外交를 展開하는 한편 關係記事를 大的으로 報道하거나 物質的支援을 強化하는 方式을 活用하였다. Ibid., PP. 38-39 參照

같은 무모한 무력증강 행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미 <공약>
한대로 남조선에서 자기 무력을 하루빨리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미국은 또한 안팎으로 고립되어 인민들의 증오와 배
격을 받고 있는 남조선의 현직권자들을 무력으로 뒷받침해 주
고 있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하며……”

“미국정부는 남조선으로부터 자기의 침략군과 (아랫줄 : 筆者) 군
사장비를 전부 철거시켜야 하며 조선문제는 김일성이 내놓은
3대원칙 5대방침에 따라 외세의 간섭없이……해결되어야 합니
다.” 23)

金日成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駐韓美軍撤収」와 「韓美關係의
斷絶」을 要求하고 있는 데 反하여, 華國鋒은 「全面的인 駐韓美軍의
撤収」라는 原則만을 論하고 있는 것을 볼 때 中共의 對韓政策이
北韓 為主에서 벗어나 이미 美國의 東北亞政策과 軌를 같이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駐韓美軍을 完全撤収
시키겠다는 것이 美國의 東北亞政策의 基本前提임은 周知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華國鋒의 演說內容中 注目할 만한 것은 美軍을
指稱할 때 「侵略軍」이라는 表現을 썼다는 点이다. 「侵略」이라는
但書는 後日 駐韓美軍의 性格을 規定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解
釈을 可能케 할 餘地를 內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駐韓美
軍이 侵略的 性格의 軍隊가 아니기 때문에 中共으로서는 北韓의 駐

註23) 「로동신문」, 1978.5.8

韓美軍撤収 主張을 支持하지 못하겠다는 論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24)

華国鋒의 演說에서 또 한가지 注目할 만한 것은 過去와 달리 韓美間의 關係를 非難하는 語句를 一切 使用하지 않았다는 点이다. 過去 中共은 이른바 「두개의 조선 조작책동」問題로 韓·美間의 關係를 非難해 왔었다. 1974年 UN總會와 1975年 UN總會에서 까지 中共代表는 韓·美關係를 各各 다음과 같이 規定, 非難하였었다.

"남조선 당국은……완강히 「두개의 조선」이라는 민족분열정책을 추진하여 실력대결을 고취하고……남북회담을 정체상태로 몰아넣었다. ……이와같이 역행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로 그들이 美國의 支持와 宗용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25)

"미국등의 국가들이 제출한 소위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은 ……실제적으로 도리어 UN기치하에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要点으로 되어 있으며,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合法化하여 「두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것도 이런 계획의 一部다. ……남조선 통치집단은 미국의 宗용과 지지하에 발광적으로 민족분열정책을 추진하면서……" 26)

韓·美間의 協助를 먼저 破壞시키는 것이 對南戰略目標達成의 捷

註 24) 朴奉植: "韓國觀", P.268

25) 「人民日報」, 1974.12.1

26) 「人民日報」, 1975.1.23

徑이라고 여기고 있는北韓은 끈질기게 韓·美關係를 헐뜯으면서 韓·美離間을 多角的으로 試圖해 왔었다. 中共도 역시 美國과의 直接的인 關係가 없을 때에는 北韓의 이러한 立場을 적어도 名分上으로는 充分히 그리고 全面的으로 支持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中·美關係를 軍事的 協助關係로 까지 發展시켜야만 對蘇 安保 속에서 四個現代化를 推進할 수 있게 되리라고 判斷이 되자 中共은 駐韓美軍問題 그 自体와 그로 因해 惹起되었다고 비난하던 몇가지 派生的 問題에 對한 非難의 銳鋒을 서서히 무디게 하기 시작했다. 前引한 華國鋒의 演說에서도 韓·美間의 關係에 對한 言及이 없지만 1978年 北韓政權樹立 30周年 記念式에 參席한 鄧小平이 咸興市 群衆集會에서 한 演說을 보면 中共의 韓·美關係에 對한 立場의 變化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개 朝鮮을 조작하여 朝鮮의 分열을 영구화 하려는 그 어떤 책동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이다." 27)

鄧小平은 美軍問題는 拳論하지도 않은 채 「두개 朝鮮 조작」문제에서도 그 主役을 밝히지 않고 있다. 鄧小平의 이러한 發言은 두 가지의 理由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韓·美關係에 對한 直接的인 攻擊이 中·美關係強化에 何等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直接 攻擊하지 않음으로써 韓國과 美國의 神經

註 27) 「로동신문」, 1978.9.12

을 刺戟하지 않겠다는 立場의 表出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하게라도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비난하여야만 北韓 威信을 세워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焦點을 흐렸다는 것이다. 들쭉는 韓·蘇接近을 은연중에 의식하고 한 謠言이라는 것이다. 中共은 이미 1974年 11月 "소련 수정주의자들과 남조선당국의 결탁행위는 반드시 폭로되고야 말 것이다."라는 신화사 통신원의 論評을 통해 韓·蘇接近可能性에 對하여 神經質的인 反應을 보인 바 있다. 즉 韓國人에 對한 소련입국 Visa 發給事實과 韓·蘇貿易商談說, 韓·蘇間의 學術資料交換 事實등을 이유로 소련이 「2개의 조선 조작음모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었다. 28)

이러한 對北韓支持度の 變化는 韓國에 對한 中共의 立場變化로 — 即刻的이거나 正確히 反比例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 나타났다. 例컨대 1974年 9月과 1975年 3月에는 各各 韓國과 郵便 및 電信 關係를 開設했고, 1976年 6月에는 領海를 侵犯했다 하여 拿捕한 韓國漁船二隻과 船員들을 2週日만에 歸還시키기도 했다. 또한 中共의 人民日報는: 1976年 6月 25日字 社說과 8月 15日字 社說에서 韓半島의 分斷을 終結시키는 길은 1975年 第30次 유엔總會에서 通過된 이른바 「유엔軍司令部解体決議案」을 實行하는 것이라고 主張했으나, 막상 1976年 第31次 유엔總會가 열리자 中共은 上記

註 28) 「人民日報」, 1974.11.10

決議案에 대하여 言及조차 하지 않았다. 29) 또한 1978年末을 期하여 美國籍 韓國人牧師에게 中共入國查證을 發給했는가 하면 在 中共 韓人僑胞의 韓國歸還을 許容하기도 했다. 30)

以上에서 우리는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이 對美接近을 主要變數로 하여 變化해왔음을 보았다. 現在 狀態로 보아서는 中共이 基本的으로 한반도의 現狀維持를 繼續 追求할 것이며 따라서 北韓의 對南武力挑發을 鼓舞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31)

그러나 中共이 한반도의 現狀維持를 繼續 追求할 경우 그것이 반드시 韓國의 安保에 有益하기만 할 것인가는 慎重한 檢討를 要하는 問題다. 60年代 後半 越南戰에 對한 支援問題를 둘러싸고 中共은 겉으로는 越盟을 支持하면서도 實際로는 極히 制限된 援助를 하면서 美國과 間接的인 協商을 벌리고 있었다. 越盟은 結局 中共의 兩面的 態度에 不滿을 품고 親蘇一邊倒로 轉廻하고 말았던 것이다. 中共이 越南에서의 先例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努力하는 흔적은 보이지만 中共의 外交的 力量에도 限界가 없을 수 없는 바 展望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32)

註 29) 柳世熙 : "駐韓美軍撤収에 따른 中共의 對韓半島政策展望", 漢陽大中國問題研究所刊, 「中國問題」, 第3卷, 第2号 (1978.9), P.174

30) 朴奉植 : "韓國觀", P.269

31) 柳世熙 : op.cit., P.168

32) 鄭鍾旭 : "外交政策", PP.58-59

第五章 結 論

Franz Schurmann은 中国人들을 다음과 같이 評한 바 있다.

"中国人들은 러시아인들과는 달리, 마치 植物이 環境에 適應해 가듯 徐徐히 그리고 自然스럽게 그들의 理論을 發展시켜 나가기를 좋아한다." 1)

毛沢東의 國際政治思想의 展開와 中共의 對外政策理論의 變遷過程을 回顧해 보면, Schurmann의 이러한 表現은 매우 適切한 表現이었음을 実感하게 된다. 中共은 마치 아메바가 먹이있는 쪽을 向하여 伸縮自在하게 自身の 体形을 바꾸어 가면서 먹이를 求하듯이, 國際環境이 變化해가는 데 따라 서두름이 없이 - 그러나 결코 늦지 않게 - 對外政策的 目標을 바꾸고 이를 正当化시킬 수 있는 理論을 展開하면서 꾸준히 自國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켜 왔다.

그러나 伸縮自在할 수 있었던 것은, 對外政策의 決定과 執行이 無作為的으로 이루어졌거나 對外政策의 窮極目標가 流動的으로 設定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正反對로 國際政治를 認識하고 分析하는데 있어 一貫된 法則이 너무나 뚜렷했고, 窮極目標 또한 分明하게 設定되어 있었기 때문에 伸縮自在하게 戰術的으로 環境에 適應하기도 하고 政策目標도 追求할 수 있었던 것이다.

註1) Schurmann, The Logic of World Power, P.355

中共은 政權樹立以後 現今에 이르기까지, 毛沢東에서 鄧小平에 이르기까지, 兩大陣營論에서 三世界論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矛盾의 法則에 立脚하여 國際關係를 認識・分析하면서 그때그때의 狀況에서 敵과 同志를 가려낸 다음 敵을 孤立, 打敗시킬 수 있는 政策을 構想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關係를 理論化하기 까지 했다. 즉 中共은 國際關係自体를 矛盾關係로 前提한 다음 그속에서 恒常 主要 矛盾과 次要矛盾을 가려내고, 矛盾方面사이의 同一性和 鬭爭性的 相互關係를 分析하므로써 對抗性的 矛盾과 非對抗性的 矛盾으로 分類하는 作業을 繼續하여 왔다. 矛盾의 法則에 따라 分類된 非對抗性的 矛盾(同志 또는 聯合possible한 力量)과는 必要時 果敢하게 聯合하여 對抗性的 矛盾(敵)에 對抗할 수 있는 力量의 極大化를 期해왔다. 한마디로 中共은 1940年 12月 25日 毛沢東이 發表한 바 있는 「論政策」에서의 聯合戰線戰略에 따라 矛盾關係를 最大限 活用하는 基本立場을 결코 버리지 않은 채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敵과 同志사이의 矛盾을 最大限 活用한다는 大前提에서 樹立된 政策을 運用하는 過程에서 中共의 指導者들은 크게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革命的 樂觀主義者였기 때문이다. 革命的 樂觀主義는

原来 마르크스에서부터 由來한 것이지만, 2) 中共의 境遇에는 陰陽論의 四象概念과 結合하므로써 더욱 強한 信念으로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矛盾의 法則에 立脚하여 樹立된 政策을 革命的 樂觀主義로 粉飾하면서 實踐해 나가는데 있어 中共의 指導者들을 拘束하는 唯一한 것은 中華思想이라는 伝統에서 緣由한 「中國의 正當한 地位」 恢復에 對한 熱望이었다. 潛在的인 敵對勢力과도 果敢하게 聯合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中國의 正當한 地位」 恢復이라는 對外政策의 窮極目標였다고 할 수 있다. 즉 目的을 爲해서 手段을 가리지 않는다는 共產主義的 道德觀이 行動으로 表現된 것이다. 現代化를 爲해서는 "美國·日本·西歐로부터 先進된 것은 무엇이든지 吸收하고 배우겠다"고 3) 한 鄧小平의 말을 謙虛한 姿勢의 表現으로서가 아니라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執念의 表出로 보아야 함은 中共의 對外政策의 底邊을 흐르고 있는 「中華의 榮光 再現」이라는 民族主義的 因素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中共은 아직 「不滿足의 國家」라고 할 수 있다.

註 2) 마르크스는 生産力과 生産關係 사이의 矛盾이 極大化되어 階級對立이 尖銳化할 수록 부르조아는 보다 反動的인 政策으로 프로레타리아를 抑壓하려 하지만, 그것은 結果적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삽질을 더욱 強하게 하는 行爲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主張하므로써 歷史發展段階說에 立脚하여 社會主義革命의 必然的 勝利를 理論적으로 說得하려 했었다.

3) 「人民日報」, 1979.1.6. "鄧小平副總理美國記者會見記"

70年代以來 國際的으로 政治的 地位는 向上되었으나 強大國으로서
는 그 經濟力이 너무 貧弱한 實情이며,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다
하나 2次攻擊能力의 未備로 2級의 軍事國에 머물러 있을 뿐이어서
安保上 根本的인 脆弱點을 안고 있다. 따라서 國際社會에의
參與가 增大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것에
不過하고 相互依存이 不可避한 現代國際社會의 本質이 中共을 永遠
히 現在의 等級에 머물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國際協力」 「國際的 分業」을 反對하고 「自力更生」을 高唱한
1974年 4月 11日 유엔 特別總會에서의 鄧小平演說이 中共의 이러한
不安을 雄辯해 주고 있는 것이다.

向上의 欲求와 挫折의 不安이 交叉하고 있는 가운데 對蘇安保와
現代化를 위해 中共은 美國·日本과 緊密한 關係를 維持해가고 있
다. 現在로서는 安保와 現代化라는 두가지 目標가 不可分離의 關
係를 가지고 中共의 指導者들을 壓迫하고 있기 때문에 對蘇關係에서
서는 現狀維持를 希望할 것이며 美·中·日의 協力도 持續하려 할
것이다. 中·蘇間의 緊張高潮가 결코 現代化에 有利하지 않을 것
이며, 美·中·日 協力關係의 破壞는 現代化의 中途下車를 意味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代化計劃이 完成될 때까지는 中共이 現狀維持
 勢力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展望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影響力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努力
 하겠지만, 그 努力은 아시아에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美·蘇·日
 의 牽制를 받지 않을 수 없고, 특히 日本의 強한 反撥을 招來할

것이다. 왜냐하면 美·蘇·日中 日本만이 아시아國家일 뿐만 아니라, 日本 또한, 過去의 「大東亞共榮論」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의 主人이 되겠다는 欲求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類似하면서도 類似하기 때문에 兩立이 不可能한 國際秩序觀을 가진 中共과 日本의 和解는 이런 点에서 展望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中共이 美·蘇의 和解를 「虛構」라고 非難한 적이 있지만 中共과 日本과의 和解도 其實 虛構에 不過한 것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中國의 傳統的인 外交政策의 脈絡에서 보더라도 日本과의 「和親」은 「以夷制夷」에는 合當하였지만 「遠交近攻」과는 當初부터 背馳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美·蘇가 世界의 復權을 놓고 角逐을 벌인다면 日本과 中共은 아시아의 盟主의 地位를 놓고 이미 戰鬥을 始作했는지도 모른다. 아시아 國家로서의 中共의 對外政策基調가 「抗日·親蘇」에서 「親日·抗蘇」로 바뀌었지만, 다시 「親蘇」로 바뀔 展望은 거의 없는 形便이고 보면 中共으로서는 現在의 狀態에서 滿足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對外政策의 窮極的 目標自体를 修正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親蘇」도 어렵지만 「抗日·抗蘇」 또한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中共은 그들의 國際秩序觀 그 自体의 修正을 強要당하는 時代로 向해 가고 있는 것이다.

参 考 文 献

1. 一次資料

가. 東 書

(選集類)

- 「毛沢東選集」, 第一卷~第四卷(北京:人民出版社, 1969)
—————, 第五卷(北京, 人民出版社, 1977)
- 「毛沢東思想萬歲」, 第一輯~第四輯(台北:國際問題研究所,
1974)

(定期刊行物)

- 「人民日報」
- 「解放軍報」
- 「紅旗」
- 「人民手冊」, 1957(天津:大公報社, 1958)
- 「國際資料」(北京:新華通訊社), 1974.1.22
- 「大公報」(香港:大公報社), 1973.1.25
- 「로동신문」(평양:로동신문사), 1978.5.8, 1978.9.12
- 「文匯報」(香港:文匯報社), 1971.7.25, 1971.7.26
- 「外事紅旗」(北京:外事紅旗社), 1967.6.14
- 「祖国」, 66号(香港: 1969.9.1)

(資料集)

- 「共產圏의 統韓關係文獻集」第一輯 (서울: 国土統一院, 1972)
- 「新中国資料集成」 第3卷~第4卷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72)
- 「中共機密文件彙編」(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78)
- 「中·ソ論争主要文獻集」(東京: 日刊勞動評論社, 1966)
-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文件集」 第1輯~第2輯,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59)

4. 洋書

- (Books) Chairman Mao Tse-tung's Important Talks with Guests from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0)
- Chung, Chester J. (ed.), The Politics of the Chinese Red Arm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6)
- Johnston D.M. and H. Chiu (eds.), Agree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7-1967: Calend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68).
- Kuo, Warren (ed.), Foreign Policy Speeches by Chinese Communist Leaders, 1963-1976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76)

Malraux, André, Anti-Mémories, translated by Terence Kilmartin

(New York: Holt, Rinebert & Winston, 1968).

Peaceful Coexistence : Two Diametrically Opposed Policies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3)

(Periodicals)

Chinese Law and Government, Vol. II, No.4 (Winter/1971).

_____, Vol. VI, No.1 (Spring/1973).

_____, Vol. VI, No.2 (Summer/1973).

Peking Review, 1958, No. 26

Peking Review, 1963, No. 41, No. 51

_____, 1964, No. 5

_____, 1966, No. 10, No. 15

_____, 1967, No. 46

_____, 1968, No.36, No.40, No.41, No.48

_____, 1969, No.18

_____, 1973, No. 35-36.

Newsweek, 1980.6. 9.

New York Times, 1964. 2. 21

Soviet News, 1964. 9. 2.

Sunday Times, London, 1964. 1.22, 1971. 12.19.

2. 二・三次 資料

가. 單行本

(東 書)

顧念先, 「縱橫家研究」(台北: 中国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69)

郭華倫, 「中共史論」, 第一冊~第四冊(台北: 國際關係研究所,
1969.- 1973)

具本泰・朴鏞德, 「中・蘇의 对北傀支援에 關한 研究」(서울:
国土統一院, 1978)

国土統一院編, 「中共總覽」, (서울: 国土統一院, 1973)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全書」, 下(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極東問題研究所訊, 「共產主義本質批判」(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5)

金甲喆, 「北韓政治 이데올로기 分析: 主体思想을 中心으로」
(서울: 書香閣, 1977)

金相浹, 「毛沢東思想」(서울: 知文閣, 1967)

金河龍, 「中国文化革命研究」(서울: 高麗大出版部, 1975)

金河龍訳(Horold C. Hinton 著), 「中英과 世界政治」(서울:
語文閣, 1967)

民族問題研究会編, 「朝鮮戰爭史」(東京: ヌリフ 評論社, 1967)

朴奉植, 「中共의 对外政策研究」(1975: 서울대학교 未發刊
博士学位論文)

福本和夫, 「毛沢東思想の原点」(東京: 三一書房, 1973)

- 薩孟武，「中国政治思想通史」（台北：三民書局，1969）
- 三浦つとむ，「毛沢東主義」（東京：勁草書房，1976）
- 森下修一編訳，「周恩来：中国の对外政策」（東京：中国經濟新聞社，
1973）
- 梁好民・禹勝勇訳（John K. Fairbank 著），「現代中国の展開」（서울：東西文化社，1972）
- 尹慶耀，「從馬克思：列寧到毛沢東思想探源」（台北：國際關係研究所，
1973）
- ，「中共外交与对外關係」（台北：國際關係研究所，1973）
- 李用熙，「政治와 政治思想」（서울：一潮閣，1960）
- 日本國際問題研究所編，「中国大躍進の展開：資料と解説」，上卷（東京
：國際問題研究所，1973）
- 鄭文光，席沢宗，「中国歴史上的 宇宙理論」（北京：人民出版社，
1975）
- 鄭鍾旭，「中共의 最近对韓半島政策」（서울：外交安保研究院，1978）
- 車基壁訳（Carlton Hayes 著），「民族主義」（서울：文明社，1972）
- 波多野善大，「中国近代軍閥の研究」（東京：河出書房，1973）
- 坂本直道，「中蘇国境紛争の背景」（東京：鹿島研究所出版会，1970）
- 湖南省哲学社会科学學術聯合会・湖北省哲学社会科学會聯合会共編，「王
般山學術討論集」（上）（北京：中華書局，1965）

洋書)

Ahn, Byung-joon,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Barnett, A. Doak,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New York: Praeger, 1963).

_____, A New U.S. Policy toward China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1).

_____,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4).

_____, China Policy: Old Problems and New Challenge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7).

_____,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77).

Beloff, Max,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5-195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Brezhezinski, Z.K., The Soviet Bloc: Unity and Conflict (New York: Praeger, 1967).

Ch'en, Jack, Inside th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MacMillan, 1975).

Ch'en, Jerome (ed.), Mao: Great Lives Observed (Englwood Cliffs: Prentice Hall, 1969).

Ch'en, King C. (ed.), China and the Three Worlds (White Plains: M.E. Sharpe, 1979).

Ch'en, Po-ta, Salin and the Chinese Revolution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53).

Ch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5-19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Chon, Ching-wen, Ten Years of Storm: 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the Chin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Cline, Ray, S., World Power Assessment, 1977; A Calculus of Strategic Drift (Boulder: West Vren Press, 1977).

Cohen, Arthur A., The Communism of Mao Tse-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Congressional Record, Vol. 97. Appt. pt. 14, "A. Harriman's Statement to Senate Committee on Armed Forces and Foreign Relations" (13 July, 1951).

Crankshaw, Edward, Khrushchev Remembers (Boston: Little Brown, 1970).

Doolin, Dennis J. Territorial Claims in the Sino-Sovie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Floyd, David, Mao Against Khrushchev: A Short History of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 Praeger, 1964).

Franke, Wolfgang, A Century of Chinese Revolution: 1851-1949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70).

- Gittings, John, Survey of the Sino-Soviet Dispu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 _____,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 Green, Fred, U.S. Policy and the Security of Asia (New York: McGraw Hill, 1968).
- Griffith, William E., The Sino-Soviet Rift (Cambridge: M.I.T. Press, 1964).
- Halpern, A.M. (ed.), Politics towards China: Views from Six Continents (New York: MacGraw Hill, 1956).
- Harrison, Selig, China, Oil and Asia: Conflict Ahea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 Hermann, Charles F. (ed.), International Crisis: Insights from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1972).
- Hoxha, Enver, Imperialism and the Revolution (Chicago: Central Organization of U.S. Marxist-Lenists, 1979).
- Hsiung, James C. Law and Policy in China's Foreign Relations: A Study of Attitudes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 Hudson, G.F. et al., The Sino-Soviet Dispute (London: The China Quarterly, 1961).
-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 Reassessment of the Economy, 10 July 1975.

- Kaplan, Abraham, The Conduct of Inquiry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1964).
- Kau, Michael Y.M., The Lin Piao Affair (White Plains;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1975).
- Kim, Samuel S., China, the United Nations and World Or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Kulski, W.W., Peaceful Coexistence: An Analysis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Henry Regnery Co., 1959).
- Lewis, John W.,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 Lemin, V.I., Collected Works, Vol. 20, Vol.26.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4).
- MacFarquar, Roderichk et al., Sino-American Relations, 1949-1971 (New York: Praeger, 1972).
- Marx, Karl. A Contribution to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2).
- Moarsteen, Richard and Morton Abramowitz, Remaking China Policy: U.S. - China Relations and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ichardson, William (ed.), China Today (Maryknoll: Maryknoll Publishing Co., 1969).

Rice, Edward E., Mao's Wa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Robinson, Thomas W., Peking's Revolutionary Strategy in the Developing World: The Failures of Succes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p-4169, August, 1969).

_____ (ed.),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Rosenau, James N. (ed.), Linkage Politics: Essays on the Converg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s (New York: Free Press, 1967).

Rubinstein, Alvin Z. (ed.), The Foreign Polic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72).

_____ (ed.), Soviet and Chinese Influence in the Third World (New York: Praeger, 1975).

Salisbury, Harrison E., To Peking and Beyond: A Report on the New Asia (Quadrangle, 1973).

Scalapino, Robert A.,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 Goal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9).

Schram, Stuart,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Talk and Letters, 1956-1971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_____, Mao Tse-tung : Unrehearse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4).

_____,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Praeger, 1974).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_____, The Logic of World Power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Selitz, C. et al.,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s (New York:
Molt, Rinehart and Winston, 1959).

Snow, Edgar,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Grove Press, 1961).

_____, Red China Today (New York: Vintage Books, 1971).

_____, China's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Stalin, J.V., J.V. Stalin Works, Vol. 4, Vol. 5 (Moscow: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53).

_____, The Foundations of Leninism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5).

Terrill, Ross, 800,000,000, The Real China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5).

Taborskg, Edward, Communist Penetration of the Third World
(New York: Robert Speller and Sons, 1973).

Ulam, Adam, B., Expansion and Coexistence: The History of
Soviet Foreign Policy (New York: Praeger, 1968).

U.S. Department of the State,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of 1944-1945
(U.S.G.P.O., 1949).

U.S. Department of the State,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U.S.G.P.O., 1950).

_____,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Problem (U.S.G.P.O., 1953).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at Malta and Yalta, 1945 (U.S. Govern-
ment Printing Office, 1955).

Van Ginnekan, Jaap, The Rise and Fall of Lin Piao (London:
Penguin Books, 1976).

Van Ness, Peter,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Peking's
Support for Wars of National Lib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Van Slike L. P. (ed.),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A Report
of the United War Department, July, 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8).

Wales, Nyn, Inside Red China (New York: Praeger, 1939).

Whit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New York: MacMillan, 1960).

_____, The Chinese Calculus of Deference: India
and Indochin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5).

Yahuda, Michael B., China's Role in World Affair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Zagoria, Donald S.,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나. 論 文

(韓 · 中 · 日 本)

朴奉植, "中共의 韓國觀研究", 「서울大國際問題研究所論文集」,
第六号 (1980)

레 닌, "民族 및 植民地問題에 관한 테제", 「레닌선집」, 下
(평양 : 동방사, 1965)

史 諾, "毛沢東會見記", 「毛沢東自伝」(香港 : 馬崑傑文化公司,
n.d.)

梁好民, "북한에 대한 中共의 思想的 理論的 影響", 「中大論文
集」第 19 輯 (1974)

列 寧, "無產階級革命的軍事綱領", 「列寧文選」, 第一卷 (莫斯科 :
外國文出版書局, 1949)

——, "第三國際及其在歷史上的地位", 「列寧文選」, 第二卷 (莫斯
科 : 外國文出版書局, 1950)

——, "莫斯科征收黨員周的總結和我們的任務", 「列寧全集」第三十
卷 (北京 : 人民出版社, 1957)

柳世熙, "駐韓美軍撤収에 따른 中共의 對韓半島政策展望", 한양대
中國問題研究所刊「中國問題」, 第 3 卷, 第 2 号 (1978.9)

丁世鉉, "毛沢東批判序說", 「北韓과 共產戰略」(서울 : 自由아카데
미, 1976)

——, "印度支那의 人民戰線 · 戰略과 北韓의 對南戰略比較研究"
「서울大國際問題研究所論文集」第 3 号 (1976)

- 丁世鉉，" 1920年代 蘇聯의 中國政策과 第一次國共合作 "，「北方研究論叢」，第二卷，第一號（1976.12）
- _____，" 北韓과 中共의 群眾路線比較研究 "，「自由아카데미 研究論叢」，第一輯（1977.10）
- _____，" 共產主義戰略·戰術 "，「比較共產主義」（서울：自由아카데미，1978）
- _____，" 中共의 國際秩序觀研究：「三世界論」의 形成과 展開過程을 中心으로 "，「統一政策」，第5卷，第一號（1979.4）
- _____，" 中共의 四個現代化計劃評價 "，（國土統一院報告書，1979.5.15）
- 鄭鍾旭，" 中共의 對外政策과 한반도 "，「社會科學과 政策研究」第一卷，第2號（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1979.9）
- _____，" 資源과 開發問題 - 中共의 石油問題를 中心으로 " 「서울大國際問題研究所論文集」，第2號（1980）
- 朱 良，" 中共進兵越南的內因和目的的探討 "，「中共研究」，第十三卷第三期（1979.3.15）
- 中村賢二，" 統一戰線史論 "，勞動運動史研究会編，「統一戰線の歴史」（東京：勞動旬報社，1968）
- 陳定中，" 共匪的 總路線，大躍進，人民公社運動，" 張敬文編，「共匪政治問題論集」（台北：國際關係研究所，1975）
- 崔 明，" 中共의 外交政策과 그形成要因，" 「社會科學과 政策研究」第1卷，第2號（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1979.9）

英文)

Briggs, Asa. "Popular Front," C.D. Kernig (ed.),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Vol. 6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3).

Charles, David, A., "The Dismissal of Marshal P'eng Teh-huai," China Quarterly, No. 8 (Oct. 1 Dec. 1961).

Gelman, Harry, "Sino-Soviet Conflict; A Survey," Franz Schurmann and Orville Schell (eds.), Communist China (New York: Vintage Books, 1967).

Gittings, John, "The Great-Power Triangle and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Quarterly, Vol. 39 (Jul. / Sep., 1969).

Griffiths, Franklyn, ""Origins of Peaceful Coexistence: A Historical Note," Walter Z. Laquer and Leopold Lebedz (eds.) The State of Soviet Studies (Mass: M.I.T. Press, 1965).

Halpern, A.M., "China's Foreign Policy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R. MacFarquhar (ed.), Sino-American Relations, 1941-1971 (New York: Praeger, 1972).

Johnson, Chalmers, "The New Thrust in China's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Fall, 1978.

Kissinger, Henry, A., "Domestic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Daedalus, XCV (Spring/1966).

Kringen, John A. and Chan, Steven, "Chinese Crisis Perception and Behavior; A Summary Findings," (Paper Delivered at the

-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on Contemporary China,
Workshop on Chinese Foreign Policy, Ann Arbor, Michigan,
August 12-14, 1976).
- Lee III, Rensselaer W., "The Hsia Fang Systems: Marxism and
Modernization," China Quarterly, No. 28 (Oct. / Dec. 1966).
- Levenson, Joseph R., "Communist China in Time and Space: Roots
and Rootlessness," China Quarterly, No. 39 (Jul./Sep. 1969).
- Louise-Näth, Marie, "PRC Policies toward South and South East
Asia," Current Scene, Vol. 13, No.7-8 (Jun-Jul/1975).
- Lowenthal, Richard, "Soviet and Chinese Communist World Views,"
Donald W. Treadgold (ed.), Soviet and Chinese Communism:
Similarities and Defferenc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7).
- Nunro, Donald J., "The Malleability of Man in Chinese Marxism,"
China Quarterly, No. 48, (Oct./Dec. 1971).
- Oksenberg, Michael, "Policy Making under Mao, 1949-1968: An
Overview," John M. Lindbeck (ed.), China: Management of a
Revolutionary Socie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1).
- Sharp, Samuel L, "New Democracy: A Soviet Interpretation,"
American Perspective, Vol. 6 (Nov. 1947).

- Simmonds, J.D., "P'eng Teh-huai: A Chronology Re-examination,"
China Quarterly, No. 37 (Jan./Mar. 1969).
- Snow, Edgar, "Interview with Mao," The New Republic (Feb. 27,
1965).
- Stalin, "Don't Forget the East," J.V. Stalin Works Vol.4 (Moscow: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53).
- _____, "Report National Factors in Party and State Affairs,"
ibid.
- Steiner, H. Arthur, "On the Record with Mao and His Regime,"
Journal of Asian Studies, No.19 (Feb. 1958).
- Strong, Anna Louise, "A World's Eye View from a Yen-an Cave,"
Amerasia, 11(Apr. 1949).
- Van Ness, Peter, "China and the Third World," Current History
Vol. 63, No. 397 (Sep./1974).
- Whitting, Allen S., "The Use of Force in Foreign Policy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2 (Jul. / 1972).
- Zagoria, Donald, S., "The Strategic Debate in Peking," Tang
Tsou(ed.), China in Crisis, Vol.2 : China's Policies in Asia
and America's Alterna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